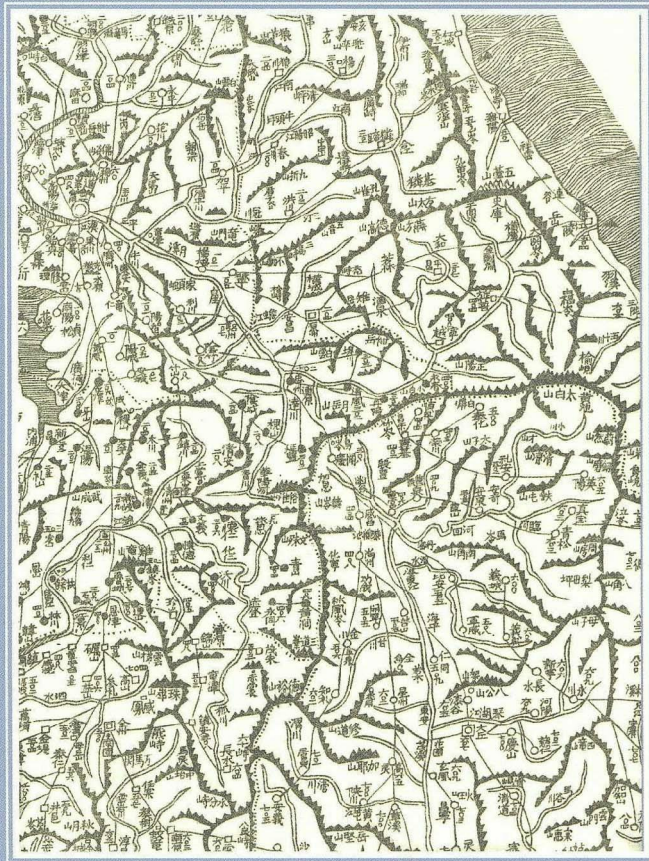


2007年

# 京畿鄉土史學

제12집



# 京畿鄉土史學

第 12 輯

文化院京畿道支會

# 발 간 사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지역은 한민족이라는 어원의 발상지로서 무수한 민족문화유산이 산재하여 있었으나, 수도를 안고 있어서 외침이 있을 때마다 격전지가 되어 많은 문화유적이 소실되었습니다.

진한의 수도가 광주시 경안읍이었고, 한성백제의 수도 위례성이 하남시 춘궁동 또는 송파구 일대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도 경기지역이며, 조선의 수도 한양도 경기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삼한시대부터 찬란한 한민족 문화를 꽃 피워온 민족의 자부심이 바로 경기지역에서부터 뿌리내린 근거가 되는 것이며, 역사의 중심이 경기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찬란한 민족문화가 담긴 경기지역의 향토사를 하나하나 발굴, 조사, 연구하고 총 정리하여 지역 향토사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고자 경기도지회 부설 경기향토문화연구소를 설립하여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져 12집의 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지역 내의 각 시군에 산재한 향토사와 구비문화 속에 전해오는 문화유적을 추적하여 발굴, 조사하여 집대성하는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며, 「경기향토사학」이 경기향토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논문집 발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신일균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발간사에 대신합니다.

2007년 12월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남선우

## 목 차

1. 顯節祠와 三學士 / 박광운 ..... 7
2. 연구지리지에 나타난 양주 건치 연혁 고찰 / 홍정덕 ..... 19
3. 서삼릉  
-능역의 능묘와 태실 등에 대한 고찰- / 김득환 ..... 41
4. 경기지역 민요가창자 연구  
-경기 남부지역 이희원과 경기 북부지역 황상복을 중심으로- / 최자운 ..... 117
5. 성남지역 교통과 통신연구 / 한동억 ..... 135
6. 해월 최시형의 생명사상 / 조성문 ..... 185
7. 안양 날뫼농악 小考 / 박준호 ..... 199
8. 浦口에서 港口로의 變化過程 考察  
-蔚珍郡 竹邊灣의 文化變容 事例를 中心으로- / 이태호 ..... 211

# 顯節祠와 三學士

박광운

廣州鄉土文化研究所長

## 목 차

1. 머리말
2. 丙子胡亂의 발발과 南漢山城
3. 斥和派와 主和派 그리고 三學士
4. 顯節祠의 설립 과정
5. 맺음말

## 1. 머리말

顯節祠는 廣州의 南漢山城안에 있는 祠宇이다. 처음에는 三臣祠라고 하여 지금의 위치가 아닌 開運寺 밑에 자그마하게 지어져 있던 것을 조선 肅宗 대에 현재의 위치로 移建하여 顯節祠 라는 賜額을 내려 현재에 이르고 있다.

朝鮮은 건국 후 朱子學과 性理學을 통치이념으로 삼았고, 문화정책의 핵심은 주자학 이념의 생활화에 두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官과 民이 각각 다른 제도와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官街에서는 서울에 文廟를 成均館에 두었고, 지방 邑治에는 鄉校를 건립하여 孔子를 비롯한 先賢들을 崇拜하도록 하였으며, 明倫堂을 세워 經典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민간 차원에서는 士大夫나 소위 양반가에는 朱子家禮에 근거하여 4대의 조상 位牌를 모시기 위하여 祠堂을 건립하고, 冠婚喪祭의 4례를 모두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다. 조선 중기에 祠宇와 書院이 수많이 건립되었고, 조선 후기 숙종 때에는 166개의 서원과 174개의 祠宇가 설립되었다. 書院은 인물 숭배 儀禮場所와 함께 선비와 유생들의 교육기관이었고, 인물숭배는 조선시대 문화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祠宇는 朱子學의 理念대로 인물의 숭배를 위한 의례의 장소라는 점에서 書院과는 차이가 있다.

顯節祠는 三學士의 位牌를 모시고 숭배하는데, 1688년 현질사 건립 이후 春秋로 祭享을 거행하여온 祠宇로서 본고에서는 顯節祠의 설립 배경과 이곳에 모셔져있는 다섯 분의 행적을 더듬어 그분들의 충절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 2. 丙子胡亂의 발발과 南漢山城

조선의 仁祖는 光海君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즉 仁祖反正이라는 일종의 쿠데타에 의하여 왕위를 빼앗은 것이다. 光海君 때에 李爾瞻<sup>이이첨</sup>, 任士洪 등에게 밀려나 野에 묻혀 있던 西人들이 光海君의 暴政과 異腹 동생인 永昌大君의 蒸殺<sup>증살</sup>, 仁穆大妃의 逐出을 기화로 능양대군을 옹립하고 反正을 도모하여 光海君을 축출하고 왕위에 오른 것이다.

反正의 이유를 “光海君은 명나라와의 義理를 배반하고, 오랑캐인 滿洲의 後金과 거래하는 것은 만고에 있을 수 없는 秕政<sup>비정</sup>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光海君은 壬辰倭亂을 직접 겪은 경험이 있어서 전쟁의 쓰라린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신흥 오랑캐 後金の 누루하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만일 그들이 조선을 침범이라도 한다면, 당시 조선의 군사력으로는 막아낼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壬辰倭亂을 겪고 난지 불과 30여년 밖에 지나지 않아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를 복구하기에 급급한 처지여서 國力은 쇠약 할대로 쇠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나라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뒤로는 後金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는 등거리 외교를 하였던 것이다.

仁祖가 왕이 된 후 조선의 외교정책은 바뀌었다. 反正의 구실이 오랑캐와 교섭하지 않고 오직, 명나라만을 유일한 중국의 정권으로 인정하며, 壬辰倭亂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이었으므로 後金과의 관계는 惡化一路에 있었다. 한편 1624년(인조2)에는 論功行賞에 불만을 품은 李适 일당이 난을 일으켜 官軍과 엄청난 전투가 벌어져서 仁祖는 首都 漢陽을 버리고, 公州로 피란하는 朝鮮朝 初有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간신히 李适의 난을 평정하고 한

양으로 돌아온 仁祖는 後金의 집요한 관계정상화 요구를 거절하게 되니, 후금은 1627년(인조5)에 光海君의 王位를 찬탈한 원수를 갚겠다고 姜弘立을 앞세워 조선을 침범하였다. 仁祖는 江華島로 또다시 피신하였으며, 어쩔 수 없이 後金과 兄弟之國의 관계를 맺고 講和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丁卯胡亂이다.

이후 조선 조정은 해마다 후금에게 貢物을 바치게 되었고, 명나라는 계속하여 後金과의 전투가 있을 때마다 조선에 대하여 支援軍을 보내라고 요청하였다.

여기서 朝廷의 公論이 主和論과 斥和論으로 갈려 士論이 분열되기 시작하였다. 주화론자들은 정치는 현실이므로 後金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명나라와는 종전대로 관계를 유지하는 등거리 외교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性理學的 理念을 現實政治에 俱現하려는 열의에 불타 있는 당시의 朝廷臣僚들과 士林들은 向明排金을 주장하였고, 오히려 오랑캐에게 丁卯年에 당한 수모를 복수하여야 한다고 외쳤다. 당시 士林들의 價値觀으로서의 主和論者들을 매도하기에 충분한 이론과 원칙이 있었으므로 자연 주화론자들 보다는 斥和論者가 우세하여 정책적으로 朝廷의 확고한 信念은 斥和論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한편 明의 형편은 나라가 점점 쇠퇴하여갔고, 後金의 군사력은 날로 강해져서 명나라와의 소규모 전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후금의 누루하치가 죽고 그의 아들 홍타이지가 왕위를 계승하자, 더욱 오만하여 조선과 兄弟之國의 의를 君臣之義로 바꿀 것과 後金이라는 國號를 淸으로 바꾸고 皇帝가 되었으니, 皇帝의 칭호를 사용하며, 丁卯年에 맺은 貢物의 量을 10배로 늘릴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朝鮮 朝廷에서는 가당치 않은 요구라고 하면서 使臣으로 온 淸의 龍骨大를 참수하라는 上疏가 斥和派 臣僚들에게서 빗발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조정은 淸의 침략에 대비하여 北方 각지의 城들을 보수하고 군사를 집결시키며 대비하였다. 1636년(인조14) 12월 청나라 10만 대군은 遊牧民다운 기동력으로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大路로 速戰速決을 원칙으로 하여 조선을 侵攻하였다. 그들에게는 보급이 필요 없었다. 말안장에 말린 말고기를 싣고 말 짚을 짜서 마시며 쉬지 않고 달려 그들의 先鋒隊는 烽火의 전달 시간과 거의 같은 속도로 서울에 육박하였다.

仁祖는 허둥지둥 江華에 妃嬪<sup>비빈</sup>들과 王子들을 먼저 피란시키고, 뒤 따라 가려고 하였으나 이미 淸軍의 先鋒이 서울에 육박하였으므로 할 수 없이 南漢山城으로 臣僚들을 이끌고 入城하게 되었다. 그러나 淸 太宗은 직접 송파 三田渡에 지휘소를 차려놓고 10만 대군으로

南漢山城을 포위하고 압박하였다.

仁祖는 남한산성에서 12,000여 군사로 40여일을 버티고 抗戰하다가 강화도가 청군에게 함락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한정된 식량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청 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니 이른바 丁丑下城이다.

丙子年 12월에 시작된 전쟁은 다음해인 丁丑年 1월 말에 끝난 것이다.

### 3. 斥和派와 主和派 그리고 三學士

南漢山城에서 主和派들에 의하여 청나라와 和議를 이루려고 하자 斥和派의 首長격인 禮曹判書 金尙憲은 목을 매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吏曹參判 鄭蘊은 割腹하였으나 죽지 못하였다. 청나라는 그동안 척화를 주장한 신료들을 모조리 잡아 보내라고 하였으며, 領議政 金瑬, 吏曹判書 崔鳴吉 등 주화파에서는 斥和臣들의 명단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sup>1)</sup>

禮曹判書	金尙憲
吏曹參判	鄭 蘊
前 大司諫	尹 滉
大司諫	金壽賢
平壤庶尹	洪翼漢
弘文館校理	尹 集
弘文館校理	鄭雷卿
弘文館副校理	吳達濟
弘文館修撰	金益熙
弘文館副修撰	金壽益
弘文館副校理	李行佑
侍講院設書	洪 瑑

1) 『丙子錄』 羅萬甲『南漢日記』石之珩『山城日記』



이외에도 斥和한 신하들이 많이 있었으나, 金瑬와 崔鳴吉등 主和派들을 逆臣으로 몰아가면서 決死抗戰을 주장한 신료 12명을 추린 명단을 작성하여 이들을 모두 淸軍 진영으로 押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仁祖는 최후 항복조건에서 그동안 斥和하였던 臣下들을 押送하라는 조건은 수락 할 수 없다고 버티자, 청 태종은 洪翼漢 외에 2명만 더 잡아 보내라고 하였다. 洪翼漢은 龍骨大가 1636년(인조14) 봄 使臣으로 와서 청 태종을 皇帝라 칭하고, 君臣之義로 관계를 바꿀 것을 요구할 때에 그를 즉시 慘殺하라고 仁祖에게 상소하였던 사실을 淸軍 진영에서 잘 알고 있었으므로 청군이 철군하면서 평양에서 압송하기로 하였고, 2명을 더 보내야 할 처지인데, 尹集과 吳達濟가 자진하여 그들 진영으로 가겠다고 인조에게 상소하였다. 仁祖는 차마 보낼 수가 없었으나, 그것마저 거절하면 청 태종이 용납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만부득이 두 사람을 최명길에게 끌려 청군 진영에 보내었다.

尹集과 오달제는 30세 전후의 조선 조정의 엘리트 관료들이었다. 大科에 壯元及第하여 言官으로 활약하였고, 仁祖가 발탁한 英才들로서 항시 지근에서 보필하던 신하였다. 그들은 청군에 의하여 심양으로 압송되어 조선의 선비로서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끝끝내 節義를 지키다가 異域萬里 타국에서 오랑캐의 손에 殉節하고 말았다. 홍익한은 용골대가 사신으로 왔을 때 사헌부장령으로 있었는데, 稱帝의 참람함을 지적하고, 용골대를 참수하라 했으며 아울러 조선은 禮儀로 천하에 알려진 小 中華인데 북방 오랑캐가 형제의 의리도 부족하여 君臣의 의리를 강요하니, 마땅히 책임을 추궁하고 禮儀之國의 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12월에 청군이 침입하자 최명길은 “斥和하여 淸의 침략을 초래한 자는 홍익한이니 지금의 西北方을 막을 자는 홍익한 말고 누가 막겠는가?” 하면서 그를 缺員 중이던 平壤庶尹에 임명하여 死地로 보냈던 것이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자, 그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내 평소의 마음이다” 라고 하며,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와 가족들을 강화도로 피난시킨 후 자신은 힘겹게 바닷길로 20여일이 걸려 임지인 평양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군사들과 백성들을 격려하며 防禦에 힘썼으나 결국, 오랑캐 軍士에게 押送되게 되었다. 義州 땅에 이르러 林慶業 장군을 만났다. “살아서 大義를 지키고 죽어서 역사에 빛나는 것이 참된 장부의 길이다.” 라는 임경업의 칭송을 받으며 심양에 압송되었다. 그는 청 태종의 회유책을 제시 받았으나 끝내 당당한 목소리로 거절하며, 言語가 통할 수 없는 관계로 붓을 달라고 하여 말하기를, “臣下의 도리는 마땅히 忠과 孝를 다하는 것뿐이거늘, 위로 君親이 계시나 扶養保護하여 편케 해드리지 못하고 지금, 王世子와 大君이 모두 포로가 되어 잡혀왔으

며, 늙으신 어머니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니, 진실로 부질없는 上疏 한 장이 집안과 나라를 망치게 하였구나, 忠孝의 도리를 따져본다면 쓸어버린 듯 흔적조차 없으니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나의 죄는 죽어 마땅할 뿐 용서할 수 없겠다. 비록 만 번 誅戮<sup>주륙</sup>을 당하여도 마음에 기쁠 따름이요. 피를 북에 발라 그 혼이 하늘을 날아가 고국에 돌아간다면 통쾌하고 통쾌하리라. 이밖에 다시 할 말이 없다. 어서 죽여 나오”<sup>2)</sup> 라고 청 태종에게 글로 써서 주니, 화가 치민 청 태종은 刑官으로 하여금 끌고 나가 處刑하라고 하였다. 洪翼漢의 가족은 老母와 부인 그리고 두 아들과 두 딸이 있었다. 강화도가 오랑캐에게 함락되면서 홍익한의 부인이 잡혀 옥을 당할 지경에 이르자 큰 아들이 가로막아 서다가 오랑캐의 칼에 화를 당하였다. 이를 본 어머니는 바닷물에 뛰어들어 자결하였고, 며느리도 자결하였다. 차남은 그에 앞서 마니산에서 오랑캐를 만나 죽임을 당하고, 결국 노모와 어린 두 딸만 남게 되었다.

尹集은 1636년 봄에 弘文館校理로 있으면서 斥和疏를 올렸다. 최명길의 朝廷과 臺閣의 公論을 무시하고 和議를 도모하는 부당성을 지적하고, 臺諫을 소외시켜 놓고

仁祖와 獨對하여 和議를 주장하는 것을 통박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官職에서 물러나서 집에 있다가 소식을 듣고 걸어서 왕의 수레를 따라 南漢山城으로 들어갔다.

南漢山城 안에서 督戰御使<sup>독전이사</sup>로 활약한 尹集, 鄭雷卿, 吳達濟, 趙珩 등 젊은 신료들은 仁祖의 斥和政策을 믿고 있었다. 그들은 仁祖에게 進言하기를, “孤城의 위급한 시점에서 講和하지 않고는 적을 물리칠 수 없다고 하는데, 스스로 애걸하면 적은 더욱 경멸하여 和議는 마침내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한마음으로 싸워 지킬 수 있음을 보여 준 후에야 講和를 의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일치단결하여 싸우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야만 講和도 유리하게 할 수 있다며 비굴하게 애원해서는 상대가 경멸하게 되어 일방적인 굴욕만 당하게 되리라는 現實 認識이었다고 볼 수 있다. 尹集은 무조건 싸우자는 헛된 名分論者가 아니라 유리하게 강화하기 위해 高次元의 戰略을 구사하고 있었다.

김류와 최명길의 주도한 和議 교섭 중에 청으로부터 소위 國書라는 것이 왔다. 즉 하루 속히 성밖으로 나와 항복하고 斥和한 신하들을 잡아 보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仁祖의 답서를 최명길이 지어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본 윤집은 통탄하며 인조에게 아뢰기를, “이제 凶書가 오게 된 것은 모두 최명길의 죄입니다. 어제 그 答書를 보니 이는 講和가 아니라 완전한 降伏이었습니다. 臣下된 입장에서 차마 이런 글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했

2) 『三學士傳』 宋時烈

다. 三司의 대부분 신하들이 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성안의 다급한 상황에서 主和派의 주장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國論이 쏠려 몇 사람이 아무리 힘껏 맞서 싸워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청나라의 목적은 명나라를 공격하여 中原을 차지하려는 것이지 朝鮮은 아니었다. 명의 同盟國인 朝鮮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40여 일간 南漢山城을 포위한 채 공격도 못해 보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던 청 태종도 초조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의 버티기 작전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주화파들의 현실론에 밀리고 말았다.

吳達濟는 三學士 중 가장 나이가 어린 29세로 弘文館 修撰 직에 있었으며 최명길의 主和論을 맹렬히 비판하였다. 仁祖가 斥和論으로 政策을 굳힌 것을 무시하고 自意로 和議를 진행시키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仁祖는 최명길이 社稷에 功이 있는 重臣인데, 젓비린내 나는 젊은 아이가 함부로 모욕한다고 책망하고, 言官의 彈劾權<sup>탄핵권</sup>을 한탄하기도 하였다. 오달제는 파직을 당하고 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왕의 수레를 따라 南漢山城에 들어갔다.

오달제는 和親을 반대하고 斥和를 극력 주장하던 신료였다. 최명길이 은밀하게 청과 和親하고자 使臣까지 파견하려 함에 다음과 같은 上疏를 올렸다.

“公論이 한번 나오면 비록, 임금의 至尊으로도 위협하지 못하며, 大臣의 중한 위치로도 막을 수 없는 법인데, 하물며 집요하게 임금의 뜻을 버리고 감히 공론과 맞설 수 있습니까? 최명길은 임금님의 뜻만을 믿고 나라의 정세는 생각지 않은 채, 登對하던 날에 감히 기만적이고 위협적인 말을 진술하여, 위로는 天聽을 혼란시키고 아래로는 公議를 위협으로 제재하였으며, 심지어는 ‘臺論이 비록 나왔다 하더라도 한 쪽으로는 使臣을 보내야 합니다.’ 라고 까지 하였으니, 예로부터 臺論을 돌아보지 않고 제 뜻대로 直行하는 術策으로 그 임금을 인도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와 같은 상소에 대하여 29세의 젊은 신료로서 重臣을 욕하였다고 하여 그를 파직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윤집과 오달제는 南漢山城에서 최명길에 이끌리어 淸軍 진영으로 押送되기 전 仁祖를

배알하였다. 仁祖가 그들을 보자 “古今 天下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두 신하를 위로하자, “임금께서 屈辱<sup>굴욕</sup>이 이 지경에 이르니, 臣들은 이미 죽지 못함을 한탄 했는데, 이제 죽을 곳을 얻었으니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두 忠臣들은 淸兵에게 끌려가면서도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고, 그들이 자진하여 남아담게 愛國의 길을 택한 이상,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묵묵히 歷史의 大勢에 순응할 뿐이었다. 윤집과 오달제는 심양에 끌려가서도 그들의 회유와 협박에 전혀 동요됨이 없이 끝까지 절개를 지키다가 殉節하고 말았다.

한편 昭顯世子가 심양에 당도하였을 때 世子를 陪從하였던 신하 중에 弘文館 校理로 있던 斥和臣 鄭雷卿이 있었는데 그는 윤집, 오달제와는 鴻문관 동료로서 마침 두 學士가 刑場으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는 청나라 관료들에게 그들의 屍身만이라도 수습하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끝내 거절당하고 말았다.

三學士는 굳은 節義와 不撓不屈<sup>불요불굴</sup>의 정신으로 朝鮮 知識人의 만만치 않은 정신세계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 淸에서는 이들이 젊고, 首倡人이 아니라 속죄양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굴복하기만 하면, 살려 줄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 세 사람은 조선 士大夫의 기개와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 끝내 죽음을 택한 것이다.

#### 4. 顯節祠의 설립 과정

청나라는 명나라를 공격하여 1645년(인조23) 中原을 평정하게 되었고, 조선 조정은 어느 정도 안정 되었다. 仁祖는 三學士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늘 마음 아파했고, 그들의 유가족을 돌보도록 하여 廩料<sup>능료</sup>를 지급하였고, 孝宗도 계속하여 그들의 유족에게 능료를 지급하며 官職을 追贈하였다<sup>3)</sup>. 조선 조정은 그들을 顯彰<sup>현창</sup>하는데도 청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서 1661년(顯宗2)에 이르러서야 平澤에 三學士 祠堂을 건립하였는데, 이는 洪翼漢의 虛葬墓<sup>허장묘</sup>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sup>4)</sup>

이후 豊基郡守 魚相儁이 1670년(顯宗9)에 三學士의 祠堂을 건립하자고 上疏하였으나 朝廷에서는 소문이 날까 두려워 自손을 錄用하고, 贈職을 하였더라도 品秩을 하나 더 올려

3) 『朝鮮王朝實錄』 孝宗4년 3월 3일

4) 『東國院宇錄』 63 쪽

주자고 하였다.<sup>5)</sup> 소문이 날까 두려워 한 것은 청나라에서 알게 되면 사당의 건립을 용인하지 않을 것을 염려한 것이다.

1681년(숙종7) 1월에 侍講官 趙持謙이 “丙子胡亂 때에 斥和를 주장한 신하들을 청이 찾을 때에 朝廷에서 부득이 三學士를 보냈는데, 忠節을 지키다가 殉節하였고 세 집안이 모두 몰락하였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하면서 三臣祠宇를 南漢山城 안에 건립할 것을 건의 하였다.<sup>6)</sup> 그러나 물자의 조달이 어렵고 추위 등을 이유로 다음해에 건립하기로 하고 연기하였으나 흉년이 들어 미루어 오다가 1688년(숙종14) 2월에 이르러 領議政 南九萬이 三學士의 사당을 건립 할 것을 再論하여 그해 5월 廣州留守 李世白이 三臣祠를 건립하였다.<sup>7)</sup> 남구만은 吳達濟의 처조카가 된다. 오달제의 再娶 부인인 南씨가 남구만의 姑母였던 것이다.

1693년(숙종25)에는 南漢山城의 三臣祠를 “顯節祠<sup>현절사</sup>”로 賜額 하였고, 1703년(숙종29)에는 平澤의 三學士 祠宇를 ‘褒義祠<sup>포의사</sup>’로 賜額 하였다.

1711년(肅宗19)에는 廣州의 士林들이 上疏하기를, “현재의 顯節祠는 건립한지 20여년인데, 祠宇가 초라하고 장소가 陰地여서 적합하지 않으니, 옮겨 세우기를 바란다” 고 함으로 肅宗은 이를 쾌히 승낙하고 지금의 顯節祠 자리로 移建하도록 윤허하여 祠宇가 웅장하게 건립되었다. 그리고 남구만이 扁額 글씨를 써서 懸板 하였는데, 지금의 現절사 현판 글씨이다. 아울러 金尙憲과 鄭蘊을 追享하였다.<sup>8)</sup>

金尙憲은 당시 斥和를 주장한 重臣이었는데, 禮曹判書로 있을 때 丙子胡亂이 일어나자 主和論을 배척하고 끝까지 主戰論을 펴 왔다. 南漢山城에서 抗戰 할 때 최명길<sup>1)</sup>이 작성한 청 태종에게 보내는 國書에 “臣” 이라는 글자를 보고 빼앗아 찢어버렸다. 결국 和議하기로 결정이 내려지매 목을 매어 자살하려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仁祖가 항복하자 고향 安東으로 은퇴하였다.

1639년(인조17)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出兵에 반대하는 上疏를 올렸다가 청나라에 압송되어 6년 후 풀려 귀국하였다. 80세를 일기로 별세하여 숙종 때에 領議政에 追贈되고 顯節祠에 追享되었다.

5) 『朝鮮王朝實錄』顯宗9년 7월 27일

6) 『朝鮮王朝實錄』肅宗7년 1월 30일

7) 『朝鮮王朝實錄』肅宗14년 2월 29일 동 5월12일

8) 『朝鮮王朝實錄』肅宗37년

鄭蘊은 丙子胡亂 당시 吏曹參判으로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崔鳴吉 등의 和議 주장을 반대하였다. 화의가 성립되자 칼로 割腹 자살 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仁祖가 항복하자 함양 덕유산으로 내려가 은둔 생활을 하다가 73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金尙憲과 함께 肅宗 때에 領議政에 追贈되고 顯節祠에 追享되었다.

顯節祠가 건립된 후로 매년 春秋에 吉日을 택하여 祭享을 올렸는데, 언제나 禮曹에서 祝文과 香을 보내어 京畿觀察使로 하여금 初獻官이 되어 致祭하도록 하였다.

英祖 때에 實錄을 보면, 丙子胡亂의 치욕적인 수난과 많은 斥和臣들의 忠節을 기려 왕이 특별히 致祭하라는 명을 내린 것을 볼 수 있다.

1755년(영조31)11월 英祖는 다음과 같은 영을 내렸다.

“요즈음 曹風과 檜風 兩風을 읽었다. 明年이 어떠한 해인가? 나의 마음은 곱절이나 더하다. 南漢山城의 顯節祠 와 江都의 忠烈祠에 禮官을 보내어 致祭하라. 충렬사에 配享된 사람 및 斥和한 여러 신하로서 특별히 2품을 贈職한 사람은 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贈諡할 것이며, 文正公 金尙憲, 文簡公 鄭蘊, 文正公 尹煌의 墓와 廣州·雙嶺에 일체로 致祭하라.”<sup>9)</sup> 忠愍公 林慶業은 賊臣의 죽인 바 되었는데, 時敏堂 뜰 북쪽이 곧 그 피살된 곳이다. 지금까지 異草가 난다고 하니, 역시 致祭하도록 하라.”<sup>10)</sup>

1779년(정조3) 8월에는 正祖가 驪州의 孝宗陵(寧陵)을 참배하기 위하여 능행 할 때 南漢山城 行宮에 머물며, 顯節祠에 致祭할 것과 南漢山城 수축 당시 摠戎使<sup>총융사</sup>였던 李曙이서의 祠堂에 致祭 할 것이며, 廣州의 雙嶺에서도 丙子胡亂 때 戰亡 將軍들에게 아울러 致祭할 것을 명하였다.

조선 조정은 계속하여 三學士의 忠節을 높이 평가하고, 崇慕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조선시대 말까지 계속 推仰하였다.

9) 丙子胡亂 당시 廣州 雙嶺(현 초월읍 대쌍령리)에서는 慶尙左道 兵馬節度使 許完, 慶尙右道兵馬節度使 閔祿, 忠淸道兵馬節度使 李義培 장군 등이 淸軍과의 戰鬪에서 모두 戰死한 전쟁터였다. 기록에는 4만의 군사가 전멸하다시피 하였다고 한다.

10) 『英祖實錄』 31년 11월

## 5. 맺음말

17세기 말에 세워진 顯節祠의 건립 배경은 國亂으로 인하여 해이해진 사회질서를 회복하고 支配體制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하나의 방편으로써 國難 때에 殉節한 忠臣들을 褒賞하고 숭배하며 그 후손을 錄用하려는 政策의 產物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 조정에서는 三學士의 祠宇를 일찍 세우고자 하였으나 淸의 감시로 인하여 외교상의 마찰문제로 顯宗 때까지는 국가에서 주관하여 건립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당시 天下義理의 주역이었던 尤菴 宋時烈의 『三學士傳』이 顯宗 말년에 편찬되고, 그에 따라 당시 지식인들이 이 견해에 共鳴하게 되었다는 것은 三學士에 대한 褒賞의 총체적 결론으로서 국가에 의한 祠宇건립이 肅宗 초에 와서야 이루어지게 된 논리적 배경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顯節祠는 三學士가 殉國한지 50여년이 지나서야 건립되었던 것이다.

三學士는 모두 領議政에 追贈되었고, 조선시대에는 春秋로 吉日을 택하여 祭享하였으며, 왕이 南漢山城 行宮에 머물 경우에는 어김없이 致祭하도록 하였다.

지금 廣州 南漢山城에 소재하고 있는 顯節祠에는 金尙憲, 鄭 蘊, 洪翼漢, 尹 集, 吳達濟 등 5位の 位牌가 모셔져 있고, 매년 음 9월 10일에 祭享하고 있다.

顯節祠의 祠宇는 京畿道指定 有形文化財 第 4 號로 지정되어있고, 都府司를 포함하여 10명의 有司가 있어 祭享을 주관하고 있다.

여 백



# 지리지에 나타난 양주 건치 연혁 고찰

홍정덕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상임고문

## 목 차

1. 서론
2. 본론
  - 1) 양주 지역의 건치 연혁
  - 2) 역대 양주 지리지의 양주 건치 연혁에 대한 서술
3. 결론

## 1. 서론

관(官), 사찬(私撰) 지리지에는 대부분 해당 지역의 건치(建置) 연혁(沿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방의 행정 연혁을 고찰하는 것이 지방 이해의 핵심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大韓帝國)기에 이르는 양주(楊州) 지역 관, 사찬 지리지 역시 모두 양주의 건치 연혁을 모두(冒頭)에 서술하고 있으며, 이는 양주의 역사이며 행정의 변천 과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리지의 편찬시기가 오래될수록 건치 연혁은 소략(疏略)하고 연대가 내려올수록 건치 연혁은 번다(繁多)해 지는 것이 상례이겠으나, 양주 지리지 류가 전하는 양주의 건치 연혁은 초기 지리지의 서술을 답습하여 내용이 첨가(添加)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反復)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거기에 더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양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리지 류는 관, 사찬을 막론하고 그 연혁 서술에서 상당한 오류(誤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지리지 류의 역사 서술 오류는 현대에 들어와 편찬되는 관, 사찬 시지에도 역시 상당한 영향을 끼쳐 지방 행정 당국에서 편찬하는 공식 지지에도 역시 그 오류가 재현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고는 양주를 대상으로 하여 편찬된 관, 사찬 지리지의 양주 건치 연혁 조를 검토하여 그 오류를 지적하고 이후 지리지 편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혁 서술의 오류를 정정(訂正)하는 계기로 삼고자한다.

## 2. 본론

### 1) 양주 지역의 건치 연혁

#### (1) 백제 건국기의 양주

기록에 따르면 양주 지역은 고조선(古朝鮮)이 멸망한 이후 아직까지도 그 정체성이 모호한 말갈의 지배와 이에 대응하는 마한(馬韓)의 변계(邊界)에 속하여 있었다.

이후 백제(百濟)의 세력이 남하하여 오자 마한은 군사적인 충돌이 잦았던 말갈과의 변계 지역이었던 양주 일대를 백제에게 떼어 주어 백제를 말갈 방어(藩)의 변진(藩鎭)으로 삼았다.

○ 24년(서기 6) 가을 7월에 왕이 웅천책(熊川柵)을 세우자 마한 왕이 사신을 보내 나무라며 말하였다.

“왕이 처음 강을 건너 왔을 때 발디딜 만한 곳도 없었으므로 내가 동북쪽의 100리의 땅을 떼어 주어 편히 살게 하였으니 왕을 대우함이 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마땅히 이에 보답할 생각을 하여야 할 터인데, 이제 나라가 완성되고 백성들이 모여들자 나와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면서 성과 못을 크게 설치하여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니 그것이 의리에 합당한가?”

왕은 부끄러워서 드디어 목책을 헐어버렸다.<sup>1)</sup>

---

1)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24년

이로써 초기 백제와 마한 사이에는 일종의 신속(臣屬)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0년(서기전 9) 가을 9월에 왕이 사냥을 나가서 신비로운 사슴[神鹿]을 잡아 마한(馬韓)에 보냈다. 겨울 10월에 말갈(靺鞨)이 북쪽 경계를 노략질하였다. 왕은 군사 200명을 보내서 곤미천(昆彌川) 가에서 막아 싸우게 하였다. 우리 군사가 패배하여 청목산(靑木山)을 의지하고 스스로 지켰다. 왕이 친히 정에 기병 100명을 거느리고 봉현(烽峴)으로 나아가 구원하니 적이 보고는 곧 물러갔다.<sup>2)</sup>

○ 13년(서기전 6) 봄 2월에 서울[王都]에서 늙은 할멈[老婆]이 남자로 변하였고, 다섯 마리의 범이 성 안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죽었는데 나이가 61세였다. 여름 5월에 왕이 신하에게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동쪽에는 낙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영토를 침략하므로 편안한 날이 적다. 하물며 이즈음 요망한 징조가 자주 나타나고 국모(國母)가 돌아가시니 형세가 스스로 편안할 수 없도다. 장차 꼭 도움을 옮겨야 하겠다. 내가 어제 순행을 나가 한수(漢水) 남쪽을 보니 땅이 기름지므로 마땅히 그 곳에 도움을 정하여 길이 편안할 수 있는 계책을 도모하여야 하겠다.”

가을 7월에 한산(漢山) 아래로 나아가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가들을 옮겼다. 8월에 사신을 마한에 보내 도움을 옮긴 것을 알리고 마침내 강역을 구획하여 정하였는데 북쪽으로는 패하(溟河)에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웅천(熊川)을 경계로 하였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혔고, 동쪽으로는 주양(走壤)에 이르렀다. 9월에 궁성과 대궐을 세웠다.<sup>3)</sup>

특히 이 두 사료에는 마한과 백제의 국가적 위상을 나타내는 표현 외에도 건국기 백제의 가장 중요한 국가 현안이었던 말갈과의 군사적 긴장이 잘 나타나고 있다. 온조왕 13년의 기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망한 징조, 즉 늙은 할멈이 남자로 변했다거나, 특히 다섯 마리의 범이 성안으로 들어 온 사건을 전쟁의 비유로 해석하여 이를 온조와 비류의 군사적 분쟁으로 보는 견해가 있거니와 이를 어찌 해석하던지 간에 본 기사는 국도를 지금의 의정부 호원동에 비정되는 하북 위례성에서 하남 위례성으로 옮기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이 기사는 천도의 주요 원인으로 국모인 소서노의 죽음과 함께 거듭되는 말갈의 침공을 들고 있다.<sup>4)</sup>

2)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0년

3)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3년

4) 이 기사를 비롯하여 삼국사기에 80여 차례나 언급되는 <말갈>을 만주의 말갈과 구분하여 <위말

그러나 말갈과 백제와의 전투는 이후 대체적으로 백제의 우세로 판갈음되며 말갈은 신라의 북변으로 옮겨가 소백산맥을 넘는 전투활동을 벌이게 된다.

○ 8년(서기전 11) 봄 2월에 말갈 적병 3천 명이 와서 위례성(慰禮城)을 포위하자 왕은 성문을 닫고 나가 싸우지 않았다. 열흘이 지나 적이 양식이 다 떨어져 돌아가자, 왕은 날랜 군사를 뽑아 대부현(大斧峴)까지 쫓아가 한번 싸워 이겼으며, 5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sup>5)</sup>

○ 40년(서기 22) 가을 9월에 말갈이 술천성(述川城)을 침공해 왔다. 겨울 11월에 또 부현성(斧峴城)을 습격하여 100여 명을 죽이고 약탈하였다. 왕이 날센 기병 200명에게 명하여 이를 막아 치게 하였다.<sup>6)</sup>

○ 3년(387) 봄 정월에 진가모(眞嘉謨)를 달솔(達率)로 삼고 두지(豆知)를 은솔(恩率)로 삼았다. 가을 9월에 말갈(靺鞨)과 관미령(關彌嶺)에서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 4년(482) 봄 정월에 진로(眞老)를 병관좌평(兵官佐平)으로 삼고 중앙과 지방[內外]의 군사 업무[兵馬事]를 아울러 맡게 하였다. 가을 9월에 말갈(靺鞨)이 한산성(漢山城)을 습격하여 깨뜨리고 300여 집을 사로잡아 돌아갔다. 겨울 10월에 눈이 크게 내려 한 길 [一丈] 남짓이나 쌓였다.

백제는 이후 한반도의 서남부 일대를 장악하고 고대 왕권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대방(帶方)을 점령하게 되었고 역시 한 군현 세력인 현도(玄扈)와 낙랑(樂浪)을 점령한 고구려(高句麗)와 직접 국경을 마주 대하게 되었으며 이후 양국 관계는 점차 정치적 군사적 긴장의 파고(波高)를 높여 가게 된다.

고구려와 백제는 결국 대동강 유역을 사이에 두고 충돌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故國原王)이 백제와의 전투에서 유시(流矢)를 맞고 전사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고 이후 고구려는 백제 정벌을 국력을 기울이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진행하게 된다. 결국 고구려 광개토태왕

---

갈>로 보는 사학계 전반의 견해가 있으나 삼국사기에 다루어진 무시할 수 없는 기사와 비중을 비추어 보아도 이를 단순히 위말갈이나 예백의 일족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필자는 여기에 나타나는 종족 명 <말갈>을 특정한 민족을 가르키는 용어가 아닌 이민족에 대한 비칭으로 해석하여 자체 기록을 남기지 못한 한반도의 말갈, 군사집단으로 해석한 바가 있다.

5)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8년

6)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40년

의 한강유역 침공에 연이어 장수왕(長壽王)의 침공에 이르러 한성 백제는 멸망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하남 위례성에 천도하였던 백제는 근초고왕(近肖古王) 26년 고구려와의 평양성 전투가 끝난 직후 수도를 다시 한강 이북 양주 땅으로 옮긴 것으로 되어 있다. AD 371년의 일이다.

그리고 장수왕의 침공으로 수도인 위례성(違禮城)이 함락되면서 개로왕이 전사하고 한성 백제가 종언을 고한 것은 AD 475년의 일이니 북한산주 즉 양주 일대가 다시 백제의 수도가 되고서 무릇 100여 년이 지난 후의 일이 되는 것이다. 고려사 지리지의 연혁 서술은 BC 18년의 백제 건국기부터 AD 371년 근초고왕의 한산(漢山) 도읍까지 무려 400여 년 간의 역사를 송두리째 삭제하고 있고, 삼국사기 지리지의 양주 연혁 서술은 백제 건국에서 한성 백제 폐망까지 475 년간의 역사를 생략한 것이다.

○ 26년(371)에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왔다. 왕이 이를 듣고 패하(溟河) 가에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그들이] 이르기를 기다려 급히 치니 고구려 군사가 패하였다.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쳐들어가서 평양성(平壤城)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왕 사유(斯由)가 힘을 다해 싸워 막았으나 빗나간 화살(流矢)에 맞아 죽었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서울[都]을 한산(漢山)으로 옮겼다.<sup>7)</sup>

○ 21년(475) 가을 9월에 고구려 왕 거련(巨璉)[장수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서울[王都] 한성(漢城)을 포위하였다. 왕은 성문을 닫고 능히 나가 싸우지 못하였다. 고구려인이 군사를 네 길[四道]로 나누어 양쪽에서 공격하였고, 또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놓아 성문을 불태웠다. [이에] 인심이 대단히 불안해져서[危懼] 혹 나가서 항복하려는 자도 있었다. 왕은 곤궁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기병 수십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났다. 고구려인이 쫓아가 살해하였다.

(중략)

“내가 어리석고 밝지 못하여 간사한 사람의 말을 믿고 쫓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백성은 쇠잔하고 군사는 약하니 비록 위태로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기꺼이 나를 위하여 힘써 싸우겠는가? 나는 마땅히 사직(社稷)을 위하여 죽겠지만 네가 이곳에서 함께 죽는 것은 유익함이 없다. 어찌 난을 피하여 나라의 계통[國系]을 잇지 않겠는가?”

7) 삼국사기 백제본기 근초고왕 26년

문주는 이에 목협만치(木協滿致)와 조미걸취(祖彌桀取)와 함께 남쪽으로 갔다.

이 때에 이르러 고구려의 대로(對廬)인 제우(齊于)·재증걸루(再曾桀婁)·고이만년(古你萬年) (재증(再曾)과 고이(古你)는 모두 복성이었다)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북성(北城)을 공격하여 7일 만에 함락시키고, 남성(南城)으로 옮겨 공격하였다. 성안은 위태롭고 두려움에 떨었다. 왕이 [성을] 나가 도망가자 고구려의 장수 걸루(桀婁) 등은 왕을 보고는 말에서 내려 절한 다음에 왕의 얼굴을 향하여 세 번 침을 뱉고는 그 죄를 꾸짖었다. [그리고는] 왕을 포박하여 아차성(阿且城) 아래로 보내 죽였다. 걸루와 만년(萬年)은 백제사람[本國人]이었는데 죄를 짓고는 고구려로 도망하였었다.<sup>8)</sup>

이후 약 100여 년간 한강 이북 양주 지역은 고구려의 지배아래 들어간다. 이 시기 고구려의 한강 유역 지배는 이후 각종 지리지에서 양주 지역을 본래 고구려 땅으로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한강 유역을 상실한 백제는 이후 웅진시대를 거치면서 북방 영토 즉 양주 지역의 수복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이를 추진하게 된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 백제는 끊임없는 수복 노력으로 대체적으로 비유왕, 무령왕 대에 이르면 한강 유역을 다시 수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자료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 23년(107) 봄 2월에 왕이 한성(漢城)으로 행차하여 좌평 인우(因友)와 달솔 사오(沙烏)등에게 명령을 내려 한강 북쪽[漢北] 주·군(州郡)의 백성으로 나이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쌍현성(雙峴城)을 쌓게 하였다. 3월에 한성(漢城)으로부터 돌아왔다. 여름 5월에 왕이 죽었다. 시호를 무령(武寧)이라 하였다.<sup>9)</sup>

실제로 최근 아차산이나 광진구 구의동 등의 고구려 보루를 발굴한 결과 이들 관방시설들이 치열한 군사작전으로 함락되거나 소실된 것으로 드러나 이 지역을 둘러싼 고구려와 백제의 치열한 공방전의 일단을 확인하게 해 준다. 한수 이북 양주 지방에 대한 백제의 완전한 수복이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백제 성왕대의 일이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 고구려왕 평성(平成)이 예(濊)와 짜고 한북(漢北)의 독산성(獨山城)을 치므로 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청하니 신라왕이 장군 주진(朱珍)을 시켜 갑옷 입은 군사

8) 삼국사기 백제본기 개로왕 21년

9)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령왕 23년

3,000명을 거느리고 떠나게 하였다. 주진이 밤낮으로 길을 걸어서 독산성 아래 이르러 고구려 군사들과 한바탕 싸워 이를 크게 깨뜨렸다.<sup>10)</sup>

○ 왕이 장군 달기(達己)를 보내어 군사 10,000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도살성(道薩城)을 쳐서 빼앗았다. 3월에 고구려 군사가 금현성(金峴城)을 에워쌌다.<sup>11)</sup>

○ 이 해에 백제의 성명왕(聖明王)이 친히 (백제군과) 두 나라(두 나라는 신라(新羅)와 임나(任那)이다)의 군대를 거느리고 고려(高麗)를 공격하여 한성(漢城) 땅을 얻고 또 군대를 전진시켜 나아가 평양(平壤)을 쳤다. 6 고을의 땅을 얻으니 마침내 고토(故土)가 회복되었다.<sup>12)</sup>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력이 다시 백제로 환원되는 일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백제는 한강 북쪽 양주 일대에 다시 지배권을 확보했지만 거듭되는 고구려의 공격에 시달리며 군사적인 피로를 쌓아가게 되는데 이는 백제와 고구려 양측 모두에게 공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 틈새를 파고 든 것이 바로 신흥 신라 세력이었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가 군사적인 일진일퇴(一進一退)를 거듭하고 있는 그 사이에 전격적으로 양측 모두를 제압하고 양주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

○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성을 함락하고 3월에는 고구려가 백제의 금현성을 함락시켰다. 왕이 두 나라 군사가 피로한 틈을 타서 이찬(伊飡) 이사부(異斯夫)를 시켜 군사를 내어 이를 쳐서 두 성을 빼앗아 성을 증축하고 군사 1,000명을 머물게 하여 그 곳을 지켰다.<sup>13)</sup>

○ 진흥왕 재위 11년, 대보(大寶) 원년에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성을 빼앗자 고구려는 백제의 금현성을 함락시켰다. 왕은 양국의 병사가 피로한 틈을 타서 이사부에게 명하여

10) 三國史記 百濟本紀 聖王 26年

春正月 高句麗王平成與濊謀 攻漢北獨山城 王遣使請救於新羅 羅王命將軍朱珍 領甲卒三千發之 朱珍日夜兼程至獨山城下與麗兵一戰 大破之

11) 三國史記 百濟本紀 聖王 28年

春正月 王遣將軍達己 領兵一萬 攻取高句麗道薩城 三月高句麗兵圍金峴城

12) 日本書紀 欽明紀 12年

是歲 百濟聖明王親率衆 及二國兵(二國謂新羅·任那也) 王伐高麗 獲漢城之地 又進軍討平壤 凡六郡之地遂復故地

13) 三國史記 新羅本紀 眞興王 11年

春正月 百濟拔高句麗道薩城 三月高句麗陷百濟金峴城 王乘兩國兵疲 命伊飡異斯夫出擊之取二城增築 留甲士一千戍之

나아가 치게 하였다. 두 성을 모두 취하여 증축하고 갑병(甲兵)을 머물러 지키게 하였다. 이 때 고구려군사를 보내어 금현성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이사부가 추격하여 크게 이겼다.<sup>14)</sup>

위에 인용한 사료는 모두 한 가지 사건을 각각 다른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다.<sup>15)</sup> 이 기사가 다루는 사건은 서력 550년 한강 유역을 둘러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투로서 이 전투의 결과 신라는 한강 유역에 마침내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도살성과 금현성의 정확한 위치는 미상이다. 이병도는 이를 각각 천안과 전의에 비정하였고<sup>16)</sup> 이와는 달리 민덕식은 이를 괴산과 진천으로 추정하였으나<sup>17)</sup>, 우리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성왕의 전대인 무령왕대에 백제가 이미 한강 유역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이를 충청 지역에 비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를 임진강 유역의 어느 지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양주 일대를 둘러싼 3국의 각축을 일별하여 보았다. 양주 일대는 말갈의 세력을 구축하고 북방으로 진출하던 백제의 건국지이며 동시에 백제의 세력이 500여 년 간 계속되어 온 백제 땅이었다. 광개토태왕 이래 장수왕, 문자왕에 이르는 고구려 남진의 결과 백제는 이 지역을 상실하고 남천하게 되지만 이후 거듭되는 수복 노력의 결과 적어도 무령왕(武寧王) 대에 이르면 양주 지역은 다시 백제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고 성왕 대에는 이 지역에 대한 수복을 공식적으로 완료한다. 그러나 이후 백제는 국가 중흥의 원대한 야망이 좌절되면서 국력의 절정기에 달하던 신라에게 양주 일대를 빼앗기게 되고 이후 양주는 신라의 영토로 대 신라 통일기를 맞이하게 된다.

신라 통일기의 양주는 북한산주, 또는 한주로 개편되어 한강 유역 방어의 중심 기지가 되었다가 이후 신라 말 각지에서 발흥하는 호족(豪族)의 발호를 따라 신라의 지배 영역에서

14) 三國史記 列傳4 斯夫

眞興王在位十一年大寶元年 百濟拔高句麗道薩城 高句麗陷百濟金峴城 王乘兩國兵疲 命異斯夫出兵擊之 取二城增築 留甲士戍之 時高句麗遣兵來攻金峴城 不克而還 異斯夫追擊之大勝

15) 같은 내용을 고구려의 입장에서 기록한 사료가 하나 더 있으나(삼국사기 권 19 고구려 본기 양원왕 조) 내용이 동일하여 인용을 생략한다.

16) 이병도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p.57.

17) 민덕식 <고구려의 도서현성고> 시학연구 36, 한국사학회, 1983. p.47, 51-53



벗어났다가 결국은 궁예의 지배를 거쳐 고려의 영토로 귀착되는 것이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한 때 이 지역은 고려에 귀순한 견훤의 식읍으로 하사되기도 하였으나, 숙종 대에 이르러 남경으로 승격되고 몽골 침략기를 거쳐 고려 말에 가면 아예 천도의 대상으로 여러 차례 천도 운동이 벌어지는 주목의 대상이었고 신 왕조 조선이 개창되면서 마침내 신도 한양(漢陽)으로 낙착되게 된다. 이후는 여러 차례 승격과 격하를 거듭하지만 한양을 호위하는 외곽 방어 거점으로, 강무(講武)와 원유(遠遊)의 현장으로, 또는 국왕이나 왕조의 능원(陵園)으로 특별한 위치를 유지하여 왔다.

문제는 각종 양주와 관련된 관, 사찬 지리지에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양주 일대에 관한 백제의 영유를 대부분 삭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다음의 항에서 지리지의 이와 같은 왜곡된 서술을 검토하고자 한다.

## 2) 역대 양주 지리지의 양주 건치 연혁에 대한 서술

### (1)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

지리지로서 양주의 건치 연혁을 기재한 최초의 사례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타난다.

삼국사기의 편찬 연대를 고려 중기 무신 정권 출현의 직전으로 상정할 때 삼국사기 지리지의 양주 건치 연혁 서술은 아직 양주라는 지방행정 기구의 본격적 형성 이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삼국사기 지리지의 건치 연혁은 이후 등장하는 양주 지역을 포괄(包括)하는 한수 이북 일정 지역에 대한 연혁 인식이 되겠다.

어떤 의미에서 이후 지리지 양주 연혁 서술의 원초(原初)가 되는 본서 지리지의 서술은 이후 사서에 나타나는 역사 인식 오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이후의 오류와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양주 일대를 <본래 고구려의 땅이다>라고 그 연혁의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후 나타나는 지리지가 답습하는 오류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 ◎ 한양군

본래 고구려의 북한산군이다

<다른 말로는 평양이라고도 한다>

진흥왕이 주로 삼아 군주를 두었다. 경덕왕 때에 지금의 양주로 고쳤다. 옛터가 있다.

영현이 들이니 하나는 황양현으로 본래 고구려의 골의노현인데 경덕왕이 지금의 풍양현으로 고쳤고, 우왕현은 본래 고구려의 개백현인데 경덕왕이 지금의 행주로 고쳤다.

### ◎ 내소군

본래 고구려의 매성현이다. 경덕왕 때에 지금의 건주로 고쳤다.

영현이 들이니 중성현은 고구려의 칠중현으로 경덕왕 때에 지금의 적성현으로 고쳤고, 파평현은 본래 고구려의 파해평리 현인데 경덕왕 때에 고쳐 지금에 이른다.

후대의 지리 강역에 의하면 양주는 지금의 서울 일대를 포함한 지역이며 건주는 양주의 북쪽 지금의 동두천 의정부 일대를 지칭하는 지명인데 삼국사기에서는 건주를 내소군이라 하여 지금의 파주 적성 일대를 지칭하는 지명으로 사용하는 지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아울러 한양군, 내소군, 즉 양주 일대의 제반 지역의 건치 연혁에서 이들 모두를 본래 고구려의 옛 땅으로 서술함으로써 이후 이를 답습하는 각종 지리지의 인식 오류의 원전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들 지역이 광개토왕, 장수왕 이래 상당 기간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고 이 때 고구려의 지명을 부여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고구려의 관할로 편입되기 이전 상당 기간을 백제의 영토로 존속되어 있었고 백제 이전에는 말갈과 마한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적어도 삼국사를 다루는 사서라면 별다른 노력과 수고 없이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들 지역 모두를 일괄적으로 고구려의 옛 땅으로만 서술한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한다.

아울러 역사적 고찰이 상당 부분 결여된 이후의 지리지들이 바로 이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함으로써 삼국사기 지리지의 이 오류는 금후 결과적으로 오류를 확대 재생산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결과적으로는 이의 원인을 바로 본서가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 (2) 고려사(高麗史) 지리지

고려사 지리지는 삼국사기 지리지보다는 상세하게 양주의 건치 연혁을 설명한다.

특히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타나는 건주 설명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 나름대로는 문헌과 역

사를 참고한 흔적을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주 일대를 백제의 옛 땅으로 서술한 삼국 사기의 오류를 그대로 두고 연혁을 서술하여 잘못을 되풀이하는 실수를 거듭하고 있다. 아울러 양주를 본래 고구려 땅으로 설명하면서 문헌에는 백제의 고지(故地)로 되어있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래 고구려 땅이었던 양주 일대를 근초고왕이 점령하여 다스렸다고 서술함으로써 백제 건국기 양주의 역사적 상황을 삭제하여 버렸다.

즉 고려사 지리지의 서술은 양주 땅의 지배자를 고구려→백제→고구려→신라로 설정함으로서 초기 양주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왜곡하였던 것이다.

이는 삼국사기에 양주 땅이 본래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서술을 계승한 탓으로 보인다.

### ◎ 남경 유수관(南京留守官) 양주(楊州)

본래 고구려의 북한산군(北漢山郡) 【남평양성(南平壤城)이라 하였음.】으로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이 이를 취하여 25년에 남한산(南漢山)으로부터 이곳에 도읍을 옮겼는데 개로왕(蓋鹵王) 20년에 이르러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이 와서 한성(漢城)을 포위하였으므로 개로왕(蓋鹵王)이 달아나다가 고구려 군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해에 아들 문주왕(文周王)이 응진(熊津)으로 도읍을 옮겼다. 뒤에 신라 진흥왕(眞興王)이 15년에 북한산성(北漢山城)에 이르러 국경을 정하고 17년에 북한산주(北漢山州)를 창설(創設)하여 군주(軍主)를 두었고 경덕왕(景德王) 14년에 고쳐 한산군(漢山郡)으로 삼았는데 고려(高麗) 초에 또 고쳐 양주(楊州)로 삼았고 성종(成宗) 14년에 비로소 10도(道)를 정하매 12주(州) 절도사(節度使)를 두어 이름을 좌신책군(左神策軍)이라 하고 해주(海州)와 더불어 좌우(左右) 2보(輔)를 삼아 관내도(關內道)에 소속시켰다가 현종(顯宗) 3년에 2보(輔)와 12절도(節度)를 폐하고 안무사(安撫使)로 고쳤다. 9년에 지주사(知州事)로 내렸다가 문종(文宗) 21년에 올려 남경 유수관(南京留守官)으로 삼고 이웃 군민(郡民)을 옮겨 살게 하여 이를 채웠다. 숙종(肅宗) 원년(元年)에 위위승 동정(衛尉丞同正) 김위제(金謂禪)가 《도선밀기(道詵密記)》에 의거하여 도읍을 남경(南京)으로 옮기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양주(楊州)에 목멱(木覓) 땅이 있어 도읍지가 될만한 곳입니다.”

고 하니 일관(日官) 문상(文象)이 이 말에 찬동하였으므로 숙종(肅宗) 4년 가을에 왕이 친히 행차하여 둘러보시고 평장사(平章事) 최사추(崔思諫)와 지주사(知奏事) 윤관(尹瓘)에게 명하여 그 건축공사[役事]를 감독하게 하니 숙종(肅宗) 5년이 걸려 완성하였는데 왕이 드디어 친히 행차하여 보았다. 충렬왕(忠烈王) 34년에 고쳐 한양부(漢陽府)로 삼았다. 별호(別號)을

광릉(廣陵) 【성종(成宗) 때에 정한 것이다.】 이라 한다. 삼각산(三角山) 【신라 때 부이악(負兒嶽)이라 하였다.】·한강(漢江) 【곧 사평도(沙平渡)임】·양진(楊津) 【신라 때 북독(北瀆)인 한산하(漢山河)를 중사(中祀)로 올렸다】 이 있다. 3군(郡)과 6현(縣)이 소속되고 1도호부(都護府)·2지사군(知事郡)·1현령관(縣令官)을 관령(管領)하였다

◎ 전주(見州). 본래 고구려의 매성군(買省郡) 【창화군(昌化郡)이라고도 하였음.】 으로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고쳐 내소군(來蘇郡)으로 삼았고 고려(高麗) 초에 지금 이름으로 갈아 현종(顯宗) 9년에 내속(來屬)하여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 (3)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는 대체로 고려사 지리지의 기술을 답습하고 있으나 일부 다른 기술이 보인다 예컨대 “양주는 본래 고구려의 남평양성이다”라는 기술이 그렇고 백제의 개로왕을 죽인 고구려의 임금인 자비왕이라하여 신라의 임금과 혼돈하고 있는 것들이 그 예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술이 고려사 지리지를 그대로 전제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동일 자료에서 취재한 것 같은데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 하겠다.

아울러 여전히 양주의 백제기원론이나, 무령왕, 성왕대의 백제에 의한 양주 수복 사실은 여전히 기술에서 제외하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관련 기술(記述)은 다음과 같다.

#### ◎ 양주 도호부(楊州都護府)

본래 고구려의 남평양성(南平壤城)인데, 【또는 북한산(北漢山)이라 한다.】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이 취하여, 그 25년 신미에 【곧 동진(東晉) 간문제(簡文帝) 함안(咸安) 원년.】 남한산(南漢山)으로부터 도읍을 옮기어 1백 5년을 지나, 개로왕(盖鹵王) 20년 을묘에 【곧 송나라 폐제(廢帝) 원휘(元徽) 3년.】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이 와서 한성(漢城)을 에워싸니, 개로왕이 달아나다가 고구려 군사에게 살해되매, 이 해에 그 아들 문주왕(文周王)이 도읍을 웅진(熊津)으로 옮기었다. 그 뒤 79년, 신라 진흥왕(眞興王) 13년 계유에 <신라가> 백제의 동북쪽 변방을 취하고, 15년 을해에 왕(王)이 북한산성(北漢山城)에 이르러 국경(封疆)을 정하였으며, 17년 정축에 【곧 진(陳)나라 고조(高朝) 영정(永貞) 원년.】 북한산주(北漢山州)를 두었고, 경덕왕(景德王) 14년 병신에 한양군(漢陽郡)으로 고쳤다. 고려가 양주(楊州)로 고치어, 성

종(成宗) 14년 을미에 12주(州)의 절도사(節度使)를 두었는데, 양주 좌신책군(楊州左神策軍)이라 하여, 해주 우신책군 절도사(海州右神策軍節度使)와 더불어 이보(二輔)를 삼았다. 현종(顯宗) 3년 임자에 이보(二輔)와 십이절도사(十二節度使)를 폐하여 안무사(安撫使)로 고치고, 9년 무오에 지양주사(知楊州事)로 강등시켰다가, 숙종(肅宗) 9년 갑신에 【곧 송나라 휘종(徽宗) 승녕(崇寧) 3년.】 남경 유수관(南京留守官)으로 승격시켰으며, 충렬왕(忠烈王) 34년 무신에 【곧 원나라 무종(武宗) 지대(至大) 원년.】 한양부(漢陽府)로 고쳤다. 본조(本朝) 태조(太祖) 3년 갑술에 도읍을 한양에 정하고 부치(府治)를 동촌(東村) 한글[大洞里]에 옮겨, 다시 지양주사(知楊州事)로 강등시켰다가, 4년 을해에 부(府)로 승격시켜 부사(府使)를 두었고, 정축에 또 부치(府治)를 견주(見州) 옛터로 옮겼으며,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도호부(都護府)로 하였다. 속현(屬縣)이 3이다. 견주(見州)는 본래 고구려의 매초현(賈肖縣)인데, 신라가 내소군(來蘇郡)으로 고쳤고, 고려에서 견주(見州)로 고치어, 현종(顯宗) 무오에 양주(楊州) 임내(任內)에 붙였다가,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별호(別號)는 창화(昌化)이니, 순화(淳化) 때에 정한 것이다.】 사천현(沙川縣)은 본래 고구려의 내을매현(內乙買縣)인데, 신라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견성군(堅城郡)의 영현(領縣)을 삼았으며, 고려 현종(顯宗) 무오에 양주(楊州) 임내(任內)에 붙였다. 풍양현(豐壤縣)은 본래 고구려의 골의노현(骨衣奴縣)인데, 신라가 황양(荒壤)으로 고쳐서 한양군(漢陽郡)의 영현(領縣)을 삼았고, 고려에서 풍양현(壤縣)으로 고쳐, 현종(顯宗) 무오에 양주(楊州) 임내(任內)에 붙였다가, 뒤에 포천(抱川)에 옮겨 붙였으며, 금상(今上) 원년(元年) 기해에 다시 본부(本府)에 붙였다.

#### (4)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이 책은 성종 때 만든 <동국여지승람>을 교정 증보하여 간행한 것이다. 성종은 노사신, 서거정, 성임, 양성지 등에게 명하여 이 책을 찬수하게 하여 1481년(성종 12년)에 초간본이 간행되었다. 중종 때 이행, 홍언필 등이 왕의 명을 받고 교정과 증보에 착수하여 1531년(중종 26)에 완성하였다. 따라서 이 책의 기본 내용은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이며 후에 증보된 부분은 “신증”을 붙여 표시하고 기술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성종에서 중종 사이 조선의 지리상황과 인식을 반영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양주 건치연혁 기술은 두 가지 면에서 주목된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삼국사,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의 일관하는 흐름에서 과감히 벗어나

우선은 그 기술의 양이 무척 작아졌고, 아울러 기존의 서술과는 다른 형식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후의 지리지 류의 양주 건치연혁 서술의 한 전형이 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에 편찬된 여러 종류의 지리지가 양주 건치 연혁 서술에서 거의 대동소이한 서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 광범위하게 반포되어 가장 쉬운 지리지 편찬 참고 자료가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실제로 가장 잘 정비된 지리지라는 점에서 이후 지방 지리지 편찬의 기본 자료로 널리 활용된 까닭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역시 양주 지방 건치 연혁의 서술에서 앞서의 지리지 류에 나타나는 오류를 극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오류를 고정하고 또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양주 건치 연혁에서 이 지리지는 백제 부분을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양주의 역사적 정체성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500여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백제의 양주 지배를 말살함으로써 특히 한성 백제의 존재가 부정되었고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백제 즉 공주, 또는 백제 즉 부여라는 지리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십일

#### 양주목

#### <건치연혁>

본래 고구려의 매성군인데 다른 말로는 창화군이라 한다. 신라 경덕왕이 이를 고쳐 래소군이라 하였다 고려 초에 건주로 승격되었고, 현종 9년에 양주에 속하게 하였다. 본조 태조 3년에 한양부( 곧 옛 양주이다)에 수도를 정할 때 부치를 동촌 대동리로 옮기고 그 격을 떨어 뜨려 지양주사로 하였다가 오래지 않아 다시 승격시켜 부가 되었다. 6년에 다시 그 부치를 건주의 고지내로 옮겨 양주라 칭하였다. 태종 13년에 예에 따라 고쳐 도호부를 삼았다. 세조 12년에 승격하여 목이 되고 진을 설치하였다. <신증> 연산군 갑자년에 본주를 혁파하여 그 땅을 비워 왕이 원유지로 삼고 남은 땅은 배어 가까운 읍에 붙였더니 지금의 왕 (중종) 초년에 다시 복구되었다.

### (5)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동국여지지의 편찬 연대는 안정복이 지은 유형원의 연보에 “효종 선문대왕 7년 병신에 여

지지가 완성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어 1656년(효종 7)에 반계 유형원이 저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제와 내용을 답습하고 있는데 기존의 서술을 일부 삭제 증편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저자의 생각이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주 연혁 역시 대체적으로 여지승람의 기술을 반복하고 있으나, 왕의 묘호 대신 중국에서 보내온 공식 시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제시한 연혁 기술의 전형을 따르고 있고 이후의 지리지가 역시 대체로 이에 다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참고로 해당 본문을 제시한다.

◎ 본래 고구려의 매성군인데 다른 말로는 창화군이라 한다. 신라 경덕왕 대에 이를 고쳐 래소군이라 하였다 고려 초에 건주로 승격되었고, 현종 때에 일부를 줄여 양주에 편입 하였다. 본조 초에 한양부( 곧 옛 양주이다)에 수도를 정할 때 주치를 건주의 구지내로 옮겨 양주부라 칭하였다. 공정왕 13년에 도호부를 삼았다. 혜장왕 12년에 승격하여 목이 되고 진을 설치하여 35개의 면을 관장하게 하였다. 관장하는 목이 하나 (파주) 군이 하나 (고양) 현이 다섯(영평, 포천, 적성, 교하, 가평)이고 관원은 목사와 교수가 각각 1인이다

## (6) 여지도서(輿地圖書)

본서는 1757년(영조 33년)에서 1764년(영조 40년)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오래 전에 편찬되어 당시의 인문지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대체할 신증 지리지가 필요하여 홍영한이 영조에게 진달하여 이 책을 편찬하였다.

여지도서의 체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의 변화된 지리 상황을 반영하되 기술 항목을 늘려서 동국여지승람과 동국여지지 등에 나타나지 않던 방리, 도로, 제언, 한전, 수전, 진공, 조적, 전세, 대동, 균세, 군병 등의 서술 항목이 새로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대체적으로 경제 관련항목이 추가되어 영조 당시의 지방 재정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반면 건치 연혁의 경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술을 한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여 여전히 오류를 반복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관찬 지리지이므로 관련 자료를 참조하거나 사실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였을 것인데도 이처럼 오류를 반복한 것은 유감일 수밖에 없다. 해당 본문의 제시는 생략한다.

## (7) 양주 목읍지 (楊州 牧邑誌)

경기도 각 읍에서 작성한 34개의 읍지를 경기도에서 합책 발간한 <경기지>에 수록된 이 양주 지리지는 각 읍지의 끝 부분에 “도광(道光) 26년 2월 - 23년 정월”까지의 간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대개 1842년(헌종 8)에서 1843년(헌종 9)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지도서가 경제, 사회 항목에 중점을 두어 편찬되었다면 이 책은 문화관계 항목에 중점을 두어 편찬되었다. 그러나 이 양주 목읍지는 건치연혁과 제영, 형승 등의 항목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술을 그대로 전제하고 있어 여지도서와 마찬가지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오류를 그대로 계승하는 실수를 거듭하고 있다. 지방관아에서 자체 편찬하였다는 점에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한계를 인정한다하여도 역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역시 해당 본문의 제시를 생략한다.

### (8) 여도비지(輿圖備志)

여도비지는 김정호와 최성환이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의 시방서(示方書)로 작성한 사찬 지리지로 편찬 연대는 1851(철종 2)에서 1856년(철종 7)로 추정되며 지도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리지와는 달리 전국 주현의 강역표(疆域表), 방위표(方位表), 도리표(道里表) 등을 도표로 제시하고 있고 다른 지리지에서 중시하는 인물, 풍속 등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양주 항목에서도 도리(道里)를 세분(細分)하여 역도(驛道), 파발(擺撥), 영(營), 진(鎭)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서술하는 특징을 보인다.

아울러 이 책은 양주의 건치 연혁을 서술하는 데에도 기존의 지리지와는 달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서술을 따르지 않고 고려사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해당 서술 체제를 따르며 동시에 이를 보완하는 독특한 체제를 보인다.

특히 “어느 왕 때” 또는 “어느 왕조 초”라는 막연한 서술을 벗어나 “어느 왕 몇 년”이라는 상세 서술을 하고 있어 나뉠대로 다양한 자료를 참조하고 또 정확한 서술을 하려고 노력한 점이 매우 돋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어느 지리서보다도 상세한 건치 연혁 서술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특히 양주의 건치 연혁을 설명하면서 그 시작을 “본래 북한산군이 다”라고 서술하여 다른 지리서 모두가 양주를 “본래 고구려 땅이다”라고 시작한 오류를 바로 잡고 있다는 점이 높이 살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양주가 “본래 백제가 건국한 땅이며, 한성 백제의 중심지 하북 위례성이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아 한성 백제의 초기 역사 상당 부분을 결과적으로 삭제한 점은 매우 아쉬운 유감으로 남는다.



해당 본문을 제시한다.

### ◎ 양주목

본래 북한산군이다. 백제 근초고왕 26년 남한(南漢)으로부터 이곳으로 도읍을 옮겼다. (아홉 왕을 거쳤으며 그 도읍의 기간은 대개 105년이다) 문주왕 원년에 웅진(지금의 공주)으로 도읍을 옮겼다.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평양을 설치하였고 진흥왕 12년 신라가 이곳을 공격하여 취하였는데 18년에 이곳을 고쳐 북한산주라 하였다가 29년에 폐지하였다. 진평왕 27년 다시 복구하여 한산정이라 칭하였다. (도독을 두었다 신라는 군영을 정이라고 불렀다)

경덕왕 36년 이를 고쳐 한양군이라 하였다. 고려 태조가 다시 고쳐 양주라 하였고 성종 12년 목(牧)을 두었다.(12목 중의 하나이다) 14년 좌신책군절도사를 두었다(12절도사 중의 하나이다) 현종 3년 다시 고쳐 안무사라 하였고, 9년에 지주사로 강등되었다. (양주의 옛 치소는 지금의 서울 중부 경행방(慶行坊)이다) 문종 23년 남경(南京)으로 승격되었다. 충렬왕 34년 이를 고쳐 한양부라 하였다. 본조(조선)에 들어와 태조 3년 이곳에 도읍을 정하니 주치(州治)를 아차산(峩嵯山)의 남쪽으로 옮겼다(지금은 고양주면이라 불린다). 다시 지양주사(知楊州事)가 되었다가 이내 승격하여 부(府)가 되었다. 6년에 치소를 다시 견주(見州) 고지(古址)에 옮겼다.(지금은 고주내면이라 불린다) 태종 13년 다시 고쳐 도호부가 되고, 세조 12년 목으로 승격되어 진을 설치하였다. 연산주 10년에 혁파되었다가 중종 원년에 다시 복구되고 치소를 불곡산 남쪽으로 옮겼다.

### (9) 대동지지(大東地志)

대동지지(大東地志)는 1863년(철종 14)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호의 지리서이다. 내용 구성을 보면 총괄(總括), 팔도지지(八道地誌), 산수고(山水考), 변방고(邊方考), 정리고(程里考), 역대지(歷代志)의 여섯 부분으로 되어 있다. 대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체제를 취하고 있으나 고전, 시문, 인물 등의 항목은 과감히 생략되어 있다.

양주 항목에서는 대략 여도비지와 그 서술이 유사하나 영아(營衙)와 전고(典故)가 들어 간 점이 특징이다. 양주 건치 연혁은 고대 및 중세 고려조의 사항은 한성부에서 상세히 서술하고 정작 양주 조에서는 조선 조 이후의 사항만 서술하되 대략 신증 동국여지승람과 여도비지의 서술을 종합한 형태로 서술하였다.

대동지지는 특히 지리지로서는 드물게 우리 역사에 대한 의식이 철저하여 이 부분이 전고(典故) 항에서 해당 사실(史實)을 전개하였고 이의 서술에는 방대한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양주 건치 연혁에 대하여는 본고에서 검토하고자하는 사실(史實)의 정확한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백제 기원과 한성 백제사의 반영이 본 항에서는 생략되어 (한성부에 별도로 실려있는데 그 서술은 대개 여도비지의 서술을 따르고 있음) 있고 동일한 본문을 전항 여도비지에서 이미 검토하였기에 본 항에서는 해당 문장을 제시하지 않는다.

#### (10) 양주 목읍지(楊州 牧邑志)

이 지리지는 전 항에 언급한 동일 제목의 지리지를 후대에 다시 증보한 것으로 형식과 체제가 전항의 양주 목읍지와 동일하다. 본서는 1871년(고종 8년)에 편찬되어 약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즉 대원군의 조세개혁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는 지리서이다.

본서의 건치 연혁은 그러나 전계 양주 목읍지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여 오류가 그대로 전승되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해당 문장을 제시하지 않는다.

#### (11) 양주 목읍지

본서는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서 조선 침략과 통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만든 전국 지리지인 <조선지지략>의 양주 부분 해당 항목이다. 동국여지승람, 조선여지지, 팔역지, 동국문헌비고, 동여기략, 동국통감, 기타 읍지 류와 통사 류를 참고하여 만들었는데 편찬 일자는 1888년(고종 25년, 명치 21년)이다. 인용된 전적이 없고 내용은 비교적 간단명료하여 대개 자신들의 조선 통치를 위한 행정 자료로 만들어진 책이다.

양주의 건치 연혁은 동국여지승람의 서술을 그대로 전재하여 발전된 내용이 없다.

해당 문장을 제시하지 않는다.

#### (12) 양주 군읍지(楊州 郡邑志)

대체로 광무 연간에 만들어진 책인데 편찬자와 정확한 편찬일시를 알 수 없다. 군액(軍

額), 조적(糶糶), 공해(公廩) 등의 항목을 제외하면 경기지의 내용과 전혀 동일하다.

해당 문장을 제시하지 않는다.

### (13) 양주 읍지

1899년(광무 3)에 편찬된 읍지로 군수 조정구가 정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군읍 지리지이다.

역시 건치 연혁은 전계 지리서들의 서술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으므로 이때에 이르면 양주 건치 연혁에 대한 오류는 완전히 그대로 정착된 느낌을 준다.

해당문장을 제시하지 않는다.

### 3. 결론

본고는 필자가 구상하고 있는 양주 지리지의 연구라는 큰 항목에서 우선 건치 연혁을 따로 구분하여 검토한 일종의 시론(試論)이다.

필자는 양주의 역사를 전거 문헌에 의거하여 간략히 검토하여 한성백제, 고구려와 백제의 다툼 그리고 고구려의 양주 지배, 백제의 수복, 신라의 지배권확보, 궁예, 왕건, 견훤을 둘러싼 양주 지역의 지배자 교체, 고려의 남경 설치와 남경 천도 운동, 조선의 건국과 한양 천도 그리고 이에 따르는 양주의 변동, 이후의 행정적 변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 사실이 각종 지리지 류의 양주 항목, 그중에서도 건치 연혁 조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어 있는가를 살폈다. 그 결과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부터 구한말 광무연간에 편찬된 근대의 지리지까지 이 부분에 상당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양주 건치 연혁에서 대부분의 지리지 류는 양주가 본래 고구려 땅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고, 그나마 사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반영한 일부 지리지조차 백제의 건국과 초기 한성 백제 즉 근초고왕 이전의 백제 지배 사실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후 관 사찬의 각종 관련 서적에 무의식적으로 확대 반영되어 결국은 500여 년 간에 걸치는 한성 백제를 삭제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역사 지리 인식에서 백제=호남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결과로 작용하였다.

한성 백제는 서울, 양주를 수도로 하여 500여년이나 존재하였던 역사적 실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공주, 아니면 백제는 부여라는 불과 200여 년의 역사적 사실이 대표 이미지로 각인되는 데는 이와 같은 지리지의 오류가 큰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후 반드시 질정(質正)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백제사 및 지역사 연구에 한 과제로 설정하여 지속적인 검토와 확인,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 지리지
- 고려사－지리지
- 삼국사기－지리지
- 신증동국여지승람－양주목
- 동국여지지
- 여지도서
- 경기지－양주 목읍지
- 여도비지
- 대동지지
- 경기읍지－양주 목읍지
- 조선지지략－양주 목읍지
- 양주 군읍지
- 양주읍지

여 백

# 서삼릉

—능역의 능묘와 태실 등에 대한 고찰—

김득환

## 목 차

1. 머리말
2. 개요
3. 서삼릉 조성 역사묘지문(墓誌文)
  - 1) 장경왕후 윤씨(章敬王后 尹氏)
  - 2) 중종(中宗)
  - 3) 인종(仁宗)
  - 4) 인성왕후 박씨(仁聖王后 朴氏)
  - 5) 철종(哲宗)
  - 6) 철인왕후 김씨(哲仁王后 金氏)
4. 조선 왕릉의 능실(陵室) 배치와 서삼릉의 현황
  - ◎ 능실(陵室)의 제도
  - 1) 희릉(禧陵)의 현황
  - 2) 효릉(孝陵)의 현황
  - 3) 예릉의 현황
5. 서삼릉 능역의 기타 왕실 묘
  - 1) 회묘(懷墓) / 성종의 폐비인 윤씨의 묘, 서삼릉 능역
  - 2) 후궁(後宮)의 묘(墓) / (서삼릉 능역)
  - 3) 왕자·왕녀·왕손의 원묘(園墓)
  - 4) 기타 왕자·왕녀의 묘
  - ◎ 서삼릉 훼손의 역사
  - ◎ 서삼릉 복원의 의의
6. 서삼릉에 집결된 조선왕실의 태실
  - 1) 조선왕실의 태(胎)문화와 태실 등에 대한 고찰
  - 2) 조선왕실 태봉과 서삼릉태실 발굴도면 자료(사진1)
7. 서삼릉태실 발굴 유적 현황
  - 1) 서삼릉 태실집장자의 시대적 배경
8. 서삼릉 태실에 대한고찰 및 자료사진
  - 1) 서삼릉 태실에 대한 고찰
  - 2) 서삼릉 태실 발굴전 자료사진 및 명종태비(사진2)
  - 3) 서삼릉 태실 종합자료(사진3)
  - 4) 서삼릉 태실 종합자료(사진4)
  - 5) 서삼릉 태실 종합자료(사진5)
9. 서삼릉 태실발굴과 바뀐 태(胎) 향이리
  - 1) 태종대왕
  - 2) 세종대왕
  - 3) 문종대왕
  - 4) 세조대왕
  - 5) 예종대왕
  - 6) 성종대왕
  - 7) 경종대왕
  - 8) 인성대군
  - 9) 연산군모윤씨
10. 맺음말

# 1. 머리말

경기도 고양시(高陽市) 원당동에 고려(高麗) 마지막 왕(王) 공양왕릉(恭讓王陵)이 있고, 용두동에 서오릉(西五陵)이 있으며 역시 원당동에 서삼릉(西三陵)이 있다. 역사(歷史)의 순(順)이다. 릉(陵)의 칭호(稱號)는 왕(王)이나 왕비(王妃)의 무덤을 일컫는 말이고, 일반적으로 무덤을 묘(墓)라고 한 것과는 차등(差等)하여 높여 부르는 말이다. 서삼릉(西三陵)은 서울 서쪽에 위치(位置)한 3기(단릉1기, 쌍릉2기)의 릉(王陵)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조선 11대왕 중종(中宗)의 계비(繼妃) 장경왕후(章敬王后) 윤씨(尹氏)의 희릉(禧陵), 12대왕 인종(仁宗)과 비(妃)인 인성왕후(仁聖王后) 박씨(朴氏)의 효릉(孝陵) 그리고 25대왕 철종(哲宗)과 그 비(妃) 철인장황후(哲仁章皇后) 김씨(金氏)의 예릉(睿陵)등 삼릉을 한데 아우르는 호칭이다.

이 서삼릉 능역에는 삼릉 이외에 소경원(昭慶園: 소현세자[昭顯世子: 인조의 아들]의 묘호)과 소현세자의 아들인 경선군(慶善君)과 경완군(慶完君)의 묘가 이미 조선시대에 조성되었다. 또 일제 강점기 이후 서울 및 서울 근교로 부터 이곳으로 이장된 회묘(懷墓: 성종의 폐비 윤씨의 묘호), 숙의나씨(淑儀羅氏: 인조의 후궁)를 비롯한 후궁(後宮)들의 묘 24기, 효창원(孝昌園: 문효세자(文孝世子: 정조의 세자)의 묘호)을 비롯한 왕자들의 묘 12기, 정소공주(貞昭公主: 세종의 왕녀)를 비롯한 왕녀들의 묘 15기, 왕손 묘로는 의령원(懿寧園: 의소세손(懿昭世孫: 영조의 세손, 사도세자의 장남)의 묘호)과 영동현주(永同縣主: 진안대군(鎭安大君: 조선 태조의 장남)의 딸) 내외 묘(쌍분)가 각각 전한다. 결과 서삼릉 능역에는 원3기 왕릉3기(쌍릉2기)포함한 왕실 묘 총 57기의 능·묘가 전한다. 또한 서삼릉 능역에는 일제강점기 이왕가(李王家)에 의하여 집단으로 조성된 조선 왕실 태실이 있다. 이 태실들은 전국 각지 조선 왕실의 태봉(胎峯)으로 부터 이장되어 온 것인데 현재 조선국왕 태실 19기, 왕자, 왕녀 및 폐비윤씨 태실등 35기 총 54기이다.

이처럼 유례가 드문 조선왕실 역대왕의 태실등이 현존하는 능역으로서 문화의 보고(寶庫)인 서삼릉 능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가져 왔고, 또한 우리의 고유(固有)한 전통문화 유적(傳統文化遺蹟)을 방외(邦外:外國)에 알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아니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영원히 보존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글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고양시 향토문화 보존회 이은만 회장님과 서삼릉 복원추진위원회 안재성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感謝)를 드립니다.

경기도 문화원 부설 고양시 향토문화 연구원  
2007年 8月 25日  
김득환



## 2. 개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서삼릉 능역은 현재 사적 제 20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 왕실 능묘와 태실 등이 있다. 서삼릉이란 명칭은 단릉(單陵)인 희릉(禧陵: 조선 제 11대왕 중종의 계비(繼妃) 장경왕후 윤씨(章敬王后 尹氏)의 능)과 쌍릉(雙陵)인 효릉(孝陵: 조선 제 12대왕 인종과 그의 비 인성왕후 박씨(仁聖王后 朴氏)의 능) 및 예릉(睿陵: 조선 제 25대왕 철종과 철인왕후 김씨(哲仁王后 金氏)의 능호(陵號))이다. 서삼릉이란 명칭은 고종 1(1864)년 예릉이 들어서면서 생겼다.

이 글을 통하여 서삼릉 조성 역사의 일부, 서삼릉 능역에 들어선 왕실 능묘 및 일제 강점기에 조성한 태실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3. 서삼릉 조성 역사, 묘지문(墓誌文)

왕릉이 조성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이 단원에서는 조선왕조의 『실록(實錄)』을 통하여 서삼릉의 왕릉들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왕과 왕비의 별세(別世: 통상 흥(薨)으로 기록), 왕릉 자리의 선정, 능호(陵號), 발인, 하관하는 과정과 날짜, 왕과 왕비의 일대기를 살펴볼 수 있는 묘지문(墓誌文)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희릉은 초장지가 이곳이 아니었으며, 정릉은 초장지였던 이곳에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으로 천장(遷葬)되었으므로 이 두릉에 대한 배경 등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1) 장경왕후 윤씨(章敬王后 尹氏)

중종의 계비(繼妃) 장경왕후는 중종 10(1515)년 3월 2일 별세하여 윤(閏) 4월 2일 발인하여 장지인 헌릉(獻陵) 옆 오른쪽 산줄기에 4월 4일 하관하였고 능호를 희릉(禧陵)이라 정하였다. 그러나 장례를 치룬지 미처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중종 10(1515)년 3월 29일에 희릉의 광중(壙中)에 큰 돌이 깔린 채 그대로 공사를 마쳤다는 설을 들며 천장(遷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왕이 움직이지 않자 중종 32(1537)년 4월 23일부터 ‘큰 돌이 광저(壙底)에 깔리면 불길하다’는 풍수지리를 근거로한 천장(遷葬) 주장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여 4월 25일 천장을 결정하였고, 같은 해 8월 25일 새 장지인 지금의 서삼릉 희릉을 향하여

천장 발인하였다. 뒤에서 언급하듯 정릉(靖陵)이 인종 1(1545)년 2월 3일경 희릉의 오른쪽으로 들어서자 두 능의 능호를 희릉으로 정하였다. 하지만 왕비의 능호를 왕이 따를 수 없다는 주장이 일어나 중종의 능호를 정릉(靖陵)으로 정하자 희릉이란 능호는 없어졌다.

그런데 중종의 능은 길지(吉地)가 아니라는 주장이 일어나 명종 17(1562)년 8월 22일 선릉(宣陵)의 왼편으로 천릉하기 위한 발인을 하였다. 이에 앞서 명종 17(1562)년 1월 12일 장경왕후의 능호는 옛 이름 희릉으로 다시 부르게 하였다.

### (1) 장경왕후의 별세

<이날 삼경 오점(三更五點)에 중궁(中宮) 윤씨(尹氏)가 승하하였다. 곧 정월에 전교하기를, “일이 여기에 이르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상장(喪葬)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곧 준비하도록 하라.”하니, 도승지 손중돈(孫仲墩)·동부승지 허굉(許磁)이 아뢰기를, “신들도 또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신과 예조 판서를 부르시어 함께 상사(喪事)를 의논케 하소서.”하였다.> 『중종실록』 10(1515)년 3월 2일

### (2) 장경왕후의 능호(陵號)

<좌의정 정광필·우의정 김응기·우찬성 장순손·형조판서 강흔·병조판서 신용개·예조판서 김전·우참찬 이계맹·이조판서 박열·공조판서 안당·호조참판 한형윤·예조참판 성몽정·이조참판 심정·공조참판 김극픽 등이 의논하여 대행왕비(大行王妃)의 휘호(徽號)를 숙신 명혜(淑愼明惠), 시호를 장경(章敬) 【온극 영의(溫克令儀)를 장(章), 숙야 경계(夙夜警戒)를 경(敬)이라 한다.】 능호(陵號)를 희릉(禧陵), 전호(殿號)를 영경(永慶)이라 하였다.> 『중종실록』 10(1515)년 3월 7일

### (3) 장경왕후 희릉의 천장(遷葬)

태종의 능인 헌릉(獻陵) 옆 오른쪽 산줄기에 있었던 장경왕후의 희릉(禧陵)은 광중(壙中)에 큰 돌이 박혀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로 인하여 희릉은 중종 32(1537)년 천장되었는데 바로 지금의 서삼릉 희릉인데 이는 서삼릉에 들어선 최초의 왕릉이다. 아래는 이 천장과 관련된 기록이다. 그런데 아래 『중종실록』 32(1537)년 6월 19일과 10월 28일 기록에서 보듯 새 희릉의 자리로 인하여 경기도 고양(高陽)의 관아 및 민가(民家)들이 이전되었다. 즉 지금의 희릉 자리를 포함한 일대는 최초의 경기도 고양군의 치소(治所)였는데 희릉 천장으로 인

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된 것이다.

<전교하였다. “새로 택한 능 자리의 주산(主山)이 비록 지전(紙錢)처럼 매달렸다 하나 사설(邪說)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다만, 이 지대에 살고 있는 4백여 호를 장차 철거해야 할 것이므로 관속은 의지할 데가 없게 되고 백성 중에는 혹 유리(流離)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심지어 그 읍(邑)까지도 옮겨야 하니, 이 폐단이 매우 크다. 공역(功役)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산으로 고쳐 잡는다면 폐해를 조금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럿이 의논해서 고양(高陽)의 산형(山形)을 그려 아뢰라.” 사신은 논한다. 당시 사람들은, 김안로(金安老)가 끝내는 자신이 그 땅에 장사하려고 처음에는 지전처럼 매달리는 혐의점을 아뢰지 않았다가, 보토(補土)한 뒤에 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 잡기를 강력히 청하였고, 또 그 강정(江亭)의 뒤에 돌을 때어놓고 암석이 벼락 맞아서 혐의가 된다고 지적한 다음, 다시 다른 곳을 닦게 하고는 자신이 썼다.> 『중종실록』 32(1537)년 6월 19일

<좌의정 윤은보, 우의정 유보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고양(高陽)의 천읍(遷邑)은, 처음에는 의항(蟻項)의 역사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승도들을 옮겨 역사시킨 것인데 지금까지도 뽑아서 역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전(畿甸)의 군민(軍民)은 천사(天使)를 꺾고 나자마자 또 천릉(遷陵)의 일을 당했으니 극도로 곤폐합니다. 천사가 수개월 간격으로 오니, 군사를 내어 영구(營構)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만약 승군이 이미 뽑아 시키고 있다면 우선 일을 마칠 때까지만 그대로 시키고, 이후부터는 비록 역사할 곳이 있더라도 다시는 뽑아 오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대신의 의논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32(1537)년 10월 28일

<정언 이문건(李文楨)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장경왕후(章敬王后)의 산릉(山陵)을 쓸 때, 3월 【을해년.】 28일에 처음 광(壙)을 뚫는데, 겨우 무릎 하나 짚의 깊이에 큰 돌이 광 안에 가로 깔려 있었으므로 도감(都監)의 관원들이 석공을 시켜 정(釘)으로 파내도록 하였다. 그런데 돌이 매우 단단하고 커서 정을 뚫 데가 없으므로 그 돌의 하단을 찾아내어 파냈는데, 파낸 돌이 거의 20여수레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이 그때 역사에 참여했던 석공에게서 들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들으니, 어떤이는 ‘돌을 파내고 그 구덩이에다 안장했다.’고도 하고 ‘위쪽 혈(穴)자리에 돌이 있었으므로 조금 내려서 했다.’고도 했습니다. 대체로 돌이

있는 곳은 반드시 물기가 있는 것이기에, 이 말을 듣고서는 한심스러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선유(先儒)의 말에 ‘장사하는 땅은 반드시 흙이 두껍고 물기가 없는 데를 택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돌을 파내고 안장했다니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그때의 장인(匠人) 중에 아직도 살아 있는 자가 있으니, 물어보면 그때의 일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김근사가 아뢰기를, “이 말은 놀랍습니다. 그때의 도감 제조(都監提調) 및 낭관 중에 반드시 살아 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때의 일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에도 돌을 파낸 일을 와서 아뢰는 자가 있어서 의금부를 시켜 추고했으나, 확실하지 않기에 버려두었다. 그때의 관원에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능을 옮기기는 어려우니, 물어보아도 소용이 없다. 또 과연 그 말과 같다면 당시의 제조(提調)들이 차마 그대로 썼겠는가.” 였는데, 김근사가 아뢰기를, “이 일은 자세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실지로 땅 안에 돌이 있었다면 능 옮기는 것이 어찌 어렵게 여길 일이겠습니까?” 하고, 윤인정이 아뢰기를, “그때 의금부가 추고한 문서를 고찰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김근사가 아뢰었다. “그때의 관원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차마 쓰지 않았을 것이며, 그와 같이 돌이 있는데도 그대로 썼다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중종실록』 32(1537)년 4월 23일

<정원이 정원에 간직하고 있는 을해(중종 10, 1515년) 산릉(山陵) 때의 『일기(日記)』를 고찰해 보았는데, 아래와 같았다. “을해년 3월 29일에 도승지 손중돈(孫仲墩)이 산릉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앞서 정해놓은 혈 자리를 5척 가량 파들어가니 큰 돌이 가로 놓였는데, 그 뿌리가 깊고 멀리 뻗어 마침내 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혈 자리 아래로 굴을 파보니, 돌덩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의 혈 자리처럼 심하지 않아 파내기가 매우 쉽습니다. 비록 바꾸어 쓰더라도 산의 형세나 수구(水口)가 위의 자리와 다름이 없고 청룡(靑龍)과 백호(白虎) 또한 조금도 틀리지 않아 쓰기에 매우 합당합니다. 다만 이는 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으므로 정승 【김응기(金應箕).】 이 신에게 가서 연유를 아뢰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였다. 상이 전교하기를 ‘돌이 있으면 쓸 수 없으니 그 아래가 쓸만하다면 쓰라. 다만 길흉이 위의 혈 자리와 어떠한가를 다시 지리학(地理學)에게 물어보고 아뢰라.’ 하니, 손중돈 등이 즉시 지리학 조윤(趙綸)을 불러 물어보니, 그의 말이 ‘이 산은 형세가 곧게 되었기 때문에 향(向)과 배(背) 및 청룡과 백호가 조금도 틀림이 없고, 아래 혈 자리는 수구(水口)가 곧 이록(二祿)이 해당되니 오히려 위의 혈 자리보다 좋습니다. 당초에

이 자리로 정하려 하였으나 다만 능의 앞이 짧은 듯하여 반드시 흙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흙을 보충하는 공역이 어찌 많겠습니까. 쓰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였다. 손중돈이 즉시 이대로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을해년 4월 초 하룻날 우의정(右議政) 김응기(金應箕), 예조판서(禮曹判書) 김진(金詮),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임유겸(任由謙) 등이 와서 아뢰기를 ‘앞서 정한 혈자리는 돌이 있기 때문에 옮겨서 그 아래 자리를 쓰기로 한 것을 색승지가 이미 와서 아뢰었을 것입니다. 어제 그 아래 혈 자리를 파보니 앞서 정했던 위의 혈 자리에서 2척 가량 옮기면 합당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능 앞이 짧지 않아 석물(石物)을 놓을 만하여 흙을 보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리학이 이 산은 형세가 곧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5~6척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여 옮기어 쓰더라도 길흉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니, ‘알았다. 이를 가지고 삼공에게 의논하겠다.’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32(1537)년 4월 23일

<전교하기를, “능을 옮기는 일은 분명하게 처리하여 후세에 다시 시특한 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옳다. 옮겨 장사해야 할 것인지를 정부와 육경 및 판윤(判尹)을 불러 의논하여 정하라.” 하니, 영의정 김근사, 좌의정 김안로, 우의정 윤은보, 우찬성 심언경, 공조 판서 조윤손, 호조 판서 소세양(蘇世讓), 병조 판서 윤임(尹任), 예조 판서 윤인경(尹仁鏡), 형조 판서 김인손(金麟孫), 이조 판서 심언광(沈彦光), 판윤 오결(吳潔)이 의논드리기를, “『일기』를 고찰해 보건대, 산릉 도감(山陵都監)이 계품한 말이 그러했고, 그때의 낭관 및 석공들의 말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금정(金井)에 박힌 돌을 파내기가 어려워 옮겨서 아래의 혈 자리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돌을 파내고서야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언덕이 짧으므로 위의 혈 자리를 2척 가량 합쳐서 쓴 다음에야 제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석공이 ‘윗면 및 좌우의 돌 뿌리를 제거할 수 없어서 그대로 두고 삼물(三物)을 쌓았다.’고 하고, 또 ‘당시의 제조 및 낭관이 모두들 이 말이 새나갈까 몹시 두려워했으므로 내가 오랫동안 입밖에 내지 않았다. 지금은 그 관원들이 모두 돌아갔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이로 본다면 그 당시에 또한 온편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뜻이 있었던 것인데, 조정에서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범범하게 산의 형세만 가지고 논하면서 풍수들의 애매한 말에 구애되어 옮기려는 것이라면 이유가 옳바르지 못하니, 참으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 광(壙)은 곁에 돌이 깊이 박히고 멀리 뻗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습기가 그대로 쌓이다가 물방울이 되어 흘러 내려와 점차로 광 안에 차게 된다면 물이 괴게 될 것은 뻔한 형세인데,

어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한 번 전파되었으니, 듣는 사람치고 누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못 사람들의 의심은 괴변을 만들고 여러 사람들의 말은 쇠도 녹이는 법입니다. 인심이 의심하고 동요하는 것은 참으로 깊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어 또 아뢰기를, “못 사람들의 의논이 모두 같으므로 부득이 옮겨야 한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다. 또 관상감에게 지리서에 돌이 장지에 흉한 까닭을 말한 것이 실려 있는 것을 뽑아내도록 하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는 풍수의 말이어서 참으로 위에 주달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미 지리국(地理局)을 두고 그의 방술(方術)로 장지를 가리어 정하고 있으므로, 신들이 흉함을 보고는 아뢰지 않을 수 없기에 아울러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앞서 대신들이 아뢰기에 나 역시 온당치 않게 여겼으나, 다만 길흉에 구애되어 20여 년이나 된 능을 갑자기 옮기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듯 싶었다. 그러나 못 사람들의 의심이 이러하니 능을 옮기겠다.” 하고, 이어 정원을 명하였다. “능을 옮기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마련하라고 해조에 말하라.”> 『중종실록』 32(1537)년 4월 25일

<좌의정 김안로 등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천릉을 발인할 때의 일은 대개 치계했습니다. 그런데 옛 능을 열고 내재궁(內梓宮)을 꺼낸 뒤에 외재궁(外梓宮)의 널판 밑을 보니 물이 스며든 흔적은 있는 듯하지만 물이 권 흔적은 달리 없었습니다. 내재궁을 수건으로 닦았더니 옷칠한 것이 여전했으므로 물기가 안에 침입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외재궁 사이에 끼워넣은 옷가지는 다 젖었고 외재궁 본판 아래의 흙은 물기가 있어 진흙 같았으며, 애책(哀冊)과 보완(寶玩)이 들어 있는 께 속에는 작은 그릇으로 하나 정도의 물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아 물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재궁은 견고하여 쉽게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 다시 하지 않는다면 후일 의심이 생겨서 영영 미안할 듯하니 다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것이 지당하다. 열어보면 과연 만세토록 의심이 없으리니 재궁을 다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소렴(小斂)을 다시 하게 되면 시신 움직이는 것을 초상 때와 같이 할 것이니 지극히 미안하다. 비록 축축한 기운이 있긴 하지만 어찌 대렴한 것을 지나 소렴한 것에까지 미쳤겠는가? 소렴은 다시 할 수 없다.” 하였는데, 김안로 등이 다시 아뢰기를, “만약 축축한 기운이 있다면 비록 소렴이라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열어 보아서 만약 습기가 있어서 소렴까지 젖었다면 어찌 다시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산릉나인(山陵內人) 중 한 사람은 장경 왕후(章敬王后)의 초

상 때 연습하는데 참여한 자이고 한 사람은 정현왕후(貞顯王后) 상사 때 참여하여 일을 본 사람인데 모두 옛일을 잘 안다. 그리고 소렴이 끝나고 난 뒤 내인들은 나가 피하게 하고 윤임(尹任)으로 하여금 들어가 모든 일을 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종실록』 32(1537)년 8월 26일

<윤인경이 또 독계(獨啓)하기를, “신이 후릉(厚陵)을 봉심하고 돌아올 때에 고양(高陽) 백성들이 길을 막고 고하기를 ‘이와 같은 흉년에 군수(郡守)가 갈리게 되었으니 어떤 괴로운 일이 이와 같겠느냐.’고 했었습니다. 【고을 안에 있는 사포서(司圃署)의 채전(菜田)을 이삼(李杉)이 몰래 점유했던 것을 호조가 이미 전에 측량하여 속공(屬公)했었는데, 군수 심극례(沈克禮)와 호조 정랑 유혼(柳渾)이 다시 측량할 적에 이삼에게 멋대로 도로 준 죄로 추문을 받고 파직되었었다.】 이는 심극례가 혼자 범한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대로 두고 유독 심극례만 파직하였으니, 이는 또한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게 된 일입니다. 신이 군수를 변호하여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을은 정유(중종 32, 1537)년에 관사를 옮겼는데 【희릉(禧陵)을 옮기는 일 때문에 옮겨 지었다.】 그 일을 아직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본시 한길 결의 잔폐한 고을인데 또한 자주 수령을 교체한다면 장차 버린 고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뭄이 든 때에 새로 제수된 관원이 어떻게 능히 흉년을 구제하는 일을 조치해 갈 수 있겠습니까.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게 되었고, 인리(人吏)들이 또한 길을 막고 정소(呈訴)했기 때문에 감히 아됩니다.” 하니, 답하기를, “어사를 보내지 말자는 것은 알았다. 내가 말한 장관(長官)이란 것은 정부의 장관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곧 육조와 같은 큰 관사를 가리킨 것이다. 정부의 동서벽이 접임하고 있는 의금부 당상 1명은 과연 체직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러나 옥사(獄事)의 긴급 여부를 보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고양 군수에 관한 공사(公事)를 내가 그렇게 한 까닭은, 유혼은 북경(北京)에 갈 날이 임박해서 죄를 줄 수가 없었고 사포서 관원은 곧 그 말단인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그대로 둔 것이다. 심극례는 본 고을의 수령으로서 직접 측량하는 일을 관장한데다가 법사(法司)가 또한 파직하는 것으로 조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일단 이미 파직하여 그의 잘못을 지적하였으니 대신이 아뢰는 말에 따라 그대로 영임(仍任)시키는 것도 무방하다.”> 『중종실록』 39(1544)년 5월 10일

## 2) 중종(中宗)

중종은 재위 40(1544)년 11월 15일 별세하였고 그 장지는 같은 해 12월 희릉의 오른편

약 1백보 썸으로 결정되었다. 중종의 능호는 처음에는 희릉을 그대로 으나 장례를 치룬 뒤 부터는 정릉(靖陵)으로 바꾸었다. 중종의 대여(大輿)는 인종 1(1545)년 2월 3일 발인하였지만 정확한 하관일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중종의 정릉은 길지가 아니라는 의논이 일어 명종 4(1549)년 10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거치고 명종 14(1559)년 4월 23일 천장을 결정하였다. 결국 정릉은 지금의 선릉(宣陵) 곁으로 명종 17(1562)년 8월 22일 천장 발인하여 9월 3일 하관하였다.

### (1) 중종의 별세

<유시(酉時). 상이 환경전(歡慶殿) 소침(小寢)에서 흥(薨)하였다.> 『중종실록』 39(1544)년 11월 15일

### (2) 중종의 장지 선정

<우의정 윤인경이 아뢰기를, “산릉(山陵)을 간심(看審)하는 일은, 신들이 양주(楊州)·광주(廣州)를 두루 돌아다녔으나 구하지 못하다가 고양(高陽)에 이르러 희릉(禧陵)에서 1백보썸 떨어진 곳에 합당한 곳이 있었으므로 입계합니다.” 하니, 답하였다. “지리관(地理官)으로 하여금 경기 지방을 두루 살피게 하고 치부(置簿)한 이외의 멀리 있는 여러 산까지도 널리 찾게 하여 좋은 곳을 얻으면 여러 재상들이 다시 가서 간심하도록 하라.”> 『중종실록』 39(1544)년 12월 2일

<총호사(摠護使) 윤인경(尹仁鏡)이 산릉(山陵)의 조·석전과 상식의 의식을 가지고 아뢰기를, “의주(儀註)에 이르기를 ‘왕후를 만약 영(塋)을 함께 하게 되면 능사(陵司)에 왕후의 신위를 영좌(靈座)의 동쪽에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영을 함께 한다.’는 말은 같은 둔덕에 능 두 개를 만드는 것인지 어떤지를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큰 일은 의정(議定)하기가 어려우니 내일 육경 이상을 폐초(牌招)하여 회의함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중종실록』 39(1544)년 12월 22일

### (3) 중종의 능호

중종의 처음 능호는 묘지문에서와 장경왕후의 희릉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이후 왕이 왕



비의 능호를 따른 것이 논란이 되었으며, 결국 어느 시점에서인지 중종의 능호는 정릉(靖陵)으로 고쳤다. 그리고 이전 능호 희릉은 폐지되었음을 아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대간이 아뢰기를, “희릉(禧陵)·영경전(永慶殿)은 다 장경왕후(章敬王后)의 구호(舊號)를 그대로 쓰는 것이니 존비(尊卑)와 경중(輕重)의 뜻에 어긋납니다. 구례(舊例)가 있다고는 하나 옛사람이 ‘낮은 것을 높은 데에 원용(援用)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만고의 떳떳한 도리이니 억견(臆見)으로 경솔히 바꿀 수 없습니다. 살았을 때에 섬기는 것이나 장제(葬祭)는 다 예(禮)를 따라야 마땅한 것으로 예에 어긋난다면 효도라 할 수 없는데, 어찌 구례를 따르고 상례(常例)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능과 전의 호를 고치소서.”하니, 답하기를, “선왕 때에는 구례를 따른 일이 잦았거니와 조정이 의논해 아뢴 것도 그러하였으므로 내 생각에 예로부터 범연하게 생각하여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져 곧바로 따랐던 것이다. 이제 대간이 논한 것이 이러하니, 곧 정부의 당상관 전수(全數)와 예조의 당상관 전수와 육조의 참판 이상과 한성부의 당상관과 정승을 지낸 사람을 불러 의논하라. 그런 뒤에 조치할 것을 결정하겠다.” 하였다. 영의정 윤인경(尹仁鏡), 좌의정 유관(柳灌), 우의정 성세창 병조판서 정옥형(丁玉亨), 예조판서 임권(任權), 공조판서 허자(許磁), 호조판서 임백령(林百齡), 판윤 윤사익(尹思翼), 공조참판 강현(姜顯), 좌윤 박우(朴祐), 우윤 홍섬(洪暹)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능과 전의 호를 처음 의논할 때에 고례와 본조의 전례를 살폈는데, 내상(內喪)이 먼저 있어서 능과 전의 호가 이미 있을 경우에는 대왕이 승하하였을 때에 그 구호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쓴 때가 많았었기 때문에 전규(前規)를 열기(列記)하여 여쭙어 정하였으니, 이제 고칠 것 없겠습니다.” 하고, 예조참판 정만중(鄭萬鍾), 호조참판 심연원(沈連源), 병조참판 신영(申瑛), 예조참의 김익수(金益壽)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능(陵)과 전(殿)의 호를 그대로 쓰는 것이 선왕 때의 구례이긴 할지라도 예에 있어서는 미안하니 고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윤인경의 의논에 낙점(落點)하였다.> 『인종실록』 1(1545)년 윤 1월 22일

<상이 의식대로 정릉(靖陵)에 배알하고 능에 올라 슬피 살피고 또 배곡(拜哭)하였다. 왕후의 능에 오르려 할 때에 찬례(贊禮) 임권(任權)이 찬도(贊導)할수 없음을 아뢰고 물러가니, 참판(參判) 정만중(鄭萬鍾)이 대신하였다. 수릉관(守陵官) 정세호(鄭世虎)와 시릉관(侍陵官) 임세무(林世茂)에게는 가자하고 옷을 주었으며, 참봉(參奉) 및 내관(內官)도 한 자급을 올렸고 아래로 차비인(差備人)과 입번(入番)한 수릉군(守陵軍)에 이르기까지 각각 쌀과 베를 내렸다.> 『인종실록』 1(1545)년 3월 11일

#### (4) 중종 정릉(靖陵)의 천장

<우의정 상진, 예조판서 윤개, 관상감 제조 김익수(金益壽)가 정릉(靖陵)을 간심(看審)하고 와서 아뢰기를, “세 상지관(相地官)의 【이기환(李淇渙)·이귀근(李龜根)·김수(金錫)이다.】 소견이 각기 달랐으나 전체적으로는 모두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김수가 ‘문곡(文曲) 방위에 봉우리가 솟아 있는데 문곡 방위는 흉한 방위로 그곳에 봉우리가 있으면 흉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들이 다시 보니 사실은 봉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설령 봉우리가 솟아 있다 하더라도 그 좌우에 탐랑(貪狼)과 무곡(武曲)이 길한 방위에 있어 해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또 전해 듣기로는, 주산(主山)이 낮아서 혈(穴)과 맞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번에 동구(洞口)에서 보았을 때는 맞지 않는 듯하더니만 막상 산에 올라가서 보니 아주 잘 맞았고 또 곧았습니다. 전해 들은 말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산은 임산(壬山)이어서 높거나 크면 흉하고 반드시 낮아야지만 길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어서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김미(金璽)와 안위(安瑋)는 술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므로 별로 제기한 의논이 없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명종실록』 4(1549)년 10월 7일

<상진(尙震)에게 전교하였다. “일찍이 정릉이 길하지 못하다는 말을 듣고 항상 미안하게 생각해 왔었는데, 지금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니 나의 의심이 풀린다.”> 『명종실록』 4(1549)년 10월 8일

<산릉도감이 아뢰기를, “천릉(遷陵)한 뒤에 정릉(靖陵)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하되, 왕후의 능은 다시 희릉(禧陵)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희릉은 장경왕후(章敬王后)의 옛 능호(舊陵號)이다.】 해조로 하여금 널리 전고(典故)를 상고하여 마련해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좌의정 이준경(李浚慶)과 병조판서 정응두(丁應斗)가 아뢰기를, “정릉(靖陵)에 가서 지형을 살펴보니, 만약 천릉을 하게 되면 정자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게 되어 희릉(禧陵)과는 근접해 있지 않게 됩니다. 천릉한 뒤에 지관(地官)으로 하여금 날짜를 택하게 해서 옮겨 배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아무 까닭 없이 천릉을 하여 하늘에 계신 영령을 놀라게 할 것인가? 신하가 된 자는 마땅히 울부짖으며 옷자락을 붙잡고라도 반드시 임금의 뜻을 되돌려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만세토록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저 이준경은 한 나라의 대신이 되어 이미 간하여 중지시키지도 못하고 그저 순종만 하면서, 스스로는 총호(摠護)하는 직책을 진심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배릉(拜陵)할 때 그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겠는가? 저따위 정승을 장차 어디에다 쓸 것인가.> 『명종실록』 17(1562)년 2월 14일

<발인(發靚)하여 신릉(新陵)을 향해 도성을 지나갈 때에 상은 궁중에서 서쪽을 향하여 부복하고 지송하였고, 도성에 있는 백관들은 광화문 밖에서 서쪽을 향하여 부복하고 지송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능침을 옮기는 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산이 무너지거나 물에 꽤어나가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능을 옮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풍수의 길흉설(吉凶說)에 끌리어 옮기는 것도 불가한데 하물며 옮길 만한 아무런 까닭도 없이 대중의 의사와 여론을 어겨가며 옮기는 것이겠는가. 중중께서 돌아가신 지가 지금까지 몇 년이었던가. 그 동안 체백(體魄)이 이곳에서 편안히 지냈고 혼령도 이곳에 노셨으며 희릉·효릉도 이곳에 있으니, 인정으로 신명의 도를 미루어 보건대 어찌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할 이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번 천릉한 일은 상의 뜻이 아니고 문정 왕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백성이 모두 알고 있다. 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 투기(妬忌)하는 사나운 여자가 어찌 없을까마는 이미 죽어 유명(幽明)을 달리한 뒤까지 시기하여 남편의 무덤을 옮겨 전처(前妻)의 무덤과 멀리 떨어지게 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당시의 대신들은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 19년 동안 편안히 모셔져 있던 신어(神御)를 하루아침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으니, 하늘에 계시는 중종의 혼령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다. 아! 애통하다.> 『명종실록』 17(1562)년 8월 22일

<천릉 도감이 아뢰었다. “오늘 간시(良時)에 하관하고, 묘시 초에 안릉제(安陵祭)을 지냈 습니다.” 사신은 논한다. 능침을 옮기는 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쉽사 리 거행할 수 없는 것이다. 옛날 문왕(文王)이 왕계(王季)를 천장한 것은 그의 묘가 물에 파 였기 때문이며, 노(魯)나라 은공(隱公)이 혜공(惠公)을 천장한 것은 송(宋)나라 군사가 침범하 였고 태자(太子)가 어려서 예법을 갖추어 장사지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능을 옮기 자는 의논은 성렬 대비(聖烈大妃)의 뜻이었으니 대개 장경 왕후(章敬王后)와 같은 경내에서 무덤을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비록 구룡의 득수(得水)·득파(得破)가 좋지 못하여 옮긴다고 핑계하였지만 사실은 신후지계(身後之計)를 한 것이다. 요승(妖僧) 보우(普雨)가

은밀히 그 계획을 도와 지리(地理)를 아는 중을 시켜 봉은사(奉恩寺) 곁에 자리를 정하게 하였으니, 이는 보우가 이 사찰에 주지로 있으면서 저들의 소굴을 튼튼히 하려고 한 것이다. 그 일이 매우 전도된 것인데도 대신들은 막지 않았다. 안현(安瑛) 같은 자는 명을 받드는 데 온갖 힘을 다 쏟아 승군(僧軍)들을 공대하는 것도 극력 주선하여, 중들을 애뜻하게 여기는 자전(慈殿)의 뜻을 기쁘게 하기를 힘쓰니 사람들이 모두 더럽게 여겼다.> 『명종실록』 17(1562)년 9월 4일

### 3) 인종(仁宗)

인종은 인종 1(1545)년 7월 1일 별세하였다. 인종의 능은 유언을 따라 부모의 능 당시 정릉 곁에 정하였다. 능호는 명종 즉위(1545)년 7월 12일 효릉이라 정하였으며 10월 12일 발인하여 10월 15일 하관하였다.

#### (1) 인종의 별세

<묘시(卯時)에 상(上)이 청연루(淸讌樓) 아래 소침(小寢)에서 홍서(薨逝)하였다.> 『인종실록』 1(1545)년 7월 1일

#### (2) 인종의 장지 선정

<대비가 영의정 등에게 전교하기를, “대행왕의 유교가 저러하니, 산릉을 복정(卜定)할 때에는 정릉(靖陵) 근처에서 먼저 살펴야 하겠다.” 하니, 회계하기를, “하교하시지 않더라도 신들도 먼저 살펴려 하였습니다.” 하였다.> 『인종실록』 1(1545)년 7월 5일

#### (3) 인종의 능호

<영의정 윤인경 등이 대행대왕의 묘호(廟號)를 인종(仁宗)이라고 의정(議定)하였는데 인(仁)을 배풀고 의(義)를 행함을 인이라 한다. 시호(諡號)는 헌문 의무 장숙 흠효(獻文懿武章肅欽孝)라 하였는데, 총명 예지(聰明睿智)함을 헌(獻)이라 하고, 도덕 박문(道德博問)을 문(文)이라 하고, 체화 거중(體和居中)을 의(懿)라 하고, 강강 직리(剛強直理)를 무(武)라 하고, 경신 고명(敬慎高明)을 장(章)이라 하고, 집심 결단(執心決斷)을 숙(肅)이라 하고 위의 실비

(威儀悉備)를 흠(欽)이라 하고, 병덕 불회(秉德不回)를 효(孝)라 한다. 능호(陵號)로는 사(思)·효(孝)·유(裕) 셋을, 전호(殿號)로는 영모(永慕)·영효(永孝)·영안(永安) 등 셋을 의망(擬望)해 아뢰었다. 묘호를 처음에 현친(賢親)을 귀히 여기는 것을 인(仁)이라 한다고 정하였었는데, 송인수(宋麟壽)가 말하기를, “여러 사람들이 인(仁)자를 묘호로 삼으려는 데 있어 그 해석이 어찌 현친을 귀히 여겼다는 것 뿐이겠습니까. 시법(諡法)에 없다고 하여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옛글에 ‘사육을 극복하여 예(禮)로 돌아간다.’는 글이 있으니, 이것으로 이 인자를 해석하는 것이 매우 합당할 것입니다. 또 송 인종(宋仁宗)의 시호에 ‘만인의 임금’이 되어 인(仁)에 이르렀다.’고 해석하였으니, 이 역시 쓸 수 있습니다.” 하고, 신광한(申光漢)은 말하기를, “우리 스스로 법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시법에 없다는 것에 구애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옛 임금의 시호에는 시법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였다. 이를 영상·좌상과 영부사(領府事)에게 고하니 ‘불가하다. 어찌 시법에 없는 것을 창작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윤개(尹漑)가 말하기를, “시법에 인을 베풀고 의를 행함을 인이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 윤인경은 말하기를, “이를 아울러 쓰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드디어 이 두 가지 말로 정하여 모든 재신에게 보였더니, 다들 좋다고 하였는데, 유독 임백령(林百齡)이 말하기를, “어느 것이 되든지 귀일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을 베풀고 의를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니, 송기수(宋麒壽)가 말하기를, “인의(仁義) 두 글자가 있어서 자못 합당한 미칭(美稱)입니다.” 하였는데, 중의(衆意)도 그렇게 여겼다. 홍언필(洪彦弼)이 말하기를, “현친(賢親)을 귀히 여기는 것을 인이라고 한다 한 것에 대해 옛글에서도 극히 찬미하였으니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의가 다 인을 베풀고 의를 행하였다는 것이 낫다고 하니, 중의에 따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시호를 처음에 예문 철부장숙 흠효(睿文哲武章肅欽孝)로 정하였는데 예(睿)를 헌(獻)으로 고치려 하였다. 홍언필이 말하기를, “태조(太祖) 강헌 대왕(康獻大王)의 헌(獻) 자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중의가 총명 예지를 헌(獻)이라 한다는 것을 극찬하였으므로 그대로 썼다. 또 철(哲)을 의(懿)로 고치는 데 대해 허자(許磁)가 말하기를, “체화 거중(體和居中)의 뜻이 실덕(實德)과 부합합니다. 대행왕의 소행은 언제나 중도(中道)에 의하여 하셨으니 쓸 만합니다.”하고, 홍언필이 말하기를, “중화(中和)의 덕이 어찌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였으므로, 드디어 그대로 썼다. 능호와 전호도 각각 셋으로 의망하여 입계, 수점(受點)하려 하였는데, 좌승지 최연(崔演)이 말하기를, “전번 중종의 능호와 전호를 정할 때 대행왕께서 낙점(落點)하는 것을 미안하게 여겨 드디어 낙점하지 않고 말로만 결정하여 내렸습니다.” 하니, 윤인경이 ‘옳은 말이다.’ 하

고는 낙점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까지 아울러 아뢰었다. 낙점하지 않는 것은 군부(君父)를 지극히 존경하는 뜻인 것이다. 능호는 효릉(孝陵)이라 정하고 전호는 영모전(永慕殿)이라 정하였다.> 『명종실록』 즉위(1545)년 7월 12일

#### (4) 인종의 발인 등

<윤인경와 유관이 아뢰기를, “대행왕의 발인(發靚) 및 하현궁(下玄宮)하는 날짜를 계하(啓下)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산릉제조(山陵提調) 등이 함께 의논하기를 ‘금년은 윤달(閏月)이 있어서 일찍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10월 27일은 동지(冬至)가 임박하여 일기가 매우 추울 것이므로 임시하여 난처한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들 하였는데, 신들의 생각에도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27일에 필역(畢役)하는 것이 아니고 하현궁한 뒤에도 여러 가지 역사가 매우 많은데 날씨가 몹시 추워지면 미진한 일이 많게 될 것이니, 10월 12일에 발인하여 15일에 하현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는 다른 달로 앞당겨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10월 중이라서 앞당기거나 물리거나 해도 무방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기일을 가깝게 정하는 것은 미안한 것 같으나 절후가 일찍 추워진다면 모든 역사가 과연 어렵게 될 것이다. 어찌 범연히 헤아려 아뢰었겠는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명종실록』 즉위(1545)년 7월 30일

<우의정 이기, 예조 판서 윤계, 도승지 최연(崔演) 등이 산릉(山陵)에서 와서 산릉의 형세를 도식(圖式)으로 그려 올리고 이어 아뢰기를, “어제 예문(禮文)에 의하여 금정(金井)을 파니 흙이 두껍고 물기가 없어 참으로 좋았습니다. 다만 10척을 파야 되는데 술가(術家)가 일시에 다 파면 기운이 새나간다고 하고 세속(世俗)에서도 꺼리므로 8척만 파고 2척은 임시하여 다 파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릉의 화소(火巢) 근처의 민가 및 여러 무덤들도 아울러 옮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기가 또 아뢰기를, “산릉의 역사는 지금 이미 끝나가는데 장사지낼 기일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역사를 정지하였습니다. 비록 27일에 장사를 지내더라도 5개월이 되지 않기는 매한가지니, 신의 생각에는 전에 택일한 15일에 장사지내어 얼음이 얼기 전에 역사를 끝마치고 일찍 군인(軍人)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이 전에 의주 목사(義州牧使)로 있을 적에 옛 성터를 파 보았는데 그 성터가 몇 년이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얼었던 물건이 그때까지 조금도 녹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장사지낼 때 얼면 비록 장사지낸 지 1백 년이 되더라도 녹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겨울이 되면 방안의 물건도 어는데 더구나 산간(山間)의 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

겠습니까. 신은 장사지낼 적에 얼음이 얼면 극히 미안스러울까 염려된 까닭으로 감히 아뢰니 다.” 하고, 또 아뢰기를, “또 다른 큰일이 있습니다. 즉위하신 뒤로 경사전(景思殿)에 한 번도 친제(親祭)하지 않으신 것은 빈전(殯殿)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27일에 장사지낸다면 졸곡(卒哭)이 11월 보름에 있게 되는데 그 15일은 바로 중종의 소상이니 부득이 연제(練祭)를 지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사이의 예모(禮貌)가 역시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생각해 보건대 15일이 타당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뜻을 알았다. 민가와 여러 무덤들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장사지내는 기일에 대해서는 당초에 조정이 어찌 범연히 계획하여 15일로 정하였겠는가. 그런데 그때 간관(諫官)들이 논제한 것은 27일로 물려 정하면 장사지내는 기일이 4개월 내가 되지만 졸곡(卒哭)은 5개월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지금 장사지낼 때에 얼음이 어는 것을 미안스럽게 여겨서라면 4개월 내에 장사지내는 것은 매한가지이니 15일에 장사지내는 게 좋겠다. 그러나 이것은 큰일이니 정부 당상·영중추부사·육조 판서·한성부 판윤 등을 명초(命招)하여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라.” 하였다. 자전이 이어 이기에게 전교하기를, “주상이 비록 어린 나이지만 경사전(景思殿)에 친제(親祭)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그러나 대사(大事) 때문에 감히 하지 못한 것이다. 산릉(山陵)에 장사지내는 기일을 15일로 앞당겨 정한다면 연제(練祭)의 예모(禮貌)에도 자연 폐단이 없을 것이다.” 하니, 이기가 회계하기를, “무릇 예라고 하는 것은 시의(時宜)를 짐작하여 변통해서 중도(中道)를 얻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옛말에도 ‘예(禮)라 예라 하지만 옥백(玉帛)만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하였습시다. 신은 이 때문에 감히 아뢰니 다.” 사신은 논한다. 이기가 발인(發靱) 날짜를 앞당겨 정하자고 청하였으니, 그가 서둘러 장사지내려 한 죄와 임금을 업신여긴 죄악은 천지가 아는 바이다. 또 현량과(賢良科)를 다시 혁파하자고 청하였으니 그가 훌륭한 선비들을 배척하는 마음은 천성이 그러하였다. 하였다.> 『명종실록』 즉위(1545)년 9월 26일

<정원이 산릉 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의 【임권(林權)·정사룡(鄭士龍)·권응창(權應昌).】 뜻으로 아뢰기를, “어제 금정(金井)을 팔 때에 김형(金炯)이 ‘상하의 흠의 조습(燥濕)이 각기 다르니 2척쯤 파면 틀림없이 물이 날 것이다.’고 하였는데 5~6척까지 파도 상하가 한결같아 조금도 의심스러운 점이 없자 김형이 도리어 재삼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일이 성취될 무렵에 김형은 수상 지관(首相地官)으로서 이런 망령된 말을 하여 여러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도감(都監)이 마음대로 조처하기가 어려우니 조정으로 하여금 다시 살펴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인경이 가서 살펴도록 하라.” 하였다.> 『명종실록』 즉위

(1545)년 9월 26일

<영가(靈駕)가 산릉(山陵)을 향하여 떠나는데, 【거리에서 통곡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상이 지송례(祇送禮)를 정지하였다. 【윤인경과 이기가 아뢴 것을 따른 것이다.】 > 『명종실록』 즉위(1545)년 10월 12일

#### 4) 인성왕후 박씨(仁聖王后 朴氏)

인성왕후는 선조 10(1577)년 11월 29일 별세하여 이듬해 2월 1일 발인, 동일 효릉의 원편에 부장되었다.

##### (1) 인성왕후의 별세

<전교하기를, “공의전(恭懿殿)이 신시(申時) 초에 승하하시었으니 내 마음이 망극하다. 모든 일을 정현왕후(貞顯王后)의 예에 따라 하도록 하라.”하였다.> 『선조실록』 10(1577)년 11월 29

##### (2) 인성왕후의 장지 선정

<총호사(摠護使) 홍섬(洪暹)이 효릉(孝陵)을 봉심(奉審)한 뒤에 좌방(左旁)을 쓰기로 정하였다.> 『선조실록』 10(1577)년 12월 26일

##### (3) 인성왕후의 발인 등

<대행 대비(大行大妃)의 발인(發靱) 때에 상이 광화문(光化門) 밖에서 지송(祇送)하였으며 영가(靈駕)가 숭례문(崇禮門) 밖으로 나간 뒤에야 상이 환궁(還宮)하였다.> 『선조실록』 11(1578)년 2월 1일

<인성왕후(仁聖王后)를 효릉(孝陵)에 부장(拊葬)하였다. 발인할 때에 큰 바람이 불어 장막이 쓰러져 대여(大輿)에 덮였으나 곁에는 시위가 없었고, 조졸(扈卒) 두어 명이 떠들썩할 뿐이었으니, 의장(儀仗)과 시위가 엄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선조수정실록』 11(1578)년 2월 1일 <하현궁(下玄宮)하고 돌아와 창경궁(昌慶宮) 문정전(文政殿)에서 반우



제(返虞祭)를 지냈다.> 『선조실록』 11(1578)년 2월 15일

## 5) 철종(哲宗)

철종 14(1863)년 12월 8일 별세하여 희릉과 예릉의 사이에 장지를 정하였다. 고종 1(1864)년 4월 6일 발인하여 다음날 하관하였고 능호는 예릉이라 정하였다.

### (1) 철종의 별세

<묘시(卯時)에 임금이 창덕궁(昌德宮)의 대조전(大造殿)에서 승하(昇遐)하였다.> 『철종실록』 14(1863)년 12월 8일

### (2) 철종의 장지 선정

<능자리를 잡으로 갔던 산릉 도감(山陵都監)의 당상관(堂上官) 이하를 불러서 집견하였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말하기를, “따로 적은 기록을 보니 다섯 군데가 좋다고 했는데 의견들이 어떤가?”라고 하는데 대해서 도감(都監)의 당상관(堂上官)인 임백경(任百經)이 말하기를, “이번에 능자리를 잡기 위하여 먼저 동쪽길로 향하였으며 돌아오는 길에 ‘이미 지정해놓은 후보지 이외에도 살펴볼만한 곳이 있거든 함께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고 서쪽길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보았습니다. 수국사(守國寺)의 뒷산 등과 고양(高陽)의 안산(案山)도 살펴보았으니 도합 여덟 군데나 됩니다. 지관(地官)들의 말에 의하면 3, 4군데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대왕대비가 말하기를, “그 중의 어느 자리가 가장 좋은가?”라고 하니 임백경(任百經)이 말하기를, “신이 본래 풍수에는 어둡지만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도 희릉(禧陵)이 있는 오른쪽 등성이와 원줄기의 형세라든지 관국의 짜임새라든지 극히 귀하고 크게 길한 자리로 인정됩니다. 창릉(昌陵) 왼쪽 등성과 소령원(昭寧園) 오른쪽 등성도 모두 좋은 자리이며 의소묘(懿昭墓)가 있는 오른쪽 등성도 괜찮은 자리입니다.”라고 하였다. 대왕대비가 말하기를, “상지관(相地官)들도 말을 하라.”고 하니 상지관인 김석희(金錫熙)와 관상감(觀象監)에 소속되지 않은 상지관인 박경수(朴京壽), 양종화(梁鍾華) 등이 말하기를, “희릉(禧陵) 오른쪽의 등성은 열에 열 가지가 다 원만하여 대단히 좋은 자리이고 창릉(昌陵) 왼쪽의 등성과 소령원(昭寧園) 바른쪽 등성, 의소묘(懿昭墓) 오른쪽 등성도

또한 대단히 좋아서 큰 보람이 있을 자리입니다.”라고 하였다. 대왕대비가 말하기를, “두 번째로 살펴보러 가거나 세 번째로 살펴보러 갈 때에는 지사(知事) 김병학(金炳學)과 김병국(金炳國)도 함께 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종실록』 즉위(1863)년 12월 20일

### (3) 철종의 발인 등

<세상을 떠난 대왕의 상여(喪輿)가 축시(丑時)에 떠났는데 홍화문(弘化門) 밖에서 하직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고종실록』 1(1864)년 4월 6일

<우리 철종대왕(哲宗大王)을 예릉(睿陵)에 장사지냈다. 관(玄宮)을 광중으로 내려놓은 시간에는 선정전(宣政殿) 뜰에서 능을 바라보면서 곡(哭)을 하였다.> 『고종실록』 1(1864)년 4월 7일

### (4) 철종의 표석(表石)

<비문(碑文) 철종 희륜 정극 수덕 순성 문현 무성 현인 영효 대왕(哲宗熙倫正極粹德純聖文顯武成獻仁英孝大王)께서는 승정(崇禎) 기원후(紀元後) 2백 4년 신묘년 6월 17일 탄생(誕生)하시었고, 기유년 6월 8일 덕완군(德完君)에 봉하여졌으며, 9일에 즉위(卽位)하였다. 계해년 12월 8일 승하(昇遐)하였으며 갑자년 4월 7일 고양(高陽)의 희릉(禧陵) 오른쪽 산등성이 자좌(子坐)의 언덕에 장사지내었다. 재위(在位)는 14년이고, 향년(享年)은 33세이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흥근(金興根)】이 지었다> 『철종실록』, 「부록」

## 6) 철인왕후 김씨(哲仁王后 金氏)

철인왕후는 고종 15(1878)년 5월 12일 별세하여 9월 16일 발인하여 9월 18일 철종의 원편에 부장하였다.

### (1) 철인왕후의 별세

<지시하기를, “성의와 효성이 부족하여 오늘 인시(寅時)에 대비 전하께서 양화당(養和堂)에서 돌아가셨으니 끝없는 슬픔을 어디에 비기겠는가.”라고 하였다. 또 지시하기를, “궁성을 호위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지시하기를, “상사(喪事)를 발표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는 명정전(明政殿)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종실록』 15(1878)년 5월 12일

## (2) 철인왕후의 장지 선정

<지시하기를, “이번에 능자리를 가볼 때 우선 예릉(睿陵)의 구역안부터 보고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지시하기를, “호조(戶曹)의 경비가 몹시 부족하다고 하기에 대궐에서 돈 3만 냥을 내주어 세 도감(都監)에 나누어보내면 지출하기 어려운 근심이 조금 풀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종실록』 15(1878)년 5월 17일

<임금이 여막에서 산릉 간심 도감(山陵看審都監)의 당상관(堂上官) 이하를 불러서 만나 보았다. 【산릉 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 조석여(曹錫輿), 관상감 제조(觀象監提調) 이인설(李寅高), 예조참판(禮曹參判) 김병삼(金炳三)】 지시하기를, “별단은 이미 자세히 보았다. 경(卿) 등이 이미 가서 살펴보았으니 소견이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니 조석여가 아뢰기를, “신 등이 지시를 받고 우선 예릉(睿陵) 구역 안을 가서 살펴 보았는데 능 위의 동쪽이 널찍하여 보통 눈으로 보기에 역시 좋은 땅이라는 것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지관(相地官)에게 물었더니 모두들 단지 좋은 지대일 뿐만 아니라 올해 운수도 역시 그게 좋으리라고 하였지만 만만번 다행한 일입니다. 신 등은 원래 능자리를 보는데 암둔하여 확답을 할 수 없지만 여러 상지관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지시하기를, “여러 상지관(相地官)들은 앞으로 나와서 각각 본 바를 말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상지관(相地官) 김재규(金在奎), 이현필(李賢弼), 김재경(金在璟) 등이 아뢴 바는 제조(提調)가 아뢴 것이 대략 같았다. 이어 지시하기를, “다시 가서 살펴 볼 때에는 현임 및 전임 대신(大臣)과 총호사(總護使)가 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종실록』 15(1878)년 5월 18일 <임금이 여막에 가서 능자리를 다시 보러갔던 현임 및 전임 대신(大臣) 이하 관리들을 불러서 만나보았다. 【영부사(領府使) 이유원(李裕元), 총호사(摠護使) 김병학(金炳學), 판부사(判府事) 홍순목(洪淳穆),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 우의정(右議政) 김병국(金炳國), 산릉 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 김보현(金輔鉉), 관상감 제조(觀象監提調) 김수현(金壽鉉), 예조 판서(禮曹判書) 윤지승(尹滋承)】 지시하기를, “산에 대한 논의와 별단은 이미 상세히 보았다. 소견들이 어떠한가?”라고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동쪽 널찍한 데는 과연 나무랄 데 없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상지관(相地官)의 말도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지시하기를, “그렇다면 그 지대가 낮은 담장 안인가 밖인가? 그 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니 김병국

이 아뢰기를, “낮은 담장 밖으로부터 불과 몇 척(尺) 쯤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지시하기를, “그렇다면 복토(補土)할 흙으로 메울 곳은 없는가?”라고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복토할 곳은 대충있으나 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산릉(山陵)은 지금 이미 두 번 보았습니다. 마땅히 다음 순서의 의식 절차가 있어야 하겠는데 지시를 받은 뒤에야 거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지시하기를, “을축년(乙丑年) 규례는 어떠한가?”라고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을축년(乙丑年) 규례에는 두 번 본 후에 이어 봉쇄하는 표말을 세웠습니다.”라고 하니 지시하기를, “을축년 규례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산릉을 두 번 본 다음에 봉쇄하는 표말을 세우는 것을 정축년(丁丑年) 규례대로 할 것을 지시하셨는데 좋은 날을 예조(禮曹)로 하여금 고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승인하였다. > 『고종실록』 15(1878)년 5월 20일

<오시(午時)에 예릉(睿陵)과 같은 언덕에 봉쇄하는 표말을 세웠다.> 『고종실록』 15(1878)년 5월 204

### (3) 철인왕후의 능호

<지시하기를, “산릉(山陵)은 이미 예릉(睿陵)과 같은 언덕에 정하였으니 반드시 새로 능호(陵號)를 정할 필요는 없다. 해당 조(曹)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종실록』 15(1878)년 5월 24일

### (4) 철인왕후의 표석

<지시하기를, “산릉표석(山陵表石)은 예릉(睿陵)에 배당하였던 것을 들여다 쓰되 뒷면에 새긴 글과 앞면은 일체 정밀하게 연마하도록 분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종실록』 15(1878)년 5월 25일

### (5) 철인왕후의 발인 등

<돌아가신 대비의 영구가 출발하여 산릉(山陵)에 이르렀다.> 『고종실록』 15(1878)년 9월 16일 <인시(寅時)에 천전(遷奠)을 지내고 현궁(玄宮)을 묻었다.> 『고종실록』 15(1878)년 9월 18일

## 4. 조선 왕릉의 능실(陵室) 배치와 서삼릉의 현황

조선시대 왕릉은 고려 현릉(玄陵)을 모범으로 출발하였다. 이 가운데 능의 내부는 다음과 같이 배치하였다.

### ◎ 능실(陵室)의 제도

“현궁(玄宮)은 같이 하고 실(室)은 다르게 한다. 왕후의 실(室)은 동쪽에 있고 수실(壽室)은 서쪽에 있다. 광(壙)의 깊이는 10척(尺)이요,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한다.】 동서(東西)가 29척이며, 【숯가루[炭末]로 쌓은 것이 동서(東西)가 각각 5촌(寸)이고, 석회(石灰)·세사(細沙)·황토(黃土)의 세 가지 물질로써 합해 쌓은 것이 각각 4촌(寸)으로서 9척(尺)이 되고, 석실(石室)의 동서(東西) 외면(外面)의 상거(相去)가 20척이므로, 29척이 된다.】 남북(南北)이 25척 5촌(寸)이다. 【숯가루 등 세가지 물질이 모두 9척이 되고, 석실의 남북(南北) 외면(外面)의 상거(相去)가 14척 5촌이며, 문의 의석(倚石)이 2척이 되므로, 모두 25척 5촌이 된다.】 남면(南面)을 열어 놓아 연도(羨道)를 삼는다. 그 실(室)을 만드는 순서는 격석(隔石)과 방석(傍石)·우석(隅石) 등 사면석(四面石) 아래 지석(支石)과 박석(博石)을 입배(入排)하는 땅에 깊이 2척 5촌을 더 파서 그 밑의 본토(本土)를 쌓고, 【그 남면(南面)의 박석(博石)은 문역석(門闕石)이라 이름한다. 지석(支石)의 높이는 1척이요, 박석(博石)의 높이는 1척 5촌이니, 무릇 2척 5촌이다.】 다음에 지석(支石)을 들여 넣어 가로 두 줄로 배열(排列)하여 광(壙) 밑의 원토(元土)와 면(面)을 가지런하게 한다. 【그 박석(博石)의 양쪽 머리가 닿는 곳을 버티게 한다.】 그 지석(支石) 사이는 삼물(三物)을 사용하여 매워서 쌓는다. 【삼물(三物) 안에 석회(石灰) 3분(分)과 황토(黃土)·세사(細沙)는 각각 1분(分)을 유피(榆皮)의 끓인 물로써 타게 한다.】 석체(石砌)가 닿는 곳의 면(四面) 원토(元土)에 깊이 7촌을 더 파고, 【굵은 모래를 사용하여 본토와 도로 매우되 쌓지는 말며, 돌을 끼운 곳에는 견고하게 쌓는다.】 다음에 동망(銅網) 각기 1개씩을 두 실(室)의 안에 펴고, 【동망(銅網) 사변(四邊)을 지석(支石) 위에 각기 1촌씩 덮는다.】 유회(油灰)를 지석(支石) 위에 펴고, 그 다음에 박석(博石)과 문역석(門闕石)을 더한다. 【무릇 두 돌이 닿는 곳에는 모두 유회(油灰)로 발라 채워서 빈틈이 없게 한다.】

서방(西傍)으로부터 격석(隔石)을 내려서 두 실(室) 사이에 두고, 다음에 양북우석(兩北隅石)과 양방석(兩傍石)을 내리되 각기 그 옆으로부터 내린다. 【격석(隔石)과 북우석(北隅石)

의 아래에 박석(博石)이 광내(壙內)에 들어간 것이 각각 2촌씩이 되고, 방석(傍石) 아래에 박석(博石)이 광내에 들어간 것이 각각 3촌씩이 되며, 문역석(門闕石)이 광내에 들어간 것이 각각 5촌씩이 된다.】 우석(隅石)과 방석(傍石)이 서로 닿는 곳에는 모두 무쇠못[水鐵錠]으로써 파고 넣어 서로 물려서 물리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사우석(四隅石) 서쪽 끝의 안쪽가와 우방석(右傍石) 북쪽 끝의 바깥쪽가의 상접(相接)한 곳과, 동우석(東隅石) 동쪽 끝의 안쪽가와 좌방석(左傍石) 북쪽 끝의 바깥쪽가의 상접(相接)한 곳에는 모두 파고 철정(鐵錠)을 넣는다.】 다음에 석체(石砌)를 내리고는 사방에 모두 협석(挾石)을 둔다. 【석체(石砌)는 격석(隔石) 및 북우석(北隅石)과 떨어지기가 각기 5촌씩이고, 방석(傍石)과 떨어지기가 각기 1척 1촌씩이며, 문비석(門扉石)과 떨어지기가 각기 8촌씩이 된다.】

【협석(挾石)은 석체(石砌)와 사면(四面) 박석(博石)의 사이에 끼우는데, 남북이 각각 1개씩이고, 동서가 각각 2개씩이다. 석체(石砌)의 가운데 빈 곳에는 세사(細沙)와 황토를 사용하여 튼튼하게 쌓아서 석체(石砌)와 가지런하게 한다. 협석(挾石)의 사이에는 굵은 모래를 사용하여 본토와 같게 하고, 그 지면(地面)은 박석(博石)·협석(挾石)·문역석(門闕石)과 함께 상면(上面)을 가지런하게 한다.】 > 『세종실록』 28(1446)년 7월 19일

조선 초기 왕릉 내부에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큰 돌로 석실(石室)을 만들어 현궁(玄宮)이라 부르는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재궁(梓宮)이라 부르는 왕의 관(棺)을 넣었다. 이 때 석실 사방에는 청룡·백호·주작·현무로 부르는 사신(四神)을 그렸고 천정에는 인간의 운명을 주관한다는 별자리를 그렸다. 그런데 이 석실 조성은 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었고 종종 사람을 다치게도 하였다. 이에 세조(世祖: 재위 1455-1468년)의 유언을 따라 왕릉에서는 석실 대신 삼물회(三物灰)로 현궁(玄宮)을 만들게 되었다.

현궁의 위로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들었으며 그 주위는 병풍석으로 부르는 호석(護石)을 둘러 밖으로 흙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였다. 봉분 높이는 약 4m이며 표면에 잔디를 심었다. 봉분의 주변 북·동·서쪽의 3면에는 곡장(曲牆)이라 부르는 담을 쌓았다. 봉분과 곡장 사이에는 수호석물로서 석호(石虎), 석양(石羊), 석마(石馬)가, 봉분의 앞에는 상석(床石)·향로석·장명등·문인석·무인석·망주석 등이 설치되었다. 조선의 왕릉은 봉분 앞을 3단으로 만들어 그 1단에는 상석(床石)·석양·석호·망주석을 두었으며, 그 아래 2단에는 홀(笏)을 권 문인석과 장명등을, 마지막 3단에는 장검을 빼서 두 손으로 짚고 있는 무인석을 배치하였다.

조선 왕릉에서 인조의 장릉(長陵) 까지는 왕릉에서 병풍석을 두르고 또 그 주변을 다시 난간석으로 두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영릉(英陵: 세종의 능호)과 추존된 왕

과 왕비의 능, 광릉(光陵: 세조의 능호)에는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을 둘렀으며, 일부 추존된 왕릉에서는 난간석도 설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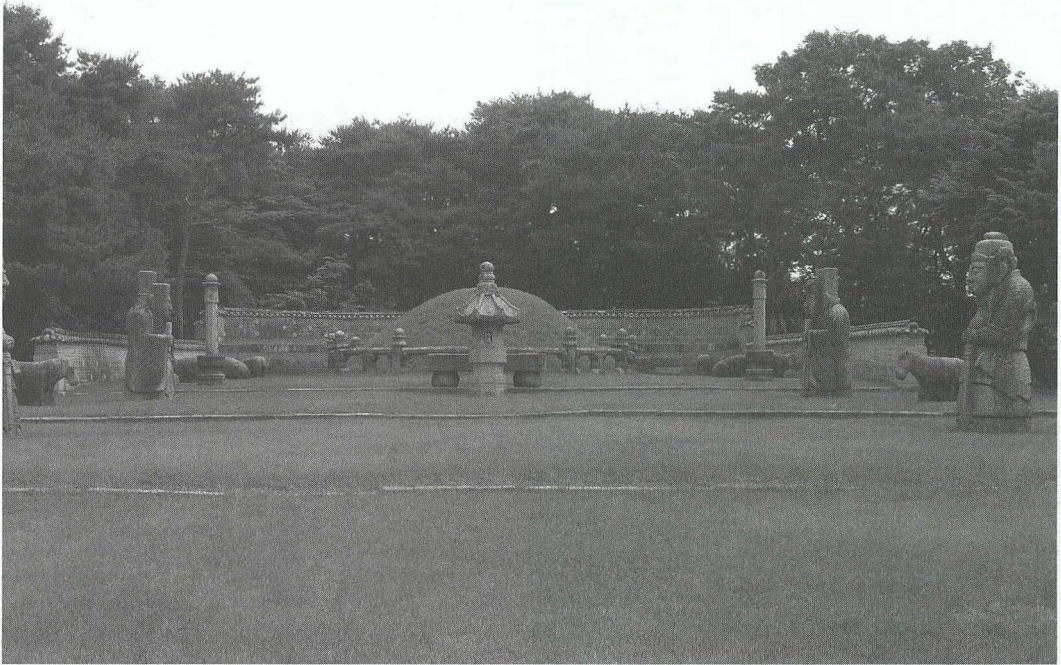
조선 후기에 조성한 영릉(寧陵: 효종과 왕비 인선왕후의 능호)부터는 병풍석을 설치하지 않았다. 단 정조 때 조성한 현릉원(顯隆園)과 대한제국 때 조성한 홍릉(洪陵: 명성태황후 민씨의 능호)과 유릉(裕陵: 순명효황후 민씨의 능호)에서는 병풍석을 다시 등장하였다.

사초지 아래쪽에는 제향을 거행하는 정자각을 지었다. 이 정자각으로 오르는 층계는 동쪽과 서쪽에 있는데 이는 제례의식에 동입서출(東入西出) 즉 동쪽에서 진입하여 제향을 하고 서쪽으로 내려온다는 뜻을 지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은 후대에 내려 오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정자각 기단 정면에도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자각 후면 서쪽에는 예감(瘞坎)이 있는데 제향 후에 축문을 묻는 방향의 석함이다. 정자각 앞에는 참도(參道)가 박석으로 깔려 있고 참도의 맨 아랫쪽에 홍살문이 세워진다. 홍살문 좌우에 망릉위(望陵位)를 두었는데 이곳은 사헌부 감찰이 예감에서 축관이 축문을 불사르는 것을 감시하는 곳 나아가 제례 때 정자각에 까지 갈 수 없는 신분의 사람들이 능을 참배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정자각 동쪽에는 표석을 보호하는 비각이 있고, 비각의 아랫쪽에는 수복방(守僕房)이 있으며 정자각 서쪽에는 수라간이 있다.

홍살문 밖 능역에는 돌다리(石橋), 재실(齋室)을 마련하였다. 왕릉은 령(令) 또는 참봉(參奉)이라는 관원을 두어 수호를 책임지웠다. 또한 왕릉의 가까이 왕과 왕비의 안위(安慰)를 기원하는 원찰(願刹)을 두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태조 건원릉의 개경사(開慶寺), 세조 광릉의 경우 봉선사(奉先寺) 등이다. 왕릉의 홍살문 밖에는 풍수지리 즉 장풍득수(藏風得水)와 관련하여 연못을 만들었다. 이 연못은 명당(明堂)의 물을 간직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었는데, 반드시 그 안에 소나무를 심은 섬을 만들었다. 즉 이 섬은 바다 가운데 있다는 신산(神山)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신선사상 표현 전통을 따른 것이다.

## 1) 희릉(禧陵)의 현황



희릉(禧陵) 11대왕 중종의 계비(繼妃) 장경왕후 윤씨(章敬王后 尹氏)의 능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산 37-2 서삼릉 능역 공개지역

중종 10(1515)년에 천장으로 조성된 희릉은 북동에서 남서 방향의 언덕에 조성하였다. 이곳에 장경왕후의 희릉을 천장한 것은 어쩌면 장경왕후를 8세부터 길러 준 이모 박씨(朴氏: 월산대군 부인)의 묘가 근처에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희릉은 현황 및 석물 배치는 3면의 곡장, 팔각의 장명등 1, 망주석 1쌍, 석양 석호 각 2쌍, 문인석과 무인석 각 1쌍, 석마 2쌍, 상석 1, 정자각, 수라간(水刺間) 터, 망료위, 표석이 있는 비각, 예감(瘞坎), 수복방(守僕房) 터, 참도(參道), 망릉위(望陵位), 홍살문, 돌다리(石橋) 등이 있는데 이는 조선 전기 왕릉 양식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희릉의 봉분 주변에는 병풍석이 없이 난간석만 배치하였다. 이것은 검소한 장례를 치룬 결과이기도 하지만 세조의 유명(遺命)을 따른 조선 전기 능제를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희릉의 정자각은 아래 기록처럼 본래 정릉(靖陵) 즉 중종의 능과 관련하여 옮겨진 바 있다. 즉 이 정자각은 정릉(靖陵)을 오른쪽에 모실 때 두 능의 중간으로 옮겨다가 정릉이 지금



의 강남구 삼성동으로 천장되자 옛 자리인 지금의 자리로 옮겨 지금에 이르고 있다.

<총호사(摠護使) 이준경이 아뢰기를, “정자각(丁字閣)은 당초에 회릉의 아래 아주 가까운 곳에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정릉을 모실 때에, 그 정자각이 한쪽 능 아래에 치우쳐 있게 되었기 때문에 두 능의 중간 지점으로 옮겨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릉을 옮기게 되었으니 다시 옛 자리로 옮겨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듯싶습니다. 그러나 신들이 함께 의논해 본 결과, 정자각이 선후(先后)의 능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 30여 년 동안 신로(神路)로 길이 형성되어 오르내리면서 편안히 흠향(歆饗)하시게 된 지도 오래되었으니, 이제 와서 다시 뜯어 옮겨 원릉(園陵)을 동요케 함은 불가합니다. 감히 계품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바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30여 년 동안 오르내리면서 편안히 흠향하신 정자각(丁字閣)도 오히려 뜯어 옮겨 원릉을 동요시켜서는 안 될 일인데, 하물며 옥관(玉棺)이 은은한 빛속에 잠겨 성령(聖靈)이 편안히 여기신 지 이미 18년이나 된 것을 아무 까닭없이 천장(遷葬)을 하니, 신자(臣子)의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진정 지극한 정리(情理)로써 성충(聖聰)을 개발한다면 어찌 감동치 않을 이치가 있겠는가. 이준경이 자기가 본 바를 들어 아뢰면서 말을 하려고 하다가 다하지 못했으니, 애통하다. 이 ‘신로(神路)가 길을 이루었다.’는 말을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 오열하게 된다.> 『명종실록』 17(1562)년 1월 15일

비각 안에는 승정기원후일백이십육년(崇禎紀元後一百二十六年) 즉 영조 29(1753)년에 세운 표석이 있다. 이 표석 앞면은 장경왕후 회릉으로 뒷면은 왕비 및 왕릉의 주요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아래는 이 표석 건립과 관련된 기록이다.

<처음에 임금의 여러 능침(陵寢)의 비역(碑役)을 가까운 능에서부터 시작하여 장릉(章陵)·강릉(康陵)·태릉(泰陵)·효릉(孝陵)·희릉(禧陵)의 비역을 먼저 거행하라고 명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도감을 설치하였다.> 『영조실록』 29(1753)년 1월 11일

## 2) 효릉(孝陵)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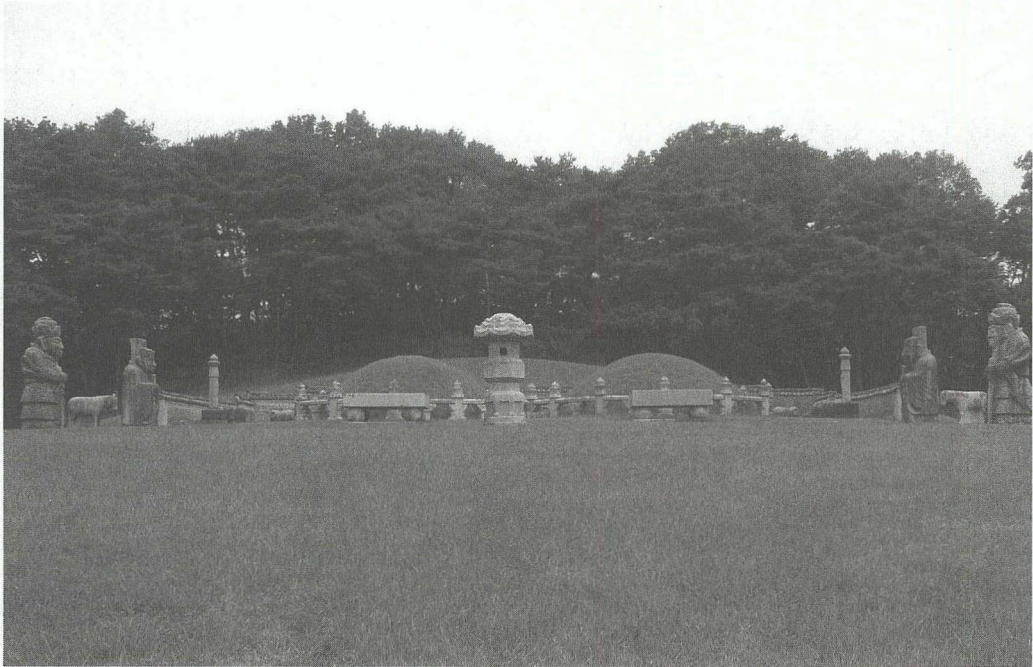
효릉(孝陵) 조선 제 12대왕 인종과 그의 비 인성왕후 박씨(仁聖王后 朴氏)의 능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산 40-1, 산 40-2 서삼릉 능역 비공개지역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곳에 있다. 희릉과 마찬가지로 북동에서 남서 방향의 언덕 위에 있는 쌍릉이다. 효릉은 곡장, 상석 2, 장명등 1, 문인석과 무인석 각 1쌍, 석마 2쌍, 석양 2쌍, 석호 2쌍이 있다. 효릉은 조선 전기의 왕릉 양식에서 처럼 상석 이하를 3단으로 만들어 석물을 배치하였다.

효릉에서 인종의 능에만 있는 병풍석은 처음부터 조성된 것이 아니고 선조 때 별세한 인성왕후를 효릉에 부장(附葬)하면서 조성하였다 한다. 인종은 임종 직전에 자신의 장례는 검소하게 치루어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인성왕후의 능은 병풍석이 없고 난간석만을 둘렀다. 이 같이 왕과 왕비의 능이 쌍릉인 경우 왕릉에 병풍석과 난간석을 두르고 왕비릉에는 난간석만 두른 경우는 선릉(宣陵: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성종(成宗)과 계비(繼妃) 정현왕후 윤씨의 능호)과 목릉(穆陵: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선조(宣祖)와 그 왕비 의인왕후 박씨와 계비 인목왕후 김씨의 능호)에서 볼 수 있다. 효릉의 상석은 왕과 왕비의 능에 하나씩 배치하였는데 이는 조선시대 왕릉의 일반적인 제도이다. 왕과 왕비를 합장한 경우에도 상석은 대부분 두 개를 배치하였다.

### 3) 예릉의 현황



예릉(睿陵 조선 제 25대왕 철종과 철인왕후 김씨(哲仁王后 金氏)의 능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산 37-1.2 서삼릉 능역 공개지역

정복에서 정남향의 언덕 위에 있는 예릉은 쌍릉이며 곡장, 상석 2, 석양 석호 석마 각각 1쌍, 문인석과 무인석 각각 1쌍, 망주석 1쌍, 정자각, 홍살문 등을 설치하였다.

예릉은 조선 인조 장릉(長陵) 이후의 양식 대로 봉분에서 병풍석은 없고 난간석 만을 두르고 있다. 또한 석물은 조선 후기인 영조 이후 왕릉에서 일반적 배치 방식인 2단 공간에 배치하였다. 예릉에서 특이한 점은 2단 보다도 더 아래쪽에 장명등을 배치한 점, 왕과 왕비의 쌍릉이 난간석으로 연결된 점이다. 기타 예감(瘞坎), 참도(參道), 망릉위(望陵位), 비각(碑閣), 수랏간 터, 수복방 터(守僕房 址), 돌다리(石橋) 등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비각 안 표석은 순종 2, 윤희 2(1908)년에 세운 것이다. 앞면에는 ‘哲宗章皇帝睿陵(철종장황제예릉)/哲仁章皇后祔左(철인장황후부좌)’라 새겼고 뒷면에는 이 능을 조성한 내력을 간략하게 새겼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 김홍근이 지은 철종의 예릉 표석이 있었고 또 철인왕후의 장례 때에도 표석에 관한 기록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예릉에는 이 표석이 없다. 이것은 1908년 예릉의 표석을 철종장황제라고 각자한 위 새 표석을 세울 때 옛 표석을 묻은 결과라고 추정된다.

## 5. 서삼릉 능력의 기타 왕실 묘

서삼릉의 능력에는 위에서 살펴본 왕릉 이외에 회묘(懷墓: 성종의 폐비인 윤씨의 묘), 3원(園: 소경원(昭慶園: 소현세자의 묘), 의령원(懿寧園: 의소세손의 묘), 효창원(孝昌園: 문효세자의 묘)), 왕자·왕녀의 묘 22기, 후궁의 묘 13기 등 총 39기의 묘가 있다. 이 가운데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묘는 소경원(昭慶園) 뿐이고 나머지는 일제 강점기와 광복 이후 천장된 묘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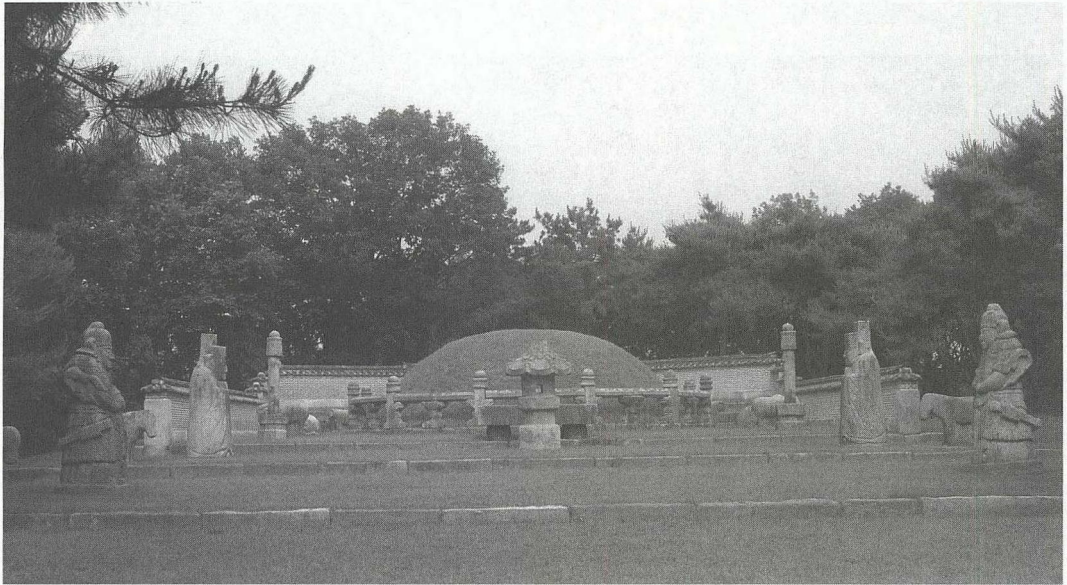
이들 묘를 일제 강점기에 서삼릉의 능력으로 천장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당시 이곳이 이 왕가(李王家)의 소유인 왕실 땅이었기 때문이다. 이 묘들은 대개 서울과 고양시에 있었으므로 도시 계획과 개발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였고 또는 후손이 없으므로 천장하여 보다 용이하게 관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묘 가운데 왕자 왕녀의 묘에는 일괄 같은 크기의 묘비를 천장과 함께 새로 만들어 세웠다. 이 비석에는 비석의 이름을 전면에 적고 뒷면과 측면에는 원래 묘 위치, 천장 연월 일을 간략하게 새겼다.

이들 묘 가운데 후궁의 묘에는 묘비 만든 천장 때 함께 옮겨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당시 천장 작업 때 옛 묘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석물을 땅에 매몰하거나 방치하고 온 것을 알 수 있다.

광복 이후의 천장은 구황실재산관리국(舊皇室財産管理局: 1963년 폐지) 및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지금의 문화재청 전신)에서 주관한 것으로 본다. 이 시기의 천장은 일제 강점기 이후의 전통에 따른 것이며 동시에 이곳이 역대 조선 왕실과 연고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 1) 회묘(懷墓) / 성종의 폐비인 윤씨의 묘, 서삼릉 능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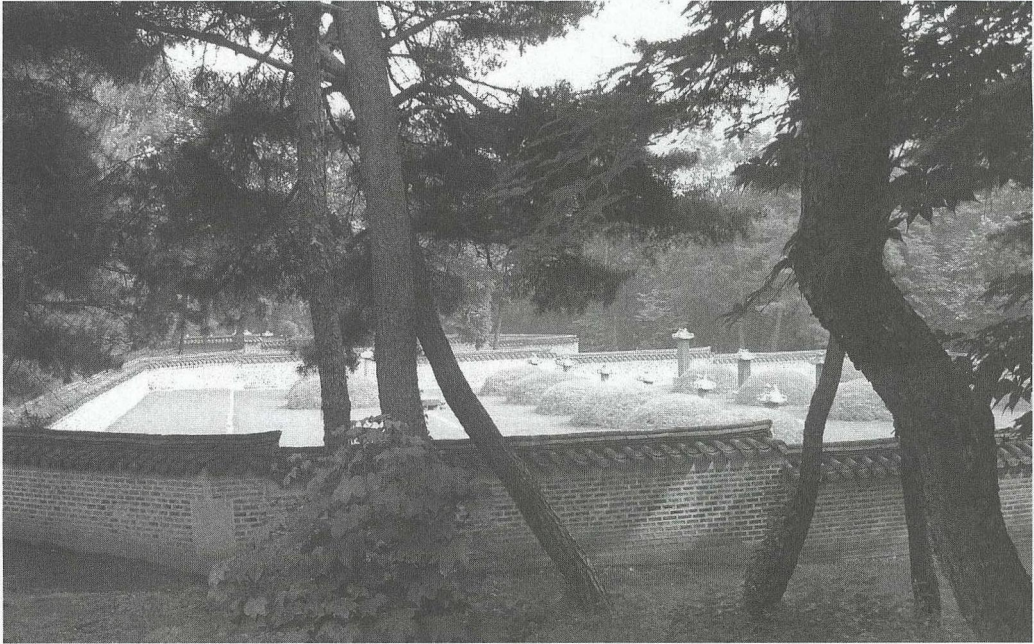


회묘(懷墓) 성종의 폐비인 연산군생모 윤씨의 묘  
서삼릉 능역 / 비공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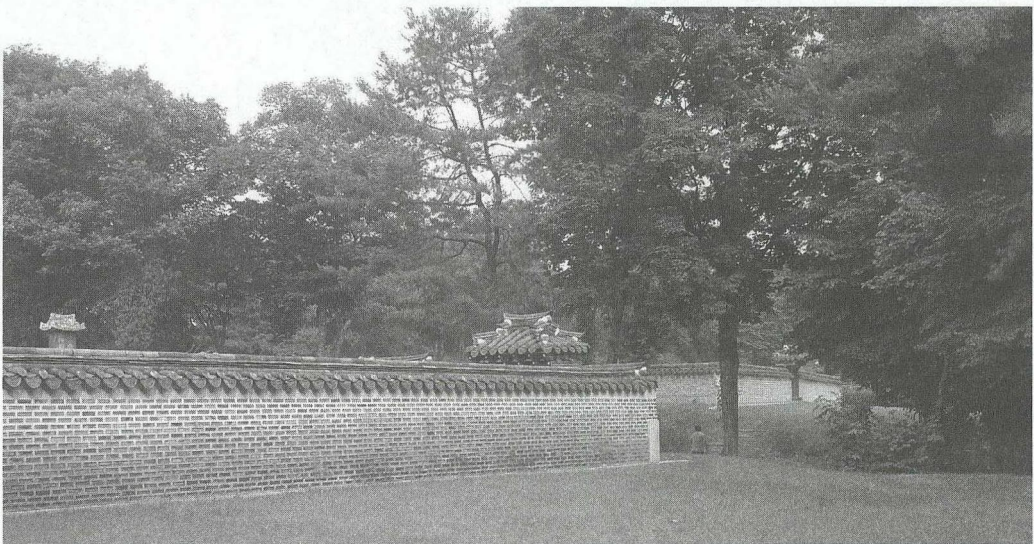
회묘는 1969년 10월 25일 서울시 휘경동으로 부터 천장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회묘는 동물석 12기, 문인석 2기, 장군석 2기, 장명등 1기, 망주석 2기, 상석 1기 등에서 보듯 여느 조선 왕릉과 다름이 없는 규모와 석물 배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중종 때 비록 묘의 이름을 강등시켰지만 이전 회릉 때 만든 석물과 규모를 그대로 존속시킨 것을 뜻한다. 다만 제사를 왕비릉에 맞추어 지내지 않았던 관계로 정자각은 1506년 중종반정 이후 없었으리라고 본다.

## 2) 후궁(後宮)의 묘(墓) / (서삼릉 능역)

서삼릉의 능역 한 곳에는 아래 표와 같이 역대 조선 국왕 후궁 가운데 16명의 묘가 천장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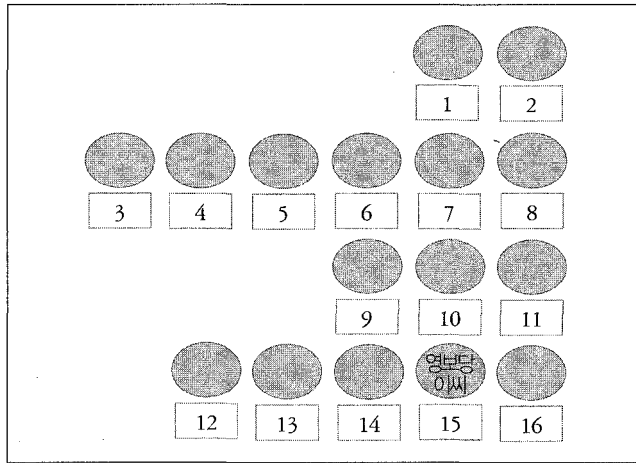


후궁묘역 측면 서삼능역 / 비공개지역



후궁묘역 정면 서삼능역 / 비공개지역

서삼릉 능역에 있는 조선 왕실 귀인(후궁後宮)의 묘  
귀인(후궁)묘 배치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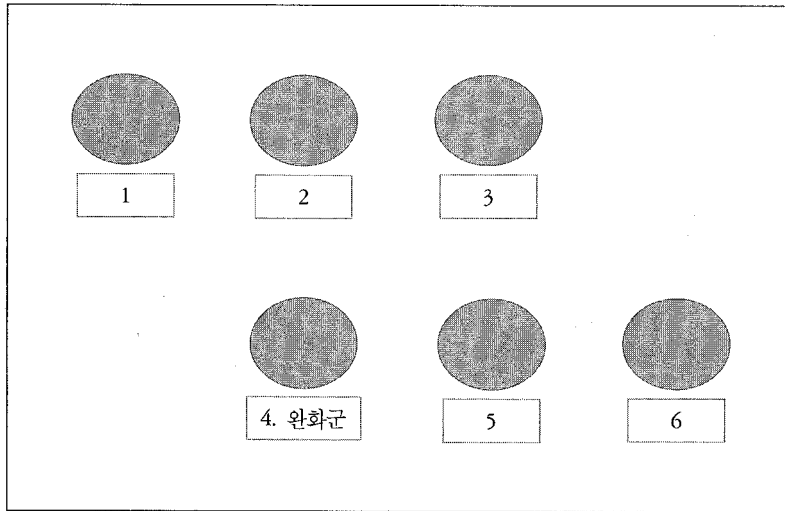


<표1-1>서삼릉 능역에 있는 조선 왕실 귀인(후궁後宮)의 묘

번호	묘주(墓主)	분류	비고
1	유명 조선국 증慶嬪 李氏 지묘	조선 제 13대 명종대왕의 후궁	
2	조선국 貴仁 慶州金氏 지묘	조선 제 19대 숙종의 후궁	
3	貴仁 평양조씨 지묘	제 25대 철종 장황제의 후궁	
4	貴仁 密陽朴氏 지묘	제 25대 철종 장황제의 후궁	
5	淑儀 온양방씨 지묘	제 25대 철종 장황제의 후궁	
6	淑儀 김해김씨 지묘	제 25대 철종 장황제의 후궁	
7	淑儀 나주범씨 지묘	제 35대 철종 장황제의 후궁	
8	元嬪 풍산홍씨 지묘	제 22대 정조 선황제의 후궁	
9	宣嬪 창녕성씨 지묘	제 22대 정조 선황제의 후궁	
10	私嬪 남원윤씨 지묘	제 22대 정조 선황제의 후궁	
11	慶嬪 김씨 지묘	제 24대 헌종 성황제의 후궁	
12	보현당 해주정씨 지묘	제 26대 고종 태황제 후궁	
13	정화당 광산김씨 지묘	제 26대 고종 태황제 후궁	
14	貴仁 梁氏 지묘	제 26대 고종 태황제 후궁 덕혜옹주 생모	
15	貴仁 李氏 지묘	제 26대 고종 태황제 후궁	
16	貴仁 李氏 지묘	제 26대 고종 태황제 후궁내 안당	

이상 후궁의 묘들은 한 능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각각 설치된 상석과 비석은 천장 때 함께 온 것이다. 또한 전체 이 모든 묘를 아울러 하나의 곡장을 설치하였다.

서삼릉 능역에 있는 조선 왕실숙의(후궁後宮)의 묘  
숙의(후궁)묘 배치도(1)



숙의(후궁後宮)의 묘완왕(完王) 즉 완화군(完和君)의 묘

<표2-1> 서삼릉 능역에 있는 조선 왕실숙의(후궁後宮)의 묘

번호	묘주(墓主)	분 류	비고
1	昭儀 강능유씨 지묘	제19대 숙종후궁	
2	淑儀 密陽朴氏 지묘	제23대 순종의 후궁 경성부 청엽정에서 천묘	
3	淑儀 金海 金氏 지묘	제24대 현종의 후궁	
4	유명 조선국 왕자 영종 정경 부사 완화군증익의 효헌공 묘	제26대 고종의 서자 귀인이씨 소생 양주군 치남에서 천묘	
5	淑儀 羅氏 지묘	제16대 인조의 후궁	
6	淑媛 張氏 지묘	제16대 인조의 후궁 고양군 은평구에서 이장	

한편 이곳에는 고종의 왕자 완화군(完和君)의 함께 있다. 이 묘에는 이조판서 조영하(趙寧夏: 1845-1884년, 익종(翼宗)의 비 신정익황후 조씨의 조카)가 완화군의 일대기를 기록한 비석(고종 17(1880)년 세움)이 있다. 이 비문을 통하여 볼 때 완화군은 운현궁에서 태어났으며 묘는 양주 월곡(月谷: 지금의 서울시 월곡동)에 있었다가 이곳으로 천장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 묘를 서삼릉 능역에 있는 다른 왕자 묘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곳으로 천장한 것은 완화군의 사친(私親: 어머니)인 귀인 영보당(永寶堂) 이씨의 묘와 함께 두려한 배려였다고 본다. 한편 이와 별도로 서삼릉 능역 한 곁에는 고종의 후궁인 귀인장씨(貴人張氏)의 묘가 <사진 9> 있으며 그 묘의 바로 옆에는 아들 의친왕(義親王: 1877-1955년)의 묘도 나란히 있었다. 그러나 의친왕 묘는 근래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홍릉(洪陵: 고종과 명성태황후의 능)·유릉(裕陵: 순종과 순명효황후, 순정효황후의릉) 능역으로 천장되었다.

### 3) 왕자·왕녀·왕손의 원묘(園墓)

#### (1) 소경원(昭慶園) /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원 (서삼릉 능역)



소경원(昭慶園: 소현세자의 묘  
서삼릉 능역 / 비공개지역

효릉의 오른쪽 언덕에 있는 소경원은 소현세자(昭顯世子: 광해군 4(1612)년 1월 4일-인조 23(1645)년)의 묘 이름이다. 『인조실록』 25(1647)년 6월 4일 기록에서 보듯 처음 이름은 소경묘(昭慶墓)라고 불렸다. 이 소경묘를 언제부터 소경원으로 고쳤는지는 알 수 없다.

봉분 주변에 상석, 문인석 등이 있으며 묘 앞 재실(齋室)은 소실된 뒤 복원되지 못하였으며 주초만이 남아 있다. 아래 『실록』을 통하여 소현세자의 별세, 발인, 하관 일자를 알 수 있다.

<왕세자가 창경궁(昌慶宮) 환경당(歡慶堂)에서 죽었다. 세자는 자질이 영민하고 총명하였

으나 기국과 도량은 넓지 못했다. 일찍이 정묘 호란 때 호남에서 군사를 무군(撫軍)할 적에 대궐에 진상하는 물품을 절감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제거하려고 힘썼다. 또 병자호란 때에는 부왕을 모시고 남한 산성에 들어갔는데, 도적 청인(淸人)들이 우리에게 세자를 인질로 삼겠다고 협박하자, 삼사가 극력 반대하였고 상도 차마 허락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세자가 즉시 자청하기를, “진실로 사직을 편안히 하고 군부(君父)를 보호할 수만 있다면 신이 어찌 그곳에 가기를 꺼리겠습니까.” 하였다. 그들에게 체포되어 서쪽으로 갈 적에는 몹시 황급한 때였지만 말과 얼굴빛이 조금도 변함 없었고, 모시고 따르던 신하들을 대우하는 데 있어서도 은혜와 예의가 모두 지극하였으며, 무릇 질병이 있거나 곤역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마다 힘을 다하여 구제하였다. 그러나 세자가 심양에 있는 지 이미 오래되어서는 모든 행동을 일체 청나라 사람이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고 전렵(田獵)하는 군마(軍馬) 사이에 출입하다 보니, 가깝게 지내는 자는 모두가 무부(武夫)와 노비들이었다. 학문을 강론하는 일은 전혀 폐지하고 오직 화리(貨利)만을 일삼았으며, 또 토목 공사와 구마(狗馬)나 애완(愛玩)하는 것을 일삼았기 때문에 적국(敵國)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크게 인망을 잃었다. 이는 대체로 그때의 궁관(宮官) 무리 중에 혹 궁관답지 못한 자가 있어 보도하는 도리를 잃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세자가 10년 동안 타국에 있으면서 온갖 고생을 두루 맛보고 본국에 돌아온 지 겨우 수개월 만에 병이 들었는데, 의관(醫官)들 또한 함부로 침을 놓고 약을 쓰다가 끝내 죽기에 이르렀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슬프게 여겼다. 세자의 향년은 34세인데, 3남 3녀를 두었다.> 『인조실록』 23(1645)년 4월 26일 <관상감이 아뢰기를, “술관과 함께 다시 더 간심해 보니, 성력(成櫟) 등 5인은 지난번의 소견과 다름이 없었는데, 이간(李衍)·장진한(張鎭漢)의 논의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술관들은 영릉의 홍제동에 쓸 만한 곳이 한 등성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명일에 회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또 홍제동은 지난번 상사 때에도 길이 멀어서 쓰지 않았던 것이다.” 하였다. 대신이 의계하기를, “여러 술관들이 모두 희릉과 효릉의 안을 가깝하게 여기는데, 장진한만이 수파(水破)가 불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들은 풍수지리에 전혀 어두워서 감히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렇다면 사대부의 분산(墳山) 중에서 쓸 만한 곳을 장진한에게 물어보아라.” 하였다. 장진한이, 양주(楊州)의 대탄(大灘)가에 남쪽으로 향한 산의 감계룡(坎癸龍)이 있다고 말하므로 상이 그 곳을 간심한 뒤에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간·장진한 등이 앞서의 말을 약간 바꾸어 효릉 안의 신원(新原)을 가깝하다고 하므로 마침내 그 곳에 자리를 정하였다.> 『인조실록』 23(1645)년 5월 9일 <왕세자의 재궁을 발인하여 창경궁(昌慶宮) 빈양문(賓陽門)을 나와

명정문(明政門) 동협(東夾)을 거쳐 소여(小輿)에 싣고, 홍화문(弘化門) 동협을 나와 대여(大輿)에 실은 다음 숭례문(崇禮門)을 경유해서 나왔는데, 종친부·익위사·시강원의 관속 및 각사의 당상과 낭관이 한 사람씩 차례로 배종(陪從)하였다. 재추(宰樞)와 백관 및 유생들은 먼저 노제소(路祭所)로 나아가 길가에 차례대로 늘어서 있다가 재궁을 맞아 재배하고 곡하며 하직하였다. 대궐 안에 입직한 여러 관원들은 모두 궐문 안에서 재배하고 곡하며 하직하였고, 입직한 장사(將士)들은 자기 입직 장소에서 발인하는 쪽을 바라보며 곡하였다.> 『인조실록』 23(1645)년 6월 15일 <소현세자를 고양(高陽)에 장사지내고 인경궁(仁慶宮)의 혼궁(魂宮)으로 반우(返虞)하였다.> 『인조실록』 23(1645)년 6월 19일

소현세자의 묘에는 곡장·상석·장명등 각 1기와 문인석·양석(羊石)·마석(馬石) 각 1쌍 있다. 이같은 상설(象設)은 세자 묘의 예에 따라 설치한 것이다. 재실은 주초석만 전한다.

## (2) 의령원(懿寧園) / 의소세손(懿昭世孫)의 묘 (서삼릉 능역)



의령원(懿寧園) 서삼릉내 의소세손(懿昭世孫)의 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7-1 공개지역내

예릉의 왼편 산에 있는 의령원은 의소세손(懿昭世孫)의 묘 이름이다. 본래 양주 안현(鞍峴) 남쪽 산기슭 즉 지금의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0-1번지에 있었으며 처음 이름은 의소묘(懿昭墓)였으나 고종 7(1870)년 의령원으로 고쳤다. 1949년 6월 7일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의소세손 묘에는 상석·장명등·비석 각 1기와 문인석·망주석·양석(羊石)·마석(馬石)·호석(虎石) 각 1쌍씩 있다. 이같은 상설(象設)은 세손 묘의 예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

다. 비석 전면은 ‘조선국의소세손지묘(朝鮮國懿昭世孫之墓) 개봉의령원(改封懿寧園)’이라 새겼고, 뒷면과 우측면에는 묘 조성 기록이, 좌측면에는 1949년의 천장 기록이 있다. 이 가운데 조선국의소세손지묘(朝鮮國懿昭世孫之墓) 글씨는 영조임금이 썼다.

사초지 아래에 있는 건물은 아마 의소세손의 천장 때 함께 옮겨 온 재실이라고 추정된다.

### (3) 효창원(孝昌園) 문효세자(文孝世子)의 묘 (서삼릉 능역)

효창원이란 문효세자(文孝世子)의 묘 이름이다. 본래 경기도 고양군 울목동(栗木洞: 지금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효창공원에 있었으며 처음 이름은 효창묘(孝昌墓)였으나 고종 7(1870)년 효창원으로 고쳤다. 1944년 1월 9일 지금의 자리인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산 37-1번지(서삼릉 내) 의소세손의 묘 앞으로 이전하였다.

문효세자의 묘에는 상석·장명등 각 1기, 문인석·망주석·양석(羊石)·마석(馬石)·호석(虎石) 각 1쌍, 비석 2기가 있다. 묘 앞에 세운 비석 전면에는 조선국문효세자 효창원(朝鮮國文孝世子孝昌園)이라 새겼다. 즉 이 비석은 고종 7(1870)년 문효세자의 묘를 효창원(孝昌園)이라 개봉(改封)하면서 세운 비석이다. 묘의 오른쪽에 세운 비석은 정조 10(1786)년 문효세자 묘를 조성하면서 세운 신도비(神道碑) <사진 14-3>이다. 신도비의 글은 아버지 정조 임금이 직접 지었으며 전체 글씨는 이성원(李性源)이 썼고, 전액(篆額) 글씨는 황경원(黃景源)이 썼다.



효창원(孝昌園) 문효세자(文孝世子)의 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7-1 공개지역내

#### 4) 기타 왕자·왕녀의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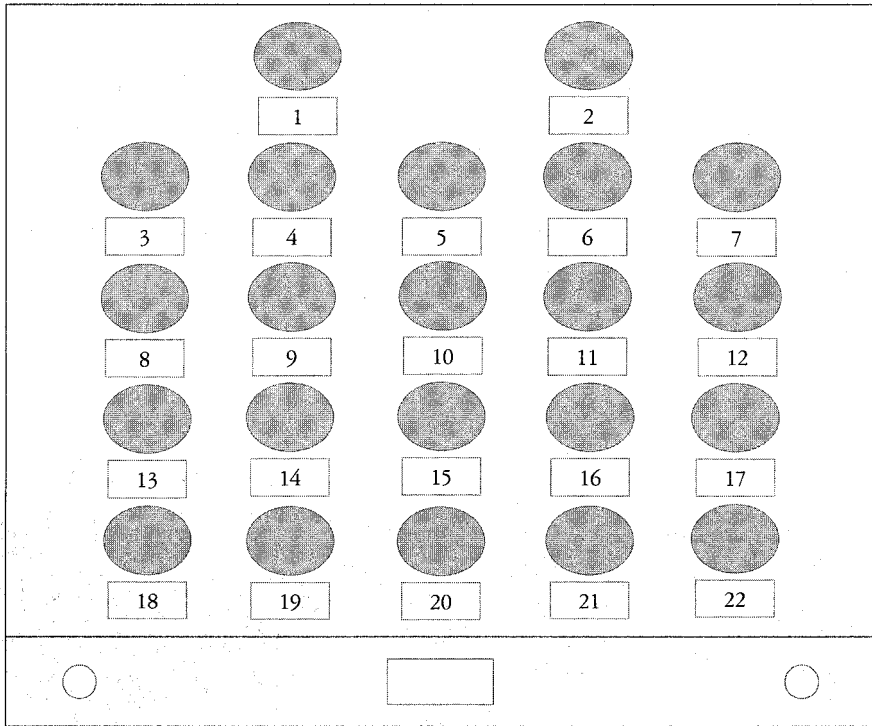
서삼릉의 능역 한 결 한 곳에는 아래 표와 같이 왕자, 왕녀의 묘가 함께 자리잡고 있다. 이들의 묘에는 원래의 묘로부터 이곳으로 천장할 때 상석과 비석을 모두 매몰하고 서삼릉 능역에 와서 각각의 비석과 상석을 같은 규격으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들 묘역에는 앞의 후궁 묘와 달리 곡장도 설치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 묘역의 맨 앞 중앙에 상석과 장명등 각 1기를 그리고 좌우로 문인석 1쌍 만을 옛 묘에서 가져와 설치하였을 뿐이다.

왕자·왕녀 묘 현황



왕자·왕녀의 묘 서삼능역 / 비공개지역

### 왕자·왕녀 묘 배치도



정소공주(1412-1424년)의 묘는 본래 고양시 대자동 성녕대군(誠寧大君) 묘 오른쪽에 있었다. 일제 강점기인 1939년 천장(遷葬) 때 나온 분청사기로 된 태항아리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것은 왕자·왕녀가 장태(藏胎)하기 전에 요절한 경우 묘에 태를 함께 묻은 사례이다. 왕자 왕녀의 묘 가운데 고종 원자, 고종 대군, 고종 왕녀의 묘 역시 태를 함께 묻었다. 이것은 묘비의 측면에 ‘胎室并藏(태실병장)’이라는 각자(刻字)로서 알 수 있다. 서삼릉의 능역에는 이 밖에도 조선 태조의 장남 이숙무(李叔畝)와 영동현주(永同縣主) 내외의 묘 소현세자의 두 아들인 경선군(慶善君)과 경완군(慶完君) 묘가 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귀인장씨(貴人張氏)의 묘 아래 약 70m 지점에 있는 묘는 의친왕의 후궁 수관당 정씨의 묘가 있다.

<표2-2> 서삼릉 능역에 있는 조선 왕자(王子)·왕녀(王女)의 묘 비문

연번	묘 이름	아버지	어머니	전(前) 소재지
1	정소공주(貞昭公主)	세종 제 1녀	소헌(昭憲)왕후 심씨(沈氏)	고양군 벽제읍, 지금의 고양시 대저동
2	인성대군(仁城大君)	예종 제 1남	장순(章順)왕후 한씨(韓氏)	고양군 신도읍
3	인순공주(仁順公主)	중종 제 5녀	문정(文定)왕후 윤씨(尹氏)	양주군 진접면
4	왕녀묘	선조(宣祖)		경기도 양주군 진접면
5	숙신공주(淑愼公主)	효종 제 1녀	인선(仁宣)왕후 장씨(張氏)	고양군 신도읍
6	명선공주(明善公主)	현종 제 1녀	명성왕후 김씨	광주군 중부면, 지금의 성남시 태평동
7	명혜공주(明惠公主)	현종 제 2녀	명성(明聖)왕후 김씨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지금의 성남시 태평동
8	화억옹주(和億翁主)	영조 제 4녀	영빈이씨	고양군 신도읍
9	왕녀	영조 제 1녀	정빈(靖嬪)이씨	고양군 신도읍
10	왕녀	영조 제 6녀	영빈(暎嬪)이씨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11	영온옹주(永溫翁主)	순조 제 4녀	숙의(淑儀)박씨	서울 청화정(靑華町), 지금의 용산구 효창공원
12	대군	순조 제 2대군	순원숙(純元肅)왕후 김씨	서대문구 신촌
13	왕녀	현종 제 1녀	숙의(淑儀)김씨	서울 청화정(靑華町), 지금의 용산구 효창공원
14	원자(元子)	철종 제 1대군	철인장(哲仁章)왕후 김씨	서대문구 연희동
15	원자(元子)	고종 제 1대군	명성태(明成太)왕후 민씨(閔氏)	서대문구 북아현동
16	옹주(翁主)	고종 제 2옹주	귀인이씨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7	대군(大君)	고종 제 4대군	명성태왕후 민씨	고양군 신도읍
18	왕녀	고종 공주	명성태왕후 민씨	고양군 송인면
19	왕녀	고종 제 1옹주	귀인이씨(貴人李氏)	서울시 금정(錦町)
20	왕자	고종 제 3대군	명성태왕후 민씨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21	왕자	고종 제 4군(塏)	광화당(光華堂) 귀인이씨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2	왕자	고종 제 5군(塏)	귀인정씨(貴人鄭氏)	서울시 성동구 뚝섬

## ◎ 서삼릉 훼손의 역사

조선왕조 삶과 죽음의 역사가 숨쉬며, 일제의 잔악한 만행을 볼 수 있는 곳 서삼릉 울창했던 자연의 보고 서삼능역 130여만평이 지난40여년 동안 파괴되고 잘려나가기 시작한 것은 지난60년대 중반부터이다.

### 1) 한양골프장과 뉴코리아 골프장(48만)평

1965년20여 만평(원당리 38-23번지 일대) 산등성이가 깎여 지면서 한양 골프장이 자리잡게 되고 반대편 18만평(신원리227-12번지 일대)에 뉴코리아 골프장이 자리잡게 되면서 본격적인 대규모 서삼릉 훼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

이들은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민족의 정기가 흐르는 서삼능역 130만여평 중 40여만평을 골프장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 2) 농협대학(10여만)평

이어 창더궁 소유에땅 10만평(원당리 상38-34번지 일대)이 같은해 농협중앙회로 넘어가고 이 곳에는 현재 농협대학이 자리잡고 있다.

### 3) 축협목장(40여만)평

이렇게 잘려 나가던 서삼릉역은 60년대말로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능”만 남긴채 “능역”은 모두 국민의 손에서 권력의 사유지로 넘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은 뉴질랜드와 같은 방목목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때 이를 교시로 받아들인 측근들은 목장조성 사업을 농협중앙회에 지시하게 된다. 이를 지시받은 농협협동조합 중앙회는 서삼능역 40만평 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 6천8백67만원 중 국고보조 50%와 30%는 정부융자 지원을 받아 국가 땅을 헐값으로 사들여 서삼릉 목장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목장조성으로 7개릉을 연결하는 숲이 모두 파, 해 처지고 능행로 또한 모 초지로 변하게 되었다. 이땅은 현재 축협중앙회 산하의 유우개량사업소 초지로 사용되고 있다.

### 4) 종마목장(11만)평



축협중앙회 산하의 유우개량사업소 초지로 사용되고 있는 11만평(원당리 산48-36번지 일대)은 1988년 한국 마사회로 넘어가 현재 종마장이 들어서 말들의 놀이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5) 한국 보아스카우트연맹(1만)평

한국보아스카우트연맹 또한 폐비윤씨(회묘) 바로앞 1만여평(원당리 200-5일대)은 당시 김종필씨가 총재로 있던 한국 보아스카우트연맹 중앙훈련소가 차지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6) 군부대(2만7천평)평

80년대 말 군부대가 2만7천평(산38-62번지 일대)를 차지하면서 서삼능역 100만평이 잘려나가고 황폐해진 훼손의역사가 일단락되었다.

서삼릉복원운동본부 본부장 안 재 성

### ◎ 서삼릉 복원의 의의

1)

서삼릉 역사를 돌이켜 보면 멀리 일제가 남기고 간 우리민족에 대한 수탈과 민족의 정기와 맥을 끊으려는 악랄한 시간이 있었고 가까이는 군사독재시절 앞날을 보지 못했던 근시안적이며, 경제부흥이라는 이면에 가려졌던 역사문화에 대한 파괴정책의 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군사독재 정권시절 권력의 주위를 맴돌면서 아부와 사술로 일신의 부귀만을 노린 모리배들의 말장난에 서삼릉 130여만평은 처참히 파괴되어 수백 년을 이어온 고고한 시간들이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현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절대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파괴되고 유린된 서삼릉을 복원시키는 작업이야말로 군사독재로부터 문민, 국민, 참여 정부 정치시대로 전환되어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패 권력자들에 의해 수 백년된 낙락장송이 무더기로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들어선 골프장에서 한가로이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는 많은 이들의 유유자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문화를 후진국으로 전락시킨 부도덕한 과거 권력자들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서삼릉이 옛 모습을 찾아 복원될 때 우리는 비로써 불행했던 일제 36년의 역사와 군사독재시절 단절된 역사로부터 벗어나 희망찬 미래를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2)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자족의 기능은 물질 만의 기능이 아니라 정서와 도덕이 일정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때 비로써 자족 기능을 갖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사회는 물질만능주의와 배급사상이 인간을 지배하는 물질 이상주의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이다. 효와 도덕이 사라지고 신의와 질서가 문란하여진 사회인 것이다. 예로부터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다. 다행이도 우리 고양 땅은 역사의 현장이 곳곳에 많아 산재되어 있다. 고인돌, 돌칼, 빗살무늬토기 등으로부터 공양왕릉이라던가 서삼릉, 서오릉 등 옛 자취가 곳곳에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서삼릉은 단연 으뜸이다. 능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의 과정과 함께 효행의 상징인 인종대왕의 효릉이 자리하고 있으며 파탄의 가정인 폐비 윤씨와 연산군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현장을 복원하여 보존시킴으로서 질서와 도덕이 충만한 믿음 있는 사회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歷史)와 문화(文化)를 얼마만큼 잘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다 하겠다.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실상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지 못하여 문화민족으로서 부끄러운 면모를 간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역사 유적지가 파손되어 가고 있으며 정제되지 못한 외래 풍습이 우리의 생활관과 의식구조를 바꿔가고 있고, 전통성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서삼릉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실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에 밀려 전통 문화 유적지가 처참하게 훼손당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역사 유적지는 특정 왕가의 후손들만의 것이 아니요, 우리 민족 모두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왕릉의 훼손은 곧 우리 민족사의 훼손이며 국가의 전통 문화의 상실이라고 보는 것이므로 왕릉의 보존은 곧 우리 전통 문화의 보존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등재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다. 유네스코라는 과제를 안고 우리 스스로 얼마만큼 우리의 문화 유산을 잘 보존하고 지켜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4)

서삼릉 능역은 조성당시 부터 1960년대 초, 중반까지도 약130만평에 이르는 면적을 그대

로 보존하고 있었다. 현재 서삼릉 능역의 크기는 7만5천여평, 개방하고 있는 곳은 2만4천평 밖에 되지 않는다. 능역은 전체 면적대비 95%가 잘리어 나가고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 이 능역을 옛 모습대로 복원하여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장소로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면, 여기에 따른 유무형적인 가치는 역사 문화라는 경제적 효과로 보아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광릉수목원의 예를 들어보아도 서삼릉의 원형 복원된 대규모 자연 수림은 서울의 은평지구 뉴타운과, 지축, 삼송신도시, 원당(뉴타운)권역과 연계함은 물론 수도권1,000만 시민을 모두 포용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는가! 푸른 초원과 울창한 적송수림, 생각만 해도 가슴 시원한 우리들의 휴식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5) 결론 / 복원과제 및 개선방향

### (1) 능역(토지)의 원상회복

- 타에의한 능역(토지)의 강제수용은 무상으로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
- 국·도·시비에 의해 개인(사유재산)은 시가로 매입

### (2) 능역의 복원

- 능의 경계확보 및 능의 복원
- 능행로 복원 및 능의 개방
- 손실된 시설물 등의 복원 및 주변 환경 정비

### (3) 역사문화 교육현장 및 휴양공간조성

- 역사문화 교육현장으로 조성
- 자연휴식 및 문화감상의 체험공간으로 조성
- 지역경관립 조성과 함께 건강과 휴양공간으로 정비
- 주차장과 도로정비

### (4)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경쟁력 제고

- 조선조 중/후기의 대표적 왕실묘 및 국내 최대의 왕릉군을 이룬다는 점에서 전통문화의

도시로의 도시정체성 확립

-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테마로 하는 수도권 최대의 전통공원(Oldpark)화 추진으로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첫 째 : 능역(토지)의 원상회복

둘 째 : 각 묘역의 경계확보 및 능행로 연결 복원

셋 째 : 금천(개울), 금천교(돌다리), 복원 / 유실됨

넷 째 : 능 연못 발굴조사 및 복원 / 유실 또는 훼손됨 문화재지정

다섯째 : 재실 및 부속건물 복원 / 훼손되어 없어짐

여섯째 : 사표 경계림 식재 및 소나무 군락 조성 / 원형복원

일곱째 : 진입로확장 및 주차공간 확보 / 주차 공간 없음

기 타 : 서삼릉의 좌청룡, 우백호, 안산에 해당되는 농협대부지, 축협 목초지, 한양 골프장 일부에 대단위 소나무군락 조성 후 / 자연 생태계의 연결

서삼릉복원운동본부 본부장 안 재 성

## 6. 서삼릉에 집결된 조선왕실의 태실

### 1) 조선왕실의 태(胎)문화와 태실등에 대한 고찰

胎室은 주로 王室과 관련된 王·王妃·大君·王世子·王子·王世孫·王孫·公主·翁主등이 출산하게 되면 태를 묻는 석실을 말한다. 태를 향아리에 담아서 보관한 후 미리 정해진 태봉에 태실을 조성하고 태향아리와 지석을 묻게 되는데, 이것을藏胎또는 安胎라고 한다. 태의 처리에 대해서 옛 선인들은 다음 아이를 잉태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정 타는 것을 꺼려하여 災殃이 없는 방향에서 태우거나埋藏했다. 胎藏經의 기록을 보면 태의 의미를, 귀인이 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태에 달려 있으며, 어질거나 어리석게 되거나 쇠망하고 성하고 하는 것은 모두 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태의 명칭에 대해서는 藏胎하는 시기에 따라 三月은 和正胎. 五月은 軟藏胎. 三年은 壯應胎, 五年은 中符胎. 七年은 向藏胎. 十五年은 過陽胎라 칭하는 六安胎之法을 정하였다.

安胎는 문헌에서 살펴보면 그 기원이 신라 때부터 시작하여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까지 전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世宗實錄 『地理志와』 三國史記에 의하면 鎭川懸 胎靈山에는 신라 때 金庾信의 태를 묻고 祀字를 지어 고려 때까지 國祭를 지냈고 조선太宗이 후로는 지방관이 제사를 지냈다고 하였다. 고려 시대의 태실 기록은 주로 고려말기에 나타난다. 원주시 치악 태봉에 恭愍王의 胎가 安胎되었다는 기록과 高麗史에서는 고려 神宗, 元宗, 禡王우왕의 태관련기록이 남아 있으며 世宗實錄 地理地 順興郡條에는 忠烈王 의태가 안치되어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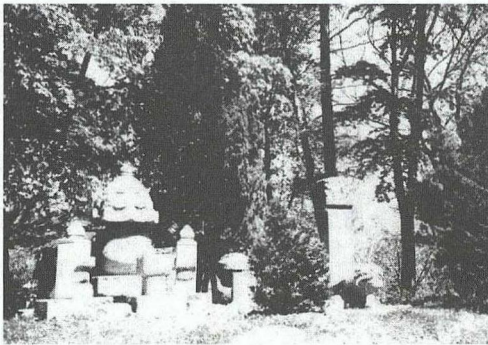
왕실에서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產室廳에 순상을 알리기위한 동종을 설치하고 내부에 순산을 기원하는 부적을 붙인다. 산모가 누울 자리에는 먼저 산석(짚자리)을 깔고 그 위에 백문석을 깔고 다시 그위에 기름종이를 깔 다음 고운 짚자리를 깔고 마지막으로 족제비 가죽을 깐다. 그리고 전의가 조문을 읽고 천장에 말고삐를 걸면 출산준비는 마치게 된다. 마침내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임금이 직접 종을 울리고 중방문위에 산모가 깔고 있었던 짚자리를 건다. 아기의 태는 길일을 택하여 깨끗하게 백번 씻은 다음미리 제작된 태향아리에 넣게 되는데, 태향아리는 큰향아리인 외호와 작은 향아리인 내호로 구성되어 있다.

태는 작은 태향아리에 담는데, 먼저 향아리바닥에 동전을 전면이 위로 가게끔 놓은 다음 백 번 씻은 태를 그 위에놓고 기름종이를 향아리 입구에 덮게 된다. 그 위에 다시 남색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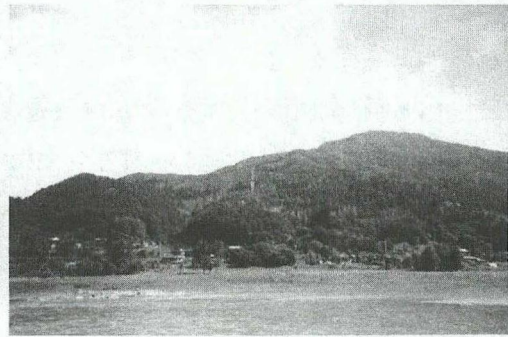
로 덮고 난후 빨간 끈으로 외면을 단단히 묶는다. 그다음 큰항아리 안에 솜을 깔고 작은항아리를 넣은 다음 그 사이를 솜으로 채우고 甘糖으로 입구를 밀폐한 후 뚜껑을 덮고 빨간끈으로 외면을 단단히 묶는다. 태를 항아리에 넣는 절차를 마친 다음에는 태를 태실까지 봉송하는 절차와 봉안하는 의식이 있게 된다.

왕자나 공주·옹주등이 태어나면 觀象監에서는 태를 봉안할 자리를 알아보고 封送·開基·封土 등의 날을 정하였고 繕工監에서는 봉송할 도로를 정비하고 役事に 문제가없도록 준비한다.봉송의 책임은 陪胎官으로 봉송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게 하였으며, 傳香官은 陪胎官을 보좌하였다. 선정된 태실지는 相土官이 吉地인지를 재확인 하였으며 監董官은 일체의 공사를 감독하였다. 마지막으로 監役官은 도로의 수치와 태실의 역사를 감독하였고 토지신에 보호를 기원하는 祭禮를 치르는 것으로 마친다. [문화재연구소, 서삼릉 태실 발굴보고서 1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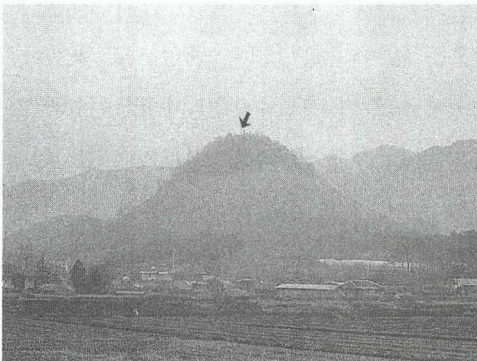
## 2) 조선왕실 태봉과 서삼릉태실 발굴도면 자료(사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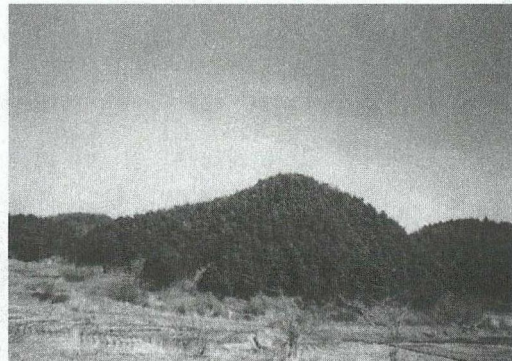
정종대왕태실[강원도영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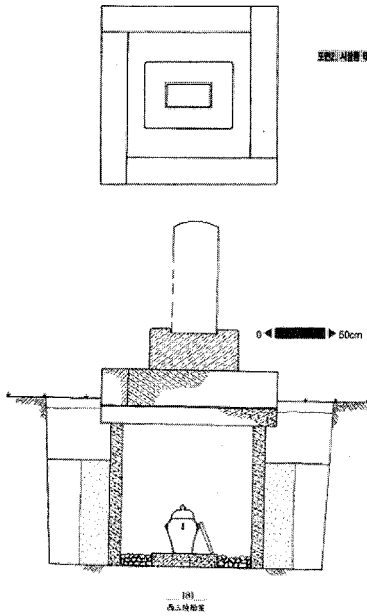
화협옹주태봉[강원도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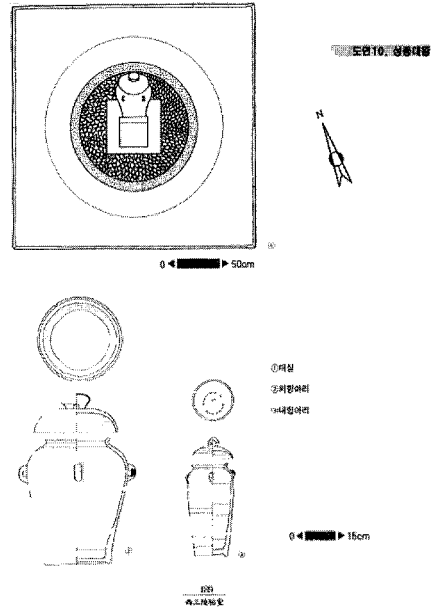
명종대왕 태봉산



건성군 태봉산[강원도양양]



서삼릉태실 단면도 181쪽



서삼릉태실 발굴 후 도면 성종대왕189쪽

## 7. 서삼릉태실 발굴 유적 현황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산 38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西三陵은 사적 제 200호(1970.5.26.지정)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내에는 王陵 3개소, 園 3개소, 墓7개 소 등과 태실 집장지가 1개소가 있다. 서삼릉에 봉안되어 있는 태실은 총 54기 이나 이 태실군의 태향아리와 지석을 옮겨온 시기는 불투명하다. 서삼릉으로 이전하기 전의 기록은 현재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하고 있는 유리원관 사진과 일부 신문기사에서 보도된 자료, 그리고 李王職의 서삼릉 이봉기록에서 찾을 수 있었다.

유리원관 사진에서는 목서로 된 주인공의 태향아리와 지석의 권안 시기를 확인할수 있었는데, 昭和 2年(1927)부터 태실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1928년 9월 10일자 매일 신문의 보도문을 보면, 『창덕궁의 禮式課 典祀두 사람이 존귀하옵시던 어른들의 胎가 무슨 지경에 갈지 모른다고』하여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명산에 묻힌 태실 29기를 파서 경성의

로 모셔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의 지시로 李王職이 전국 명당지에 산재 되어있던 태실의 파괴, 또는 손실방지를 위하여 태항아리 39개를 경성으로 옮겨와 현재 종로구 내수동의 서울 지방경찰청 부근에 봉안실을 마련하고 임시 보관한 후 추위가 물러가면 서삼릉으로 이전한다는 기사가 1929년 3월 1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되어 있다.

아울러李王職에서 태실을 이장하면서 기록한 移封記錄 (胎封)에는 일부를 제외한 태실의 이장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李王職 典祀의 출장복명서 의하면, 昭和 3年(1928年) 8月 5일부터 8月 30日까지 淑明公主, 太宗大王, 世祖大王, 仁宗大王, 世宗大王 태실을 조사해서 태항아리와 지석을 경성(서울)에 봉송하여 봉안 실에 보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서삼릉정내에 태실 49기를 이장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이장 시기는 昭和 5年 (1930년)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그밖의 태실에 대한 조사기록과 이장시기는 잘 남아 있지 않다. 49기의 태실 외 5기의 태실은 1930년 이후에 새롭게 조성되었는데, 晉殿下의 태실은 동경에서 옮겨와 (1934년 6월 8일) 에 조성되었고, 王世子태실은 1932년 1월 25일에 서삼릉으로 안장되었으며, 景平군의 태실은 1934년 野守建氏가 조사한 復命書에 의하면 1934년 이후에 서삼릉으로 이장(○年十月二十六日)된 것이 확인되었다. 寧山君(○年六月二十六日), 懿惠公主(○年六月二十六日)태실의 이장시기에 대한 기록은 표비석 후면의 연호가 파손되어 알 수 없지만 1930년 이후에 조성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

태실 조성 당시에는 태실군 주위를 장방형의 블록담장(가로 28m, 세로24m, 높이 1.5m, 총둘레 104m)으로 에워싸고 다시 중앙을 구분하여 동-서로 담을 설치하여 자 형태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일자형 담장에 대해선 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건의를 받아 문화재관리국(공원관리과)이 1995년 3월 27일 먼저 중앙을 가르는 담장을 철거하였고, 외곽의 블록담장과 철문은 1996년 3월 6일에 철거하였다. 태실군의 표비석군은 오석비군과 화강암비군 21가지 군으로 나뉘어지는데, 표비석은 지대석(가로121.5×세로121.5cm), 기단석(가로61×세로46×높이28cm), 표석(가로15.5×세로30.5×높이72cm)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석비군은 철자형의 기단석을 설치하고 그 내부 정 중앙 맨 앞에 太祖高皇帝태실을 시작으로 조선조 역대왕 태실 19기와 莊祖懿皇帝 태실, 李王殿下태실, 王世子태실등 총 22기가 봉안되어 있다. 화강암비군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4열, 남쪽에서 북쪽으로 8열의 大君 1기, 君14기, 大院君1기, 世子2기, 世孫1기, 公主5기, 翁主7기, 燕山君 生母1기 등 총 32기가 봉안되어 있다. 오석비군에 속하는 조선조 20代 왕인 景宗의 태실은 이미 도굴되어 표비석과 태항아리 및 지석이 사라



진 상태이다. 지표 밑에는 직경 95cm의 원형 콘크리트관이 매관되어 있었고, 그 위를 덮었던 방향 콘크리트 덮개가 반이 파손된 채로 노출되어 있었다. 조선조 역대 27代 왕 중에서 제6대 端宗, 제10대 燕山君, 제15대 光海君, 제16대 仁祖, 제17대 孝宗, 제18대 顯宗, 제25대 哲宗, 제26대 高宗의 태실은 이곳에 봉안되어 있지 않다. [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 발굴보고서 22p]

## 1) 서삼릉 태실(집장지)의 시대적 배경

강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된 1910년 8월 23일 국치일(國恥日)로부터 연합군이 승리하고 일본군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1945년 8월 15일까지 약 36년간을 일제 강점기라 지칭한다. 이 기간에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우리의 강토를 불법적으로 지배하였다. 이 민족적 통한은 불법적으로 체결한 ‘한일합병조약’으로부터 야기되었다.

이 조약과 함께 일본 국왕은 한일합병칙서(韓國合併勅書)를 발표하여 우리 강토는 일본의 강토에 속하고 조선(朝鮮)이라는 일본의 일개 지방 명칭으로 전락했다. 조선의 신민(臣民)은 일본 국왕의 신민이 된 것이다. 또 <전(前) 한국 황제를 책하여 왕으로 하는 조서(詔書)>, <이강(李罔) 및 이희(李熹)를 공(公)으로 하는 조서(詔書)>를 발표하여 대한제국 황실에도 변화를 주었다. 즉 대한제국의 태상황제(太上皇帝)를 이태왕, 황제를 이왕(李王)이라 하고, 황태자를 왕세자(王世子)로 고쳐 전하(殿下)의 칭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 황실은 일본의 황실에 속하여 허울 좋은 안녕을 유지하고 일본의 한 왕실인 이왕가(李王家)가 된 것이다.

황제가 통치하는 제국의 황실에서는 통상 황제나 전(前) 황제의 형제들을 각각 친왕(親王) 또는 왕(王)이라고 한다. 또 그 집은 왕가(王家)라고 부른다. 황실에는 결국 많은 왕가가 부속된다.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조선 왕실은 일본 황실에 부속된 혈연관계가 없는 변칙된 왕가인 이왕가(李王家)가 되었다. 이 이왕가는 명목상으로는 일본 궁내부(宮內府: 또는 궁내성)에 속하며 이를 담당하는 행정 관청이 이왕직(李王職)이다.

이 이왕직의 장관과 차관은 조선 총독이 결정하고 그 이하는 장관 차관이 총독의 뜻을 받

아 결정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왕가보다는 총독부의 눈치를 보았다. 장관은 조선인이 임명되는데 초대 장관은 대한제국 궁내부대신을 역임한 민병석이며 마지막은 장헌식이다. 차관은 사실상 이왕직의 사무 전반을 관장하는데 일본인이 임명된다. 초대 차관은 고미야이다. 또 차관은 총독부의 직속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구니이다 차관은 순종황제의 일본 동경행(東京行)을 조선총독부 총독의 명에 따라 주선하였다. 또 총독 우가기는 이왕직에게 고종황제 사후 황실의 상징인 덕수궁을 개방하게 하여 이왕가 나아가 대한제국 황실의 존엄을 여지없이 유린하였다.

이 이왕직에서 1928년경부터 전국 태봉에 산재한 조선왕조의 역대 왕실의 태실의 태를 수거하였다. 예 (사진 30) 당시 이왕직 장관은 남작 한창수(韓昌洙)였다. 이왕직에서는 태실 이봉 작업을 『태봉(胎封)』이라는 복명서로 남겼는데 이 책은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장서각(藏書閣)에 전한다. 이 이봉작업은 태만을 모은 것이 아니고 태를 담았던 태항아리와 태지(胎誌)까지 포함된다. 1929년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서울로 옮겨 일단 서울 수창동의 이왕직 봉상소(奉常所)에 봉안실을 신축하여 보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왕실 태실이 모두 39위였음도 알 수 있다. 이 기사가 밝혔듯 해동(解凍)한 뒤 봉상소 권안실(權安室: 임시 봉안실)에 보관하고 있었던 태들을 서울의 서쪽 고양군에 위치한 서삼릉의 능역으로 옮겨 새 태실을 만들었다.

## 8. 서삼릉 태실에 대한 고찰 및 자료사진

### 1) 서삼릉 태실에 대한 고찰

전통시대에는 통상 위쪽이 아래쪽보다 또 왼쪽이 오른쪽보다 높은 자리라고 본다. 서삼릉의 태실도 이를 감안하여 태실을 배치하고 있음을 『태봉』에 적고 있다. 왕자·왕녀의 태실 반열에서 영산군(성종 왕자), 의혜공주(중종 왕녀), 경평군(선조 왕자)의 태실이 당시 이왕(李王)의 아들인 진전하(晉殿下)태실<사진 36>보다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다. 이 태실들은 1929년 서삼릉 태실이 일단 완성된 이후에 별도로 집결된 것이기에 서열을 따르지 않고 추가 배치되었다.

또 국왕 태실에서 맨 뒤쪽 중앙에는 태조의 태실<사진 32>만을 배치하여 태조에 대한 경외와 존송을 표하였다. 또 모든 국왕태실은 왕자녀의 태실보다 표석을 좀 더 크게 하고 표석의 대좌도 좀 더 높게 하였다. 또 왕자녀의 표석은 화강암인데 비하여 국왕 표석은 좀 더 고가인 오석(烏石)을 사용하였다. 양자 간의 차별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서삼릉의 태실은 일제가 조성한 것이고 또 조선왕가의 역대 태실은 일본을 상징하는 ‘일(日)’ 자(字)의 형국인 담장에 가두어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입각하여 1996년 봄에 문화재관리국은 담장을 헐었고 태실의 하부구조까지 발굴하였다. 이때 나온 태지와 태향아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준다. 첫째, 태와 태를 담은 향아리들은 일단 창경궁에 모여졌다가 서삼릉에 일시에 장대되었다. 이것은 『태봉(胎封)』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당시 서울로 이봉된 태향아리는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는 그대로 서삼릉 태실에 묻었다. 그러나 파손되었거나 기타 미비한 상태의 태향아리는 격식대로 새로 만들어서 서삼릉 태실에 묻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세종, 소헌왕후, 문종, 예종, 폐비윤씨등의 태향아리 및 태지(胎誌)가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왕가에 소속된 이왕직 장서각(藏書閣)과 이왕가미술관 또는 이왕가박물관을 계승한 덕수궁미술관을 1969년에 통합하였기에 이들을 인계받아 소장한 것이다. 이들이 이왕가 소속 기관에 보관된 것은 이왕직에서 전국 각지에 있는 왕실 태를 옮기려고 태실을 발굴하였을 때 태향아리 및 태지 전체 또는 일부가 파손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당시의 보관은 유물의 수집 차원 보다는 왕실 유물의 보관이라고 보며 이것은 이왕가박물관에서 속리산 순조대왕의 태봉 그림(胎峯圖)을, 또 장서각에서 화수(和壽)왕자의 태지 등을 보관하거나 구입한 것과도 같은 차원이다.

또한 서삼릉 태실 발굴 조사 때 조선 태조의 태지, 폐비윤씨 태향아리 등에서 보듯 일부 태지 및 태향아리는 일제 강점기에 새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전국 각지에 있었던 태실 안에 태지 및 태향아리가 결손 되었기에 이왕직에서 서삼릉 능력에 새 태실을 만들며 다시 만든 것이다. (1935년 9월 6일 이왕직 예식과에서 이왕가박물관으로 인계되었다.)

한편 1996년 서삼릉 태실들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 결과 몇 가지 차등을 두어 설치한 지상과 달리 지하 구조는 국왕이나 왕자녀들의 태실 모두 동일하게 차등없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하부는 이왕직에서 기록한 『태봉』의 지하 구조 기록과도 일치하고 있다.) <표석 하부의 지하 태실은 원형시멘트관(직경 106cm, 높이 95cm)으로 되어 있다. 태실의 상면에는 두 장의 시멘크관(60×120×30cm)을 붙여 정사각형 형태로 덮혀 있었다. 하부 바닥에는

자갈을 깔고 중앙에는 시멘트로 된 받침석(45×45×6cm)을 놓고 그 위에 지석을 놓았으며 지석의 상면에는 이중의 태향아리가 놓여 있었다.>

1996년 4월 서삼릉 능역 폐비윤씨(廢妃尹氏) 태실의 발굴 때 나온 태향아리 원편의 백자 태향아리는 일제 강점기에 서삼릉으로 태실을 이전할 때 이왕직(李王職)에서 새로 만든 것이다. 서삼릉에는 국왕 태실 가운데 단종, 연산군, 광해군, 인조, 효종, 경종, 철종, 고종황제의 태실은 이전되지 않았다. 역대 국왕 태실을 언급한 아래 『정조실록』을 보면 단종, 연산군, 광해군, 인조, 효종의 태실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는 앞서 소개한 『태봉등록(胎封謄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조에서 열성조의 태봉을 써서 바쳤다. 태조대왕의 태봉은 진산의 만인산에, 정종대왕의 태봉은 금산의 직지사 뒤에, 태종대왕의 태봉은 성산의 조곡산에, 세종대왕의 태봉은 곤양의 소곡산에, 문종대왕의 태봉은 풍기의 명봉사 뒤에, 단종대왕의 태봉은 곤양의 소곡산에, 세조대왕의 태봉은 성주의 선석사 뒤에, 예종대왕의 태봉은 전주의 태실산에, 성종대왕의 태봉은 광주 경안역 뒤에, 중종대왕의 태봉은 가평 서면에, 인종대왕의 태봉은 영천의 공산에, 명종대왕의 태봉은 서산 동면에, 선조대왕의 태봉은 임천 서면에, 현종대왕의 태봉은 대흥 원동면에 있는데 신유년(1681년) 10월에 들난간을 배설한 뒤에 대흥현을 승호하여 군수를 두었다. 숙종대왕의 태봉은 공주 남면 오곡 무수산 동구에, 경종대왕의 태봉은 충주 엄정 입비의 북쪽 2·3리 쯤에, 영조대왕의 태봉은 청주 산내 일동면 무쌍리에 있었다.> 『정조실록』 8(1784)년 9월 15일 아마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국왕 태실은 이미 이전에 실전(失傳)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가운데 인조의 태실은 『인조실록』 4(1626)년 8월 1일의 기록과 같이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혹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인지 애당초 가봉하지 않았다. 결과 이 태실들은 일제 강점기는 물론 조선시대에 이미 망실되었기로 결과 서삼릉에 이전되지 않았다. 또 연산군과 광해군의 태실은 폐주(廢主)였기에, 또 단종의 태실은 비록 단종 태실로서 전해왔지만 정작 당시 이왕직에서 어태를 이전하려고 발굴한 즉 단종의 태실이 아니고 인성대군의 태실<사진 38>로 드러났기 때문에, 효종(孝宗)은 광해군 11(1619)년 5월 22일생 당시 왕의 증손 신분이었기에 태실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고 또 등극 후에는 인조나 자신의 동복형인 소현세자의 예에 따라 태실을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러한 사유 등에서 이 태실들은 지금 전하지 않는다고 본다.

경종 태실은 『태봉』에서 보듯 분명 서삼릉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서삼릉 태실 내에 그 태비(표석)가 없다. 어떤 사정이 있다 짐작된다. 문조(文祖)의 태실은 아마 태실의 내부

가 이미 도괴되었고 특히 이전할 내용인 어태가 이미 산일되었기 때문에, 또 철종과 고종은 입양되기 이전에 이미 먼 종친에 지나지 않은 신분이었기에 당시 양반을 포함한 민간 풍습대로 태를 태워 없애버린 결과 본래 태실이 없었던 사유로 서삼릉에 이전될 수 없었다고 본다.

서삼릉의 태실은 지금껏 모두 일제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조성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하였듯 서삼릉에 집결되어 조성된 태실은 이전 각지에 세운 조선시대의 격조 높은 왕실의 태실과는 너무도 차이가 나는 작고 단순하고 볼품없는 모습이다. 그리고 공동묘지라도 연출하는 듯 집단화한 모습에서 그리고 태실을 둘러싼 담장이 일본을 상징한다는 날 ‘일(日)’ 자(字)라는데서 이 의견은 더욱 뒷받침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 가지고는 선부른 결론이 될 수 있다 여겨진다. 서삼릉 태실 건립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태실 설립의 주체를 파악해야 한다.

강원도 영월 정조의 태실, 충남 부여 규암면의 의혜공주의 태실, 부여 충화면의 두 공주의 태실, 고양 대자리 정소공주의 태향아리 출토 기록, 강원도 양양의 견성군 태실 이전 기록 등을 종합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증언이나 『태봉』의 기록에 따르면 왕실의 태는 이왕직에서 이전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삼릉에 옮겨진 조선왕실의 태실들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민간에서는 일제 조선총독부가 옮겨갔다고 인식하고 있다.

1939년 당시 이왕가의 이왕은 고종의 아들 영친왕 즉 대한제국 순종황제의 황태자였다. 이 이왕의 아들 이구(李玖)는 당시 이왕가의 왕세자였다. 『태봉』에서 보듯 당시 왕세자인 이구(李玖)의 태실(사진 34)은 먼저 세상을 떠난 동복형인 이진(李晉)의 경우와 같이 처음 이들의 장대지(아마 임시 태 보관처라고 본다)는 모두 탄생지인 일본 동경이었다. 이 태실들은 조선 왕실의 역대 태실이 서삼릉에 옮겨질 때 함께 서삼릉으로 옮겨져 있다.

그런데 이 이왕가의 왕세자 이구의 태실(사진 34)은 왕자녀의 태실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왕의 태실 반열에 있다. 이는 다음 이왕(李王)이 될 신분이므로 그같이 조처할 수 있었지만 이왕가의 다음과 같은 모종의 결심이 작용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여 본다. 즉, 당시 이왕가 왕실을 일본 황실에 부속된 한 왕실이 아니라 예전 대한제국의 황실로서 인식하였고, 이를 태실에도 은연중에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비록 법률상으로는 당시 일본 황실에 속한 이왕가의 왕세자였지만 대한황실(大韓皇室)로서의 긍지를 그대로 지녔기로 왕세자를 국왕의 반열에 염두하였고 결과 왕세자의 태는 국왕 태실 반열에 배치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추정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 또한 서삼릉의 태실 이전이 이왕가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또 필요한 측면에서 시행한 것임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이왕직에서 태실을 서삼릉으로 옮길 때에는 이왕직의 의전을 담당하는 전사(典祀) 또는 전사보(典祀補)라는 직명을 가진 관리를 책임자로 파견하였다. 전사는 종친 또는 대한제국 때 부터 황실과 긴밀한 관련을 가졌던 가문 사람이 대개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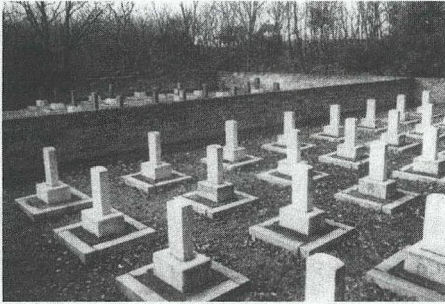
『태봉』을 보면 이왕직의 전사가 현지 태봉에 도착하면 본군(本郡)의 군수나 면장 순사 면서기 구장(區長) 등이 동행하고 경호한다. 전사 또는 전사보에 의하여 서삼릉으로 이봉되던 조선왕조 태실의 이안 과정은 특히 정조의 태실 이안 과정을 지켜본 영월 주민들의 아래 기록을 통하여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 태실은 조선왕조의 멸망 이후 단순히 철조망에 둘러쳐진 채 있었고, 1929년 이왕직에 의하여 거의 모래흙이나 진배없는 태와 그를 담은 태항아리를 서울로 이송하게 된다. 이때 태를 넣은 은항아리(백자항아리가 퇴색한 뒤이므로 마치 은항아리처럼 보였으리라 여겨진다.)를 하얀 가마에 태워갔다.>

『태봉』에는 태를 특별열차로 이안해 갔다 적었다. 당시 각 어태들을 지역주민들이 참배도 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왕가에서는 태실을 서삼릉 능력으로 집단 이전하였을까?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은 당시 기록인 『태봉』에서도 찾을 수 없다. 향후 더욱 많은 자료를 통한 연구로써 해결되었으면 한다. 다만 필자는 서삼릉 능력에 조선왕조의 태실을 이전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자 한다. 즉, 당시 이왕가가 태실을 수호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데서, 그리고 도굴꾼의 화를 피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조선왕조의 태실은 망국과 함께 그 수호군도 사라졌을 것이고 또 이를 보호하는 방어막도 점차 없어 갔으리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차제에 도굴꾼들도 태항아리를 넘보고 있었기에 이왕직에서는 서둘러 전국에 산재한 왕실 태실의 태를 한 곳으로 옮겨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수호하려 하였다 여겨진다. 그리고 또 각 지방의 태실을 포함한 태봉산을 불하하여 이왕가의 재정에 충당하려 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 새로 조성할 태실들을 서삼릉 능력으로 장소를 잡은 것은 서울과 가깝고 또 역대 왕실과 깊은 인연이 있고 또 당시 이왕가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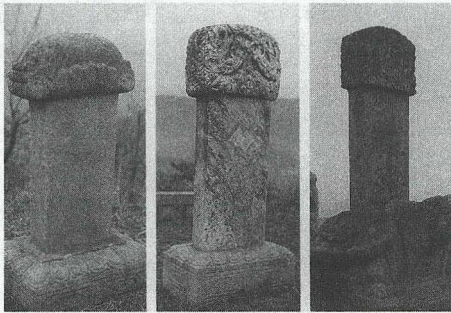
## 2) 서삼릉 태실 발굴전 자료사진 및 명종태비(사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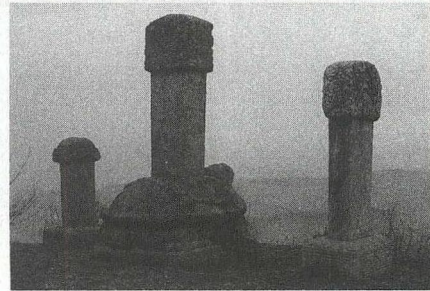
서삼릉태실담장철거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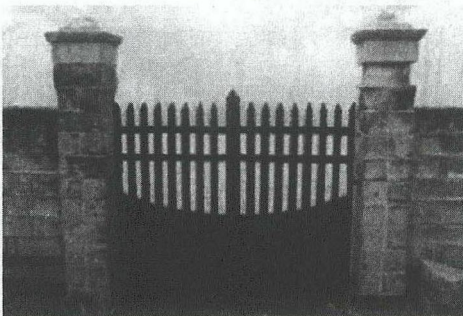
이담장은1996년4월 철거하였다



3명종태비부분



명종태실(상) 명종태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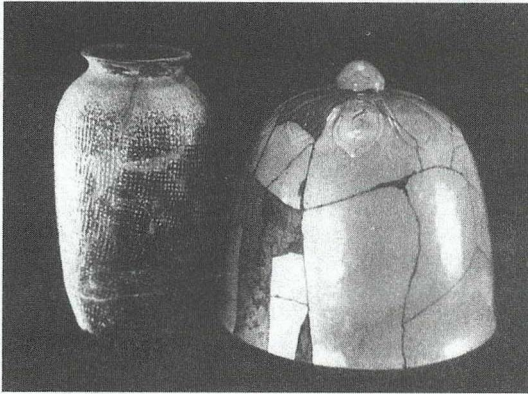


서삼릉태실 철문 (신사참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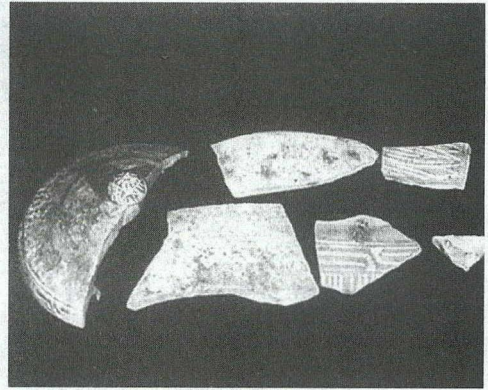


서삼릉 태실 날일자형 정비 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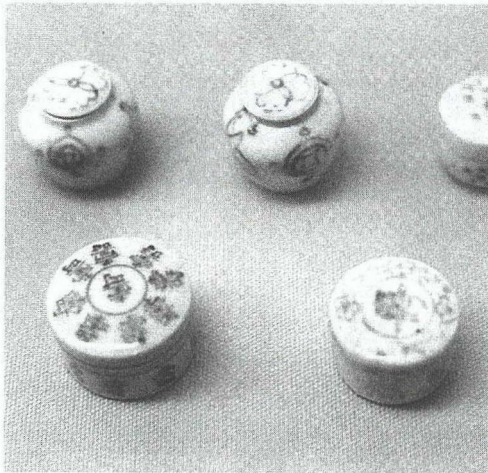
### 3) 서삼릉 태실 종합자료(사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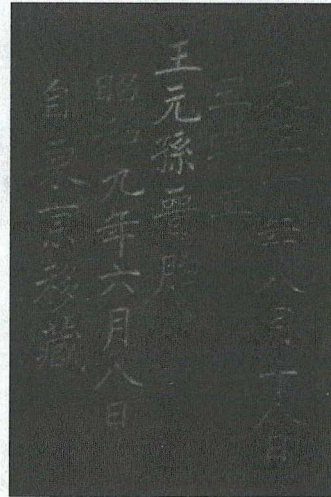
세종대왕곤양태실에서나온태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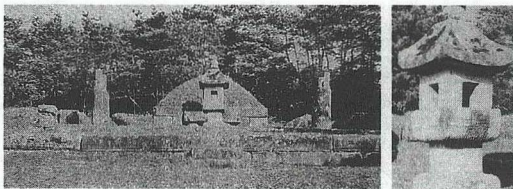
소헌왕후 소백산태실에서나온태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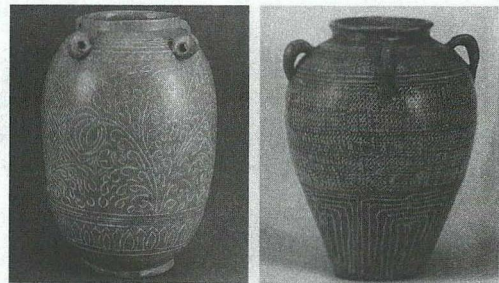
의소세손명기,국립중앙박물관소장



진전하 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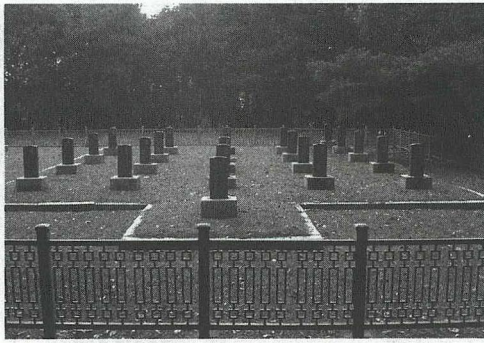
정소공주 초장지 묘소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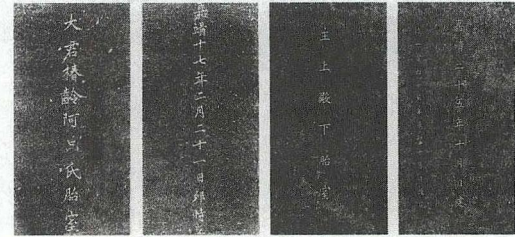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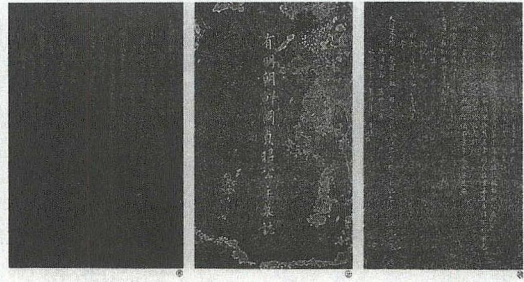
정소공주 태항아리

[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 발굴보고서]





오비석군 조선국왕 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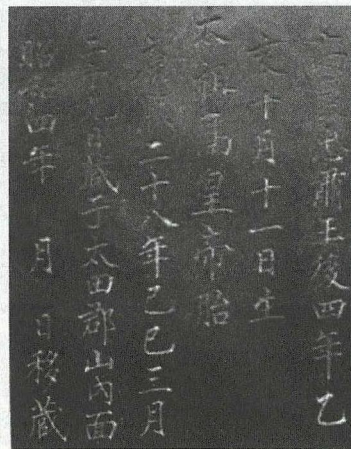


서삼릉태실 명조태비(모지및그비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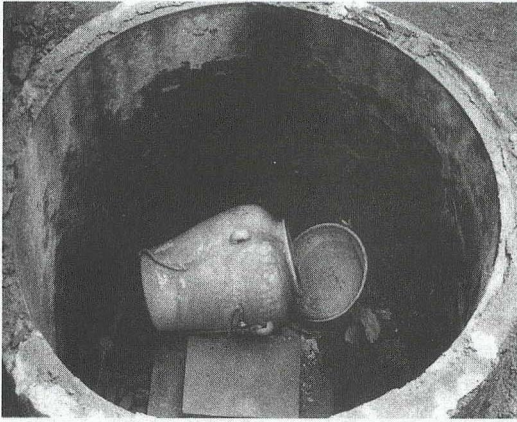
#### 4) 서삼릉 태실 종합자료(사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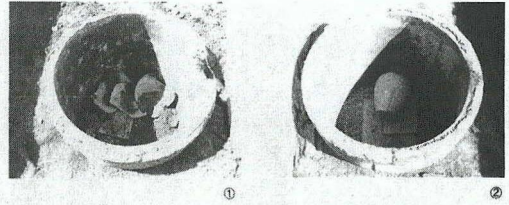
태조고황제태항아리



서삼릉태실 241쪽 태조 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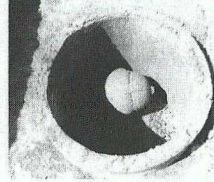


서삼릉 인성대군 태실발굴 국립문화재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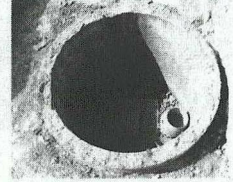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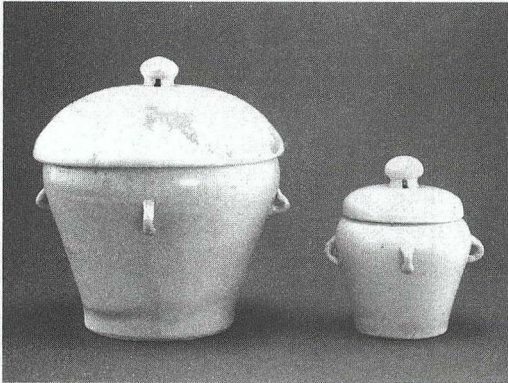


④

① 태조 ②정종 ③태종 ④세종 태실 내부사진

[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 발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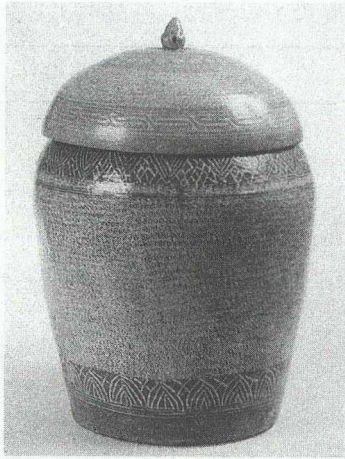
### 5) 서삼릉 태실 종합자료(사진5)



장조의황제 태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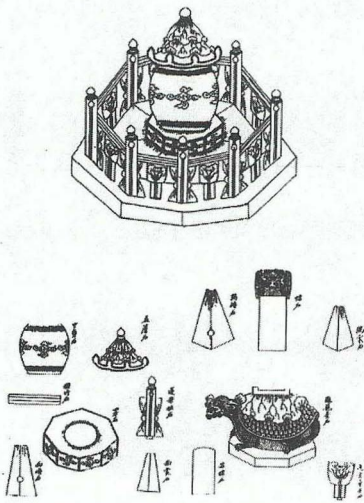
현종성황제 태항아리



문중명봉사태실에서나온태항아리



예종전주태실에서나온태항아리



도면) 正宗大正殿夏加古備材(서울대 규장각 藏)

정종대왕 태실가봉儀軌 서울대규장각藏



태실이전기사,1929년3월1일동아일보

역대 왕들의 태봉 소재지 道別 분포현황

번호	도 별	수 량	근 거	기 타
1	경기도	2	1.신조수정실록, 권4,p.1左 2.성종실록권73, p.8右 3.국립문화재 연구소.1996년 《서삼릉지역 태실군 수습발굴조사 결과보고》	왕자녀의태봉은제의 (별도분포)
2	강원도	1		
3	충청남도	5		
4	충청북도	3		
5	경상남도	1		
6	경상북도	5		
7	전라북도	3		
8	합	20		

조선왕조 태실 배치도

서삼릉 태실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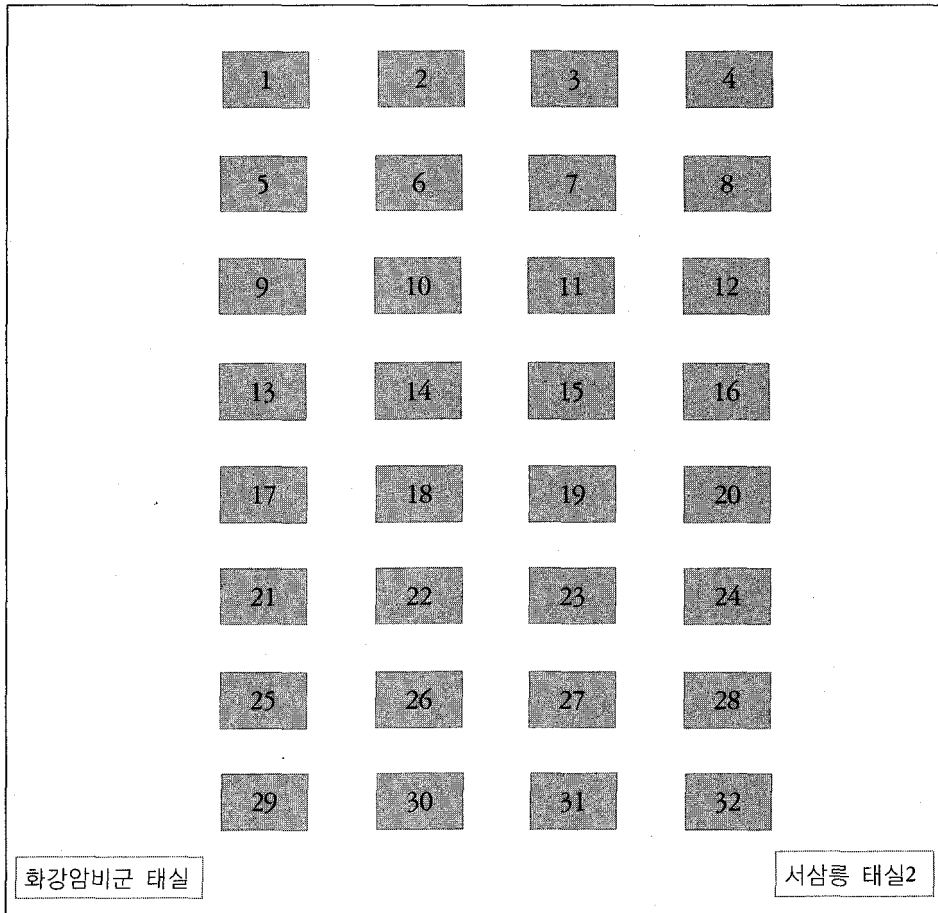
<표 3>의 참고 사항

연번	태실 주몽	태비 앞면 명문	태비 뒷면 명문	태실 전(前) 소재지
1	太祖	太祖高皇帝 胎室	年五月 自全北錦山郡秋富面 移封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산 1-86
2	定宗	定宗大王 胎室	年五月 自慶北金泉郡堡項面 移封	경북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직지사 뒤
3	太宗	太宗大王 胎室	年五月 自慶北星州郡聖岩面 移封	경북 성주군 성암면 대봉 2리 태봉
4	世宗	世宗大王 胎室	年五月 自慶南泗川郡昆明面 移封	경남 사천군 곤명면 은사리 산 27
5	文宗	文宗大王 胎室	年五月 自慶北榮州郡上里面 移封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명봉사 뒤
6	世祖	世祖大王 胎室	年五月 自慶北星州郡月恒面 移封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 8
7	睿宗	睿宗大王 胎室	年五月 自全北全州郡九耳面 移封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8	成宗	成宗大王 胎室	年五月 自京畿道廣州郡慶安面 移封	경기도 광주시 경안읍 태전리
9	中宗	中宗大王 胎室	年五月 自京畿道加平郡郡內面 移封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상색초교)
10	仁宗	仁宗大王 胎室	年五月 自慶北永川郡清通面 移封	경북 영천군 청통면 치일리 은혜사 뒤
11	明宗	明宗大王 胎室	年五月 自忠南瑞山郡雲山面 移封	충남 서산군 운산면 태봉리 산1번지
12	宣祖	宣祖大王 胎室	年五月 自忠南扶餘郡忠化面 移封	충남 부여군 중화면 오덕리 오덕사 앞
13	肅宗	肅宗大王 胎室	年五月 自忠南公州郡木洞面 移封	충남 공주시 이인면 태봉리 (원태봉)
14	景宗	대좌판 있음		충북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산 34-1
15	英祖	英祖大王 胎室	年五月 自忠北淸州郡琅城面 移封	충북 청원군 낭성면 무성리 산6-1
16	莊祖	莊祖懿皇帝 胎室	年五月 自榮州郡上里面 移封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명봉사 뒤
17	正祖	正祖宣皇帝 胎室	年五月 自江原道寧越郡下東面 移封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2리 (영월 방송국 내 복원)
18	純祖	純祖肅皇帝 胎室	年五月 自忠北報恩郡俗離面 移封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산 1-1
19	憲宗	憲宗成皇帝 胎室	年五月 自忠南禮山郡德山面 移封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옥계저수지)

20	純宗	純宗孝皇帝 胎室	年五月 自慶北金泉郡垵項面 移封	충남 홍성군 구항면 태봉리
21	皇太子	李王殿下 胎室	年五月 自昌德宮秘苑 移封	서울시 종로구 외룡동 창덕궁 비원
22	李玖	王世子 胎室	年一月二十五日立	동경

<표 4>서삼릉 능역의 왕자·왕녀 태실 배치도

왕자·왕녀 태실 배치도



<표 4-1>의 참고 사항

연번	태실 주인공	태비 앞면 명문	태비 뒷면 명문	태실 전(前) 소재지
1	인성대군 (예종 왕자)	仁城大君胎室	年五月 自慶南泗川郡昆明面移藏	경남 사천군 곤명면 은사리산 438
2	폐비윤씨	燕山君母尹氏胎室	年五月 自慶北醴泉郡龍門面移藏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용문사 앞
3	안양군 (성종 왕자)	安陽君胎室	年五月 自慶北尙州郡牟東面移藏	경북 상주군 모동면 반계리
4	완원군 (성종 왕자)	完原君胎室	年五月 自慶北星州郡聖岩面移藏	경북 상주군 모동면 반계리
5	추정 봉안군 (성종 왕자)	王子壽長胎室	年五月 自京畿道楊州郡榛接面移藏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6	견성군 (성종 왕자)	堅城君胎室	年五月 自江原道襄陽郡降峴面移藏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하북리
7	연산군 세자	燕山君元子金彜伊胎室	年五月自慶北尙州郡化西面移藏	경북 상주시 화서면 신봉리 (태봉산)
8	연산군 왕자	燕山君子仁壽胎室	年五月自慶北聞慶郡加恩面移藏	경북 문경시 가은면 왕릉리
9	연산군 왕녀	王女靈壽胎室	年五月自京畿道楊州郡榛接面移藏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10	연산군 옹주	燕山君女福億胎室	年五月自江原道三陟郡三陟面移藏	강원도 삼척시 도원동 (자지전리)
11	연산군 왕녀	燕山君女福合胎室	年五月自黃海道黃州郡仁橋面移藏	황해도 황주군 인교면 태조태실 뒷산
12	덕흥대원군 (중종 왕자)	德興大院君胎室	年五月自全北錦山郡秋富面移藏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13	인성군 (선조 왕자)	仁城君胎室	年五月自忠北淸州郡龍興面移藏	충북 청원군 문의면 산덕리 산411
14	인흥군 (선조 왕자)	仁興君胎室	年五月自慶北尙州郡咸昌面移藏	경북 상주시 함창면 태봉리
15	숙명공주 (효종 왕녀)	淑明公主胎室	年五月自慶北金泉郡知禮面移藏	경북 김천시 지례면 관덕 1리
16	숙정공주 (효종 왕녀)	淑靜公主胎室	年五月自江原道原州郡興業面移藏	강원 원주시흥업면 대안3리
17	숙경공주 (효종 왕녀)	淑敬公主胎室	年五月自慶北金泉郡知禮面移藏	경북 김천시 지례면 관덕 1리
18	명선공주 (현종 왕녀)	明善公主胎室	年五月自忠南保寧郡嶺山面移藏	충남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
19	연영군 (숙종 왕자)	延齡君胎室	年五月自忠南禮山郡大述面移藏	충남 예산군 대술면 귤곡리
20	화유옹주 (와조 왕녀)	英祖王女胎室	年五月自忠南唐津郡順城面移藏	충남 당진군 순성면 성북리
21	화령옹주 (와조 왕녀)	英祖王女胎室	年五月自忠南禮山郡光時面移藏	충남 예산군대흥면면사무소뒤
22	화길옹주 (와조 왕녀)	英祖王女胎室	年五月自忠北丹陽郡大崗面移藏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23	의소세손 (사도세자 장남)	懿昭世孫胎室	年五月 自慶北榮州郡榮州面移藏	경북 영주시 고현동 아래귀내
24	문효세자 (정조 장남)	文孝世子胎室	年五月 自慶北醴泉郡龍門面移藏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용문사 뒤
25	철종(哲宗)의 원자(元子)	哲宗王子胎室	年五月 自江原道寧越郡兩邊面移藏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26	덕혜옹주	德惠翁主胎室	年五月 自昌德宮秘苑移藏	서울시 종로구 외룡동 창덕궁
27	고종 제 팔왕자	高宗 第八男 胎室	年五月 自昌德宮秘苑移藏	서울시 종로구 외룡동 창덕궁
28	고종 제 구왕자	高宗 第九男 胎室	年五月 自昌德宮秘苑移藏	서울시 종로구 외룡동 창덕궁
29	이진(李晉)	晉殿下胎室	年六月八日 自東京移藏	日本 東京都 아카사카 李王家私邸
30	영산군 (성종 왕자)	寧山君胎室	年六月二十六日 自京畿道漣川郡積城面移藏	경기도 연천군 적성면 객현리
31	의혜공주 (중종 왕녀)	懿惠公主胎室	年六月二十六日 自扶餘郡窺巖面移藏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양리 90
32	경평군 (선조 왕자)	慶平君胎室	年十月二十六日 自立忠淸南道大田郡紀城面移藏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수원동

## 9. 서삼릉 태실발굴과 바뀐 태(胎) 항아리

서삼릉 태실 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작업도중 일제치하 李王職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서삼릉 태실 관련 태항아리와 지식의 유리원판 사진(국립중앙박물관소장)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유리원판 사진은 서삼릉에 이장된 태실의 태항아리와 지식의 대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서삼릉으로 이장하기 전에 봉안실에서 촬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태항아리는 원형 그대로 이장된 것이 확인되었지만 일부 항아리는 서삼릉 태실에서 출토된 것과 유리원판 사진의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이장시에 일부 항아리가 바뀌어 봉안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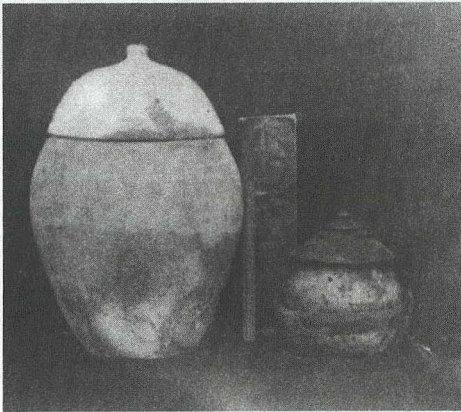
서삼릉 태실에서 발굴 조사된 태항아리 중에는 1930년경에 일괄적으로 제작된 태항아리가 보인다. 처음에는 이 항아리를 본래부터 없던 것을 구색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 넣었던 것으로 보았지만, 유리원판의 사진과 비교해 본 결과 이 항아리가 본래의 항아리와 바뀌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李王職 典祀들에 의해서 발굴 수습된 태항아리와 지식은 『胎封』이라는 그들의 기록에서 이장시기를 昭和3年으로 하고 있는데, 유리원판 사진상의 權安시기에 대한 墨書가 昭和2



年の것도 확인되어 태항아리와 지석의 이장시기가 1927년부터 시작되어 1930년 이후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태항아리는 권안 이후 바뀌어진 것인데 연산군모 윤씨의 외항아리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에 소장되어 있으며, 문종의 외항아리가 국립 광주박물관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다. 그 밖의 항아리는 일제치하 당시 일본인이나 한국인들에 의해서 바뀌어져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 수 없다. 당시 촬영한 유리원판 사진 중 서삼릉 태실 발굴조사시 출토된 유물과 상이한 것이 9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태종대왕



[사진 1-1]태종대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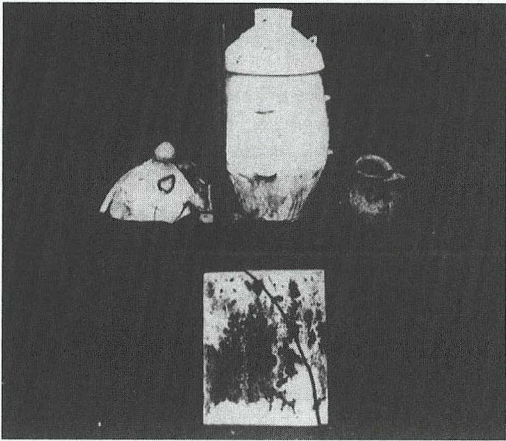


[사진 1-2]태종대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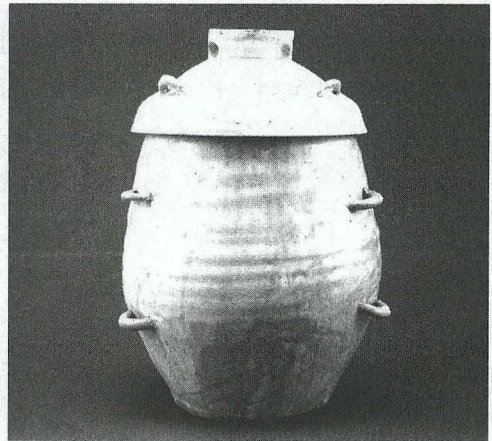
[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 발굴보고서]

서삼릉 태실에서 출토된 것은 회흑색의 경질 도기호와 회청색 경질 도기호 그리고 昭和14년에 제작된 지석도 있다. 그러나 유리원판 사진에서는 지석이 없고 내항아리의 뚜껑과 회청색 경질 도기호를 담고 있는 항아리가 있다. 뚜껑은 육안으로 분청인지 도기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기형은 보주형의 손잡이에 그 밑으로 2단의 턱을 주면서 갓형으로 벌어진다. 회청색 경질도기를 담고 있는 항아리는 동체부 중간에서 파손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반의 형태를 갖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이 것 역시 분청인지 도기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 2) 세종대왕



[사진 2-1]세종대왕 유리원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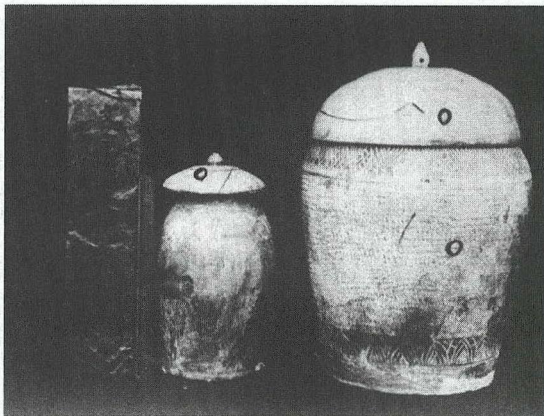


[사진 2-1] 세종대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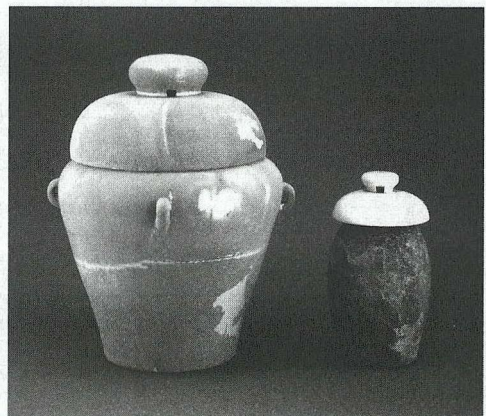
[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 발굴보고서]

서삼릉 태실에서 출토된 것은 백자 내항아리와 지석이다. 유리원판 사진에서는 앞에 있는 것 외에 파손된 뚜껑과 회청색의 경질 도기로 추정되는 소호가 확인되었다. 파손된 뚜껑은 외형상으로 외항아리의 뚜껑으로 보기에 어렵고 육안으로 백자인지 분청인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 3) 문종대왕



[사진 3-1]문종대왕 유리원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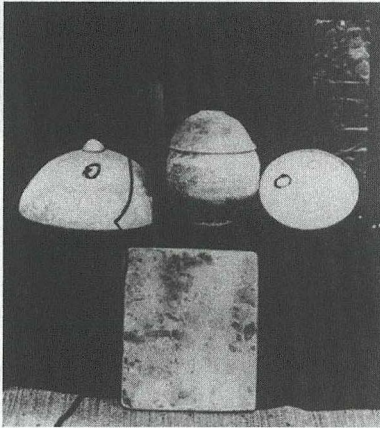


[사진 3-2] 문종대왕 태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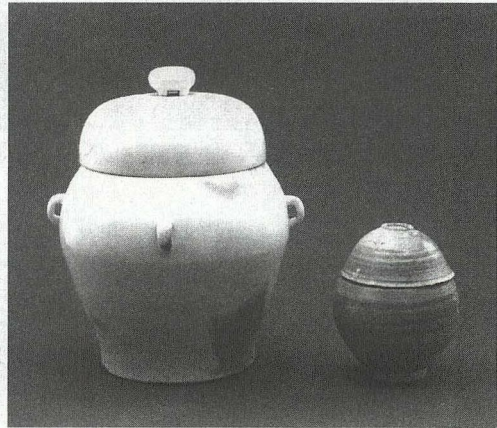
[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 발굴보고서]

서삼릉 태실에서 출토된 것은 1930년경에 제작된 외항아리와 내항아리 뚜껑, 흑회색 경질 도기 그리고 昭和4년에 제작된 지석이 있다. 유리원판 사진에서는 대형의 분청 외항아리와 분청 내항아리 뚜껑 그리고 흑회색 경질 도기가 확인 되었다. 분청 외항아리는 안정된 바닥에 전체적으로 분청인화문이 표현된 항아리이며 뚜껑은 보주형 손잡이에 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다. 내항아리의 뚜껑도 분청으로 보주형의 손잡이가 달려 있다.

#### 4) 세조대왕



[사진 4-1] 세조대왕 유리원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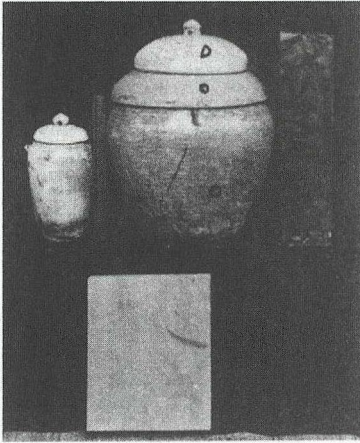


[사진 4-2] 세조대왕 태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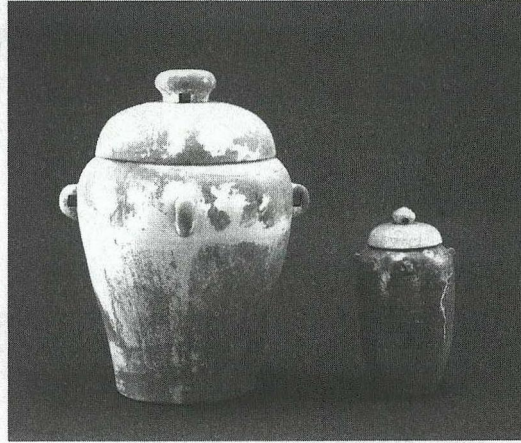
[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 발굴보고서]

서삼릉 태실에서 출토된 것은 1930년경에 제작된 외항아리와 분청 귀갑문 접시가 덮혀진 내항아리 그리고 昭和14년에 제작된 지석이 있다. 유리원판 사진에서는 내항아리와 외항아리 뚜껑 그리고 내항아리 뚜껑이 확인되었다. 외항아리 뚜껑은 외면에 연화문이 음각되어 있으며 목이 없는 보주형 손잡이이다. 내항아리 뚜껑은 내면을 촬영해 손잡이와 외면을 확인할 수 없었고 2개의 뚜껑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분청인지 백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 5) 예종대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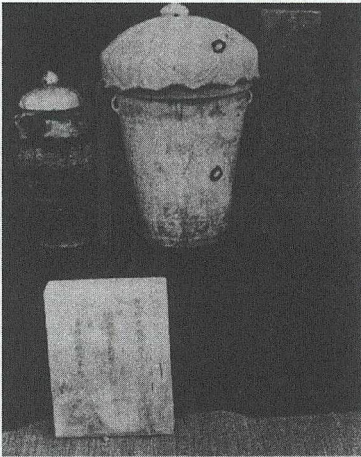
[사진 5-1] 예종대왕 유리원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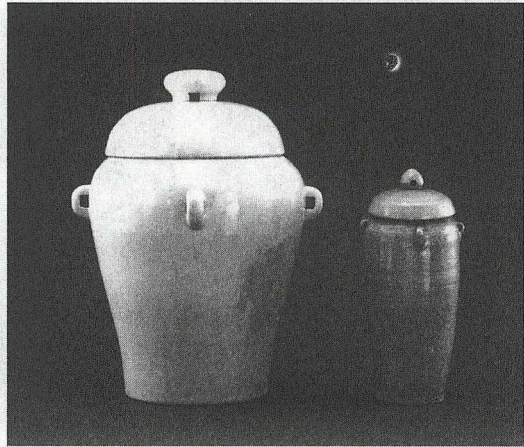
[사진 5-1] 예종대왕 태항아리

서삼릉 태실에서 출토된 태항아리는 외항아리가 1930년경에 제작된 것이고 내항아리는 원래의 것이다. 유리원판의 사진에서는 내항아리가 서삼릉 태실 출토의 것과 동일하나 외항아리는 다르다. 사진에서는 외항아리가 운문과 인화문이 표현된 분청 항아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형은 안정된 바닥에 배가 부른 항아리로 어깨상면에는 4개의 「C」자형 고리가 달려 있다. 항아리 구연에는 2개의 뚜껑이 덮여져 있는데, 항아리와 맞물려 있는 뚜껑은 항아리와 기형상 어울리는 것으로 외면에 분청 인화문이 흐릿하게 보인다. 그 위에 또 하나의 뚜껑이 얹혀져 있는데 이 뚜껑은 밑에 있는 뚜껑보다는 크기가 작고 보주형의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그 밑에 원형 투공이 있다. 외면에는 전체적으로 운문이 표현되어 있다.[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 발굴보고서]

## 6) 성종대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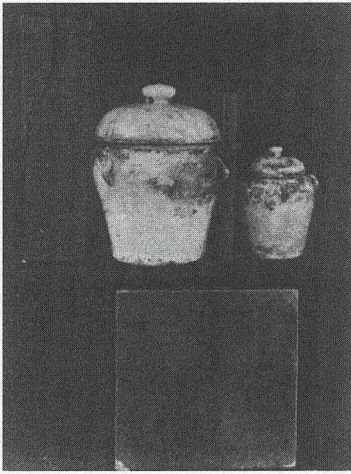
[사진 6-1]성종대왕 유리원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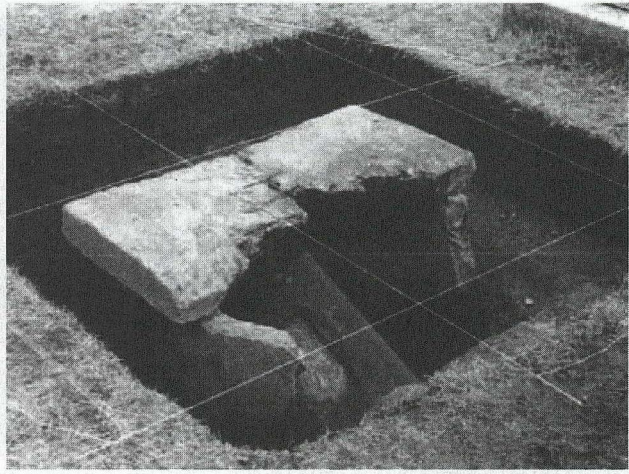
[사진 6-2]성종대왕 태항아리

서삼릉 태실에서 출토된 것은 1930년경에 제작된 외항아리와 원래의 내항아리 그리고 지석이 있다. 유리원판 사진에서는 내항아리와 지석이 서삼릉 태실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함을 볼 수 있었으며 외항아리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외항아리는 장신의 항아리로 어깨상면에는 4개의 「C」자형 고리가 달려 있으며 바닥은 평저로 추정된다. 뚜껑은 2개가 확인되는데 아쪽의 것은 외항아리와 맞물려 있으며 그 위를 덮고 있는 뚜껑은 보주형의 손잡이와 그 밑에 원형 투공을 갖추고 있다. 외면에는 연화문이 음각되어 있으며, 뚜껑의 입술면은 특이하게도 연꽃잎의 표현을 그대로 살려두어 구연이파상의 형태를 하고 있다.

## 7) 경종대왕



[사진 기경종대왕 유리원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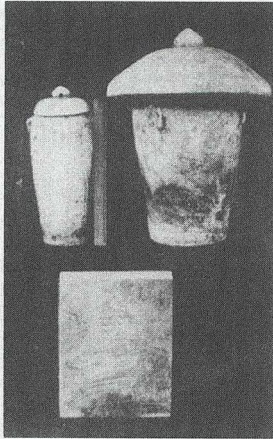


서삼릉 경종대왕태실 도굴된 모습

[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 발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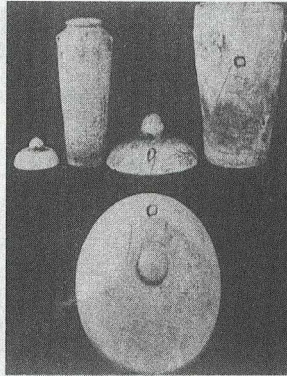
경종대왕의 태실은 서삼릉 태실에서 완전하게 도굴된 것으로 태항아리와 지석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유리원판의 사진으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외항아리는 안정된 바닥에 약간 배가 부른 기형에 어깨하단에는 4개의 「C」자형 고리가 달려 있다. 뚜껑손잡이는 단추형으로 그 밑에는 4개의 원형 구멍이 뚫려 있다. 내항아리는 외항아리 축소형이다. 지석은 방형으로 鳥石의 재질을 하고 있으며, 명문은 전·후면에 음각 되어 있다. 유리원판 사진으로는 후면을 찍었는데 그 내용은 [康熙二十八年二月二十二日辰時藏] 이라고 각자 되었다.

## 8) 인성대군



[사진 8]인성대군

인성대군 유리원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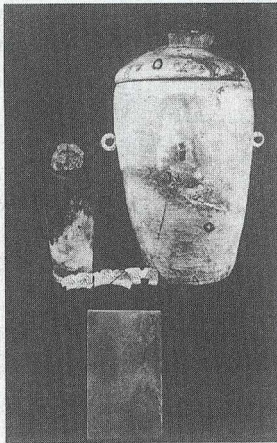
[사진 9]인성대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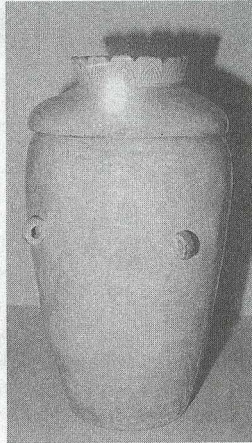
서삼릉태실 인성대군 태항아리

서삼릉 태실에서 출토된 것은 1930년경에 제작된 외항아리와 원래의 내항아리 그리고 지석이 있다. 유리원판 사진에서는 외항아리와 내항아리 그리고 외항아리를 덮고 있는 뚜껑 2개, 지석이 확인되었다. 유리원판에서 확인된 외항아리는 구연이 직립으로 그 밑에는 4개의 「C」자형 고리가 달려있다. 분청 항아리인지 백자 항아리인지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바닥은 평저로 보인다. 뚜껑은 2개가 덮여져 있는데 외항아리의 기형과 어울리는 백자 뚜껑과 대형의 분청 뚜껑이 있다. 외항아리의 기형과 어울리는 뚜껑은 보주형의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그 밑으로 원형 구멍이 있다. 분청 뚜껑은 크기가 외항아리에 비해 훨씬 크며 외면에는 전체적으로 분청 상감이 보인다. 손잡이는 보주형으로 목이 없다.[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 발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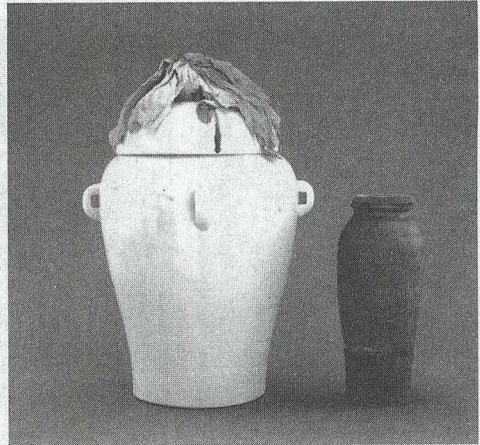
## 9) 연산군묘윤씨



[사진 10-1]연산군묘 유리원판 폐비윤씨 태항아리 사진



(진품)



[사진10-2]연산군묘 윤씨 태항아리

서삼릉 태실에서 출토된 것은 1930년경에 제작된 외항아리와 분청 인화문 접시의 저부가 덮여져 있는 흑회색 경질 도기 그리고 지석이 있다. 유리원판 사진에서는 외항아리만 다르고 나머지는 서삼릉 태실에서 출토된 것과 같다. 외항아리는 장신의 항아리로 動體간에 원형의 고리가 4개 달려 있으며, 표면에는 분청 귀얄문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보인다. 뚜껑은 손잡이가 일부 파손되었는데 손잡이의 형태가 접시의 굽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분청 연화문으로 표현되어 있다. 유리원판사진에서 확인된 태항아리(국립중앙박물관소장) [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 발굴보고서]

## 10. 맺음말

西三陵 경내에 있는 胎室 54기와 胎室 내에서 출토된 胎항아리와 지석, 그리고 그 밖의 유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태봉에 매장된 태실과 태항아리 등의 유물은 그 실태가 아직까지 명확히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다. 西三陵으로 이장된 54기의 태실 관련 유물들은 일제침략기에 李王職에서 파괴 및 손실의 방지라는 명목으로 한 곳에 옮겨 놓은 것이다. 하지만 서삼릉에 매장된 태실의 구조와 ‘日’자형의 외부 담장 시설을 보았을 때, 겉으로 드러난 이장 이유와는 달리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이



왕직의 이봉기록에는 전사들에 의해서 태실에 대한 조사가 실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 의해서 조사된 것은 단지 태항아리와 지석을 옮기는 것에 목적을 두었지, 태실의 보존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지금도 전국의 태봉을 현지조사해 보면 태실의 석물이 파괴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시 원당동의 서삼릉 경내에 자리잡고 있는 西三陵 胎室은 현재까지도 일반인들에게는 비공개 지역으로 남아있다. 서삼릉 胎室은 1996년 발굴조사를 통해서 그 실체를 규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西三陵 胎室에서 출토된 胎항아리에서는 분청자기 항아리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15세기 초반부터는 분청자기항아리가 주를 이루고 일부의 外항아리는 회흑색 경질도기가 사용된다. 14세기 말의 世宗代를 기점으로 백자항아리가 처음 만들어지나, 15세기 중엽까지 분청자기 항아리는 계속 사용된다. 15세기 말에는 항아리의 기형이 길고 4개의 고리가 어깨 상면에 부착되었으며, 보주형의 뚜껑손잡이에 담청색유약을 전체적으로 시유하고 있다. 성형은 外항아리가 윤적성형과 평저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內항아리는 물레성형을 하였다. 16세기 초반까지는 15세기 말의 기형이 그대로 이어지다가 중반부터 기형이 약간 낮아지며, 外항아리의 성형이 물레성형으로 바뀐다. 17세기에는 항아리의 뚜껑과 몸체가 전체적으로 심하게 낮아지며, 저부가 좁아지면서 外항아리 바닥이 안굽의 형태를 하게 된다. 18세기에는 낮은 기형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4개의 고리가 중앙으로 내려오고 중앙이 배가 부른 형태를 보여준다. 19세기에는 항아리의 기벽이 상당히 두터워 지며 4개의 고리가 저부쪽으로 내려온다. 20세기에는 胎항아리의 전통이 무너지는 시기로 항아리의 기형이 뚜껑을 덮었을 때 원형 또는 타원형의 형태에 가까우며, 중앙에는 4개의 두터운 방형 고리가 달려 있다. 1920년 이후로는 항아리를 일괄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제작하게 되며, 접시나 목함 등의 태함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동전은 胎와 함께 들어가는 부장품으로 西三陵 胎室 에서는 조선통보, 만력통보, 승정통보, 개원통보 등이 출토 되었다. 조선통보는 조선 초기의 화폐유통시기와 같은 맥락에서 부장용으로 사용되었지만, 그 밖의 동전은 모두 중국전이다. 조선 중기에는 중국전이 잠시 통용되었는데, 胎항아리의 부장동전이 이때부터는 중국전으로 바뀌어 사용된다. 肅宗4年(1678)에는 常平通寶가 주조됨으로써 주로 통용된 동전은 상평통보이나 胎항아리에 중국전을 부장용으로 고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 밖의 유물로 금종이, 금편, 은편, 목간 등도 확인 되었다. 고려 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이전에 조성된 胎室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고, 朝鮮時代의 태실관련 유물에 대한 미술사적인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 발굴보고서 맺음말 중에서]

## 참고 문헌 및 자료집

- [조선왕조 중종실록 10(1515)년 3월 2일]  
[조선왕조 중종실록 10(1515)년 3월 7일]  
[조선왕조 중종실록 32(1537)년 6월 19일]  
[조선왕조 중종실록 32(1537)년 8월 26일]  
[조선왕조 인종실록 1(1545)년 3월 11일]  
[조선왕조 인종실록 1(1545)년 7월 5일]  
[조선왕조 명종실록 즉위(1545)년 7월 12일]  
[조선왕조 명종실록 4(1549)년 10월 7일]  
[조선왕조 명종실록 17(1562)년 1월 12일]  
[조선왕조 명종실록 17(1562)년 9월 4일]  
[조선왕조 선조실록 10(1577)년 12월 26일]  
[조선왕조 선조실록 11(1578)년 2월 1일]  
[조선왕조 선조실록 11(1578)년 2월 15일]  
[조선왕조 철종실록 14(1863)년 12월 8일]  
[조선왕조 철종실록 「부록」]  
[조선왕조 고종실록 즉위(1863)년 12월 20일]  
[조선왕조 고종실록 1(1864)년 4월 6일]  
[조선왕조 고종실록 15(1878)년 5월 12일]  
[조선왕조 고종실록 15(1878)년 5월 24일]  
[조선왕조 고종실록 15(1878)년 5월 25일]  
[조선왕조 고종실록 15(1878)년 9월 18일]  
[경기도 고양군지 서삼릉편]  
[경기도 고양시사 서삼릉편]  
[정지훈, 효릉지]  
[서삼릉태실 발굴보고서, 문화재연구소]  
[고양시향토문화보존회, 서삼릉, 능묘와 태실등의 고찰]  
[고양문화원, 행주열(태실편)]  
[국사편찬위원회소장, 동아일보기사1929년3월1일자]

# 경기지역 민요가창자 연구

—경기 남부지역 이희완과 경기 북부지역 황상복을 중심으로—

최자운

경기대 국문과 강사

## 목 차

1. 머리말
2. 경기지역 민요가창자의 생애와 구연 목록
  - 1) 경기남부지역 가창자 이희완
  - 2) 경기북부지역 가창자 황상복
3. 가창자별 음악 및 사설 변용 양상의 특징과 의미
4. 맺음말

## 1. 머리말

민요 가창자(歌唱者)는 경청자 혹은 소리를 받아주는 이와 함께 민요판을 구성하는 기본 인자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민요에 나타나는 특징은 그 지역 가창자들의 특징에서 말미암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창자에 대한 연구는 지역 민요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민요 가창자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여기서는 193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이루어져 온 민요 가창자에 대한 연구사를 검토한 후, 경기 강화, 경북 영양, 경북 포항, 경북 칠곡 등 네 곳의 남녀 가창자를 대상으로 가창자 연구를 실시하였다.<sup>1)</sup> 그의 연구에서는 네 명의 남녀 가창자를 불박이와 떠돌이로 나눈 후 그들의 삶과 소

리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폈다. 그런데 그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민요 가창자를 염두에 두면서 판소리, 무가 구연자와 비교가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 각각의 가창자들의 개인사와 소리와의 관계 및 그들이 구연한 민요에 대한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구영주는 강원도 정선지역에 거주하는 14명의 남녀 가창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부른 아라리와 가창자들의 삶의 상관성에 대해 논의하였다.<sup>2)</sup> 그는 정선지역의 가창자들이 부른 아라리의 내용을 인생, 시대상, 가정, 자연, 노동, 이성, 기타 등 7개의 주제로 나누고 각 내용들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자료 자체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 지다보니, 정작 가창자들의 삶이 그들이 부른 아라리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못하였다.

나승만은 민요 전승이 활발한 전남 도서지역의 남성 민요소리꾼 이광민, 양우석, 최홍, 지용선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애담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였다.<sup>3)</sup> 그는 특정 지역의 가창자들을 평범한 소리꾼, 소문난 소리꾼으로 나누고, 그들의 삶이 그들이 부른 소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정리하였다. 나승만의 연구는 민요 가창자론의 한 축이 되는 개인사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일보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는 민요 가창자들의 삶의 양태가 전면에 내세워지다 보니 가창자들의 삶과 그들이 구연한 자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구연한 자료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강진옥은 전남 고흥에 거주하는 여성 가창자 정영업을 대상으로 그의 삶과 소리를 개관하고, 그의 삶이 소리, 특히 사설 창작의 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폈다.<sup>4)</sup> 그의 연구는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민요 가창자의 개인사와 구연 자료와의 연결고리를 면밀히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연결 고리가 전체적이지 못하고 일면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정영업은 40여 가지의 소리를 구연했는데, 그 소리들은 정영업이 평생 살아온 삶의 궤적에서 고양되어 불려진 것들이다. 그 소리들은 그가 속한 민요사회와의 접촉을 통해서 불리기도 하였고, 개인적 심회의 표현 욕구에 의해서 불려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강진옥의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들 중 신세 한탄요인 흥글소리와 길쌈노동요인 물레소리만을 다루어짐으로 해서 민요의 전승과 창조의 부분 중 창조의 측면만을 다루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1) 이기서, 「민요 창자의 기초 자료와 연구사 검토」, 『한국학 연구』 8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1996.

이기서, 「민요 가창자의 장인정신과 예술세계」, 『한국학 연구』 9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1997.

2) 구영주, 「정선아라리 가창자에 대한 현장론적 연구」, 강릉대 석사논문, 1997.

3) 나승만, 「민요 소리꾼의 생애담 조사와 사례 분석」, 『구비문학연구』 제 7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8.

4) 강진옥, 「여성민요창자 정영업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 7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8.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창자론을 살펴보면 개인사와 구연 자료와의 관계가 논의의 중심에 두고, 가창자의 성별 및 성향,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연구 결과가 산출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해당 가창자들이 부른 향토민요가 중심이 되었고, 가창자들이 부른 통속민요나 신민요 등은 별 주목을 받지 못하였음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향토민요뿐 아니라, 통속민요, 신민요 등을 두루 구연하는 경기남부지역의 이희완, 경기북부지역의 황상복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사와 구연 목록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런 뒤 그들이 구연하는 소리에 나타나는 민요의 전승적 면과 창조적인 면을 음악 및 사설의 변용 양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경기지역 민요의 특징을 민요가창자에 대한 연구 시각으로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 2. 경기지역 민요가창자의 생애와 구연 목록

### 1) 경기남부지역 가창자 이희완

#### (1) 생애사

이희완은 1938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에서 부친 이기선, 모친 차간난 사이에서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sup>5)</sup> 부친은 원래 화성군 매송면 어천리에서 살았으나 이희완이 태어날 때 쯤에 수원의 남창동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그는 1951년 그의 나이 13살 때에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눈이 불편하긴 했지만 소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그 이후엔 집안일을 도우며 소년기를 보냈다. 1958년 그의 나이 20살 되던 해에 지금의 부인인 제길용과 연애결혼 하였으며 슬하에 4형제를 두고 있다.

그의 소리와 관련된 생애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그의 가계(家系)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희완의 증조부 이영수는 인천지역에서 삼현육각의 악사로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그의 집안은 여주로 이주했고, 여주에서 그의 조부인 이봉운은 성장했다. 그의 조부는 소리, 악기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재능을 가진 예인이었었는데, 특히 줄타기에 있어서

---

5) 이희완과의 첫 인터뷰(2004년 8월 28일)에서는 개괄적인 생애사만 조사하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조사(2004년 9월 16일, 2004년 9월 20일)에서는 그의 소리 녹음 및 촬영, 그리고 소리와 관련된 생애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는 당대에 따라올 자가 없었다고 한다. 이희완의 조모 이춘삼 역시 안산지역에서 이름난 무녀(巫女)였다.

이봉운과 이춘삼은 1남 1녀를 두었는데, 1남이 이희완의 아버지인 이기선이고, 1녀가 이갑오였다. 이갑오도 도당곳의 무녀였는데 현재 경기 도당곳 전수자인 오수복의 선생님이다. 그 밖에 이희완의 사돈으로 방인근(경기도 도당곳 이수자) 등이 있는데, 이희완은 그들과 교우하면서 소리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게 된다.

이렇듯 이희완의 집안은 경기도 도당곳을 비롯하여 민요, 악기 등 다방면의 예술분야의 정수를 타고 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이희완에게 이어져 여느 경기민요 소리꾼들이 가질 수 없는 이희완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꽃피울 수 있는 터반이 되었다.

이희완은 어려서 소리에 대한 남다른 재질을 보여 소학교에서부터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틈틈이 유성기음반이나 라디오를 들었다. 이때에 주로 들었던 소리로는 선일선, 이화자 등의 소리였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선일선, 이화자는 이희완의 간접적인 스승이 되는 셈이다.<sup>6)</sup>

이희완의 첫 소리 경험은 서라벌소년단, 동춘 씨커스단 등을 따라다니며 간간히 무대에 서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때에는 전문적으로 노래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타고난 목청 덕에 재창, 삼창 등의 인기를 누렸다고 한다. 그때 ‘잘있거라 황진이’, ‘페르시아왕자’, ‘여반장’, ‘고향설’, ‘삼각산 손님’, ‘남포불 역사’ 등의 가요를 배웠다. 그 시기에 경기도 광주에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를 와서 살던 이병태에게서 상여소리를 배웠다. 이병태는 이희완의 조부와의 친분이 있던 사람으로, 풍물, 덕담, 상여소리 등 두루 능통하였다고 한다.

보다 전문적인 소리를 배우고자 했던 이희완은 1977년경 그의 나이 40 정도 되었을 때 어려서 유성기음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던 김옥심을 찾아가게 된다. 하지만 김옥심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이희완에게 소리를 가르칠 수 없었고, 개성 출신의 김정희를 이희완에게 소개해주었다. 이희완은 김정희 문하에서 12잡가 및 경기민요 등을 배우게 된다. 김정희는 한성권번 출신으로 김옥심보다 훨씬 소리가 좋았다고 한다. 소리 수업은 선생이 한 소절을 부르면 따라부르는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희완은 워낙 목청이 좋아 수업에 별 어려움은 겪지 않았으나 ‘금강산타령’, ‘정선아리랑’, ‘이별가’만은 노래가 워낙에 어려워져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요즘 이희완은 장애인 초청 잔치나 각종 문화행사에 초청되어 경기민요를 부르고 자신의 소리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기민요를 가르치면서 지내고 있다.

6) 이희완은 어려서 수원에서 서울 서대문으로 이사를 가서 5년 정도 살 때 선일선, 이화자의 소리 공연을 본 기억이 있는데 뛰어난 소리 실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 공연장이 북적였다고 한다.

## (2) 구연목록

이희완의 구연 목록을 배운 시기별로 정리하면 크게 세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어려서 마을 선소리꾼 이병태에게 배웠던 향토민요, 유성기음반을 통해 배웠던 전통가요, 그리고 한성권번 출신의 김정희선생에게 배운 경기민요 등이다. 먼저, 마을 선소리꾼 이병태에게 배운 향토민요는 아래와 같다.

### ① 신세타령1

하늘도 무심하지 영감아 영감아 왜 먼저 갔소 나를 두구서 왜 먼저 갔나 시집살이는 시다  
니 울어두 울 새두 가이 없네 영감아 영감아 꿈에라두 꿈에라두 보고지고

### ② 신세타령2

난난새는 낱건마는 나는 어이 팔자가 사나워 옛날 노인이 하신 말씀이 시집살이 어이나  
땀다더니 고초 당초만큼 매우 더니 오날 내게 당했구나 영감아 땀감아 말들어보소 어찌자  
고 날두고 황천갔나 언제 또다시 만나서 나하구 어이 살아보나

### ③ 물레노래

물레야 물레야 돌아라 물레야 물레야 돌아라 비빙빙 빙빙빙 빙글빙글 물레야 물레야 돌아  
가라 목화씨가 엉키지 말고 저기 저 해가 가지마라 밤돌아 온 것이 원수로다 이것을 언제나  
실을 뽑나

### ④ 베틀가

베틀을 놓세 베틀을 놓세 옥낭강에다 베틀을 놓세 에헤야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들창밖에 나리는 비는 가신 님에 눈물이로구나 에헤야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  
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이 베를 짜서 누구를 주나 바디 길쌈 눈물이로구나

### ⑤ 근거리(빈상여놀이)때 하는 소리

나는 내일 떠나니 영혼이라도 마지막 한번 오늘저녁 보고 두루두루 땡겨간다ㄱ

---

ㄱ) 원래 근거리때 하는 사설이 많이 있는데 사설을 많이 채록하지 못한 이유는 실제 상황이 아

## ⑥ 상여소리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길러주어/ 어려서는 철을 몰라 우리 부모님/ 역사를 모르다가  
자식을 길러보니/ 은공을 알으니 백살까지 사실줄 알았더니/ 인간이 늙으니 이 몸에/ 태산같  
은 병이 오니 아무 약을 쓰니/ 듣질 않네 갖인 노력하니 원통하네

두 번째로 유성기음반을 통해 배운 전통가요 목록이다.

## ① 오동동타령

오동추야 달이 밝아 오동동이나/ 동동주 술타령이 오동동이나/ 아니요 아니요 굶은 비 오  
는 밤 낙숫물 소리/ 오동동 오동동 그침이 없어/ 독수공방 타는 간장 오동동이요

## ② 비내리는 고모령

어머님의 손을 놓고 떠나 올때엔 부엉새도 울었다고 나도 울었소/ 가랑잎이 휘날리는 산  
마루 턱을/ 넘어오던 그날밤이 그리웁고나/ 맨드라미 피고 지고 몇해 이던가/ 방앗간 뒷전에  
서 맺은 사랑아/ 어이해서 못잊느냐 망향초 신세/ 비 내리는 고모령을 언제 넘느냐

## ③ 목단강편지

한번 잃고 다념마오 두번 잃고 맹세하소/ 목단강 건너가면 보내주신 이 사연 난들 어히  
모르리요 성공하소서

## ④ 진달래수첩

진달래 바람 휘날린 봄치마 휘날리더라/ 자국에 넘어갈 사랑마차 소식을 실고서 언제 오  
나/ 그 날이 그리워 오날이 길거든 노래를 부르느니/ 노래를 불러 앉아서 새가 울면 서서도  
새가 울면 봄날이 길지 멀다/

마지막으로 김정희선생에게 배운 12잡가 및 경기민요 중 자주 부르는 것은 아래와 같다.

---

닌 곳에서 소리를 하다 보니 사설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 했다.



### ① 청춘가

무정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장안에 호걸이 다 늙거아구나/ 세월이 가기는 흐르는 물같이  
인생이 늙기는 바람결 같구나/ 살아 생전에 선심을 하여서 사후 영천에 극락을 감시다

### ② 뱃노래

어디야 디여차 어야 디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부딪치는 파도소리 잠을 깨우니 들려  
오는 낚소리 처량도 하구나/ 어기야 디여차 어야 디야 어디여차 뱃놀이 가잔다/ 만경창과 먼  
바다에 외로운 등불만 깜박거린다/ 어기야 디여차 어야 디여차 뱃놀이 가잔다

### ③ 노랫가락

바람이 물 소린가 물 소리 바람인가/ 석벽에 달린 노송 움추리고 춤을 추네/ 백운이 허위  
적거리고 창천에서 내리더라/ 꿈아 무정한 꿈아 왔던 입을 왜 보냈나/ 오신 임 보내지 말고  
잠든 나를 깨우려마/ 일후에 임이 오시면 입을 잡고서 날 깨워 주렴 / 깊은 산 깊은 골에 밤  
이 들어 더 깊으니/ 물소리 고쳐 높고 벌레 소리 유난허다/ 나그네 시흥에 겨워 잠 못 이뉘/  
사랑도 거짓말이요 임이 날 위협도 또 거짓말/ 꿈에 와서 보인다 하니 그도 역시 못 믿겠구  
려/ 날같이 잠 못이루면 꿈인들 어이 풀 수 있나

## 2) 경기북부지역 가창자 황상복

### (1) 생애사

황상복(1939)은 양주군 광적면 석우리 송천마을이 고향이고, 부친은 황만길, 모친은 김음전 이다.<sup>8)</sup> 4남매 중 셋째이며 20세에 백석면 출신의 김순희와 결혼하였다. 어려서 농악 및 소리에 자질을 보이던 황상복은 당시 큰형님이 선말로 품앗이를 다니고 있어서 선말에서 일을 하면서 15, 16세경에 선말농악 상쇠 허점룡에게 농악을 배웠다. 그리고 같은 마을 흥대용에게서 산타령을 배웠고, 농요는 마을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신사래의 박용근 등에게 자연스럽게

8) 2003년 5월 3일에 개괄적인 생애사, 논매는 소리에 대해 조사하였고, 2003년 5월 11일과 2003년 9월 18일, 그 이후 서너 번의 조사를 통하여 고사덕담, 회방아타령 등의 소리들과 소리와 관련된 경험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게 익혔다.

그는 특별히 객지생활은 한 적이 없으며, 군대는 1961년부터 1963년까지 강원도 양구의 이승만대통령 별장에서 근무하였다. 군생활을 하면서 위문공연단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방구타령이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현재 양주농악 상쇠로 있으면서 이 지역 농악 및 민요의 보존에 힘쓰고 있다.

## (2) 구연목록

황상복에게서 채록한 향토민요는 아래와 같다.

### ① 고사반

함경도 백두산은 두만강이 강원도로 내려를 가니 강산도 제일이요 경개도 아름답구나 연광 전광 풍평도는 대동강이 둘러를 있고 금봉사가 더욱 좋다 관봉이 조조헌데 모란봉이 둘러있고 황해도 구월산은 서해바다가 둘러구나 강원도 금강산은 동해 바다 둘러를 있고 경상도 태백산은 양자강이 둘러구나 충청도 계룡산은 공주 금강이 둘러를 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낙동강이 둘러구나 경기도로 올라를오니 북악산 내린 줄기 경복궁 대궐을 지었구나 인왕산이 백호되고 왕십리가 청룡이요 명사리 상개는 한강수가 둘러를 있고 삼각산 내린 줄기 제일 명당이 여기로구나 ( ) 백호가 잘되었으니 백조 천손 날거로다 문장봉이 비치었으니 문장도 날거로다 효자봉이 비치었으니 효자 충신 날거로다 노인성이 비치었으니 장생 골사로 할거로다 노적봉이 비치었으니 억만장자 날거로다 이만 허면 넉넉혈세 백로야 나지를 마라 너를 잡을 내 아니 간다 얼송덜송 호랑나비 꽃을 보구서 반기건마는 우리 님은 어디를 가고 나를 찾을 줄 왜 몰르나

축원이 갑니다 덕담가오 건구곤명은 경기도허구두 양주시 양주시허구두 광적면인데 우리 양주농악 회원님들 열년열두달 운수와 액운을 막아달라고 축원덕담 드립니다 정월달에 드는 액은 이월 한식날로 막아주고 이월달에 드는 액은 삼월 삼짚로 막아주고 삼월달에 드는 액은 사월초파일에 막아주고 사월달에 드는 액은 오월 단오로 막아주고 오월달에 드는 액은 유월 유두로 막아주고 유월달에 드는 액은 칠월 칠석날로 막아주고 칠월달에 드는 액은 팔월 한가위로 막아주고 팔월달에 드는 액은 구월 구일로 막아주자 시월달에 드는 액은 시월 허구두 상달인데 무시루떡으로 막아주고 시월달에 드는 액은 동지팥죽으로 막아주고 동짓달

에 드는 액은 선달허구두 그믐날인데 흰가래떡으로 막아보자 일년은 열두달 과년은 열석달  
날로 따지면 우리 양주농악 회원님들 일년 액운과 홍수를 막아달라고 축원 덕담 드립니다

## ② 장기타령

떠든다 떠든다 호호로 날아든다/ 범려는 간곳없고 백빈주 갈매기는 홍요안으로 날아들고/  
한산사 찬바람에 객선이 등등등 예화 날아 지화자 해-/ 계명산 내린 줄기 학의 등에 터를 닦  
아 앞으로 열두간 뒤로 열두간 이십사간 지어놓고/ 아들을 낳면 효자낳고 딸을 낳면 효녀로  
다 며느리 얻으면 열녀얻고 딸을 낳으면 용마되고 소를 놓으면 약대로다/ 닭을 놓면 봉이  
되고 개를 놓으면 청삼살이 네눈백이 앞마당에 곤드라졌다/ 낫선 사람 오게 되면 커경콩 짓  
는 소리 지전 깔죽이 물밀듯 하누나/ 니나 해 니나나 널너리구 나립소사 해/ 수로로도 천리  
로다 육로로도 천리로다 이천리 들어가서 양태 걸은 저 처저자야 저 산 이름이 무엇이나/  
이내 몸이 사주팔자 기박하여 한달이면 육장보아 부모봉양 하느라고 저 산 이름을 몰랐더니  
옛노인 하시기를 제주 한라산이라고 함디다 해-/ 지화자 해 지화자 지화자 널 너리고 나립소  
사 해/ 구경을 가자 구경가자 평양이 좋다니 구경 가자 대동강 소주를 삼고 모란봉 곁들여  
한주를 삼아 남북청 한량이 다 모였구나/ 팔십 몇 기생 나비춤 출 때 쇠장구 북판만 좌광광  
울려라 해-/ 만첩청산에 쑥 들어서 호양목 한 가지 찍었구나 서른 두자 장기 만들어 장기 일  
판을 두어보자/ 한수 한자 유향숙이요 초나라 초자 조맹덕이라 이차 저차 관우장이요 이포  
저포 여포로다 코끼리 상자 조자룡이요 말 마자 마로초다/ 양사로 모사를 삼고 무줄로 궁줄  
을 삼아 상진이 상접하니 적벽대전이 예로구나/ 조조가 대패하여 화양도로 관훈장의 후덕으  
로 조맹덕이 살아만 가누나 해/ 지화자 해 지화자 지화자 널 너리고 나립소사 해

## ③ 모심는 소리

가 : 허나 허나 하날기로구나

나 : 허나야 돌이여 돌이면은 서이라

가 : 서이나 넷이요 너히면 다섯

나 : 다섯이면 여섯 여섯 여섯 일곱

가 : 일곱이나 여덟 여덟 아홉

나 : 아홉이나 열이여 열나쁜 시절에 또 하나

가 : 하나 하나 어라하면 둘일세  
 나 : 둘이여 셋이요 셋이면 넷이라  
 가 : 너히나 다섯 다섯 여섯  
 나 : 여엇이나 일곱 일곱 일곱 여덟  
 가 : 여덟 아홉 아홉이면 열이로다  
 나 : 열이나 열 하나 하나 하나 둘이요  
 가 : 여기 저기 꽃아두고 마늘모로만 꽃아라  
 나 : 하나 하나 하날기로구나  
 가 : 하나나 둘이로다 둘이며는 서이라  
 나 : 셋이나 넷이여 네이며는 다섯  
 가 :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일곱  
 나 : 여기저기다가 꽃아도 사방모로만 꽃아라

④ 논매는 소리

㉠ 논바닥에 들어서면서 하는 소리

군방네 / 오- / 군방네 부른 건 다름 아니고 옛날 노인 허시든 방아 한번 허자고 불렀시더-/ 오-/

㉡ 긴방아타령

에헤이 이하라 방아 음오 오허 / 노세 놀아 젊어서 노세/ 음에 에헤 이하라 방아 음오  
 오허/ 전라 좌도 남문 밖에 음에 에헤 이하라 방아 음오 오허 / 젊었던 춘향이가 음에 에헤  
 이하라 방아 음오 오허/

㉢ 꽃방아타령

에헤 에허야 에히리 에하 에이하 에헤야 에헤 이리 좋소/ 에헤 에헤야 에히리 에하 에허  
 야 에헤야 에헤 이리 좋소/ 좋다 좋았구나 북경은 얼마나 멀기에 한번 가시면 왜 못오나/  
 에헤 에헤야 에히리 에하 에히야 에헤야 에헤 이리 좋소/ 좋다 좋았구나 삼십이 썩 넘어 나  
 늙었구나 다시 젊지는 ( ) 앵돌아졌다/ 에헤 에헤야 에히리 에하 에히야 에헤야 에헤 이리  
 좋소/ 좋다 좋았구나 해 떨어지자 달 솟아오니 연잎 대낮은 수그리지고 금붕어 꼬리를 치고  
 살전 가물치 연당에 놀구 어여쁜 기생은 예루화 내 품에 놀자/ 에헤 에헤야 에히리 에하 에

히야 에헤야 에헤 이리 좋소/ 좋다 좋았구나 낙낙장송 늘어진 가지 독수공방 홀로 앉아 울고 있는 저 뺨꼭새는 임이 죽은 혼령인지 날만 보면은 에루화 더 슬피 운다/ 에헤 에헤야 에히리 에하 에히야 에헤야 에헤 이리 좋소/ 좋다 좋았구나 개야 개야 검둥개야 물만 밥을 너를 줄 적에 배가 불러서 너 주었느냐 밤 중에 임오실 때 짓지나 말라고 에루화 너주었지/ 에헤 에헤야 에히리 에하 에히야 에헤야 에헤 이리 좋소/ 좋다 좋았구나 닭아 닭아 우지를 마라 네가 올면 날이 샌다 날이 새면 나 죽는다 나 죽는것은 싫지 않으나 앞 못보는 우리 부친 누계 전하구 에루화 인당수 가나/ 에헤 에헤야 에히리 에하 에히야 에헤야 에헤 이리 좋소/

㉔ 상사도야소리

넬넬넬 상사디야/ 넬넬넬 상사디야/ 한 마디는 높이 받고/ 넬넬넬 상사디야/ 한 마디는 얇이 받아/ 누가 누가 상사났나/ 새가 새가 날아든다/ 윈갓 잡새가 날아든다/

㉕ 훨훨이소리

훨훨 훨훨이 훨훨이 훨화/ 훨훨 훨훨이 훨훨이 훨화/ 훨훨이야 소리는 상두군에 소리/ 훨훨 훨훨이 훨훨이 훨화/ 훨훨이 소리는 상두꾼만 허나/ 훨훨 훨훨이 훨훨이 훨화/ 훨훨이야 소리는 멋내면서 허리/ 훨훨 훨훨이 훨훨이 훨화/ 앞집에 처녀 뒷집에 총각/ 훨훨 훨훨이 훨훨이 훨화/ 앞집에 처녀는 시집을 가는데/ 훨훨 훨훨이 훨훨이 훨화/ 뒷집에 총각 목을 매러 가네/ 훨훨 훨훨이 훨훨이 훨화/ 여보게 총각 목을 매지를 말고/ 훨훨 훨훨이 훨훨이 훨화/ 나 시집 간데로 몸 살러 오게/ 훨훨 훨훨이 훨훨이 훨화/ 옛날 옛적 진시황은/ 훨훨 훨훨이 훨훨이 훨화/ 많은 문서는 불사를 적에/ 훨훨 훨훨이 훨훨이 훨화/ 이별 별자를 못 살렸구나/ 훨훨 훨훨이 훨훨이 훨화

㉖ 새타령

위야 훨훨/ 위야 훨훨/ 새가 새가 날아든다/ 위야 훨훨/ 윈갓 잡새가 날아든다/ 위야 훨훨 / 허리 짚룩 장구새야/ 위야 훨훨/ 궁텅이 갑쪽 굴미새야/ 위야 훨훨/ 높이 뜯거는 종달새세 / 위야 훨훨/ 얇이 뜯거는 굴뚝새세/ 위야 훨훨/ 춤 잘 추는 학두루미/ 위야 훨훨/ 말 잘하는 앵무새나/ 위야 훨훨/ 노자 놀아 젊어서 노세/ 위야 훨훨/ 늙어지면 못노나니/ 위야 훨훨 /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위야 훨훨/ 고만 나를 불러주소/ 위야 훨훨/ 위야 훨훨/ 위야 훨훨

(2002. 12. 21)

⑤ 달구소리

㉠ 시작하는 소리 : 일하는 사람들이 가창자보다 나이가 적으면 군방네,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군방님네라고 한다. 일상 생활에서는 군방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논 때는 사람들, 회담는 사람들만 지칭하는 말이다.

군방네/ 오/ 이쪽 저쪽 좌우쪽 군방임네/ 오/ 군방네 부른 건 다름 아니고 옛날 노인 허시든 회대 한번 하자고 불렀시디/ 오/

㉡ 긴달고소리

예 허리야 달고/ 예 헤이 허리야 달고/ 노세 놀아 젊어서 노세/ 예 헤이 허리야 달고/ 물이라도 건수 지면 놀든 고기도 아니 오는구려/ 예 헤이 허리야 달고/ 나무라도 고목이 지면 오든 새도 아니 오는구나/ 예 헤이 허리야 달고/

㉢ 자진달고소리

에하라 달고/ 에하라 달고/ 달고 허시는 여러분들/ 에하라 달고/ 한발 두뺨 달고대들/ 에하라 달고/ 섬섬옥수로 넉짓 잡고/ 에하라 달고/ 먼데 손님들 듣기가 좋게/ 에하라 달고/ 가간데 양반들 보기가 좋게/ 에하라 달고/

㉣ 꽃방아타령

에헤 헤야 에 헤야야 에헤야 에헤야 행헤리 좋소/ 에헤 헤야 에 헤야야 에헤야 에헤야 행헤리 좋소/ 좋다 좋았구나 헤 떨어지자 달 솟아오니 연잎 댓잎 솔아지고 금붕어 꼬리를 치고 살찐 가물치 향당에 놓고 어여쁜 기생 에루화 내 품에 논다/ 에헤 헤야 에 헤야야 에헤야 에헤야 행헤리 좋소/ 좋다 좋았구나 북망은 얼마나 먼데 한번 가면 에루화 왜 못오나/ 에헤 헤야 에 헤야야 에헤야 에헤야 행헤리 좋소/

㉤ 상사도야소리

넬 넬 넬 상사디아/ 넬 넬 넬 상사디아/ 상사 봉사는 동지살세/ 넬 넬 넬 상사디아/ 넬

넬 넬 상사디아/ 넬 넬 넬 상사디아/ 누구네가 장사 났나/ 넬 넬 넬 상사디아/ 새가 새가  
날아든다/ 넬 넬 넬 상사디아/ 원갓 잡새가 날아든다/ 넬 넬 넬 상사디아/

㉠ 훨훨이소리

훨훨 훨휘리 훨휘리 훨훨이로다/ 훨훨 훨휘리 훨휘리 훨훨이로다/ 훨훨이야 소리는 상두  
꾼의 소리/ 훨훨 훨휘리 훨휘리 훨훨이로다/ 훨훨이 소리는 상두꾼만 하나/ 훨훨 훨휘리 훨  
휘리 훨훨이로다/ 옛날 옛적 진시황은/ 훨훨 훨휘리 훨휘리 훨훨이로다/

㉡ 새타령

위야 훨훨/

⑥ 지경다지는 소리

에 헤이리 지경이요/ 에 헤이리 지경이요/ 이 집 진지 삼년만에/ 에 헤이리 지경이요/ 아  
들 낳면 효자를 낳고/ 에 헤이리 지경이요/ 딸을 낳면 효녀로다/ 에 헤이리 지경이요/ 닭을  
놓면 봉이나 되고/ 에 헤이리 지경이요/ 소를 놓면 약대로다/ 에 헤이리 지경이요

⑦ 청춘가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은데 이내 가슴은 얼씨구나 수심두 많구나/ 청춘 흥안은 네 자랑 말  
어라 덧없는 세월에 얼씨구나 백발이 되누나/ 세월이 가기는 흐르는 물 같구요 인생이 늙기  
는 바람결 같구나/ 살아 생전에 선심을 하여서 사후 영찰에 얼씨구나 극락을 잡시다

⑧ 뱃노래

어구야 데여차 어구야 데여 어구여차 뱃놀이 가잔다/ 청해바다야 먼 바다에 외로운 등불  
만이 깜빡거리네/

어구야 데여차 어구야 데여 어구여차 뱃놀이 가잔다/ 작년같은 송년에두 쌀밥을 먹었는데  
올같은 아가씨 풍년에 장가도 못가네/ 어구야노 야노야 어구야 데여 어구여차 뱃놀이 가잔다  
/ 언니는 좋겠네 언니는 좋겠네 형부의 코가 커서 언니는 좋겠네/ 어구야 데여차 어구야 데  
여 어구여차 뱃놀이 가잔다/ 아우야 ( ) 그 말을 말어라 너희 형부 코는 커두 실속은 없단다

/ 어구야 데여차 어구야 데여 어구여차 뱃놀이 가잔다

⑨ 방아타령

정월이라 십오일 ( ) 장군 진토백이 액맥이 연이 떴다 에헤라 디여 에헤요 에헤여라 방아로다  
이월이라 한식날 종달새 떴다 아하 에헤요 에헤여라 방아로다  
삼월이라 삼짓날 제비새끼 명마구리 바람개비가 떴다 아하 에헤요 에헤여라 방아로다  
사월이라 초파일 ( ) ( ) 장안사 향아리 ( ) ( ) 등대줄이 떴다 아하 에헤요 에헤여라 방아로다  
오월이라 단오일 송백수 굳은 가지 높다랗게 그네를 매고 ( ) 늘어진 가지 ( ) ( ) 툭툭 치며  
낙엽이 등실 떴다 에헤라 디여 에헤요 에헤여라 방아로다  
강원도라 영천읍내 물방아가 없다더니 밭지 앓은 처녀가 도두(?) 방아만 짚는구나 에헤요  
에헤여라 방아로다

⑩ 개성난봉가

박연폭포 흘러가는 물은 범사정으로 감돌아 든다 에 에헤야 에헤 에루화 좋고 좋다 어라  
함마 디여라 내 사랑아  
박연폭포가 아무리 간데마다 정들여 놓구서 이별이 찾아서 나는 못살겠네 건곤이 불로소  
불로월장재 적막강산이 금백년이로다

⑪ 상문살 없애는 소리

상문살은 상가집에 다녀와서 갑자기 아픈 경우에 날을 따져보거나 책을 보고는 상문살인  
지 파악하게 된다.

상문살에 걸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각성반이에게서 쌀을 얻어 술을 만든다. 이것을  
조라술이라 하는데, 이 술을 부워 놓고, 환자를 명석으로 덮은 다음, 각성반이 5-7명이 그들  
이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에여라 달고'하면서 환자 주위를 바른 쪽으로 세 번, 왼쪽으로 세  
번씩 돈다. 이것은 주로 해질 무렵에 하는데, 그렇게 하고 환자는 방안으로 들이고, 조라술은  
주변에 뿌려버린다. 그러면 간혹 병이 낫는 수가 있었다고 한다.



### 3. 가창자별 음악 및 사설 변용 양상의 특징과 의미

앞 장에서 경기남부지역인 수원 출신의 이희완과 북부지역인 양주 출신의 황상복의 생애사와 구연 목록을 정리하였다. 먼저, 이희완의 특징은 경기민요를 할 때에는 궁째(청승)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궁째란 가창자의 가창 능력과 연결되는 것으로,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하더라도 얇은 음, 낮은 음, 중간 음, 높은 음으로 각기 다르게 부르는 것과 연결된다. 그는 이렇게 소리를 해야 경기민요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

그의 민요 가창자로서의 특징은 경기민요조로 전통가요(트로트)를 부르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김정희에게 경기민요를 배울 때 권번 출신의 가수들 소리들을 자주 접하였는데, 그때 접한 가수 중의 한 사람이 이화자이다. 이화자는 한성권번 출신으로, 원래 경기민요를 배웠는데 이후에 전통가요를 부르면서 경기민요의 창법을 사용하여 큰 인기를 누렸다고 한다. 아래는 그가 부른 노래 중의 하나인 오동동타령이다.

오동추야 달이 밝아 오동동이냐/ 동동주 슬타령이 오동동이냐/ 아니요 아니요 굶은 비 오는 밤 낙숫물 소리/ 오동동 오동동 그침이 없어/ 독수공방 타는 간장 오동동이요

이희완 역시 이화자가 부른 오동동타령을 불렀는데 그는 자신만의 궁째를 넣어 소리를 하였다. 경기민요와 전통가요의 변용에 대해선 자세한 음악적 분석이 이루어져야겠으나 일단 그 사례에 대해 보고하고, 추후의 논의를 통해 음악적 분석을 보충하도록 한다. 요컨대 향토민요를 바탕으로 하되 경기민요와 전통가요의 음악적 변용을 보여주는 이희완의 사례를 통해 경기지역 민요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황상복은 이희완과 달리 노래 전문가에게 수업을 따로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구연하는 소리들은 경기북부지역 민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의 구연 목록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갈래가 다른 소리간의 변용이 아닌, 향토민요 안에서의 사설 변용이다. 먼저 논매는 소리와 달구소리의 연관성에 대해 보면 논매는 소리는 긴방아타령, 꽃방아타령, 상사도야소리, 훨훨이소리, 새타령으로 구성되고, 달구소리는 긴달고소리, 자진달고소리, 꽃방아타령, 상사도야소리, 훨훨이소리, 새 타령으로 구성되었다. 이렇듯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소리는 같은 소리가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실제 구연에 있어서도 비슷한 점이 있다.

그는 논매는 소리에서 긴방아타령과 꽃방아타령, 상사도야소리를 부를 때 악청과 높침으로

후렴을 받는다고 하였다. 여기서의 악청이란 높은 소리이고, 낮음은 낮은 소리를 말한다. 즉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후렴을 한번은 높게 한번은 낮게 받는 것이다. 그런데 달구소리에 서도 꽃방아타령을 부를 때 동일한 방식으로 후렴을 부른다고 하였다. 이렇게 노동요와 의식요가 다각도로 공유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은 두 소리를 담당하는 집단(두레와 상두계)이 같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주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논매는 소리 제일 마지막에는 새타령을 한다. 이 소리는 실제로 새를 쫓을 때 양철통 등을 두드리면서 한다. 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달구소리 제일 마지막에도 새타령을 하였다. 이에 대해 파주지역 민요에 대해 조사한 이소리는 주술적 목적으로 새타령이 노래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황상복을 비롯한 인근지역 제보자들에게 노래의 마지막에 새타령을 부르는 이유를 문의한 결과 두 소리 모두 일이 끝나는 것에 대한 신호로 사용함을 확인하였다. 즉 두 소리 모두 선소리꾼이 이 소리를 부르면 이제 일이 끝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새타령을 부른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두 가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새타령 모두 사설이 그리 길지 않았다.

#### 4. 맺음말

본고의 목적은 경기지역 민요의 특징을 민요 가창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경기남부지역인 수원에서 나고 자란 이희완과 경기북부지역인 양주에서 나고 자란 황상복은 각기 그 지역 고유의 민요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두 제보자를 수차례 현지 조사하여 그들의 소리를 채록하고 그 의미를 음악 및 사설 변용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이희완은 경기무속의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 자신만의 경기민요의 세계를 구축하였다. 그런 점에서 그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마지막 경기 명창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창자론이 개인사와 구연 자료와의 관계를 논의의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 왔으나 가창자의 성별 및 성향,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연구 결과가 산출되어왔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해당 가창자들이 부른 향토민요가 중심이 되었고, 가창자들이 부른 통속민요나 신민요 등은 별 주목을 받지 못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이희완은 12잡가를 비롯하여 노랫가락이나 창부타령 등의 경기민요, 그리고 전통가요에까지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데, 통속민요나 신민요 중 다른 지역의 민요에 비해 경기민요의 수가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 여

러 가지의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황상복은 경기북부의 여러가지의 향토민요를 구연할 뿐만 아니라 사설의 변용 양상도 의식요, 노동요, 유희요 등 다양하게 일어났다. 그의 구연 목록에서는 의식요인 고사덕담과 노동요인 지경달는 소리, 그리고 유희요인 장기타령에서 사설이 공유된 것도 주목할만 하였다. 요컨대, 이희완이 경기민요와 전통가요의 연관성에서 특징이 있다면 황상복은 향토민요 안에서 각기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소리들 간의 연관성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경기도 국악당, 『경기향토민요』, 경기도 국악당, 2007.
- 고혜경, 「경기지방 민요의 전승 및 사설의 양상」, 『한국민요대전 경기도 편』, 문화방송 1993.
- 김순제, 『인천 경기지방의 일노래』, 경기은행, 1996.
-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경기도편, 문화방송, 1996.
- 이보형, 『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기도 편』, 문화재관리국, 1978.
- 이소라, 『경기도 논맴소리』 1,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3.
- 이소라, 『경기도 논맴소리』 2,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4.
- 이소라, 『경기도 논맴소리』 3,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4.
- 강동학, 「<땅다지는 소리>의 지역적 판도와 노동요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민요학』 18집, 2006.
- 김영운 외, 『경기도의 향토민요』 상·하, 경기문화재단, 2006.
- 이윤정, 「경기도 서북부지역과 황해도의 논농사소리 비교연구」, 『한국민요학』 18집, 2006.
- 신은주, 「경기지역 민요 토리에 관한 고찰」, 『한국민요학』 11집, 2002.
- 손인애, 「경기 서북부지역의 모심는 소리 연구」, 『한국민요학』 14집, 2004.
- 백대웅, 「경기지방 민요의 음악적 특징」, 『한국민요대전 경기도 편』, 문화방송, 1993.
- 홍순석, 『이천의 옛노래』, 민속원, 2002.
- 김헌선, 「경기도민요의 분류와 실제」, 『임석재 채록 한국구연민요－연구편』, 집문당 1997.

# 조선시대 성남지역 교통과 통신연구

한동역

경기도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목 차

1. 서론
2. 역, 참
3. 원
4. 봉수
5. 결언

## 1. 서론

성남지역(城南地域)은 예로부터 한민족(韓民族)어원(語源)의 발상지(發祥地)이며 민족교통(民族交通)의 중심지(中心地)라고 전해오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삼한시대(三韓時代)이던 진한(辰韓)시절부터 사용(使用)하였었다는 역(驛), 참(站), 원(院)의 교통시설(交通施設)의 위치비정(位置比定)이나 봉수(烽燧)와 봉화(烽火)체계(體系)의 통신시설(通信施設)의 위치(位置)가 확인(確認)되거나 비정(比定)되지 않은 채 무상(無想)한 세월(歲月)만 흘러가는 아쉬움 속에 지역(地域)의 문화유적(文化遺跡)이 매장(埋葬)되고 있는 현실(現實)이다. 삼국시대(三國時代)나 고려시대(高麗時代)는 상세(詳細)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선시대(朝鮮時代)조차 성남(城南)지역(地域)의 교통상황(交通狀況)이나 통신망(通信網)에 관(關)한 연구(研究)가 별로 없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現實)이기에 이 지역(地域)에 산재(散在)하였던 문화유

적(文化遺跡)을 발굴(發掘)하고 조사연구(調查研究)하여 필(必)히 재현(再現)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지역원주민(地域原住民)들의 간절(懇切)한 소망(素望)이다.

이 지역(地域)은 삼한시대(三韓時代)로부터 구전(口傳)된 많은 구비문화(口碑文化)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깊이 있고 생동감(生動感) 넘치는 연구자료(研究資料)로서 가치(價値)있는 논문(論文)이 전무(全無)하다시피 한 것은 어쩌면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선인(先人)들과 후대(後代)들에게 사명감(使命感)을 가지고 심도(深度)있는 조사연구(調查研究)를 통(通)하여 밝혀내지 못한 자괴감(自愧感)과 미안(未安)함을 가져야 하는 고통(苦痛)을 느끼게 하고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역(驛)이 39곳에 이르렀다고 적고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를 비롯한 고려사(高麗史)에서는 526개의 역(驛)이 있다고 기록(記錄)되어 있다. 성남지역(城南地域)은 그러한 교통(交通), 통신(通信)시설이나 성곽(城郭)이 밝혀진 한민족(韓民族)문화(文化)의 중심지(中心地)였고 특히 백제(百濟)의 구원행궁(丘園行宮)이라는 이름의 낙생행궁(樂生行宮)과 왕실전용정자(王室專用亭子)가 있었다고 전해오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백제유적(百濟遺跡)에 대한 사실적(事實的)물증(物證)은 없었지만 방증(傍證)자료(資料)로는 낙생행궁(樂生行宮)이 성종(成宗)8년 10월 4일부터 8일까지의 기록으로 확인(確認)되었고 백제(百濟)때부터 있었다는 왕실전용정자(王室專用亭子)도 태종(太宗)13년 10월 10일 기록과 태종(太宗)14년 9월 8일 기록과 세종(世宗)2년 3월14 일 기록에 광주동정(廣州東亭)이라는 기록이 왕실정자(王室專用亭子)의 방증자료(傍證資料)로 충분(充分)하다고 본다. 그것은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성남지역(城南地域)은 큰 전란(戰禍)이 없었고 광주목장(廣州牧場)으로 불릴 만큼 군사적(軍事的)인 요충지(要衝地)로서의 역할(役割)을 한 지역인 관계로 고려시대(高麗時代)에 행궁(行宮)이나 정자(亭子)를 지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도 조선(朝鮮)초기(初期)의 태종(太宗)이나 세종(世宗)이 광주동정(廣州東亭)에 나와 여가를 보낸 일이나 성종(成宗)이 대열(大閱)을 끝내고 낙생행궁(樂生行宮)에서 머물면서 군사(軍士)들을 이끌고 친히 산행(山行, 군사훈련의 한 종류로 진법에 의하여 짐승을 몰이하여 잡는 훈련)을 한 기록은 백제(百濟)부터 전해온 행궁(行宮)과 왕실전용정자(王室專用亭子)를 활용(活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확연(確然)한 방증자료(傍證資料)인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다행(多幸)한 것은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지도(地圖)에 많은 역(驛), 원(院), 참(站)의 위치표시(位置表示)가 되어있고 봉수(烽燧)가 그려져 있는 것이다. 또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등의 문헌(文獻)에서도 경기도(京畿道)광주부(廣州府)편에 역(驛), 원(院), 참

(站), 이 상세(詳細)하지는 않으나 대략적(大略的)의 명칭(名稱)이 기록(記錄)되어 있다. 낙생역(樂生驛)이나 음촌참(陰村站), 판교원(판교원), 대야원(大也院)등의 역(驛), 원(院), 참(站)의 기록(記錄)과 천림산봉수(天臨山烽燧)에 대한 기록(記錄)이 확연(確然)함은 참으로 다행(多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도 수십여(數十餘)쪽에서 낙생역(樂生驛)이나 음촌참(陰村站), 판교원(板橋院), 대야원(大也院)등의 역(驛), 원(院), 참(站)에 예속(隸屬)되었던 점(店)과 주막(酒幕)의 기록(記錄)들과 천림산봉수(天臨山烽燧)에 관(關)한 기록(記錄)들이 있다. 구전(口傳)에 의(依)하여 전(傳)해오는 구비문화(口碑文化)에서도 낙생역(樂生驛)은 이미 삼한시대(三韓時代)부터 역(驛)이 있었다고 전(傳)해오고 있으며 천림산(天臨山)의 옛 이름인 달 네 내 고개의 달아(月兒)와 달오(月午)남매(男妹)에 대한 전설(傳說)이 있음과 성남지역(城南地域)에서 수백(數百)년간(年間)을 세거(世居)하여온 집성촌(集姓村)에서도 그들만이 지녀온 문중비화(門中秘話)와 족보(族譜)에 기술(記述)된 내용(內容)들이 우리들에게 자신감(自信心)을 갖게 하고 모두를 즐겁게 한다. 비록 작은 문중(門中)에서 전(傳)해오고 있는 보잘 것 없는 구전(口傳)이나 미미(微微)한 기록(紀錄)일지라도 그 기록(記錄)과 역사적(歷史的)사실(史實)이 확인(確認)되는 순간(瞬間)에는 그 내용(內容)의 신뢰도(信賴度)가 크게 격상(格上)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전(口傳)이나 문헌(文獻)들을 상고(詳考)하여 이 지역(地域)에 전래(傳來)된 교통시설(交通施設)과 통신시설(通信施設)에 대한 이용(利用)과 실태(實態)를 확인(確認)하고 그 원인(原因)이나 파급효과(波及效果)를 파악(把握)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여서 성남지역의 교통시설과 통신시설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고려사(高麗史)지(誌)36병(兵)/참역(站驛)(1)에 보면 성남(城南)지역(地域)이 속(屬)하였던 경주도(慶州道)에는 덕풍(德豐), 경안(慶安), 장가(長嘉), 안업(安業), 남산(南山), 양재(良梓), 금령(金領), 좌찬(佐贊), 분행(分行), 오행(五行), 안이(安利), 무극(無極), 요안(遙安), 단월(丹月), 안부(安富)등의 15개 역(驛)이 있었다고 기록(記錄)되어있다. 그러나 고려말(高麗末)의 대학자(大學者)이던 이곡(李穀)의 청풍루기(淸風樓記)속에 낙생역(樂生驛)이 나오는 확실(確實)한 기록(記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高麗時代)이전에 이미 이 지역(地域)에 낙생역(樂生驛)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로 인(因)하여 중앙정부(中央政府)와 원근지방(遠近地方)간에 교통통신(交通通信)이 얼마나 활발(活潑)히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事實)을 밝히는 것이 성남지역(城南地域)이 찬란(燦爛)한 민족사(民族史)속에서 국가(國家)의 중추(中樞)이던 교통(交通)시설과 통신(通信)시설(施設)로 활용(活用)하였던 경로(徑路)가 밝혀 질 것이며 이 지역(地域)을 통과(通過)하던 백

성(百姓)들이 이용하였던 교통시설(交通施設)을 포함(包含)한 편의시설(便宜施設)이용(利用)에 관(關)한 연구(研究)가 박차(拍車)를 가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한 연유(緣由)때문에 더욱 심도(深度)있는 연구(研究)가 필요(必要)하다는 중론(衆論)에 기인(基因)하여 많은 것이 못 될지라도 하나하나 찾아 정리(整理)하여 보도록 하겠다.

## 2. 역, 참(驛, 站)

역(驛)과 참(站)은 말(馬)을 이용(利用)하여 신속(迅速)한 이동(移動)을 꾀하였던 교통시설(交通施設)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권(券)제(第)37 잡지(雜誌)제(第)6에 39개소(個所)의 역(驛)이 있다고 기록(記錄)되어있다.

고려사(高麗史)지(志)36병(兵)/참역(站驛)①에는 22도(道)에 526개소(個所)의 역(驛)이 있는 것으로 기록(記錄)되어있다. 고려사(高麗史)에 참역(站驛)으로 표기(表記)한 것을 보면 막강(莫強)한 강병(強兵)의 군대(軍隊)가 있어야 장기적(長期的)으로 국권(國權)이 강화(強化)될 수 있던 시절(時節)이라서 군사시설(軍事施設)인 참(站)을 우위(優位)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성종(成宗)2년의 기록(記錄)은 제(諸)역장(驛長)은 대로(大路)로 40정(丁)이상은 장(長)이 3인이고 중로(中路)인 10정(丁)이상은 장(長)이 2인이며 소로(小路)도 또한 중로(中路)의 예(例)에 따라 차등(差等)있게 정(定)하라. 라는 왕명(王命)의 기록(記錄)으로 보아 모든 역장(驛長)을 복수(複數)로 정(定)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站)과 역(驛)을 6등급(等級)으로 분류(分類)하였는데 1급(級)인 1과(科)역에는 75정(丁)을 정원(定員)으로 법규(法規)로 확정(確定)하였고, 2과(科)는 60정(丁), 3과(科)는 45정(丁), 4과(科)는 30정(丁), 5과(科)는 12정(丁)을 주고 6과(科)에는 7정(丁)을 배정(配定)하여 역(驛)이 관장(管掌)하는 둔전(屯田)을 성실(成實)히 경영(經營)하게 법(法)으로 정구(丁口)를 보장(保障)하여 줌으로서 자생적(自生的)경제(經濟)여력(餘力)을 지니게 하였으며, 각역(各驛)마다 나름대로의 활력소(活力素)를 지니게 하였다. 역(驛)에는 역승(驛丞)을 두었는데 고려사(高麗史)지(志)36병(兵)/참역(站驛)②의 기록(記錄)속에는 공양왕(恭讓王)원년(元年)에 조준(趙俊)이 상소문(上疏文)을 올려 왕(王)이 가납(加納)한 역승(驛丞)의 품계(品階)는 5품(品)내지 6품(品)벼슬의 관리(官吏)가 파견(派遣)되었다는 것이 확인(確認)되었다. 그것은 역승(驛丞)들의 근무태도(勤務態度)에 따라서 국가(國家)의 안위(安危)에 미치는 파급(波及)상당히 크게



작용(作用)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급완(急緩)에 따라서 현령전송(懸鈴傳送)과 피각전송(皮角傳送)에 따라 환마(還馬)의 방법(方法)도 달랐다. 1급(級)사유(事由)의 전송(傳送)은 방울 한 개(鈴 一懸)를 달게 하였고, 2급(級)은 방울 2개(鈴 二懸)를 달고 달리게 하였으며, 3급(級)은 3개의 방울(鈴 三懸)을 달고 달리게 하였다. 역(驛)에서 말을 갈아타는 환마(還馬)도 현령전송(懸鈴傳送)의 경우 1급(級)사유(事由)는 3번째 역(驛)마다 갈아타고, 2급(級)은 4번째 역(驛)에서 갈아타며 3급(級)은 6번째 역(驛)에서 갈아타고 피각전송(皮角傳送)은 2월에서 7월까지 1급(級)은 4역(驛), 2급(級)은 5역(驛), 3급(級)은 6역(驛)을 가고, 팔월에서 정월(正月)까지는 1급(級)은 3역(驛), 2급(級)은 4역(驛), 3급(級)은 5역(驛)으로 하여 계절(季節)에 따라 환마(還馬)를 달리하였고 급(急)할수록 빨리 달릴 수 있는 제도(制度)를 만들어 사용(使用)하여 전송사유(傳送事由)의 완급(緩急)에 따라 능동적(能動的)으로 대처(對處)할 수 있게 하였다. 역승(驛丞)밑에는 하위직(下位職)으로 참상(參上)과 참하(參下)라는 직책(職責)이 있었다는 것이 고려사(高麗史)의 여러 곳에서 꽤 많이 보인다. 특히 고려사(高麗史)병지(兵志)서문(序文) 말미에는 기타 참역(站驛), 마정(馬政), 둔전(屯田), 성보(城堡)도 또한 병사(兵事)에 관(關)한 것이므로 아울러 부기(附記)하여 병지(兵志)를 만든다. 고 기록(記錄)된 것으로 보아 참역(站驛)에 종사(從事)하는 사람들은 신분(身分)은 낮았으나 군(軍)으로 분류(分類)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기록(記錄)이다.

조선(朝鮮)때에도 여러 역(驛)을 관찰(觀察)하는 찰방(察訪)이 있었는데 때로는 대호군(大護軍)이 겸(兼)한 기록(記錄)도 있다. 각역(各驛)에는 역승(驛丞)과 역졸(驛卒)들이 있고 그 외(外)에 역노(驛奴)들을 지니게 하였다. 그러나 역졸(驛卒)이나 역노(驛奴)들은 신분(身分)이 천(賤)한 자(者)들인데다 찰방(察訪)이나 역승(驛丞)들 외(外)에도 역(驛)이 소속(所屬)된 지역(地域)의 양반(兩班)들에게까지 노동력(勞動力)을 강요(強要)받기가 일수여서 특하면 도망(逃亡)하는 자(者)가 부지기 수(數)였다.

## 1) 낙생역(樂生驛)

낙생역(樂生驛)에 대한 최초(最初)의 기록(記錄)을 확인(確認)시켜 줄 수 있는 정확(正確)한 기록(紀錄)은 없지만 최소(最小)한 삼한시대(三韓時代)부터 있었다는 것이 이 지역(地域)에 전(傳)해오는 구전(口傳)이며, 한성백제(漢城百濟)가 493년간(年間)<sup>1)</sup>의 정통성(正統性)을

1) 백제시조(百濟始祖) 온조(溫祚)는 B. C. 18년에 개국(開國)을 하였고 개로왕(蓋鹵王)은 475년에 고구려

이어오며 찬란(燦爛)한 한성백제(漢城百濟)의 문화(文化)중에 최대(最大)의 치적(治績)이라고 꼽아주는 개로왕(蓋鹵王)전까지 이어진 막강(莫強)한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이루었던 한성백제(漢城百濟)의 독특한 군사문화(軍事文化)가 창출(創出)되었던 곳이다. 그것을 확인(確認)하기 위(爲)하여 세자궁(世子宮)터가 현존(現存)하여 있는 창곡동(倉谷洞)일대(一帶)를 발굴조사연구(發掘調查研究)하여야 할 것이다. 세자궁(世子宮)을 중심(中心)으로 한성백제(漢城百濟)의 군사문화(軍事文化)를 찬란(燦爛)하게 꽃피웠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곳에 역(驛)이나 참(站)이 있었을 것이라는 구전(口傳)과 가설(假說)들도 객관성(客觀性)이 함축(含蓄)된 정설(正說)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지역이 삼한(三韓)중에 태두(太頭)적인 진한(辰韓)의 소도지(小都地)였다는 사실(史實)을 중국고서(中國古書)인 위지(魏誌)나 삼국지(三國誌)를 인용(引用)하여 입증(立證)한 광주군지(廣州郡誌)의 기록(記錄)에서 상당부분(相當部分)은 확인(確認)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여타 문헌(文獻)들이 있기에 더욱이 확신(確信) 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물론 진한(辰韓)의 준왕(準王)에 대한 기록(記錄)이지 을목참(栗木站)이나 대야원(大也院)또는 낙생역(樂生驛)이나 천림산(天臨山)봉수(烽燧)에 대한 기록(記錄)은 아니다. 그렇지만 인간(人間)이 말(馬)이라는 짐승을 이용(利用)하여 교통수단(交通手段)으로 사용(使用)한 기록(記錄)이 많이 있으며 국가(國家)가 역(驛)이나 참(站)을 만들어 교통체계(交通體系)를 확립(確立)하였으며 이용자(利用者)들에게 편의(便宜)를 제공(提供)하였다는 기록(記錄)이 상당 수 있고 전쟁(戰爭)시에 통신시설(通信施設)을 이용한 기록(記錄)들이 있기에 진한(辰韓)의 소도지(小都地)인근(隣近)이었던 이곳에는 당연(當然)히 역(驛)이나 통신시설(通信施設)이 있었다는 구전(口傳)과 가설(假說)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정설(正說)이다.

중국(中國)에서는 진(秦)나라 진시황제(秦始皇帝)가 열국(列國)에서 각기(各其)사용하던 글자를 통일(統一)하였는데 그 글자 속에는 말마(馬)자와 평안 안(安)가가 우선적(優先的)으로 통일(統一)시켰다고 하여서 섬서성(陝西城)에 있는 진시황제(秦始皇帝)의 가상(假想)무덤인 진능지궁(秦陵地宮)입구 정면(正面)벽(壁)에 전시(展示)하고 있음도 상기(想起)하여야 할 것이다. 말(馬)이라는 동물(動物)의 활용(活用)을 극대화(極大化)하기 위(爲)하여 각국(各國)이 다투어 말을 길들여서 날쌔게 타고 다니며 속도전(速度戰)의 해결사(解決士)이던 기마병(騎馬兵)이라는 이름의 정예병(精銳兵)을 훈련(訓練)시켰다. 전시(戰時)에는 그들을 동원(動員)하여 자국군대(自國軍隊)의 막강(莫強)한 위력(威力)을 보이며 천하(天下)를 통일(統一)하

---

(高句麗)장수왕(長壽王)에게 잡혀 죽고 문주왕(文周王)이 웅진(熊津)으로 이도(移都)하였다. 475+18=493년이 된다.

고 천하(天下)의 패권(霸權)을 쥐고 열국(列國)을 통치(統治)하는 영수국(領首國)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낙생역(樂生驛)이라는 실명(實名)이 기록(記錄)된 문헌(文獻)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는 고려말(高麗末)의 성리학자(性理學者)인 이곡(李穀)선생(先生)이 지었다는 청풍루기(淸風樓記)<sup>2)</sup>에 전(傳)해오고 있을 뿐이다. 그 외(外)에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나 조선시대(朝鮮時代)에 그려진 지도(地圖)등 여타(餘他)기록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分量)이 기록(紀錄)으로 전(傳)하여지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광주목(廣州牧)역원편(驛院篇)에는 낙생역(樂生驛)재주(在州)남(南)45리(里)<sup>3)</sup>라고 되어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낙생역(樂生驛)재주(在州)남(南)30리(里)라고 기록(記錄)되어 있고 말 5필(匹)과 노비(奴婢)4명(名)이라고 기록(記錄)되어 당시(當時)에는 역(驛)의 규모(規模)가 얼마나 작고 피폐(疲弊)되고 축소(縮小)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 그려진 지도(地圖)를 상고(詳考)해 보면 조선후기(朝鮮後期)인 1750년대(年代)에 그려진 팔도군현지도(八道郡縣地圖)에도 낙생면(樂生面)내에 판교역(板橋驛)과 돌마면(突馬面)내에 추현역(秋峴驛)이 그려져 있다. 1760년대에 제작(製作)된 여지도서(輿地圖書)중 광주부(廣州府)지도에는 돌마면(突馬面)내에 낙생역(樂生驛)이 있다. 청구도(靑丘圖)에는 낙생면(樂生面)내에 낙생역(樂生驛)과 돌마(突馬)면내에 추현역(秋峴驛)으로 표기(表記)

2)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第六 116쪽. 광주(廣州)목(牧) 루정(樓亭)에 청풍루(淸風樓)이곡(李穀)정기(亭記)지정(至正)기축(己丑)하(夏)사월(四月)관성(觀省)환향(還鄉)행차(行次)낙생역(樂生驛)광주목(廣牧)백군화부(白君和父)주서(走書)이요지(走書而邀之)차일관사지북(且日官舍之北)득고청풍정기(得古淸風亭基)자사주옥(作四柱屋)실일주지승(實一州之勝)청기(淸記)지여행망(請記之余行忙)고복지일(姑復之曰)후당여정(後當如京)가일지이(可一至而)우목언(寓目焉)위기미만야(爲記未晚也), 명년지광(明年至廣)즉(則)백군소환이(白君召還而)이군모(李君某)대임반세(代任半歲矣)시방혹열(時方酷熱)기식여루(氣息如樓)내등소위청풍정(乃登所謂淸風亭)의주이피금(倚柱而披襟)청신청상(淸神淸爽)모발소삼(毛髮蕭颯)여신태혼탁(如蟬蛻溷濁)이출호진에지외(而出乎塵埃之外)이군차주종언(李君置酒終焉)여익기양방(余翼其兩旁而作南榮)각오척(各五尺)북역여지(北亦如之)초광차삼(縮廣且深)개오이장단벽지(漑巧而將丹碧之)이자적지(而子適至)합거상락지(盍舉觴落之)이서세월이지(而書歲月以志)여기허백군의(余既許白君矣)내간정지폐기년(乃間亭之廢幾年)이부로무유지자(而父老無有知之者)즉금지기폐(則今之起廢)실동어창신(實同於創新)춘추서작(春秋書作)유위불의작자(有謂不宜作者)우위노장부(又謂魯長府)하필개작(何必改作)성인수교지의미의(聖人垂教之意微矣)여관광지위주(余觀廣之爲州)삼면개고산(三面皆高山)북수광원(北雖廣遠)지세이하(地勢夷下)공해민거(公廩民居)여재정저(如在井底)빈객지래(賓客之來)영병우비병(寧病于卑陋)이부지구보지간(而不知跬步之間)유차상개(有此爽塏)즉차정지작(則此亭之作)당부재범예(當不在貶例)여어시서(余於是書)약부청풍지의(若夫淸風之義)백설진지(白設盡之)여불복책(余不復贅)백군동년(白君同年)이군집우(李君執友)위정구유염근성(爲政俱有廉勤聲)무인(戊寅)중하(仲夏)기(記)라는 청풍정기(淸風亭記)가 기록(記錄)되어 있다.

3)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第六 119쪽. 광주(廣州)목(牧) 역원(驛院)에 낙생역(樂生驛) 재주(在州) 남(南)사십(四十)오리(五里)

되어 있고, 1872년에 그려진 광주전도(廣州全圖)에 낙생역(樂生驛)이 돌마(突馬)면내(面內)에 있으며, 영조(英祖)때에 그렸다는 광주군고도(廣州郡古圖)에도 돌마(突馬)면내(面內)에 낙생역(樂生驛)이 있다. 광주부지도(廣州府地圖)에도 돌마면(突馬面)내에 낙생역(樂生驛)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狀況)을 살펴보면 돌마면(突馬面)수내리(藪內里)역말(驛村)에 낙생역(樂生驛)이 있었던 것이 확실시(確實視)되는 사실적(事實的)인 기록(記錄)들이다.

역(驛)의 이동(移動)회로(回路)를 살펴보면 낙생역(樂生驛)에서 동(東)쪽으로는 추현(秋峴)으로 하여 광주(廣州)나 용인(龍仁)의 처인성(處仁城)으로 가게 되는 회로(回路)와 서현리(書峴里)의 통로골(通路谷)을 거쳐서 울리(栗里)를 경유하여 영장(靈長)고개를 넘어 광주읍(廣州邑) 직리(直里)를 지나 광주(廣州)경안(慶安)으로 가는 회로(回路)가 있다. 광주(廣州)에서는 이천(利川)이나 여주(驪州)를 거치면 강원도(江原道)원주(原州)와 횡성(橫城)일대(一帶)로 갈수 있으며, 충북(忠北)제천(提川)이나 영월(寧月)이나 경북(慶北)으로 연결(連結)되는 회로(回路)가 있다. 서(西)쪽으로는 판교(板橋)를 거쳐서 학현(鶴峴)을 넘어 안양(安養)이나 수원(水原)으로 하여 충청지방(忠淸地方)과 영호남지방(嶺湖南地方)으로 가는 회로(回路)에 연결(連結)되어있다. 남(南)쪽으로는 험천(險川)을 거쳐 용인(龍人)과 수원(水原)을 거쳐 삼남(三南)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북(北)쪽의 길은 판교(板橋)로 해서 달네 내 고개(月川峴)를 거쳐 신원(新院)을 거쳐 사평원(沙坪院)을 지나 한양(漢陽)으로 가는 길이 있다. 또 대야원(大也院)을 지나 세촌면(細村面)을 거쳐 광나루(廣津)를 거쳐 한양(漢陽)이나 경기북부(京畿北部)를 관통(貫通)하여 관서(關西)와 관북(關北)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 그러나 동서남북(東西南北)으로 가는 길에는 곳곳에는 중간역(中間驛)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때로는 사이길 을 이용(利用)하였을 것으로 본다. 낙생역(樂生驛)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상고(詳考)하여보면 수많은 임금들의 행차(行次)가 있던 역(驛)임을 알 수 있다. 세종대왕(世宗大王)도 낙생역(樂生驛)앞 전교(前郊) 또는 낙생역(樂生驛)앞 들 등에서 주정(晝停)또는 머물렀다는 기록(記錄)이 7-8회(回)나 된다. 이어서 세조(世祖)와 성종(成宗)의 행차 기록(記錄)도 십여회(十餘回)에 이르는 것을 보면 낙생역(樂生驛)이 조선초기(朝鮮初期)에는 규모(規模)나 육로(陸路)상에서 역할성(役割性)에 비추어 상당히 중요(重要)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낙생역(樂生驛)은 조선(朝鮮)초기(初期)의 임금들이 수많은 대열(大閱)을 끝낸 뒤에는 군사훈련(軍事訓練)의 일종(一種)으로 수렵(狩獵)을 하였는데 낙생역(樂生驛)앞 들 또는 전교(前郊)에서 머물렀다는 기록(記錄)이 수없이 많은 것은 낙생행궁(樂生行宮)과 더불어 낙생역(樂生驛)의 중요성(重要性)을 한층 실감(實感)케 하는 구절(句節)이라고 생각한다. 수렵

(狩獵)은 사냥 또는 산행(山行)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이 직접(直接) 군사훈련(軍事訓練)을 독려(督勵)하였던 최고급(最高級) 군사문화(軍事文化)가 이 지역(地域)에 생생(生生)하게 전(傳)해지고 있다는 사실(史實)들을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낙생역(樂生驛)은 일본사신(日本使臣)이 조선(朝鮮)의 국왕(國王)을 뵈러 한양(漢陽)으로 오고 갈 때에는 낙생역(樂生驛)에서 머무는 것이 관례(慣例)였다고 한다.

중종(中宗)6년 5월 21일 실록(實錄)<sup>4)</sup>에는 선위사(宣慰使) 허굉(許宏)<sup>4)</sup>이 와서 아뢰기를 “붕중(崩中)이 올라 올 때는 말이 없다가 낙생역(樂生驛)에 와서 신(臣)과 마주앉아 식사를 할 때에 붕중(崩中)이 말하기를 “당신이 돌아가 우리의 소망(所望)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요.” 하였으니 대개 화친(和親)을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이나 안색(顏色)을 보면 오로지 화친(和親)을 위하여 왔습니다. 이전에 온 왜인(倭人)등의 일에 대하여는 거의 거론(擧論)하지 않으니 대마도(對馬島)의 일을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절도사(節度使) 유담년(柳菴年)이 신(臣)에게 말하기를 “영해(英海)에 사는 군관(軍官) 박자범(朴自範)의 말이 강원도(江原道)무릉도(武陵島)가 그곳과 서로 바라다 보이는데 밤에 불빛이 있으니 왜선(倭船)이 숨어 닿았다든가 혹 의심(疑心)스럽다고 합니다.” 신(臣)이 들은 것이 이러함으로 감(敢)히 아뢰니다.』하는 실록(實錄)의 기록(記錄)은 일본(日本)에서 사신(使臣)이 낙생역(樂生驛)에서 머물면서 선위사(宣慰使)인 허굉(許宏)을 만나 부탁(付託)한 내용(內容)이 있었음을 확인(確認) 시켜주는 대목(代目)이다.

중종(中宗)21년 1월 18일에는 특진관(特進官)조계상(趙繼商)<sup>5)</sup>이 아뢴 내용(內容)중에

…경기(京畿)의 낙생역(樂生驛)은 이전(以前)에는 인가(人家)가 조밀(稠密)하고 역리(驛吏)들도 부유(富裕)하였는데 지금은 단지 3-4호(戶)가 있을 뿐이고 관사(館舍)도 모두 퇴락(頹落)하였습니다 왜인(倭人)들이 오고 갈 적에는 반드시 이 역(驛)에서 쉬게 되는데 외국(外國)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至極)히 매몰(埋沒)했을 것입니다… 라는 기록과

4)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중종(中宗) 6년 5월 21일. 원전(原典) 14집(集) 517면(面). 선위사(宣慰使) 허굉(許宏)이 붕중(崩中)의 이로 아뢰다.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5)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중종(中宗) 21년 1월 18일. 원전(原典) 16집(集) 493면(面). 특진관(特進官)조계상(趙繼商)이 민중(民衆)의 생활고(生活苦), 역로회복(驛路回復), 재변(災變), 사치풍조(奢侈風潮)에 대하여 아뢰다.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중종(中宗)24년 5월 18일 정광필(鄭光弼)<sup>6)</sup>이 아뢰기를

…경기(京畿)의 각역(各驛)이 잔폐(殘廢)되었는데 낙생역(樂生驛)과 가천(伽川)등의 역(驛)이 그중(中)에서도 더욱 극심(極甚)하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근처(近處)의 노비(奴婢)들을 전문사(專運司)의 노비(奴婢)로 삼아 이들 역(驛)에 정급(定級)해 주고 또 속공(屬公)시킨 노비(奴婢)도 정급(定級)하게 하고 관군(館軍)으로 하여금 조역(助役)하게 하여 소생(蘇生)시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역(驛)이 소생(蘇生)되면 이웃 역(驛)도 힘을 덜게 될 것이니 이처럼 극심(極甚)하게 잔폐(殘廢)한곳은 소생(蘇生)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고 이어서… 낙생역(樂生驛)은 가장 긴급(緊要)하고 중요(重要)한 곳으로 봉명사신(奉命使臣) 및 공사(公私)의 과객(過客)과 각 고을의 수령(首領)가족(家族)등이 모두 이 역(驛)에서 숙박(宿泊)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숙(留宿)하지 않고 모든 공사(公私)의 일행(一行)이 과천현(果川縣)에서 숙박(宿泊)합니다. 이 역(驛)이 잔폐(殘廢)되었기 때문에 과천(果川)이 피해(被害)를 받아 장차(將次)지탱(支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감사(監司)는 마땅히 이런 것을 살펴 소생(蘇生)시켜야 하고 사명(使命)도 또한 감소(減少)시켜야 합니다. 하였고, 원계채(元繼蔡)는 아뢰기를 “신(臣)이 어사(御使)로 각역(各驛)을 적간(摘看)할 때 보니 더욱 잔폐(殘廢)되어 원래(原來)부터 사는 사람은 단지 초가(草家)집 네 채뿐, 근방(近方)에는 인가(人家)가 없었습니다. 하삼도(下三道)에서 입거(入居)한 사람들은 1호(戶)도 그대로 사는 사람이 없기에 이상(異狀)하여 물어보니 입거(入居)한 사람들은 비록 말을 세우려 해도 의접(依接)할 데가 없기 때문에 도망(逃亡)해 버려서 날로 더욱 조잔(凋殘)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상주(上奏)한 기록(記錄)에서 나타나듯이 낙생역(樂生驛)은 매우 중요(重要)한 입지(立地)를 지니고 있었으나 연산군(燕山君)의 학정(虐政)때부터 피폐화(疲弊化)하여 거의 폐역(廢驛)에 가까운 형태(形態)로 전락(轉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國家)의 전략적(戰略的)인 운영(運營)여하(如何)에 따라서 공공기관(公共機關)의 존폐(存廢)를 가름하는 사활(死活)의 운명(運命)이 달려있었던 것이다.

중종(中宗)25년 2월 7일 석강(夕講)에서 시강관(侍講官)심언광(沈彦光)<sup>7)</sup>이 아뢰기를

6)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중종(中宗) 24년 5월 20일. 원전(原典) 17집(集) 120면(面). 조강(朝講)에서 채시(采詩), 학교(學敎), 보병(步兵), 역노(驛奴), 공납탄(貢納炭)등의 대한 건의 때 영사(領事) 정광필(鄭光弼), 시강관(侍講官)원계채(元繼採), 지평(持平)송인수(宋麟壽), 병조판서(兵曹判書)이항(李沆), 사간(司諫)김공예(金公藝)가 아뢴 내용 중 영사(領事)정광필(鄭光弼)이 역노(驛奴)에 대한 건의사항(建議事項)이다.

“신(臣)이 경기(京畿)를 적간(摘看)할 적에 보니, 양성(陽城)과 진위(辰威)의 백성(百姓)들은 집에 한 되(升)의 곡식(穀食)도 없었음은 물론 도토리도 저축(貯蓄)해 놓은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에 부황(浮黃)이 들어 있었고, 들 가운데는 나물 캐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이 아직 일러서 나물이 돌지 않았습니다. 모름지기 수령(首領)들에게 굶주린 백성(百姓)들을 뽑아서 헤아려 구휼(救恤)하게 해야 됩니다. 파주(坡州)의 백성(百姓)들은 1석(石) 내지 몇 말의 곡식(穀食)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間或)있어서 진위(辰威)나 양성(陽城)에 견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대체적(大體的)인 상황(狀況)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양재역(良才驛)과 낙생역(樂生驛)등은 바로 남도(南道)의 대로(大路)이고 영서역(迎西驛)과 벽제역(碧蹄驛)은 서방(西方)의 대로(大路)인데도 식량(食糧)과 여물(餘物)이 떨어졌습니다… 하는 기록(記錄)과 특진관(特進官)유관(柳灌)은 아뢰기를 양재역(良才驛)과 낙생역(樂生驛)은 더욱 극심(極甚)하게 잔폐(殘廢)되었습니다. 이를 정상(正常)으로 돌려놓기 위해 입거(入居)시킬 것으로 공사(公事)를 만든다면 새로 입주(入住)한 사람들이 안주(安住)할 수가 없어 오래잖아 모두 도망(逃亡)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거(入居)시켜 정상(正常)으로 돌아오길 기대(期待)하기는 곤란(困難)할 것 같습니다. 역(驛)에 말이 없기 때문에 사명(使命)을 받은 사람이 간혹(間或) 체류(滯留)하기도 하는가 하면 각도(各道)의 진상(進上)이 5-6일이나 적체(積滯)되어도 운반(運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녀(男女)가 이고지고 도로(道路)에 연락부절(連絡不絕)하고 있는 실정(實情)입니다. 그 고통(苦痛)이 이렇기 때문에 반정(反正)한 뒤 모든 사명(使命)이외에 사행(私行)에게는 역마(驛馬)를 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 홍문관(弘文館)관원(館員) 및 대간(臺諫)이 말미(末尾)를 받았을 때는 도로 역말(驛馬)을 타게 하였으니 공행(公行)에 비교(比較)하여 1필을 감(減)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法)대로 시행(施行) 되었겠습니까?

왕래(往來) 할 때에 벗들과 노복(奴僕)을 많이 데리고 다니고 공행(公行)또한 끊임없이 왕래(往來)하고 있습니다. 역로(驛路)가 잔폐(殘廢)된 것은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정상(正常)을 되찾을 기간(期間)동안은 말미(末尾)를 받은 관원(官員)에게 역말(驛馬)을 지급(支給)하지 말게 한다면 역로(驛路)가 정상(正常)으로 되길 기대(期待)할 수 있습니다. 근친(覲親)갈 적에는 임금께서 특별(特別)히 역말(驛馬)을 지급(支給)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친(覲親)한 뒤 고향(故鄉)에서 놀러 다닐 때에도 역말(驛馬)을 집에 두고 공공연(共空然)히 타고 다님은 물론, 각(各) 고을에 선문(先文)을 보내놓고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닙니다. 법(法)에 입각(立脚)하

7)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중종(中宗) 25년 2월 7일. 원전(原典)17집(集) 192면(面). 심언광(沈彦光), 유관(柳灌)등이 역(驛)의 폐단(弊端)을 개혁(改革)할 것을 건의(建議) 하다. 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여 논(論)한다면 또한 함부로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일체(一切)금(禁)하소서.” 라 하고,

특진관(特進官) 김근사(金謹思)는 아뢰기를

“진상(進上)하는 물품(物品)을 운반(運搬)하느라고 역로(驛路)가 잔폐(殘廢)되고 있습니다. 함경도(咸鏡道)와 강원도(江原道)의 경우(境遇)에는 모르겠지만, 수로(水路)가 닿는 곳이면 참선(站船)으로 운반(運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황해(黃海), 충청(忠淸), 경상(慶尙)등의 도(道)는 수로(水路)가 매우 편리(便利)한데도 나라의 법규(法規)가 없기 때문에 감사(監司)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敢)히 아뢰입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정상(正常)을 되찾게 하기가 어렵긴 하다. 그러나 폐단(弊端)을 개혁(改革)한다면 되찾을 수 있겠다. 고 하였다고 기록(記錄)하여 진(傳)하고 있다.

중종(中宗)25년 2월 9일<sup>8)</sup>의 기록(記錄)에,

실록(實錄)은 계복(啓覆)을 청리(聽理)하였다. 승지(承旨)임추(任樞)가 아뢰기를

“전옥서(典獄署)의 죄수(罪囚)인 종부시(宗簿寺)의 조예(遭隸)송영근(宋永根)은 낙생역(樂生驛)의 도역인(徒役人)으로 세 번씩이나 도망(逃亡)해 왔기에 참대시(斬待時)로 조율(調律)하였는데 초복(初覆)입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죄수(罪囚)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였다.

영사(領事)이유청(李有淸)이 아뢰기를 “법(法)에 의(依)하여 사형(死刑)시켜야 함은 의심(疑心)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하자,

좌우(左右)는 “낙생역(樂生驛)은 서울과 매우 가까우니 반드시 양식(糧食)을 가져가려고 왔을 것입니다. 그 정상(情狀)은 용서(容恕)할 만합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8)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중종(中宗)25년 2월 9일. 원전(原典)제(第)17집(集)193면(面). 낙생역(樂生驛)의 도역인(徒役人)송영근(宋永根)의 세 번 도주(逃走)한 건(件)에 대해 논죄(論罪)하다.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낙생역(樂生驛)은 바로 가까운 역(驛)이니 그 사정(事情)은 그럴 만 하다. 그러나 세 번 썩이나 도망(逃亡)했다. 지금 만약(萬若) 가볍게 논죄(論罪)한다면 도역(徒役)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본(本)받아서 도망(逃亡)해 돌아오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헌납(獻納)김면(金沔)이 아뢰기를,

“이 사람이 병조(兵曹)의 사령(使令)을 가칭(假稱)하고 군사(軍士)를 공갈협박(恐喝脅迫)한 죄(罪)로 이 죄(罪)를 받았으나 그 처음의 일은 또한 심(甚)한 데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고,

시독관(試讀官)윤풍형(尹豊亨)은 아뢰기를,

“법(法)은 비록 이와 같지만 정상(情狀)과 법률(法律)을 참작(參酌)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차후(此後)에 도망(逃亡)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죄(罪)에는 반드시 가벼운 죄(罪)와 무거운 죄(罪)가 있게 마련이다. 대저 사형수(死刑囚)를 위(爲)해서는 살릴 길을 찾아야 마땅하니 조금이라도 살릴 길이 있다면 사형(死刑)을 감면(減免)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결론지었다.

명종(明宗)3년 1월 5일 기록(記錄)<sup>9)</sup>중에는

양재역(良才驛), 낙생역(樂生驛), 영서역(迎西驛)에 하삼도(下三道)의 역자(驛子)들을 입거(入居)시키는 일은 본역(本驛)사람들이 형편상(形便上)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애당초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집을 지어주는 일은 해마다 짓는 것마다 헐어버리곤 하니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소복(蘇復)시키는 방책(方策)은 찰방(察訪)에게 달려있습니다. 모두 시행(施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이상의 실록(實錄)의 내용(內容)은 한결같이 낙생역(樂生驛)의 중요성(重要性)을 설파(說破)한 것들이며 삼남(三南)의 대로(大路)에서 가장 중요(重要)한 역할(役割)을 하는 낙생역(樂生驛)을 포함(包含)한 역(驛)의 잔폐(殘廢)가 곧 지역경제(地域經濟)의 몰락(沒落)으로 진행(進行)된 상황(狀況)과 전쟁(戰爭)을 비롯한 유사시(有事時)에 대비(對備)하여야 하는 중대사(重大事)를 논(論)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特)히 낙생역(樂生驛)을 포함(包含)한

9)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명종(明宗) 3년 1월 5일. 원전(原典)제(第)19집(集)556면(面). 삼공(三公) 육조판서(六曹判書)와 수령(首領)의 임임(仍任), 조운(漕運), 역로(驛路)등의 일을 영의정(領議政)윤인경(尹仁鏡), 좌의정(左議政)이기(李奇), 우의정(右議政)정순봉(정순봉), 병조판서(兵曹判書)상진(尙震), 호조판서(戶曹判書)정세호(鄭世虎) 이조판서(吏曹判書)김광준(金光準)등이 논의(論議)한 기록(記錄).

경기지역(京畿地域)의 한수이남(漢水以南)일부(一部)의 역(驛)들이 잔폐(殘廢)됨으로 해서 모든 수송체계(輸送體系)의 혼란(混亂)을 역설(逆說)한 대목으로 깊이 있는 연산군(燕山君)시대(時代)와 중종시대(中宗時代)의 정치경제(政治經濟)에 대한 심도(深度)있는 연구(研究)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낙생역(樂生驛)의 마지막 기록(記錄)은 선조(宣祖)25년 5월12일 기록(記錄)<sup>10)</sup>이다.

임금이 이르기를

“장계(狀啓)내용(內容)이 선전관(宣傳官)민종신(閔宗信)의 말이 어찌 이다지도 다른가?”하니 정원(政院)이 회계(回啓)하기를,

“음성현(陰城縣)에 나타났다는 적(敵)은 충주(忠州)에서 올라온 왜적(倭敵)이요, 황간(黃澗)에 나타났다는 적(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인(倭人)으로 가장(假裝)한 듯 합니다. 잡은 자는 18명(名)이요, 나머지는 몇 명인지 알수 없지만 아마도 최준(崔濬)이 이를 보고 당황(唐惶)한 나머지 몇천명(千名)인지 알수 없다고 말한 듯합니다. 이광(李洸)이 되돌아간 일은 괴이(怪異)합니다. 광(洸)은 본도(本道)의 순찰사(巡察使)로서 장병(將兵)들을 경성(京城)으로 분송(分送)하고 자신(自身)은 도내(道內)에 적변(賊變)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돌아가서 초병(哨兵)하려는 것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전일 원수(元帥)의 장계(狀啓)에서 낙생역(樂生驛)에 와서 머물렀다고 한 말은 매우 의심(疑心)스럽 습니다. 원수(元帥)에게 하문(下問)하면 그 진위(眞僞)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논의내용(論議內容)의 기록(記錄)이다.

이상(以上)과 같은 많은 일화(逸話)를 지니고 있는 낙생역(樂生驛)은 성남지역(城南地域)에서는 매우 중요(重要)한 역할(役割)을 하였던 역(驛)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낙생역(樂生驛)의 중요성(重要性)은 삼남(三南)의 대로(大路)에 접(接)해 있는 것만으로도 큰 사유(事由)가 되겠지만 태종(太宗)이후(以後)에 연산군(燕山君)때 까지는 왕(王)들이 대열(大閱)이라는 막중(莫重)한 군사훈련(軍事訓練)을 감행(敢行)하는 국가(國家)최대(最大)의 목표(目標)인 부국강병(富國強兵)으로 도약(跳躍)하기 위한 중차대(重且大)한 대규모(大規模)행사(行事)를 치루면서 왕(王)들이 꼭 다녀갔던 역(驛)이라서 더욱 가치(價値)있는 역(驛)인 것은 물론 조선 개국정신(朝鮮開國情神)의 한 축(軸)이던 산업부흥(產業復興)을 위하여 질(質)좋은 교통수단(交通手段)을 백성(百姓)들에게 제공(提供)하려 설치(設置)또는 중수(重修)하였던 역(驛)들이

1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선조(宣祖)25년 5월 12일. 원전(原典)제(第)19집(集)490면(面). 충청감사(忠淸監司)의 상황보고(狀況報告)와 선전관(宣傳官)의 보고(報告)가 다르자 정원(政院)이 원수(元帥)에게 하문(下問)할 것을 청(請)하다.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잔폐(殘廢)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뜻있는 신료(臣僚)들이 노력(努力)한 흔적(痕迹)들을 찾을 수 있는 기록(記錄)들이 눈에 띈다. 이러한 낙생역(樂生驛)의 원형(原形)을 재현(再現)하여 우리의 선인(先人)들이 애용(愛用)하던 수송로(輸送路)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研究)로 시대적(時代的)으로 변천(變遷)되었던 상황(情況)을 규명(糾明)하여 후세(後世)에 전(傳)하여 우리 민족(民族)의 우수(優秀)하고 찬란(燦爛)하였던 민족문화(民族文化)와 이 지역(地域)의 전래 유적(傳來遺跡)을 길이 보존(保存)하려는 자긍심(自矜心)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 2) 울목참(栗木站), 음촌참(陰村站)

참(站)이라는 것은 군인(軍人)들의 이용(利用)이 빈번(頻煩)한 역(驛)이어서 일반(一般)역무원(驛務員)들과 함께 관할관청(管轄官廳)에서 차출과견(差出派遣)된 장병(將兵)들이 공동(公同)으로 근무(勤務)하며 역무(驛務)의 일부(一部)를 나누어 관장(管掌)하던 역(驛)이었다.

울목참(栗木站)은 일명(一名) 음촌참(陰村站)으로도 불리었던 참(站)이었다. 음촌참(陰村站)은 지금의 단대동(丹垈洞)에 있었다고 전해오고 있지만 울목참(栗木站)이라면 창곡동(倉谷洞)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推定)할 수 있는 참(站)이라는 이름의 역(驛)이다. 그러한 추정(推定)의 실마리가 지금의 창곡동(倉谷洞)노인(老人)들에게서도 확인(確認)되었다. 창곡동(倉谷洞)에 옛날에 울목참(栗木站)과 울목창(栗木倉)이 있었다는 것이다. 처음의 음촌참(陰村站)의 이름이 나중에는 울목참(栗木站)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특히 음촌(陰村)이라는 어원(語原)은 백제(百濟)때에 울리(栗里)소재 영장산(靈長山)에 있던 금강사(金剛寺)라는 절의 주지(住持)스님이 울리(栗里)의 모든 산(山)에 구황식품(救荒食品)으로 밤나무(栗木)를 심게 하였는데 밤이 너무도 잘되어 백제궁성(百濟宮城)남(南)쪽인 울리 일대(栗里 一帶)에서 기근(饑饉)이 사라지고 잘사는 마을이 되자 이웃마을들도 다투어 밤나무를 심었는데 영장산맥(靈長山脈)을 타고 울리(栗里)에서부터 이매(二梅), 야탑(野塔), 도촌(島村), 여수(麗水), 갈현(渴峴), 상(上), 하대원(下大院), 단대(丹垈), 금광(金光)리를 거쳐 탄리(炭里)와 수진(壽進), 복정(福井), 창곡리(倉谷里)까지, 영장산(靈長山)에서 성부산(星浮山)까지 계속 이어진 밤나무의 숲으로 그들이 많은 마을들이라서 통털어 울목음촌(栗木陰村)이라고 불렀는데 울목음촌(栗木陰村)에서 울목리(栗木里)와 음촌(陰村)말로 나뉘어져 불리면서 울목리(栗木里)로 불리워졌던 마을이 창곡리(倉谷里)였다고 한다. 특(特)히 창곡리(倉谷里)는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記錄)을 보면 백제초기(百濟初期)이던 온조왕(溫祚王)28년 2월에

아들인 다루(多婁)<sup>11)</sup>에게 세자책봉(世子冊封)을 하여주고는 곧 중앙(中央)과 지방(地方)의 군사업무(軍事業務)맡기었다는 기록(記錄)이 있는 이후(以後)에 병권(兵權)은 왕족(王族)이나 세자(世子)가 성장(成長)하면 세자(世子)에게 전(傳)해졌다는 것이 정설(定說)이고 여타(餘他)의 기록(記錄)에 나타난다. 기루왕(己婁王)27년(103)<sup>12)</sup>에 한산(漢山)에서 사냥(獵)하다가 신비(神秘)로운 사슴(鹿)을 잡았다는 기록(記錄)과, 개루왕(蓋婁王)4년(131년)에 한산(漢山)에서 사냥(獵)<sup>13)</sup>하였다는 기록(記錄), 그리고 구수왕(仇首王)이 8년(229)에 한수(漢水)서(西)쪽에서 크게 사열(查閱)하였다는 기록(記錄)이나 구수왕(仇首王)16년 10월에 한천(漢川)에서 사냥(獵)<sup>14)</sup>하였다는 기록(記錄)과 고이왕(古爾王)이 9년(242)<sup>15)</sup>7월에 한성서문(漢城西門)으로 나가서 활(弓)쏘는 것을 구경하였다는 기록(記錄)은 모두가 군사훈련(軍事訓練)과 연관(聯關)지어 생각하여야 할 기록(記錄)들이라고 볼 수 있다. 고이왕(古爾王)27년(260)<sup>16)</sup>때에 이르러서야 직제(職制)를 개편(改編)하였는데 위사좌평(衛士佐平)은 왕궁(王宮)을 지키는 군사업무(軍事業務)를 맡았고 병관좌평(兵官佐平)은 지방(地方)의 군사업무(軍事業務)를 맡겼다는 기록(記錄)만이 있을뿐 세자(世子)에게서 병권(兵權)을 거두었다는 기록(記錄)은 없는 것으로 보아 여전(如前)히 세자(世子)에게 총체적(總體的)인 병권(兵權)을 맡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초고왕(近肖古王)24년(369)<sup>17)</sup>에는 가을 9월에 고구려왕(高句麗王)사유(斯由, 古國原王)가 보병(步兵)과 기병(騎兵) 2만(萬)을 거느리고 치양(雉壤)에 와서 진(陣)을 치고는 군사(軍士)를 나누어 민가(民家)를 약탈(掠奪)하였다. 왕(王)이 태자(太子)를 보내 군사(軍士)를 거느리고 지름길로 치양(雉壤)에 이르러 고구려(高句麗)군사(軍士)를 급(急)히 쳐서 깨트리고 5천(千)여명(餘名)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는데 그 사로잡은 적(敵)들은 장수(將帥)와 군사(軍士)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겨울 11월에 한수이남(漢水以南)에서 크게 사열(查閱)하였는데 깃발은 모두 누른

- 
- 11)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券) 제(第)23 백제본기(百濟本紀) 제(第)1. 온조(溫祚)28년 봄 2월에… 기록(記錄).
  - 12)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券) 제(第)23 백제본기(百濟本紀) 제(第)1. 기루(己婁)27년 한산(漢山)… 기록(記錄).
  - 13)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券) 제(第)23 백제본기(百濟本紀) 제(第)1. 개루(蓋婁)4년 여름4월에… 기록(記錄).
  - 14)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券) 제(第)24 백제본기(百濟本紀) 제(第)2. 구수왕(仇首王)8년 5월 한수(漢水)서쪽에서 크게 사열…과 구수(仇首)16년 10월 한천(漢川)에서 사냥… (記錄).
  - 15) 상동(上同). 고이왕(古爾王)9년 7월 한성서문(漢城西門)으로 나가 활쏘는 것을… 기록(記錄).
  - 16) 상동(上同). 고이왕(古爾王)27년 봄 정월(正月)에 내신좌평(內臣佐平)을 두었는데… 기록(記錄).
  - 17) 근초고왕(近肖古王)24년 가을 9월에 고구려왕(高句麗王) 사유(斯由)가… 기록(記錄).

(黃)빛을 사용(使用)하였다는 기록(記錄)과 근초고왕(近肖古王)26년<sup>18)</sup> 겨울에 왕(王)이 태자(太子)와 함께 정예군사(精銳軍士)3만(萬)을 거느리고 고구려(高句麗)를 쳐들어가서 평양성(平壤城)을 공격(攻擊)하였다. 고구려(高句麗)왕(王) 사유(斯由. 故國原王)가 힘을 다하여 싸워 막았으나 빛나간 화살(弓矢)에 맞아 죽었다는 사기(史記)의 기록(記錄)은 더욱이 태자(太子)를 앞세워 장병(強兵)을 훈련(訓練)하고 변방(邊方)을 굳건히 하였고 급기(及其)야는 고구려(高句麗)를 침공(侵攻)하는데 태자(太子)를 중심(中心)으로 침략(侵略)에 성공(成功)한 실예(實例)의 기록(記錄)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신왕(阿莘王)6년(397)7월에 한산(漢山)에서 크게 사열(查閱)하였다는 기록(記錄)과 비유왕(毗有王)29년(455)에 한수(漢水)남(南)쪽에서 크게 사열(查閱)하였다는 기록(記錄)이 모두가 세자궁(世子宮)이 있던 창곡동(倉谷洞)일대를 중심(中心)으로 지금의 송파(松波)일대(一帶)에서 시작(始作)하여 성남시(城南市)분당구(盆唐區)궁내동(宮內洞)정부고속도로(京釜高速道路)를 게이트까지의 별관인 것으로 확실(確實)하게 평가(評價)할 수 있다. 그것은 개로왕(蓋鹵王)이 재위(在位)21년(475)에 고구려(高句麗)의 장수왕(長壽王)의 백제침공(百濟侵攻)을 위한 치밀(緻密)한 첩자(諜者)침투계획(浸透計劃)에 의(依)하여 첩자(諜者)를 침투(浸透)시켜 백제(百濟)를 멸망(滅亡)시키려는 망국계획(亡國計劃)에 개로왕(蓋鹵王)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고 결국(結局)에는 장수왕(長壽王)에게 침공(侵攻)을 받아 한성백제(漢城百濟)의 종말(終末)을 고(告)하는 참패(慘敗)를 맞보고 장수왕(長壽王)의 군사(軍士)들에게 잡혀서 아차산(阿且山) 아래서 무두시신(無頭屍身)으로 불귀(不歸)의 황천객(黃泉客)이 되었을 때에 아들 문주(文周)가 신라(新羅)로 구원병(救援兵)을 얻으러 간 사실(史實)에서도 백제(百濟)는 전통적(傳統的)으로 태자(太子)에게 군사업무(軍事業務)를 맡기어 왔다는 것을 정설(定說)로 믿을 수 있는 정황(情況)의 기록(記錄)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개로왕(蓋鹵王)21년<sup>19)</sup> 기록(記錄)을 보면,

『가을 9월에 거련(巨璉. 장수왕(長壽王))이 군사(軍士)3만(萬) 명(名)을 거느리고 와서 왕도(王都)한성(漢城)을 포위(包圍)하였다. 왕(王)은 성문(城門)을 닫고 능(能)히 나가싸우지 못하였다. 고구려인(高句麗人)이 군사(軍士)를 네길(四道)로 나누어 양(兩)쪽에서 공격(攻擊)하였고, 또 바람을 이용(利用)하여 불을 놓아 성문(城門)을 불태웠다. 이에 인심(人心)이 대단히

18)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券) 제(第) 24 백제본기(百濟本紀) 2. 근초고왕(近肖古王)26년 겨울에 왕(王)이 태자(太子)와 함께 정예군사(精銳軍士)삼만(三萬)을 거느리고… 기록(記錄),

19)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券) 제(第) 25 백제본기(百濟本紀) 3. 개로왕(蓋鹵王)21년 가을 구월(九月)에 … 기록(記錄).

불안(不安)해져서 혹(惑)나가서 항복(降伏)하려는 자도 있었다. 왕(王)은 곤궁(困窮)하여 어찌 할 바를 몰라 기병(騎兵)수십(數十)을 거느리고 성문(城門)을 나가 서(西)쪽으로 달아났다. 고구려인(高句麗人)이 쫓아가 살해(殺害)하였다.

이보다 앞서 고구려(高句麗)의 장수왕(長壽王)은 몰래 백제(百濟)를 도모(圖謀)하려 하여 백제(百濟)에서 간첩(間諜) 노릇을 할만한 자(者)를 널리 구(求)하였다. 이때에 승려(僧侶)도림(道琳)<sup>20)</sup>이 모집(募集)에 응(應)하여 말하였다. “어리석은 이 승려(僧侶)가 아직 도(道)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라의 은혜(恩惠)에 보답(報答)하고자 하옵니다. 원(願)컨대 대왕(大王)은 신(臣)을 어리석다 하지 마시고 지시(指示)하여 시키신다면 기약(既約)코 왕명(王命)을 욕(辱)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장수왕(長壽王)이 기뻐하여 비밀(秘密)리에 백제(百濟)를 속이게 하였다. 이에 도림(道琳)은 거짓으로 죄(罪)를 짓고 도망(逃亡)하여 온 것 같이하여 백제(百濟)로 들어왔다. 이때에 백제왕(百濟王) 근개루(近蓋婁, 개로왕(蓋鹵王)의 일명(一名))가 바둑(博)과 장기(將器)를 좋아 하였다. 도림(道琳)이 대궐(大闕)문에 나아가 고(告)하였다.

“신(臣)은 어려서 바둑을 배워 자못 신묘(神妙)한 경지(境地)에 들었습니다. 원(願)컨대 곁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니 왕(王)이 불러들여 바둑을 두어보니 과연(果然)국수(國手)였다. 드디어 그를 높여 상객(上客)으로 삼고 매우 친근(親近)히 지내면서 서로 만나기가 늦은 것을 한탄(恨歎)하였다. 도림(道琳)이 하루는 왕(王)을 모시고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하였다.

“신(臣)은 다른 나라 사람인데 상(上)께서 저를 멀리 하지 않으시고 은총(恩寵)을 매우 두터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한 가지 기술(技術)으로써 보답(報答)하였을 뿐 일찍이 털끝만한 도움을 드린 일이 없습니다. 지금 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상(上)의 뜻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왕(王)이 “말해보라, 만일 나라에 이(利)로움이 있다면 이는 선생(先生)에게 바라는 바이다.” 라고 말하였다. 도림(道琳)이 말하였다.

“대왕(大王)의 나라는 사방(四方)이 모두 산(山)과 구릉(丘陵)과 강(江)과 바다(海)입니다.

20)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券) 제(第) 25 백제본기(百濟本紀) 3. 개로왕(蓋鹵王) 21년 가을 구월(九月)중 도림(道琳). 고구려(高句麗)의 장수왕(長壽王)때의 승려(僧侶)로서 백제(百濟)의 내정(內情)을 정탐(偵探)하고 국력(國力)을 약화(弱化)시키기 위(爲)하여 자청(自請)하여 첩자(諜者)로 백제(百濟)에 들어가 바둑으로 개로왕(蓋鹵王)의 환심(歡心)을 사고 교묘(巧妙)한 감언이설(甘言利說)로 왕(王)에게 그럴듯한 진언(陳言)을 하여 국력(國力)을 낭비(浪費)하게 하여 소기(小幾)의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한 후에 고구려(高句麗)로 되돌아가 장수왕(長壽王)에게 고(告)하여 백제(百濟)를 침공(侵攻)하게 한 승려(僧侶)이다. 승려(僧侶)로서 자국(自國)의 이익(利益)을 위(爲)해 첩자(諜者)노릇을 한 사람은 신라(新羅)의 진흥왕(眞興王)때에 거칠부(居柒夫)가 승려(僧侶)로 고구려(高句麗)에 들어가 정탐(偵探)한 예(例)가 있다.

이는 하늘이 베푼 험(險)한 요새(要塞)요 사람의 힘으로 된 형국(形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방(四方)의 이웃나라들이 감(敢)히 엿볼 마음을 먹지 못하고 다만 받들어 섬기고자 하는데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上)께서는 마땅히 존귀(尊貴)하고 고상(高尚)한 위세(威勢)와 부강(富強)한 업적(業績)으로써 남(他)의 이목(耳目)을 두렵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곽(城郭)은 수선(修繕)되지 않았고 궁실(宮室)도 수리(修理)되지 않았으며, 선왕(先王)의 해골(骸骨)은 맨 땅에 임시(臨時)로 매장(埋葬)되어 있고 백성(百姓)의 집은 자주 강(江)물에 허물어지고 있으니 신(臣)은 대왕(大王)을 위(爲)해 찬성(贊成)할 수 없습니다” 하니 왕(王)이 “옳다 내가 장차(張次) 그렇게 하리라.” 고 말하였다. 이에 나라사람들을 모두 징발(徵發)하여 흙을 쪼서 성(城)을 쌓고 성안(城內)에는 궁실(宮室)과 누각(樓閣)과 대사(臺榭)등을 지었는데 웅장(雄壯)하고 화려(華麗)하지 않음이 없었다. 또 옥리하(郁里河, 한강(漢江)), 광개토대왕비(光開土大王碑)에는 아리수(阿利水)로 표기(表記)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곽(廓)을 만들어 부왕(父王)의 뼈를 장사(葬事)하고, 강(江)을 따라 제방(堤防)을 쌓았는데 사성(蛇城)동(東)쪽에서 숭산(崇山, 하남시(河南省)검단산(黔丹山))북(北)쪽에 까지 이르렀다. 이로 말미암아 창고(倉庫)가 텅 비고 백성(百姓)들이 곤궁(困窮)해져서 나라의 위태(危殆)로 움은 알(卵)을 쌓아 놓은 것보다 극심(極甚)하였다. 이에 도림(道琳)은 도망(逃亡)처 돌아와서 보고(報告)하니 장수왕(長壽王)이 기뻐하여 백제(百濟)를 치려고 군사(軍士)를 장수(帥臣)에게 내주었다.

개로왕(蓋鹵王)이 이를 듣고 아들 문주(文周, 이때에 문주(文周)는 상좌평(上佐平)을 겸(兼)한 태자(太子)의 위치(位置)에 있었다.)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리석고 밝지 못하여 간사(奸詐)한 사람의 말을 믿고 쫓다가 이 지경(地境)에 이르렀다. 백성(百姓)은 쇠잔(衰殘)하고 군사(軍士)는 약(弱)하니 비록 위태(危殆)로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기꺼이 나를 위(爲)하여 힘써 싸우겠는가? 나는 마땅히 사직(社稷)을 위하여 죽겠지만 내가 이곳에서 함께 죽는 것은 유익(有益)함이 없다. 어찌 난(亂)을 피(避)하여 나라의 계통(系統)을 잇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에 문주(文周)는 목갈(木鉞)을 채(採)어 백제(百濟)의 성씨(姓氏)중에 하나인 목라(木羅氏)에서 분파(分派)된 성(姓)으로 알려져 있음)와 조미갈취(祖彌桀取, 백제(百濟)의 대성(大姓)인데 조미(祖彌)로도 불린다)와 함께 남(南)쪽으로 갔다.

이때에 이르러 고구려(高句麗)의 대로(對廬)인 제우(齊于), 재증갈루(再曾桀婁)와 고이만년(古爾萬年)등이 군사(軍士)를 거느리고 와서 북성(北城)을 공격하여 7일 만에 함락(陷落)시키고 남성(南城)으로 옮겨 공격(攻擊)하였다. 성안(城內)은 위태(危殆)롭고 두려움에 떨었다. 왕(王)이 성(城)을 나가 도망(逃亡)하자 고구려(高句麗)의 장수(將帥)갈루(桀婁)등은 왕(王)을

보고는 말에서 내려 절한 다음에 왕(王)의 얼굴을 향(向)하여 세 번 침을 뱉고는 그 죄(罪)를 꾸짖었다. 그리고는 왕(王)을 포박(捕縛)하여 아차성(阿且城)아래로 보내 죽였다. 걸루(桀婁)와 만년(萬年)은 백제(百濟)사람이었는데 죄(罪)를 짓고는 고구려(高句麗)로 도망(逃亡)하였다. 라는 한성백제(漢城百濟)의 멸망(滅亡)의 기록(記錄)을 보면서 한 나라의 왕(王)이 이처럼 어리석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과 백제(百濟)의 신료(臣僚)중에는 첩자(諜者)를 의심(疑心)해 볼 수 있는 혜안(慧眼)이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음에 이어지는 문주왕(文周王)편(偏)<sup>21)</sup>에 보면 문주왕(文周王)혹은 문주(文洲)라고도 썼다. 왕(王)은 개로왕(蓋鹵王)의 아들이다 처음 비유왕(毗有王)이 죽고 개로(蓋怒)가 왕위(王位)를 잇자 문주(文周)는 그를 보필(輔弼)하여 지위(地位)가 상좌평(上佐平)에 이르렀다 개로(蓋鹵)가 재위(在位)한지 21년에 고구려(高句麗)가 쳐들어 와서 한성(漢城)을 에워쌌다. 개로(蓋鹵)는 성문(城門)을 닫고 스스로 굳게 지키면서 문주(文周)로 하여금 신라(新羅)에 구원(救援)을 요청(要請)하게 하였다. 문주(文周)가 신라(新羅)에 가서 원군(援軍)을 1만명(萬名)을 얻어 돌아오니 고구려(高句麗)군사(軍士)는 물러갔지만 성(城)은 파괴(破壞)되고 왕(王)은 죽었으므로 드디어 왕위(王位)에 올랐다. 왕(王)은 성품(性稟)이 부드럽고 결단력(決斷力)이 없었으나 또한 백성(百姓)을 사랑하였으므로 백성(百姓)들도 그를 사랑하였다. 겨울(475)10월에 서울을 웅진(熊津)으로 옮겼다. 라는 기록(記錄)으로도 태자(太子)이던 문주(文周)가 군사(軍事)의 대권(大權)을 쥐고 있었음이 표출(表出)되는 구절(句節)이라고 볼 수 있다. 다루(多婁)에서 시작(始作)되어 문주(文周)까지 이어지는 태자(太子)들이 세자궁(世子宮)거처(居處)하며 군사(軍士)를 훈련(訓練)시키고 사기(士氣)를 진작(振作)시키면서 장졸(將卒)을 독려(督勵)하던 세자궁(世子宮)이 있었던 이곳에 군사업무(軍事業務)에 꼭 필요(必要)한 역참(驛站)이 없었을 리 만무(萬無)하지 않은가?

이 지역(地域)은 수많은 전란(戰亂)을 치른 흔적(痕迹)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신라(新羅)의 승려(僧侶)이던 거칠부(居柒夫)에 대한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記錄)<sup>22)</sup>을 소개(紹介)한다.

거칠부(居柒夫) 혹(或)은 황종(荒宗)이라고도 하였다. 성(姓)이 김씨(金氏)이며 나물왕(那勿王)의 오대손(五代孫)이다. 그의 할아버지는 각간(角干) 잉숙(仍宿)이고 아버지는 이찬(伊粲) 물력(勿力)이었다. 거칠부(居柒夫)는 젊었을 때에 사소(些少)한일에 거리끼지 않았고 원대(遠

21)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券) 제(第) 26 백제본기(百濟本紀) 제(第) 4. 문주왕(文周王)의 총록(總錄)의 기록(記錄).

22)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券) 제(第) 44 열전(列傳) 제(第)4-거칠부(居柒夫)의 기록(記錄)



大)한 뜻을 품어 머리를 깎고 승려(僧侶)가 되어 사방(四方)으로 돌아다니며 구경하였다. 문득 고구려(高句麗)를 정찰(偵察)하려고 그 땅에 들어갔다. 법사(法師)혜량(惠亮)이 절을 개창(改創)하여 불경(佛經)을 설법(說法)한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그곳에 나아가 강경(講經)을 들었다. 어느 날 혜량(惠亮)이 문기를 “사미(沙彌)는 어디서 왔는가?” 하므로 “저는 신라(新羅)사람입니다.” 라고 대답(對答)하였다. 그날 저녁에 법사(法師)가 그를 불러 만나니 손을 잡으며 은밀(隱密)히 말하였다.

“내가 많은 사람을 보았는데 자네 용모(容貌)를 보니 분명(分明)보통(普通)사람이 아니다. 아마 다른 마음을 가졌지?” 하므로, 이에 대답(對答)하였다.

“저는 변방(邊方)에서 태어나 아직껏 불도(佛道)의 원리(原理)를 듣지 못 하였습니다. 법사(法師)님의 덕망(德望)과 명성(名聲)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자 왔으니 법사(法師)님께서 거절(拒絶)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리석음을 깨우쳐주소서.” 하니

법사(法師)가 말하였다.

“노승(老僧)은 불민(不敏)한대도 능(能)히 그대를 알아볼 수 있는데, 이 나라는 비록 작지만 사람을 알아보는 자(者)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대가 잡힐까 염려(念慮)하여 은밀(隱密)히 충고(忠告)하여주는 것이니 빨리 돌아감이 좋을듯하다.” 고 하여 거칠부(居柒夫)가 돌아가려할 때 법사(法師)가 또 말하기를,

“그대의 상(像)을 보니 제비턱에 매의 눈이라 장래(將來)반드시 장수(將帥)가 될 것이다. 만일(萬一)군사(軍士)를 거느리고 오거든 나를 해(害)치지 말라.” 고 하였다.

거칠부(居柒夫)가 말하기를 “만일(萬一)법사(法師)님의 말씀과 같이 법사(法師)님과 즐거움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저 밝은 해를 두고 맹세(盟誓)하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환국(還國)하여 관직(官職)에 나아갔는데 직위(職位)가 대아찬(大阿粲)에 이르렀다.

진흥대왕(眞興大王)6년 을축(545)에는 왕명(王命)을 받아 여러 문사(文士)들을 모아 국사(國史)를 편찬(編纂)하였고, 파진찬(波珍粲)으로 승진(陞進)하였다.

진흥대왕(眞興大王)12년 신미(辛未. 551)에 왕(王)이 거칠부(居柒夫)와 대각찬(大角粲)구진(仇珍), 각찬(角粲)비태(比台), 잡찬(咎粲)탐지(耽知), 잡찬(咎粲)비서(非西), 파진찬(波珍粲)노부(奴夫), 대아찬(大牙粲)비차부(比次夫), 아찬(牙粲)미진부(未珍夫)등 여덟 장군(將軍)에게 명(命)하여 백제(百濟)와 더불어 고구려(高句麗)를 침공(侵攻)케 하였다. 백제(百濟)사람들이 먼저 평양(平壤)을 격파(擊破)하고 거칠부(居柒夫)등은 승리(勝利)의 기세(氣勢)를 타서 죽령(竹嶺. 태백산맥(太白山脈)중 제천(堤川)과 영주(榮州)사이에 있는 고개)바깥 고현(高峴. 신증동국여

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券)제(第)42. 곡산군(谷山郡)조(條)에 나오는 고달산(高達山)으로 추정(推定)되는 산(山)이내의 10군(郡)을 취(取)하였다. 이때 혜량법사(惠亮法師)가 자기(自己)의 무리를 이끌고 길거리로 나오니 거칠부(居柒夫)가 말에서 내려 군례(軍禮)로 인사(人事)를 올리고 앞으로 나가 말하기를

“전일(前日)유학(留學)할 때 법사(法師)님의 은혜(恩惠)를 입어 생명(生命)을 보전(保全)하였는데, 지금 뜻밖에 서로 만나니 어떻게 보은(報恩)하여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고 하니 법사(法師)가 대답(對答)하였다.

“지금우리나라의 정치(政治)가 어지러워 멸망(滅亡)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바라건대 나를 그대 나라로 데려가기 바란다.”

이에 거칠부(居柒夫)가 수레에 태워 함께 돌아와서 왕(王)을 뵈게 하니, 왕(王)이 법사(法師)를 승통(僧統)으로 삼았다. 이때 비로 서 백좌강회(百座講會)와 팔관(八關)의 법(法)이 시작(始作)되었다. 진지왕(眞智王) 원년(元年)에 거칠부(居柒夫)는 상대등(上大等)이 되어 군사(軍事)와 국가(國家)의 중대(重大)한 일을 맡았다가 늙어 집에서 죽으니 향년(享年)78세(歲)였다. 라는 기록(記錄)도 막강(莫強)한 신라군사(新羅軍士)들의 행동반경(行動半徑)이 이곳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推定)할 수 있는 구절(句節)이다. 거칠부(居柒夫)가 죽령(竹嶺)에서 고현(高峴)까지를 장악(掌握)한 후 2년 뒤에는 진흥왕(眞興王)이 한수유역(漢水流域)을 전부(全部)신라(新羅)의 영토(領土)로 만들고 신주(新州)를 설치(設置)하고 김무력(金武力)을 군주(軍主)로 삼아 백제(百濟)의 구원행궁(丘園行宮)의 명칭(名稱)도 영락장생(永樂長生)이라는 단어(單語)에서 낙(樂)과 생(生)을 떼어서 낙생행궁(樂生行宮)으로 고치고 흥(興)에 겨워 춤을 추었다는 전설(傳說)이 있는 곳이다. 진흥왕(眞興王)은 삼국통일(三國統一)이나 자국(自國)의 국익(國益)과 안전(安全)을 위하여서는 최대의 전략적(戰略的)으로 꼭 필요(必要)하다는 생각에 의(依)하여 이곳을 취(取)하여 이 지역(地域)을 신라군(新羅軍)의 요충지(要衝地)로 만들었으니 역참(驛站)과 통신시설(通信施設)을 비롯한 군사시설(軍事施設)이나 백성(百姓)들이 왕래(往來)하며 이용(利用)할 편의시설(便宜施設)이 많이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이러한 정황(情況)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地域)에서 구전(口傳)으로 전(傳)하는 바에 의(依)하면 한성백제시대(漢城百濟時代)이전(以前)인 진한(辰韓)때부터 큰 역참(驛站)이 몇 곳에 있었던 것으로 전(傳)하여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전(口傳)을 믿어주려는 학자(學者)들의 움직임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狀況)이 계속(繼續)되고 있는 것은 학자(學

者들이 자신(自身)들의 전공(專功)에 속(屬)하는 논문(論文)을 쓰려고 할 때에도 정사(正史)나 여타논집(餘他論集)외(外)에는 접근(接近)하려는 의도(意圖)가 부족(不足)한 이유(理由)와 구전(口傳)은 그저 구전(口傳)일 뿐이라는 사고방식(思考方式)과 학계(學界)의 구전(口傳)불신풍조(不信風潮)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재(丹齋)신채호(辛彩浩)선생(先生)이 중간서(重刊序)를 쓰신 내용(內容)과 대조영(大祚榮)의 아우이고 반안군주(盤安郡主)인 대야발(大野勃)이 칙명(勅命)을 받들어 천하(天下)를 누비면서 고사(古事)와 구전(口傳)과 역사(歷史)를 총정리(總整理)하여 쓴 단기고사(檀奇古史)의 서문(序文)<sup>23)</sup>이나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발문(跋文)<sup>24)</sup>을 읽어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책(歷史冊)이란 역사책(歷史冊)은 중국(中國)의 역대

23) 단가고사재편서(檀奇古史再編序). 신(臣)은 복유(伏惟)컨대 당장(唐將)소정방(蘇定方)과 설인귀(薛仁貴)를 지극(至極)히 원한(怨恨)하는 이유(理由)는 백제(百濟)와 고구려(高句麗)를 습멸(襲滅)할 시(時)에 그 국서고(國書庫)를 파(破)하고 단기고사(檀奇古史)와 고구려(高句麗), 백제사(百濟史)를 전부분소(全部焚燒)한 까닭입니다. 신(臣)이 다시 고대사(古代史)를 편집(編輯)코저 하여 제자(諸子)의 중설(衆說)과 백가(百家)의 사기(史記)를 참고(參考)하여 그 윤곽(輪廓)은 획정(劃定)하였습니다. 오직 성장기하(聖上基下)는 천생(天生)의 영자(英姿)로서 단기(檀奇)의 계통(系統)을 소(紹)하사 이미 천하(天下)를 존정(尊定)하시고 이에 황상(黃裳)을 수(垂)하시며 천훈(天訓)의 경급(瓊發)과 신한(宸翰)의 보찬(寶贊)을 봉집(奉集)하실제 신(臣)에게 칙(勅)을 하(下)하사 서(序)를 제(題)하라 하시고 시년(是年)에 또 조칙(詔勅)이 유(有)하사 단기고사(檀奇古史)를 편찬(編纂)하라 하시니 신(臣)은 황공(惶恐)히 봉칙(奉勅)하옵고 사해(四海)의 산사(散史)를 수집(蒐集)하며 제자(諸子)의 사평(史評)을 참고(參考)하여 의(疑)는 삭(削)하고 실사(實事)는 필(筆)하여 십유삼년(十有三年)에 비로서 성편(成篇)하였으니 오호(嗚呼)라 차서(此書)가 어찌 우연(偶然)히 되었으리오. 대개 신조단제(神祖檀帝)와 기자(奇子)로부터 고구려(高句麗)에 지(至)하도록 성자신손(聖子神孫)이 계계승승(繼繼承承)하사 만세일통(萬世一統)으로 혁혁(赫赫)하게 성조(聖朝)에 지(至)하기까지 신정일체(神政一體)로서 천하(天下)를 치(治)하는 대경대법(大經大法)이 차제(次齊)에 재(載)하여 찬연(燦然)히 세상(世上)에 명랑(明朗)케 되니 천견(淺見)과 천식(淺識)으로서 가(可)히 은오(蘊奧)를 발견(發見)키 난(難)하도다. 대저 신조단제(神祖檀帝)는 천하(天下)의 대성(大聖)으로서 천하(天下)의 대도(大道)를 수(修)하시며 천하(天下)의 대정(大政)을 행(行)하사 천하(天下)의 대심(大心)을 득(得)하였으니 그 심(心)을 득(得)하고 연구(研究)하면 대도(大道)와 대정(大政)을 또한 가(可)히 언명(言明)하리로다. 대개 인(人)과 물(物)이 같이 삼진(三眞)을 수(受)하였으니 이는 성(性)과 명(命)과 정(精)인데 진성(眞性)은 선악(善惡)이 무(無)하고 진명(眞命)은 청탁(淸濁)이 무(無)하고 진정(眞精)은 후박(厚薄)이 무(無)한지라. 그러나 중인(衆人)이 서로 혼미(昏迷)하고 허망(虛妄)함으로 단군(檀君)께서 이에 천하(天下)의 대도(大道)로서 극(極)을 건(建)하시고 교(教)를 수(垂)하시사 망(妄)을 반(返)케 하여 진(眞)에 귀(歸)케 하시니 군생(羣生)이 집화(接化)되며 구족(九族)이 화합(和合)하여 모든 상서(祥瑞)가 보천(普天)에 현(現)하며 광명(光明)이 대지(大地)에 휘(輝)하니 실(實)로 만고무疆(萬古無疆)의 경행(慶幸)이로다. 신(臣)이 칙명(勅命)을 봉(奉)한지 십유삼년(十有三年)에 주야(晝夜)로 우구(憂懼)하며 부탁(付託)이 무효(無效)될까 공(恐)하여 각지(各地)에 윤회(輪廻) 석실장서(石室藏書)와 고비(古碑)와 산사(散史)를 참고(參考)하다가 왕년(往年)에 돌궐국(突厥國. 土耳其)까지 재입(再入)하여 고적(古蹟)을 탐사(探索)하여 차서(此書)를 저술(著述)하여 원본(原本)은 봉정(奉呈)하여 목판(木板)에 각(刻)하여 국서고(國書庫)에 장(藏)하고 또 등본(謄本)으로서 국민(國民)을 교수(教授)하여서 국민(國民)의 역사지식(歷史知識)의 만분(萬分)의 일(一)을 조력(助力)하나이다. 天統 三十一年 三月 三日 盤安郡主 臣 野勃 奉勅 謹序.

강국(歷代強國)들에게 침략(侵略)을 당하여 패전(敗戰)할 때마다 침략국(侵略國)은 우리의 역사책(歷史冊)을 모두 거두어 불태웠다는 사실(史實)과 시대적(時代的)으로 역사(歷史)를 소홀(疎忽)히 하여 역사책(歷史冊)이 제대로 보존(保存)되지 못하여 글을 읽는 선비들조차도 책(冊)한권을 제대로 지니지 못한 안타까웠던 사실(史實)이 전(傳)해오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세계각국(世界各國)의 공통(共通)된 아픔이 전란(戰亂)으로 인(因)한 피해(被害)중에 가장 큰 피해(弊害)가 패전국(敗戰國)역사(歷史)를 없애기 위(爲)하여 역사책(歷史冊)을 모두 불태운 일이라는 것이 패전(敗戰)을 경험(經驗)한 각국(各國)마다 각인(刻印)되어 있음을 상기(想起)할 때에 구전(口傳)을 신뢰(信賴)하는 풍조(風潮)가 한시바빠 자리 잡아야 되겠고 구전(口傳)에 의(依)하여서도 문화유적(文化遺跡)의 발굴(發掘)이 이루어져 찬란(燦爛)한 민족문화유적(民族文化遺跡)의 재현(再現)을 이룸으로서 영원(永遠)하게 후손만대(後孫萬代)에 길이 빛나는 전통(傳統)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율목참(栗木站)은 발소(撥所)와 주막(酒幕)을 갖춘 교통(交通)의 요충지(要衝地)였는데, 음촌발소(陰村撥所)에 발장(撥將)1명과 군졸(軍卒)2명이 배속(配屬)되어 근무(勤務)하였다. 발장(撥長)의 임무(任務)는 역마(驛馬)의 이용권(利用券)을 발급(發給)하고 타(他)지역(地域)에서 올라오는 역마이용자(驛馬利用者)들의 발권(發券)을 확인감독(確認監督)하고 진위(眞僞)를 규찰(糾察)하는 막강(莫強)한 권한(權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직급(職級)이었기에 고위(高位)관료(官僚)나 상위계급신분(上位階級身分)의 고급장교(高級將校)이상(以上)의 계급자(階級者)나 장군(將軍)들에게는 나약(懦弱)할 수밖에 없는 신분상(身分上)의 역학적(力學的) 괴리(乖離)를 지닌 채 근무(勤務)할 수밖에 없는 상황(狀況)이었다.

발장(撥將)은 남한산성(南漢山城)내의 비교적 계급(階級)이 낮은 장교(將校)중에서 차출(差出)파견(派遣)되어 근무(勤務)하였는데 경기감영(京畿監營)에서 월급(月給)과 근무수당(勤務手當)이 주어졌다고 한다.

이곳에서의 역로(驛路)는 동(東)으로는 이보치(利保峙)를 거쳐 목감주막(木甘酒幕)을 지나

24) 삼국사기(三國史記)부(付)1. 발문(跋文). 삼국사인본지재거림자(三國史印本之在遽林者). 세구이민(歲久而泯)세이사본행(世以寫本行)안렴사심공효생득일본(安廉使沈公孝生得一本)여전부사진공의귀(與前府使陳公義貴)도소이간행(圖所以刊行)여계유칠월(於癸酉七月)하첨우부(下牒于府)팔월십십제재(八月始十諸梓)미기이공견대(未幾二公見代)여이기년동시월지부(余以其年冬十月至府)승관찰사민공지명(承觀察使閔公之命)인계기지내조지시영(因繼其志乃助之施命)공불단수(工不斷手)지감술하사월고성(至甲戌夏四月告成)오호(嗚呼)지휘능사(指揮能事)이지어성(以至於成)유삼공시뢰(惟三公是賴)여하역지유언(余何力之有焉)단구사지종시(但其事之終始)서우권미이(書于券末耳)부사가선대부김거두(府使嘉善大夫金居斗)발(跋)

경안역(京安驛)으로 가거나, 갈마치(渴馬峙)를 거쳐 경안역(京安驛)을 지나서 양평(楊平)으로 가고, 이천(利川)과 여주(驪州)를 지나서 충청도(忠淸道)와 경상도(慶尙道)로 가거나 여주(驪州)에서 강원도로 가는 길이 연결되어있다. 또 처인(處仁)을 지나 용인(龍仁)김량장으로 해서 안성(安城)을 지나 천안(天安)으로 연결(連結)되어 영호남(嶺湖南)으로 연결(連結)되는 역로(驛路)가 있다.

서로(西路)로는 대왕면(大旺面)에 있던 울현점(栗峴店)을 지나서 신원역(新院驛)을 거쳐 사평원(沙坪院)을 경유(經由)하여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수도(首都)인 한양(漢陽)으로 가는 길과 낙생역(樂生驛)을 지나 학(鶴)고개를 넘어서 안양(安養)이나 수원(水原)으로 가는 역로(驛路)를 따라가다가 호남(湖南)을 비롯한 삼남(三南)으로 가는 길과 인천방면(仁川方面)으로 가는 역로(驛路)와 합쳐질 수 있었다.

남로(南路)로는 낙생역(樂生驛)을 지나 용인(龍仁)으로 해서 삼남(三南)으로 가는 길과, 북로(北路)는 송파(松坡)를 지나서 광진(廣津)으로 가는 역로(驛路)가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남한산성(南漢山城)에 있던 수어사(守禦使)나 광주유수(廣州留守)와 절제사(節制使)의 관장(管掌)하에 근무(勤務)하였던 장병(將兵)들은 다른 참(站)보다 한층 엄정(嚴正)한 규율(規律)에 힘겨워 하였다고 구전(口傳)으로 전(傳)해온다.

### 3. 원(院)

원(院)은 역(驛)과 역 사이 중간지점(中間地點)에 설치(設置)하였던 숙박시설(宿泊施設)과 의료시설(醫療施設)의 역할(役割)을 하였던 것으로 전국적(全國的)으로는 1220개소의 원(院)이 있었다고 전(傳)해온다. 원(院)마다 원주(院主)가 있었으며 마부(馬夫)와 객사(客舍)를 관리(管理)하는 하인(下人)이 있었다. 관리(官吏)들이나 공무원자(公務者)들에게 숙식(宿食)을 포함한 여행(旅行)에 필요(必要)한 모든 편의(便宜)를 제공(提供)하였으며 때로는 병(病)든 자의 치료(治療)와 간호(看護)를 겸(兼)하였다.

그러므로 국가(國家)로부터 원주전(院主田)을 지원(支援)받아 원주전(院主田)에서 나오는 수확(收穫)으로 경비(經費)를 충당(充當)하였다.

그러나 원주전(院主田)의 수입(收入)만으로는 원(院)의 운영(運營)이 어려우므로 원주(院主)들이 사재(私財)를 털어 원(院)을 경영(經營)하였다. 그러나 흉년(凶年)이 들면 중앙정부

(中央政府)나 지방관아(地方官衙)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였으나, 부족(不足)한 재원(財源)으로 적자(赤字)에 허덕이다가 급기야는 폐원(閉院)이 되기가 일쑤였다.

## 1) 판교원(板橋院)

판교원(板橋院)은 지금의 낙생(樂生)지역(地域)인 분당구(盆唐區)판교동(板橋洞)에 있던 원(院)이다.

판교원(板橋院)은 조선개국초(朝鮮開國初)인 태조(太祖)5년(1396)<sup>25</sup>3월 4일에 윤안정(尹安鼎)이라는 사람이 자은종(慈恩宗)의 도승통(都僧統)종림(宗林)과 판교원(板橋院)을 짓고, 한양도성(漢陽都城)신축공사(新築工事)에 차출(差出)되어 부역(負役)에 동원(動員)된 사람들을 구휼(救恤)하기 시작한 것이 최초(最初)라고 한다. 성(城)쌓는 일에 차출(差出)되었다가 다쳤거나 병(病)이 들어 고향(故鄉)으로 돌아가야 하나 힘없는 자들을 치료(治療)하여주고 음식(飲食)을 나누어 주었으며 병(病)이 나아 고향(故鄉)으로 돌아 갈 때에는 식량(食糧)을 주어서 보냈다. 우의정(右議政)이던 김사형(金士衡)이 이러한 소식(消息)을 듣고 임금에게 아뢰니 임금이 미두(米豆)와 염장(鹽醬)을 내린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은 역사성(歷史性)이 있으며, 효녀(孝女)도리장(都里莊)<sup>26</sup>의 효행(孝行)의 기록도 전해온다. 도리장(都里莊)은 진원군(珍原郡. 光山, 長城, 靈光, 昌平사이에 있던 고을)의 백성(百姓)의 딸로 그 부친(父親)이 성(城)쌓는 역사(役事)에 갔다가 병(病)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통곡(慟哭)하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는 아무 형제(兄弟)도 없으니 내가 가서 보아야 혹시(或是)나 살아 돌아오실 것이다.”

하고는 남자의복(男子衣服)으로 바뀌 입고 당일(當日)로 길을 떠나 길가에서 병(病)들어 누워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꼭 들어가서 보았다. 판교원(板橋院)에 이르러 그 부친(父親)을 보게 되었는데, 병(病)이 위태(危殆)하므로 힘써 치료(治療)해서 부축(副軸)하고 고향(故鄉)에 돌아오니, 고향(故鄉)에서 효녀(孝女)라고 칭찬(稱讚)하였다. 이 소문(所聞)이 조정(朝廷)에

25)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태조(太祖)5년 3월 4일. 원전(原典)제(第)1집(集)90면(面). 자은종(慈恩宗) 도승통(都僧統)종림(宗林)과 전(前)판사(判事) 윤안정(尹安鼎)이 판교원(板橋院)이란 원집(院舍)을 지어 도성(都城)쌓는 인부(人夫)들의 병(病)을 치료(治療)하다.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26) 상동(上同)일시(日時) 동권동면(同券同面). 효녀(孝女)도리장(都里莊)에게 면포(棉布)를 내려준다.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까지 들리게 되어 왕명(王命)으로 도리장(都里莊)에게 면포(棉布)를 내려주었다. 하는 실록(實錄)의 기록(記錄)이 있다.

또 한 이야기는 태종(太宗)4년 12월 5일<sup>27)</sup>에 죽은 전조(前朝)의 강능대도호부사(江陵大都護府使)를 지낸 조운홀(趙云僉)이 신유(辛酉, 1381)에 물리가 광주(廣州)의 원강촌(垣江村)에 살면서 자은종(慈恩宗)종림(宗林)과 더불어 세속(世俗)을 떠나 교제(交際)하며 판교원(板橋院)과 사평원(沙坪院)을 중창(重創)하여 스스로를 원주(院主)라고 칭(稱)하였는데, 해진 옷을 입고 쫓신을 신고서 역도(役徒)들과 더불어 노고(勞苦)를 같이하니 지나가는 자가 그가 달관(達官)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는 기록이 있다. 위에 기록(記錄)이 상치(相馳)하는 것은 실록(實錄)에서 발취(拔萃)한 기록(記錄)인데 같은 년대(年代)의 사람들인 조운홀(趙云僉)과 윤안정(尹安鼎)중 누가 먼저 판교원(板橋院)을 중창(重創)하였느냐는 정리(整理)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지(諒知)하기 바란다.

조운홀(趙云僉)의 졸기(卒記)말미(末尾)에 있는 기록(記錄)을 적어본다.

『나이 73세에 병(病)으로 광주(廣州) 옛 원성(垣城)에서 종명(終命)하니 후손(後孫)이 없다. 일월(日月)로서 상여(喪輿)의 구슬을 삼고 청풍(淸風)과 명월(明月)로서 전(奠)을 삼아 옛 양주(楊州)아차산(峨嵋山)남쪽 마하야(摩河耶)에 장사(葬事)지냈다. 공자는(孔子)는 행단(杏壇)의 위요, 석가(釋迦)는 사라쌍수(紗羅雙樹)아래였으니, 고금(古今)의 성현(聖賢)이 어찌 독존(獨存)하는 자가 있으리요! 아아! 인생사(人生事)끝났도다.』

하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경악감탄(驚愕感歎)할 진기록(珍記錄)이다. 조운홀(趙云僉)은 이토록 아름다운 미사려구(美辭麗句)의 찬사(讚辭)를 받으며 세상(世上)을 떠났다. 그는 언제나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자신(自身)은 항상(恒常) 겸허(謙虛)하여 군림(君臨)하지 않으면서도 남을 위(爲)하고 자신(自身)을 낮추는 인간(人間)됨을 죽어서도 높이 평가(評價)받고 있는 것이다. 윤안정(尹安鼎)이 개설(開設)하여 경영난(經營難)에 빠져 퇴락(頹落)한 판교원(板橋院)을 중창(重創)하였는지 조운홀(趙云僉)이 먼저 판교원(板橋院)을 창사(創舍)하였는지는 실록(實錄)의 기록(記錄)만 으로는 고려말(高麗末)에서 조선개국초(朝鮮開國初)시대(時代)의 사람들이므로 건립년대(建立年代)의 선후(先後)를 알 길이 없으나 도성축성(都城築城)을 위(爲)해 삼남(三南)에서 차출(差出)되어 지나다니는 피로(疲勞)하

27)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태종(太宗)4년 12월 5일 원전(原典) 제(第)1집(集)316면(面). 검교정당문학(檢校政堂文學)조운홀(趙云僉)의 졸기(卒記)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기록)

고 지친 이들의 안식처(安息處)를 제공(提供)하였고, 아무런 욕심(慾心)없이 살다가 자연(自然)으로 돌아간 대쪽같은 선비정신(精神)과 자신(自身)을 희생(犧牲)하며 펼친 사랑과 봉사정신(奉仕精神)은 이 시대(時代)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본 받아야 할 것이다. 조운홀(趙云仵)에 관(關)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記錄)이 더 있기에 소개(紹介)한다. 선조(宣祖)32년 4월 25일<sup>28)</sup> 충무공(忠武公)이순신(李舜臣)의 사당(祠堂)을 세우는 논의과정(論議過程)에서 강릉(江陵)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를 지낸 고려(高麗)때의 안종원(安宗源), 조운홀(趙云仵)과 신유천(辛有天), 유양(柳亮)등은 생사당(生祠堂)을 지었다는 기록(記錄)과 정조(正祖)17년 4월 29일<sup>29)</sup> 장연(長淵)의 대청도(大靑島)소청도(小靑島)에 백성(百姓)을 모아 농사(農事)를 짓게 하다. 라는 제하(題下)의 글에서 고려(高麗)때 조운홀(趙云仵)은 대청(大靑)과 소청(小靑)등의 섬(島)은 모두 비옥(肥沃)한 땅과 고기를 잡고 소금(鹽)을 굽는 이익(利益)이 있다. 하였다. 라는 기록(記錄)이다. 두개의 기록(記錄)모두가 조운홀(趙云仵)이라는 관리(官吏)가 얼마나 민심(民心)의 동향(動向)을 예리(銳利)하게 파악(把握)하고 그들과 생사고락(生死苦樂)을 같이 하여 따르는 백성(百姓)들을 감동(感動)시켰으면 생사당(生祠堂)을 지어 주었겠느냐? 하는 것이며 비록 작은 섬의 몇 명밖에 안되는 백성(百姓)들의 생활(生活)일망정 손바닥 보듯 하였겠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재삼(再三)강조(強調)하여야 할 것은 이처럼 고역(苦役)을 겪는 사람들을 위하여 권력(權力)이 있거나 재력(財力)이 있는 사람 등의 힘 있는 사람들이 다투어 가며 아낌없이 사재(私財)를 털어 구휼(救恤)하였던 곳이 판교원(板橋院)이고 지역주민(地域住民)들은 그들의 정신(精神)을 이행호시(履行嚆矢)하였던 곳이 었다는 사실(事實)이다.

## 2) 대야원(大也院)

대야원(大也院)은 지금의 상대원동(上大院洞)과 하대원동(下大院洞)일대(一帶)에 있던 원(院)이다. 대야원(大也院)은 세종대왕(世宗大王)이 다녀가신 기록(記錄)이 실록(實錄)에 남아

28)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선조(宣祖) 32년 4월 25일. 원전(原典) 제(第) 23집(集) 605면(面). 홍문관(弘文館)이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사당(祠堂)을 세우는 일에 관(關)해 아뢰다.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29)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정조(正祖)17년 4월 29일. 원전(原典) 제(第) 46집(集) 385면(面). 장연(長淵)의 대청도(大靑島), 소청도(小靑島)에 백성(百姓)을 모아 농사(農事)를 짓게 하다.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있는 유서(由緒)깊은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보면 경기도(京畿道)광주목(廣州牧)역원(驛院)편에는 대야원(大也院)재주(在州)남(南)삼십리(三十里)<sup>30)</sup>라고 기술(記述)되어 있다.

이곳의 역로(驛路)는 동로(東路)로 광주(廣州)를 경유(經由)하면 이천(利川)과 여주(驪州)를 거쳐 강원도(江原道)나 경북(慶北)지방으로 가게 되고, 서로(西路)는 울현점(栗峴店)을 지나 신원역(新院驛)을 경유하여 과천(果川)으로 가는 길과 낙생역(樂生驛)을 거쳐 학(鶴)고개를 넘어 안양(安養)이나 수원(水原)으로 하여 삼남(三南)으로 가거나 낙생역(樂生驛)에서 곧바로 용인(龍仁) 풍덕천(豐德川)을 거쳐 수원(水原)을 지나 삼남(三南)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 남로(南路)는 추현(秋峴)을 지나서 용인(龍仁)의 처인(處仁)으로 하여 삼남(三南)으로 통(通)하였고, 북로(北路)는 음촌참(陰村站)을 지나거나 수진리(壽進里)를 경유(經由)하여 송파(松坡)로 광진(廣津)으로 해서 한양(漢陽)으로 연결(連結)하여 북삼도(北三道)로 가게 되어 있다.

세종(世宗)13년 2월 21일 실록(實錄)<sup>31)</sup>에

“낮참에 대야원(大也院)에서 머물렀다. 중궁(中宮)과 성비전(成妃殿) 그리고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에서 풍정(諷呈)을 올리니 임금이 사람과 말이 많이 죽은 것을 생각하고 잠깐 듣고 곧 철거(撤去)하게 하였다.” 하는 실록(實錄)과,

세종(世宗)24년 4월 22일<sup>32)</sup>에는

“거가(車駕)가 대야원(大也院)에 이르러 주정(晝停)하고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윤형(尹炯)과 경력(經歷)조자(趙孜)에게 의복(衣服)을 각기 한 벌씩 내렸다. 좌찬성(左贊成)하연(河演)예조참판(禮曹參判)이선(李宣)병조참판(兵曹參判)신인손(辛引孫)과 서울에 남아있던 승지(承旨)등이 와서 알현(謁見)하였다. 거가(車駕)가 서울로 돌아와서 금성대군(錦城大君)의 사

30)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券)육(六)119쪽. 광주(廣州)역원(驛院)재주(在州)남(南)삼십리(三十里).

31)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종(世宗) 13년 2월 21일. 원전(原典) 제(第) 3집(集) 295면(面). 낮참에 대야원에서 머무른다.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32)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종(世宗) 24년 4월 22일. 원전(原典) 제(第) 4집(集) 408면(面). 대야원(大也院)에서 주정(晝停)하고 서울에 와서 금성대군(金星大君) 사저(私邸)에 거처(居處)하다.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저(私邸)에 거처(居處)하였으니 이는 대궐(大闕)안에 병(病)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는 신록(實錄)의 기록(記錄)이 있는데, 대야원(大也院)에서 세종(世宗)의 행차(行次)가 두 번이나 주정(晝停)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記錄)등을 상고(詳考)하여보면 작은 규모(規模)의 원(院)은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

세조(世祖)4년 윤(閏)2월 7일 기록(記錄)<sup>33)</sup>에는,

“좌찬성(左贊成)신숙주(申叔舟), 병조판서(兵曹判書)홍달손(洪達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양정(楊汀)을 주장(主將)으로 삼아 대야원(大也院)들에서 습진(習陣)하였다. 선전관(宣傳官)권절(權節)에게 명하여 선온어육(宣醢魚肉)을 가지고 가서 위로(慰勞)케 하고, 아울러 여러 장수(將帥)와 군사(軍士)들도 공궤(供饋)하게 하였다.” 라는 기록(記錄)이 대야원(大也院)의 중요성(重要性)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 4. 봉수(烽燧)

### ◎천림산봉수(天臨山烽燧)

#### 1) 개념(概念)

봉수는 봉(烽, 햇불)과 수(燧, 연기)로 위급(危急)한 소식(消息)을 전하던 통신제도(通信制度)이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불을 피우나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信號)하는 전 근대국가(近代國家)에서는 가장 중요(重要)하고 보편적(普遍的)인 통신수단(通信手段)이었다. 역마(驛馬)를 달리거나 인편(人便)으로 뛰어 달려가 전(傳)하는 방법(方法)보다는 시간이 단축(短縮)되어 신속(迅速)하게 위난(危難)을 전달(傳達)하는 효용성(效用性)으로 변방(邊方)의 급박(急迫)한 상황(狀況)을 병부(兵部)에 알려주는 크나큰 역할(役割)을 하였다.

봉수(烽燧)는 국가(國家)의 위난(危難)때에 적(敵)들의 외침(外侵)을 중앙정부(中央政府)에

33)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조(世祖)4년 윤(閏) 2월 7일. 원전(原典) 7집(集) 258면(面). 좌찬성(左贊成)신숙주(申叔舟)등이 대야원(大也院)에서 습진(習陣)하자 선온(宣醢)과 어육(魚肉)을 내려공궤(供饋)하다.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알려 군사적(軍事的)대응(對應)을 신속(迅速)하게 하는 동시(同時)에 외교적(外交的) 대처능력(對處能力)을 가진 외교관(外交官)을 급파(急派)하여 해결(解決)하는 등, 정치(政治)와 군사적(軍事的)인 전달기능(傳達機能)을 목적(目的)으로 설치(設置)되었다.

## 2) 기원(紀元)

봉수(烽燧)의 대한 기록(記錄)은 중국(中國)에서는 주(周)나라 시대(時代)부터라고 한다. 전한(前漢)시대(時代)에도 봉수(烽燧)가 있었는데 점점 발달(發達)하여 당(唐)나라 시대에는 완전(完全)한 봉수제도(烽燧制度)가 정착(定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봉수제도(烽燧制度)의 도입(導入)은 언제인가? 하는 것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봉수(烽燧)에 관한 최초(最初)의 기록(記錄)은 가락국(駕洛國)의 수로왕(首露王)때부터 라고 한다.

“수로왕(首露王)이 유천간(留天干)을 시켜서 망산도(望山島) 앞바다에 나가 붉은 돛에 붉은 기를 단 배가 나타나거든 봉화(烽火)로써 통지(通知)하라”고 한 기록(記錄)이다.

또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백제(百濟)온조왕(溫祚王)10년 겨울 10월<sup>34)</sup>에 말갈(靺鞨)이 쳐들어와 군사(軍士)를 보냈으나 패(敗)하여 청목산(靑木山)을 의지(意志)하고 있을 때 왕(王)이 정예(精銳)기병(騎兵)100여명을 거느리고 봉현(烽峴)<sup>35)</sup>으로 나아가 구원(救援)하니 적(敵)이 곧 물러갔다. 라는 기록(記錄)에 나오는 봉현(烽峴)과 삼국사기(三國史記)기록(記錄) 중에 신라(新羅), 고구려(高句麗)등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봉산(烽山), 봉산성(烽山城)등도 봉화(烽火)를 올리던 산(山)으로 추정(推定) 할 수 있다. 기록(記錄)상으로 근대적(近代的)봉수제도(烽燧制度)의 정착(定着)은 고려(高麗)중기(中期)로 보아야 한다.

고려(高麗)인종(仁宗, 1123년-1146)때에 송(宋)나라 사신(使臣)서궁(徐兢)의 견문기(見聞記)인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봉수(烽燧)의 기록(記錄)이 있다.

“송(宋)나라 사신(使臣)들이 배를 타고 흑산도(黑山島)에 도착(到着)하면 언제나 야간(夜間)에는 항로(航路)의 주변(周邊)의 산정(山頂)봉수소(烽燧所)에서 불을 발견(發見)할 수 있

34)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券) 제(第)23 백제본기(百濟本紀) 제(第)1 시조 온조왕(始祖 溫祚王) 10년.

35)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명미상지(三國有名未詳地)에는 미상(未詳)으로 되어 있으나,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권(券)3. 마전(麻田) 및 연천(連川) 산수 조(山水 條)에 연천군(連川郡)왕징면(旺澄面) 일대(一帶)로 비정(比定)되어 있음.

었고 순차적(順次的)으로 불을 밝혀서 임금이 있는 왕성(王城)에까지 도착(到着)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記錄)은 흑산도(黑山島)에서 왕성(王城)인 개성(開城)까지 봉수(烽燧)가 연결(連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高麗) 의종(毅宗, 1149)3년<sup>36)</sup>에 봉화(烽火)를 올릴 때에 거화(舉火)의 수를 규정(規定)하고 봉수군(烽燧軍)에게 생활대책(生活對策)을 마련하여 주고 감독(監督)책임자(責任者)까지 배치(配置)한 사실(事實)을 서북면 병마사(西北面兵馬使)인 조진약(曹晉若)의 상소문(上疏文)에서 확인(確認)되고 있다.

의종(毅宗)때에 규정(規定)한 거화방법(舉火方法)은 평상시(平常時)에는 1거(舉), 사태(事態)가 험악(險惡)해지면 2거(舉), 적(敵)이 침입(侵入)하여 전투(戰鬪)가 시작(始作)될 듯하면 3거(舉), 적(敵)과 아군(我軍)이 접전(接戰)하여 전황(戰況)이 급박(急迫)할 때에는 4거(舉)를 거화(舉火)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봉수(烽燧)의 제도(制度)를 규정(規定)한 것은 성종(成宗)과 현종(玄宗)때에 편성(編成)되었을 것으로 추정(推定)할 수 있다. 그것은 고려(高麗)의 역제(驛制)가 성종(成宗), 현종(玄宗)때에 정비(整備)되었고 중앙집권제(中央集權制)가 정착(定着)된 시점(時點)과 일치(一致)하기 때문에 그 시기(時期)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한 봉수제도(烽燧制度)도 원(元)나라의 지배(支配)속에서는 원(元)의 봉수체계(烽燧體系)속으로 혼입(混入)되거나 흡수(吸收)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충정왕(忠定王)3년(1351)8월에 송악산(松嶽山)에 봉수소(烽燧所)를 설치(設置)하였다.<sup>37)</sup> 라는 기록(記錄)이 있는데 송악산(松嶽山)봉수소(烽燧所)에는 봉수(烽守)요원(要員)으로는 봉수(烽守)책임자(責任者)로 장교(將校)2인(人)과 부봉수(副烽守)에는 정교(正校)2인을 비롯한 간수군(看守軍)으로 총(總)33인이 배정(配定)되었다. 고 기록(記錄)되어 있다.

신우(辛禡, 禡王)3년에 개성부(開城府)에서 장(狀)을 올린 기록(記錄)에 의(依)하면 “산성(山城)은 서로 가까운 곳에 편의(便宜)함을 좇아 수즙(修葺)하고 봉수(烽燧)로 이를 서로 바라보게 하여 공전(攻戰)에 서로 구(救)하게 하는 것이 가(可)할까 할 것입니다.” 라는 기록(記錄)이 있는데 성(城)마다 봉수대(烽燧臺)가 설치(設置)되어 있었다는 사실(史實)이 확인(確認)되는 구절(句節)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歷史的)인 사실(史實)들을 재

36) 고려사(高麗史) 지(志) 35. 병(兵)/병제(兵制)/오군(五軍)② 의종(毅宗)3년 8월 조진약(曹晉若)의 상소(上疏)

37) 고려사(高麗史) 지(志) 35. 병(兵)/병제(兵制)/오군(五軍)② 충정왕(忠定王)3년 8월, 송악산(松嶽山)에 봉수소(烽燧所)를 설치(設置)하였다. 고 기록(記錄)되어 있음.

확인(再確認)하여서 정립(定立)하여야 할 과제(課題)인 것이다.

또한 내용은 신우(辛禍. 禍王)14년 8월에 헌사(憲司)가 상소(上疏)<sup>38)</sup>한 내용(內容)인데 수군 만호부로 하여금 성보(城堡)를 수립(修輯)하여 그 노약(老弱)은 둔주(屯駐)하게 하고 먼 곳에서 척후(斥候)하고 봉수(烽燧)를 신중(慎重)하게 하여 일이 없을 때에는 경운(耕耘), 어염(魚鹽), 주야(鑄冶)하여 먹이도록하고 때로 배를 만들어 적(敵)이 이르면 들을 비우고 성(城)에 들어가고 수군(水軍)이 배를 내어 이를 치게 하소서 합포(合浦)에서 의주(義州)에 이르기 까지 모두 이와 같이 하면 곧 수년(數年)을 지나지 아니하여 유망(有望)한 자(者)들이 모두 향읍(鄉邑)으로 돌아와 변방(邊方)의 주군(州郡)이 이미차고 여러 도(道)가 점차(點差)로 충실(充實)해 지고 전함(戰艦)이 많아지고 수군(水軍)이 훈련(訓練)하게 되면 왜적(倭敵)이 도망(逃亡)가면 변군(邊軍)이 편안(便安)하여 조운(漕運)이 용이(用利)하여 경성(京城)이 부유(富裕)하여 질것입니다. 라는 기록(記錄)은 봉수군(烽燧軍)의 일상생활(日常生活)의 변화(變化)를 시도(試圖)하고 있으며 전술(戰術)이 가미(加味)된 기록(記錄)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봉수제도(烽燧制度)가 이어져 오다가 조선(朝鮮)개국(開國)이후(以後)에는 봉수(烽燧)의 중요성(重要性)을 한층 더 인식(認識)하게 되어 세종(世宗)1년 5월 26일<sup>39)</sup> 실록(實錄)의 기록(記錄)에 의(依)하면 무사(無事)하면 1번을 들게 하고, 유사(有事)하면 2번을 들게 하였으나, 지금부터는 왜적(倭賊)이 해중(海中)에 있으면 봉화(를 2번 들고, 근경(近境)에 오거든 3번을 들것이며, 병선(兵船)이 서로 싸울 때에는 4번을 들게 하고, 하륙(下陸)을 하게 되면 5번을 들것이고, 만일 육지(陸地)에서 적변(賊變)이 일어날 때는 지경(地境)밖에 있으면 2번, 지경(地境)에서 가까운 거리이면 3번, 지경(地境)을 범(汎)하면 4번, 맞붙어 싸우면 5번을 들게 하되 낮에는 연기(燧)로 대신하되 정신(精神) 차려 바라보지 아니한 봉화간(烽火干)이나 그곳의 관사(官司)는 처벌(處罰)을 하게 하도록 하니 상왕(上王)이 그대로 따랐다. 는 기록(記錄)이다. 그러다가 더욱 적극적(積極的)인 개혁(改革)에 들어가 세종(世宗)5년 2월 26일에 목멱산(木覓山. 지금의 南山)에 봉화(烽火)를 설치(設置)<sup>40)</sup>하였는데 동(東)쪽의 제(第)1봉화(烽火)는 명철방(明哲坊)의 동원령(洞源嶺)에 있는데 양주(楊州)아차산(峨嵯山)의 봉화(烽火)와

38) 고려사(高麗史)지(志)36. 병(兵)/성보(城堡) 신우(辛禍)3년 8월. 개성부(開城府)에서 장(狀)을 올려 말하기를...

39)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세종(世宗)1년 5월 26일. 원전(原典)제(第)2집(集)318면(面). 병조(兵曹)에서 왜적(倭敵)의 침입(侵入)에 대비(對備)하여 봉화(烽火)하는 방법(方法)에 대(對)해 아뢰다.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4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세종(世宗)5년 2월 26일 원전(原典)제(第)2집(集)528면(面). 남산(南山)에 봉화(烽火)를 설치(設置)하다.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서로 마주쳐 함길도(咸吉道)와 강원도(江原道)로부터 오게 되고, 제(第)2봉화(烽火)는 성명방(誠明坊)의 동원령(洞源嶺)에 있는데 광주(廣州)천천(穿川)의 봉화(烽火)와 서로 마주쳐 경상도(慶尙道)로부터 오게 되고, 제(第)3봉화(烽火)는 훈도방(薰陶坊)의 동원령(洞源嶺)에 있는데 무악(毋岳)동쪽 봉우리의 봉화(烽火)와 서로 마주쳐 평안도(平安道)로부터 오게 되고, 제(第)4봉화(烽火)는 명례방(明禮坊)의 동원령(洞源嶺)에 있는데 무악(毋岳)4봉(四峯)의 봉화(烽火)와 서로 마주쳐 평안도(平安道), 황해도(黃海道)의 바닷길(海路)로 오게 되고, 제(第)5봉화(烽火)는 호현방(好賢坊)의 동원령(洞源嶺)에 있는데 양주(楊州)개화봉(開和烽)의 봉화(烽火)와 서로 마주쳐 충청도(忠淸道), 전라도(全羅道)의 바닷길(海路)로 오게 됩니다. 라고 기록(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봉화(烽火)의 설치(設置)만으로는 봉화체계(烽火體系)를 운용(運用)하는데 상당한 문제점(問題點)을 안고 있어서 그 해결책(解決策)을 마련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時日)이 걸렸음을 알 수 있는 기록(記錄)들이다.

세종(歲終)21년 4월 26일 실록(實錄)<sup>41)</sup>의 기록(記錄)에는 사변(事變)이 있으면 신평(信砲) 신호를 알리는 대포(大砲)를 쏘아서 알리도록 한 기록(記錄)이 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면 알아듣지 못하므로 나무를 미리 쌓아 두었다가 신평(信砲)과 나무더미에 불을 붙여 알리는 방법(方法)을 정(定)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많은 봉화소(烽火所)의 담당관리(擔當官吏)이하 (以下)감고(監考)나 봉화간(烽火干)또는 일반병사(一般兵士)들이나 봉화소(烽火所)의 하인(下人)들이 규정(規定)을 제대로 숙지(熟知)하지 못하여 근무(勤務)의 효율성(效率性)이 떨어져서 상황(狀況)의 신속(迅速)한 전달체계(傳達體系)가 원숙(圓熟)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그 폐단(弊端)을 방지(防止)하기 위하여 세종(世宗)28년 10월 6일<sup>42)</sup>에 비책(秘策)을 만들었으니 연변(沿邊)의 연대(煙臺)1소(所)에는 봉화군(烽火軍) 10명(名)과 감고(監考)2명(名)을 정(定)하여 배분(配分)하였는데 나누어서 상번(上番)과 하번(下番)으로 교대(交代)로 근무(勤務)하게 하고 내륙(內陸)의 여러 봉소(烽所)에는 매(每)1개소(個所)에 봉화군(烽火軍)6명(名)과 감고(監考)2명(名)이 두 개조(個組)로 나누어 밤낮으로 있으면서 이미 정(定)한 법(法)에 의(依)하여 낮에는 연기(煙)로 밤에는 불(燐)로써 전달(傳達)하게 하였고 태만(怠慢)하여 전달(傳達)되어오는 봉화(烽火)를 보지 못 하였거나 전달(傳達)된 봉화(烽火)를 확인(確認)하고도 바로 보

41)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세종(世宗)21년 4월 26일. 원전(原典)제(第)4집(集)208면(面). 적변(賊變)을 알리기 위(爲)해 신평(信砲)과 봉화(烽火)를 사용(使用)하게 하였다.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42)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세종(世宗)28년 10월 6일. 원전(原典)제(第)4집(集)707면(面). 봉수(烽燧)의 법(法)을 주밀(周密)하게 정(定)하고 상세(詳細)히 개유(開諭)하게 하였다.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고(報告)하지 않은 근무자(勤務者)들에 대한 처벌(處罰)을 강화(強化)하였다. 그러다가 세종(世宗)29년 3월 4일<sup>43)</sup>에야 비로서 봉화대(烽火臺)의 연대(煙臺)축조방식(築造方式)과 봉화(烽火)의 배설(配設)에 관(關)한 제도(制度)를 마련하였다. 이때부터 봉수제도(烽燧制度)의 확실(確實)한 정립(定立)이 되었다. 그 규정(規定)들이 세조(世祖)때에 만들어진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각종규정(各種規定)으로 확정(確定)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조(宣祖)25년 4월<sup>44)</sup>에 일어난 임진왜란(壬辰倭亂)이후부터는 100리마다 파발 역(擺撥驛)을 두는 새로운 파발제도(擺撥制度)가 도입(導入)되면서 차츰 봉화(烽火)에 대한 인식(認識)이 쇠퇴(衰退)되었다. 그로부터 약 100여 년이 지난 17세기(世紀)초(初)인 숙종(肅宗)때에야 다시 봉수제도(烽燧制度)의 부활(復活)이 되어 조선말기(朝鮮末期)까지 봉수(烽燧)와 파발(擺撥)이 통신체계(通信體系)를 이끄는 쌍두(雙頭)마차의 역할(役割)을 하게 되었다.

천림산(天臨山)봉수(烽燧)에 대한 기록(記錄)은 세종실록(世宗實錄)과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誌),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중정남한지(重訂南漢誌)등에 실려 있는 기록(記錄)으로 상세(詳細)히 알 수 있다. 다만 직제(職制)에 대한 상세(詳細)한 설명(說明)과 직무(職務)에 관한 언급(言及)이 확실(確實)하지 않다.

천림산(天臨山)봉수(烽燧)는 세종(世宗)5년(1423)2월26일<sup>45)</sup> 최초(最初)로 봉수설치(烽燧設置)시에는 천천산(穿川山)봉수(烽燧)였다가 문종(文宗)원년(1451)에는 천천현(穿川峴)봉수(烽燧)로 불렀다가 월천현(月川峴)봉수(烽燧)로도 불리었다. 그러다 영조(英祖)5년(1729)에 천림산(天臨山)봉수로 개명(改名)되어 현재(現在)도 천림산(天臨山)봉수(烽燧)로 불러 오고 있는 봉수(烽燧)터이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誌)광주부(廣州府)편에는 봉화일처(烽火一處)천천산(穿川山)제주 서(在州 西)남 준(南淮)용인(龍仁)석성(石城)북준(北淮)경성(京城)목덕(木覓)이라고 적혀있고, 중종(中宗)25년(1530)에 증록(增錄)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광주목(廣州牧)편에는 천천현봉수(穿川峴烽燧)남응(南應)용인현 보개산(龍仁縣 寶蓋山)북응(北應)경도(京都)목덕산(木覓山)제이봉(第二峯)이라고 수록(收錄)되어있다. 또 현종(顯宗)14년(1846)에 광주유수(廣州留守)이던 홍경모(洪敬謨)가 쓴 중정남한지(重訂南漢誌)에 『광주부(廣州

43)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세종(世宗)29년 3월 4일. 원전(原典)제(第)5집(集)8면(面). 연대(煙臺)축조방식(築造方式)과 봉화배설(烽火排設)제도(制度)를 마련하였다.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44)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선조(宣祖)25년 4월 14일. 원전(原典)제(第)21집(集)483면(面). 왜구(倭寇)가 쳐들어와 동래부사(東萊府使)송상현(宋相賢)등이 죽다.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45)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세종(世宗)5년 2월 26일 원전(原典)제(第)2집(集)528면(面). 남산(南山)에 봉화(烽火)를 설치(設置)하다.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府)봉수(烽燧)조(條) 천림산봉수(天臨山烽燧) 재(在) 대왕면(大旺面) 즉(卽) 고(古) 천천현야(穿川峴也) 남응(南應) 용인(龍仁) 보개산(寶蓋山)지령(之嶺) 남전봉(南傳烽) 북응(北應) 경도(京都) 목멩산(木覓山) 제이봉(第二峯)으로 명시(明示)하였다.

천림산(天臨山)봉수(烽燧)는 약180m의 비교적 낮은 산(山)에 있으며 북(北)쪽인 목멩산(木覓山)과는 16km, 남(南)쪽인 용인(龍仁)보개산(寶蓋山)과는 18.75km로 비교적 먼 거리(距離)를 두고 위치(位置)하여 있으나 조망(眺望)은 대단히 좋은 위치(位置)에 있다.

천림산(天臨山)봉수(烽燧)터의 봉돈(烽墩)은 5개조(個組)로 되어 있었으나 2개조(個組)는 훼손(毀損)되어 없어졌고 3개조(個組)만이 발굴(發掘)되었다. 발굴조사결과(發掘調查結果)제일봉돈(第一烽墩)은 동(東)쪽 출입구(出入口)와 인접(隣接)하여 있으며 현존(現存)하는 3개조(個組)의 봉돈(烽墩)중에 제일(第一)높은 위치(位置)에 있다. 높이는 110cm이고 직경(直徑)은 390cm 가량으로 30-40cm의 자연석(自然石)으로 축조(築造)되었다. 제(第)2봉돈(烽墩)은 높이가 100cm 이고 직경(直徑)이 410cm 이며 40-80cm 정도의 큰 자연석(自然石)으로 축조(築造)되었다. 제(第)3봉돈(烽墩)은 높이가 80cm이고 직경(直徑)이 220cm인데 훼손(毀損)이 심(甚)한데 제(第)2봉돈(烽墩)과는 6.4m 떨어져 있다.

천림산(天臨山)봉수(烽燧)로의 전달회로(傳達回路)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상고(詳考)하면 남해(南海)의 금산(錦山)과 창원(昌原)의 성황산(城隍山) 그리고 동래(東萊)의 오해야항(塙海也項)과 흡곡(吸谷)의 치공산(治空山)에서 올라오는 봉수(烽燧)를 최종(最終)종착지(終着地)인 병조(兵曹)가 있는 한양(漢陽)의 남산(南山)인 목멩산(木覓山)으로 전달(傳達)하고 북방(北方)에서 변고(變故)가 생겼을 때에는 남방(南方)의 지방관아(地方官衙)와 봉수(烽燧)를 연결(連結)하여야 하는 중요(重要)한 요지(要地)였는데 창원(昌原)의 성황산(城隍山)과 동래(東萊)의 오해야항(吾海也項)은 중간(中間)에 서로 통신(通信)할 수 있는 봉화대(烽火臺)가 또 있었는데 그 회로(回路)는 창원(昌原)의 성황산(城隍山)에서 웅천(熊川)의 고산(高山), 장복산(長福山), 여음포(餘音浦)를 경유하여 사화랑산(沙火郎山)에서 가덕도(加德島. 一名 城山)를 경유하여 김해(金海)성화례산(省火禮山)을 거쳐 동래(東萊)의 오해야항(吾海也項)으로 연결(連結)되는 봉화로(烽火路)이었다. 한양(漢陽)으로 연결(連結)되던 회로(回路)는 동래(東萊)의 오해야항(塙海也項)에서 출발(出發)하여 동래(東萊)의 황령산(黃嶺山)과 계명산(鷄鳴山)을 지나 양산(梁山)의 원적산(圓寂山), 연양(彦陽)의 부노산(夫老山)을 거쳐 경주(慶州)의 소산(所山), 고위산(高位山), 내포점(乃布帖), 주사산(朱砂山)을 지나서 영천(永川)의 방산(方山)을 거치고 성황산(城隍山)과 성산(城山)을 지나 의흥(宜興)여질



동(餘叱洞)으로 하여 토현(吐峴)과 승목산(繩木山)에서 의성(義城)의 영니산(盈尼山)과 고성산(古城山)을 지나 마산(馬山)으로 하여 안동(安東)의 감곡산(甘谷山)과 남산(南山)을 거쳐 예천(醴泉)의 서암산(西菴山)과 용궁(龍宮)의 용비산(龍飛山)에서 상주(尙州)의 소산(所山)으로 하여 문경(聞慶)의 선암산(禪巖山)과 탄정산(炭頂山)을 경유하여 연풍(延豐)의 마골산(麻骨山)과 주정산(周井山)을 지나 충주(忠州)의 대림산(大林山)과 마산(馬山)을 지나 음성(陰城)의 가엽산(迦葉山)에서 다시 충주(忠州)의 망이성(望夷城)봉수대(烽燧臺)에서 죽산(竹山)의 건지산(巾之山)으로 하여 용인(龍仁)보개산(寶蓋山)을 지나 광주(廣州)의 천천현(穿川峴, 천림산(天臨山)봉수를 거쳐서 한양(漢陽)의 목덕산(木覓山)제(第)2봉수(烽燧)에 다다른 내륙봉화회로(內陸烽火回路)가 있었다.

또 하나의 회로(回路)는 동래(東萊)오해야항(吾海也項)에서 황령산(黃嶺山)과 천비조산(千飛鳥山)을 거쳐 기장(機張)의 남산(南山)에서 울산(蔚山)의 林郎浦(임랑포)와 아시포(阿示浦), 시길곶(示吉串), 하산(下山), 가리산(加里山), 천내(川內), 남목천(南木川), 유포(柳浦)를 지나 경주(慶州)의 하서지(下西知)와 독산(禿山)을 지나 장기(長鬢)의 복길(卜吉)과 뇌성산(磊城山)과 대곶(大串), 사지(沙只), 장곡(獐谷)을 거쳐 영일(迎日)의 동을배곶(冬乙背串)에서 흥해(興海)의 지을산(知乙山)과 오산(烏山)을 지나서 청하(清河)의 도리산(桃李山)과 영덕(盈德)의 황석산(黃石山)과 별반산(別畔山)을 거쳐 영해(寧海)의 대소산(大所山)에서 광산(廣山) 등의 해안(海岸)을 따라서 연결(連結)되었고 다시 육로(陸路)로 들어와 진보(珍寶)의 남각산(南角山)과 임하(臨河)의 약산(藥山)에서 안동(安東)의 신석산(申石山)과 남산(南山)을 거쳐 예천(醴泉)의 서암산(西菴山)과 용궁(龍宮)의 용비산(龍飛山)을 거쳐 내륙회로(內陸回路)인 상주(尙州)의 소산(所山)을 거쳐서 문경(聞慶), 연풍(延豐), 충주(忠州), 음성(陰城), 충주(忠州) 죽산(竹山), 용인(龍仁)보개산(寶蓋山)을 지나 천림산(天臨山)봉수(烽燧)에 도착(到着)하게 되어 있는데 이 회로(回路)는 길은 멀어도 남동해안(南東海岸)을 타고 올라옴으로 왜구(倭寇)의 침략(侵略)에 공동대처(共同對處)를 하기 위하여 왜란(倭亂)에 대비(對備)한 회로(回路)였다.

또 한 갈래의 회로(回路)는 안동(安東)의 남산(南山)에서 계속(繼續)하여 개목산(開目山)에서 예안(禮安)의 녹전산(祿轉山)과 봉화(奉化)의 용점산(龍岾山)과 안동(安東)의 당북산(堂北山)에서 영천(永川)의 성내산(城內山)으로 경유하여 풍기(豊基)의 망전산(望前山)과 죽령(竹嶺)을 넘어 단양(丹陽)의 소이산(所伊山)과 청풍(淸風)의 오현(吾峴)을 지나 충주(忠州)의 심정산(心頂山)에서 마산(馬山)의 내륙회로(內陸回路)와 동행(同行)하여 음성(陰城)을 거쳐서 죽산(竹山)과

용인(龍仁)으로 하여 광주(廣州)천림산(天臨山)으로 연결(連結)되는 회로(回路)도 있다.

또 강원도(江原道)동북부(東北部)에서는 금강산(金剛山)이 높아서인지 안변(安邊)으로 연결(連結)되는 내륙봉수회로(內陸烽燧回路)외(外)에 해안봉수회로(海岸烽燧回路)가 있는데, 흡곡(歙谷)의 치공산(致空山)에서 통천(通川)의 금란성(金欄城)과 두백산(苴白山), 술곶(戌串)을 지나 고성(高城)의 영진산(靈津山), 포구산(浦口山), 구장천(仇莊遷)을 거쳐 간성(干城)의 술산(戌山), 정양산(正陽山), 죽도(竹島)를 지나서 양양(襄陽)의 덕산(德山), 수산(水山), 초진산(草津山)과 양야산(陽野山)을 거쳐 강릉(江陵)의 주문산(注文山), 사화산(沙火山), 소동산(所同山), 해령산(海靈山), 오근산(吾斤山), 어달산(於達山)에서 삼척(三陟)의 광진산(廣津山), 양야산(陽野山), 초곡산(草谷山), 임원산(臨院山), 가곡산(可谷山)을 지나 울진(蔚珍)의 항출도산(恒出道山), 죽변곶(竹邊串), 죽진산(竹津山), 전우인산(全友仁山)을 지나 평해(平海)의 사동산(沙銅山), 표산(表山), 후리산(厚里山)을 거쳐 영해(寧海) 대소산(大所山)으로 광산(廣山)을 거쳐서 내륙회로(內陸回路)와 동행(同行)하게 되었는데, 진보(珍寶), 임하(臨河)를 경유하여 안동(安東)남산(南山)으로 연결하여 내륙회로(內陸回路)에 계속연결(繼續連結)되었다. 이 회로(回路)또한 동해안(東海岸)을 수시(隨時)로 침범(侵犯)하여 조선(朝鮮)을 괴롭히는 왜구(倭寇)의 침입(侵入)에 공동대처(共同對處)하기 위한 대비책(對備策)이었던 것이다.

창원(昌原)성황산(城隍山)의 봉화(烽火)는 내륙회로(內陸回路)인데 칠원(柒原)의 안곡산(安谷山)과 영산(靈山)의 봉산(烽山)과 여통산(餘通山)에서 창령(昌寧)의 합산(合山)과 현풍(玄風)의 소산(所山)과 성주(星州)의 말응덕산(末應德山)과 성산(星山)을 거쳐 대구(大邱)의 마천산(馬川山)과 성주(星州)의 각산(角山)과 인동(仁東)의 박집산(朴執山)봉수(烽燧)와 건대산(件岱山)을 지나 선산(善山)의 석현(石峴)과 람산(藍山)을 거친 후 개령(改寧)의 감문산(甘文山)과 금산(錦山)의 소산(所山)을 거치고 상주(尙州)의 회룡산(回龍山)과 서산(西山)을 지나 소산(所山)으로 하여 내륙회로(內陸回路)에 동행(同行)하게 되는데 문경(聞慶), 연풍(延豐), 충주(忠州), 음성(陰城), 충주(忠州)가엽산(嘉葉山), 죽산(竹山), 용인(龍仁)보개산(寶蓋山)을 거쳐 천림산(天臨山)봉수(烽燧)에 이른다.

남해(南海)금산(錦山)을 출발(出發)한 봉화(烽火)는 진주(晉州)대방산(大方山), 각산(角山)에서 사천(泗川)의 안점(鞍帖)을 지나 다시 진주(晉州)의 망진산(望晉山)과 광재산(廣才山)을 거쳐 단성(丹城)의 입암산(笠岩山)과 삼가(三嘉)의 금성산(金城山)을 지나서 합천(陝川)의 소현(所峴)과 거창(巨昌)의 금귀산(金貴山)과 거말홀산(巨末訖山)으로 연결(連結)하여 지례(地禮)의 구산(龜山)과 금산(金山)의 고성산(高城山)을 지나 황간(黃間)의 놀이항산(訥伊項山),

소이산(所伊山)에서 영동(永同)의 박달산(朴達山)으로 연결(連結)되어서 옥천(沃川)의 월이산(月伊山), 환산(環山)과 회덕(懷德)의 계족산(鷄足山)을 경유하여 문의(文義)의 소이산(所伊山)에서 청주(淸州)의 거질대산(巨叱大山)과 진천(鎭川)의 소을산(所乙山)에서 내륙회로(內陸回路)인 충주(忠州)의 망이성(望夷城)에서 동행(同行)하여 죽산(竹山)의 건지산(巾之山)에서 용인(龍仁)보개산(寶蓋山)을 거쳐 천림산(天臨山)봉수(烽燧)로 연결(連結)되는 순수(純粹)한 내륙회로(內陸回路)의 봉수통로(烽燧通路)이다.

이 같이 해안선(海岸線)을 따라 올라오는 복수(複數)의 회로(回路)를 만든 것은 봉수(烽燧)의 회로(回路)가 급박(急迫)한 전시상황(戰時狀況)에 돌입(突入)하면 봉화대(烽火臺)가 제일(第一)먼저 점령(占領)당할 수 있는 상황(狀況)을 미연(未然)에 방지(防止)하기 위한 수단(手段)도 포함(包含)된 만약의 사태(事態)에 대비(對備)한 고차원적(高次元的)인 수단(手段)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내륙회로(內陸回路)와 해안회로(海岸回路)의 중추(中樞)가 되는 곳이 충주(忠州)의 마산(馬山)과 망이성(望夷城)이고 그 이후에 연결로(連結路)로는 단일회로(單一回路)였으므로 죽산(竹山)의 건지산(巾之山)봉수(烽燧)나 용인(龍仁)의 보개산(寶蓋山)과 광주(廣州)의 천림산(天臨山)이 지닌 중차대(重且大)한 책임(責任)은 다른 어느 곳 보다 더 막중(莫重)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中央政府)에서도 관리기능(管理機能)을 강화(強化)하고 근무자(勤務者)들에게도 더욱 강력(強力)하고 치밀(緻密)한 교육(教育)을 시켰을 것이고 감시기능(監視機能)을 강화(強化)하였을 것이니 이곳에서 근무(勤務)하는 근무자(勤務者)들은 타(他)지역(地域)의 근무자(勤務者)들 보다 혹독(酷毒)하고 처참(悽慘)한 생활(生活)을 하였을 것이다.

### ◎봉화직(烽火職)의 분류(分類)

봉화대(烽火臺)에 종사(從事)하는 사람들을 봉군(烽軍)으로 단순분류(單純分類)하고 있으나 확실(確實)하게 직종(職種)이 분류(分類)하여 전(傳)하는 것은 없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상고(詳考)하여보면 한 직종(職種)씩의 언급(言及)이 있는바 그것을 찾아 종합(綜合)하여보면 봉화군(烽火軍)과, 기능직(技能職)인 감고(監考)와 봉화간(烽火干), 그리고 봉화보(烽火補)와 봉화노(烽火奴)등, 크게 세 가지 직종(職種)으로 분류(分類)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직(組織)은 직급(職級)에 따라서 업무(業務)가 분장(分掌)되는 외형상(外形上)으로는 정밀(精密)하게 잘 짜여진 조직(組織)으로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감고(監考)와 같은 직종(職種)은 기록(記錄)에 내용(內容)에 따라서는 기능직(機能職)이 아닌 책임자(責任者)로 보는

견해(見解)도 있으나 일반관청(一般官廳)에서는 리정(里正)까지 감고(監考)라는 이름이 벼슬 아치의 관직(官職)중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지방관서(地方官署)에서도 아전처럼 벼슬 직중에 감고(監考)라는 직책(職責)은 있으나 봉화대(烽火臺)의 감고(監考)는 그들과는 다른 하위 기능직(技能職)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감고(監考)라는 말은 살필 감(監)살필 고(考)자이므로 살피고 살핀다는 말이 되므로 봉화대(烽火臺)에서는 봉화(烽火)의 전달상황(傳達狀況)을 세밀(細密)하게 살펴보는 직종(職種)이다.

세종(世宗)28년 10월 6일 기록(記錄)<sup>46)</sup>에는

『연변(沿邊, 해안)의 연대(煙臺)1개소(個所)에는 봉화군(烽火軍)10명(名)과 감고(監考)2명(名)을 정(定)하고 나누어서 상번(上番)과 하번(下番)으로 근무(勤務)케 하고 중복(中腹, 내륙)의 여러 봉소(烽所)에는 매(每) 1개소(個所)에 봉화군(烽火軍)12명(名)과 감고(監考)2명이 두 개조(個組)로 나누어…』라는

기록(記錄)이 있는데 이 내용(內容)은 전자(前者)는 봉화군(烽火軍)5명(名)과 감고(監考)1명(名)이 1개조(個組)이고 후자(後者)는 봉화군(烽火軍)6명(名)과 감고(監考)1명(名)이 한개조(組)가 되어 각기(各其)12시간(時間)씩 근무(勤務)한다는 내용(內容)이 된다. 결국(結局)은 봉돈(烽墩)이 5개조(個組)이므로 봉돈(烽墩)하나에 한명씩 배치(配置)하고 감고(監考)가 전달(傳達)되어 올라오는 봉화(烽火)를 살피거나 봉화(烽火)를 올리는 일을 직급별(職級別)로 나누어 하게 되는 것이다.

또 세종(世宗)29년 3월 4일 기록(記錄)<sup>47)</sup>에

『봉화(烽火)는 사변(事變)이 있으면 감고(監考)가 즉시(卽時) 그 고을 관원(官員)에게 알리고 사변(事變)이 없을 때에는 매(每)10일(日)마다 한번씩 알려져 감사(監司)에게 전(傳)해 보

46)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세종(世宗)28년 10월 6일. 원전(原典)제(第)4집(集)707면(面). 봉수(烽燧)의 법(法)을 주밀(周密)하게 정(定)하고 상세(詳細)히 개유(開諭)하게 하였다.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47)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세종(世宗)29년 3월 4일. 원전(原典)제(第)5집(集)8면(面). 연대(煙臺)축조 방식(築造方式)과 봉화배설(烽火排設)제도(制度)를 마련하였다.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고(報告)하고, 매(每)4개월9(個月)마다 병조(兵曹)에 통첩(通牒)을 보내어 후일(後日)에 참고증거(參考證據)로 삼게 하고, 감고(監考)와 간수인(看守人)의 근실(勤實)하고 태만(怠慢)한 것은 감사(監司)와 수령(守領)이 일정(一定)한 시기(時期)가 없이 고찰(考察)하게 하고 군기(軍紀)를 점고(占考)하는 경차관(敬差官)도 또한 아울러 사실(事實)을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라고 되어 있다.

이 내용(內容)은 사변(事變)이 있을 때에는 감고(監考)가 올라오는 봉화를 살펴 본 당사자(當事者)이므로 살펴본 사실(事實)을 감사(監司)가 있는 관청(官廳)의 관원(官員)에게 알리게 하였는데 이러한 조처(措處)는 살펴 본대로 보고(報告)함으로써 상황(狀況)을 예리(銳利)하게 판단(判斷)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보고(報告)를 토대(土臺)로 해당관청(該當官廳)은 매(每)4개월(個月)마다 병조(兵曹)에 통첩(通牒)을 보내게 하여야 하였는데 이러한 일을 잘하는 지는 해당관청(該當官廳)의 장(長)이 수시(隋時)로 점검(點檢)하도록 한 것이다. 또 왕명(王命)을 받은 경차관(敬差官)도 이러한 사실(事實)들을 검사(檢査)하여 날날이 임금에게 보고(報告)하라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또 성종(成宗)9년 3월 1일 기록(記錄)<sup>48)</sup>에

…백야산(白也山)봉수(烽燧)의 감고(監考)신명화(申明和)가 후망(埃望)을 조심해 하지 않아서 적선(敵船)이 오는 것을 흐리멍텅 하게 알지 못한 죄(罪)는 장(杖)일백(一百)대를 때려서…이라는 기록(記錄)이 있다.

위의 내용(內容)은 신명화(申明和)라는 감고(監考)가 제대로 간망(看望)하지 못한 죄(罪)를 묻는 대목이라고 본다. 백야산(白也山)은 전라도(全羅道) 바닷가에 있던 봉수대(烽燧臺)임을 밝혀둔다.

이러한 기록(記錄)들을 상고(詳考)하여 볼 때 필자(筆者)는 봉화대(烽火臺)에서 근무(勤務)하는 감고(監考)는 기능직(技能職)으로 분류(分類)하였음을 밝혀둔다.

---

48)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성종(成宗)9년 3월 1일. 원전(原典)제(第)9집(集)564면(面). 병조(兵曹)에서 만호(萬戶)및 군관(軍官)들의 직무태만(職務怠慢)에 대한 처벌(處罰)을 보고(報告)하다.

## 1) 봉군(烽軍)

봉화대(烽火臺)에 근무(勤務)하는 모든 사람을 일컬어 봉군(烽軍)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각종기록(各種記錄)이나 실록(實錄)을 상고(詳考)하여보면 말은 임무(任務)는 다양(多樣)하게 분류(分類)된 것으로 봉군(烽軍)은 말이 군인(軍人)이지 신분(身分)은 아주 낮은 사람들로 구성(構成)되었다. 봉군(烽軍)은 봉화대(烽火臺)의 경계(警戒)를 담당(擔當)하였고, 신포(信砲)를 쏘아 올릴 때에 필요(必要)한 화약(火藥)이나 염초(燄草)등을 관리(管理)하는 임무(任務)와 봉화(烽火)불을 피우는데 가장 중요(重要)한 화로(火爐)불을 간수(看守)하는 임무(任務)와 그리고 해당관서(該當官署)에 보고(報告)하는 마발(馬撥)과 보발(步撥)의 임무(任務)를 수행(遂行)하였다. 봉군(烽軍)은 양민(良民)들 중 차출(差出)되어 근무(勤務)한 기록(記錄)도 많이 있으나 언제부터인지 칠반천역(七般賤役)이라고 부르는 천역(賤役)중에 천역(賤役)으로 분류(分類)되었다. 그 실증(實證)이 조선(朝鮮)개국초기(開國初期)인 세종(世宗)1년 5월 26일 기록(記錄)에 봉화간(烽火干)은 봉화(烽火)를 올리는 자이니 국속(國俗)에 신량(身良)으로 하는 일이 천(賤)하면 간(干)이나 혹은 척(尺)이라고 칭(稱)하였다는 구절(句節)로서 미루어 알 수 있다.

### 봉소장(烽所長)

봉소(烽所)의 책임장교(責任將校)로서 당해(當該)감영(監營)에서 파견(派遣)되었다.

봉소(烽所)의 장(長)은 직급(職級)이 제일(第一)낮은 장교(將校)중에서 차출파견(差出派遣)되었다고 하였는데 결국(結局)은 좌천성(左遷性)의 인사(人事)였으므로 하위직(下位職)일망정 누구를 막론(莫論)하고 가기를 꺼리던 자리였다. 그런 자리였으므로 봉소장(烽所長)은 대개가 온갖 수탈(收奪)을 일삼아서 봉화대(烽火臺)에는 기강(紀綱)이 허물어져 있었다. 봉소장(烽所長)은 잡직(雜職)중에서 정구품(正九品) 치력부위(致力副尉)나 종구품(從九品) 근력부위(勤力副尉)가 파견(派遣)되거나 토관직(土官職)인 정구품(正九品)여력도위(勵力徒尉)나 종구품(從九品)탄력도위(彈力徒尉)가 파견(派遣)되었다고 전(傳)해온다.

### 오장(伍長)

보통(普通)은 5-6명의 군졸(軍卒)을 거느리는 중간관리자(中間管理者)이다. 요즈음으로 치면 분대장급(分隊長級)에 해당(該當)될 것이다.

흔히 대오(隊伍)를 맞춘다고 하는데 대(隊)는 오(伍)가 다섯이 모이면 대(隊)가 되는 데 오(伍)는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다섯 명을 한 오(伍)로 편성하고 그중에 오를 거느리는 자를 오장(伍長)이라고 불렀다.

### 봉졸(烽卒)

봉수대(烽燧臺)에 근무(勤務)하는 병졸(兵卒)들인데 마졸(馬卒)은 유사시(有事時)에는 말을 타고 달려가고 보졸(步卒)은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서 관아(官衙)에 비상사태(非常事態)를 긴급보고(緊急報告)하는 임무(任務)를 띠고 있었으나 평상시(平常時)에는 봉수대(烽燧臺)의 경비(警備)를 서는 외에 농번기(農繁期)에는 둔전(屯田)에 차출(差出)되어야 하였으나 할일이 별로 없어 마졸(馬卒)이나 보졸(步卒)이나 할 것 없이 잡역(雜役)을 포함(包含)한 노역(勞役)이 극심(極甚)하였다.

## 2) 기능직(技能職)

같은 봉화군(烽火軍)이라도 이들은 그래도 기능자(技能者)로서 예우(禮遇)를 받은 기록(記錄)이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나타난다. 세종(世宗)29년 3월 4일, 연대(煙臺)축조방식(築造方式)과 봉화(烽火) 배설제도(陪設制度)를 도입(導入)한 구절(句節) 중에서

감고(監考)와 봉화(烽火)와 바다를 망(望)보는 인호(人戶)는 공부(貢賦)외에 잡역(雜役)은 일체감면(一切減免)하고….

감고(監考)중에서 부지런하고 조심성(操心性) 있는 사람은 매(每)6년(年)마다 한차례씩 산관직(散官職)을 제수(除授)하게 하며… 라는 구절(句節)이 이를 입증(立證)하고 있다. 특(特)히 이들은 국가(國家)에 적변(賊變)을 신속(迅速)하게 알리는 공(功)을 세우면 서용(敍用)되기도 하였고 후한 상(賞)을 받기도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지닐 수 있는 최대(最大)의 희망(希望)이기도 하였던 것이었다.

### 감고(監考)

해안(海岸)이나 국경지대(國境地帶)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봉화(烽火)와 연결(連結)되는 봉수대(烽燧臺)에서 연기(燧)나 봉화(烽火)가 어떻게 전(傳)해오는지를 간망(懇望)하고 주의 깊게 관찰(觀察)하여 봉화간(烽火干)이 봉화(烽火)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해안(海岸)을 관망(觀望)하는 사람을 후망인(候望人)이라고 불렀고 육지(陸地)에서는 간망인(看望人)이라고 부른 기록(記錄)도 있다.

### 봉화간(烽火干)

봉화(烽火)를 올리는 기능자(技能者)를 가리키는 말이다. 봉화(烽火)를 올리는 데에는 화로(火爐)에 담겨있던 화로(火爐)불을 이용(利用)하였는데 마른 쭉에 불을 쏘아 부어 불을 붙이는데 연기(燧)를 많이 내어 다음 봉화대(烽火臺)의 감고(監考)가 빨리 감지(感知)하도록 하는 기술(技術)과 밤에는 불길(火)이 세차게 타올라 차상위(次上位)봉화대(烽火臺)나 차하위(次下位)봉화대(烽火臺)에서 감고(監考)가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기술(高級技術)이 필요(必要)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좀더 깊이 있는 연구(研究)가 필요(必要)한 부분(部分)이다.

### 3) 잡역자(雜役者)

잡역자(雜役者)들은 말 그대로 잡역부(雜役夫)였으며 그들의 신분(身分)은 모두 범법자(犯法者)이거나 왕명(王命)이나 헌부(憲府)에서 도태(淘汰)된 자들이 거의 주종(主宗)을 이루었으니 전부(全部)종의 신분(身分)이었던 것이다. 잡역(雜役)의 신분(身分)이 천출(賤出)로 구성(構成) 되었으니, 살기 위해서는 그들 나름대로 상관(上官)에게 능력(能力)을 인정(認定)받고 싶었을 것이나 전체구성인원(全體構成人員)이 하급신분(下級身分)이었기에 그들의 생활(生活)은 참상(慘狀)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조(世祖)2년 11월 14일 기록(記錄)<sup>49)</sup>엔 그들은 60세라는 고령(高齡)이 되어서야 그 직(職)에서 면방(免放)될 수 있다고 기록(記錄)되어 있다. 그러니 그들은 희망(希望)도 포기(拋棄)고 그날그날을 자포자기(自暴自棄)하면서 하루해만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살았을 것이다.

49)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세조(世祖)2년 11월 14일, 원전(原典)제(第) 7집(集) 156면(面). 사헌부(司憲府)에 백성(百姓)을 자목(字牧)하는 뜻이 없는 충청도(忠淸道)남포군(藍浦郡)현감(縣監)을 추국(推鞠)하게 하다.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 봉화보(烽火保)

봉화대(烽火臺)의 잔무(殘務)를 맡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봉화대(烽火臺)에서 필요(必要)한 애전(艾田, 쑥밭)을 가꾸었고, 채소(菜蔬)등의 부식용(副食用)반찬(飯饌)거리를 심어 가꾸는 일을 도맡아 하였고, 땔 나무를 해오거나 봉화대(烽火臺)에 예속(隸屬)된 우마(牛馬)의 먹이를 해결(解決)하기 위하여 마초(馬草)의 수집(收集)이나 월동(越冬)을 위하여 상당량(相當量)의 마초(馬草)의 저장(貯藏)을 책임(責任)지는 등의 잡무(雜務)를 하여야 하였고 또 상급자(上級者)들의 자기욕구(自己慾求)에 따르는 강요(強要)에 의한 각종잡역(各種雜役)을 해야 하였기 때문에 푹 하면 목숨을 걸고 도망(逃亡)하기가 일쑤였다.

세종(世宗)30년 8월 28일 기록(記錄)<sup>50)</sup>에는

범죄(犯罪)한 공사천인(公私賤人)외방주군(外方州郡)의 노비(奴婢), 잡색인(雜色人)들의 징계방법(懲戒方法)을 정(定)한 기록(記錄)에는,

“무릇 범죄(犯罪)하여 양계(兩界)에 입거(入居)하는 자(者)와 소(牛)와 말(馬)을 도둑질하고 죽인 자를 다른 곳으로 유방(流放)하는 것은 악(惡)한 것을 징계(懲戒)하고 후래(後來)를 경계(警戒)하여 종신(終身)토록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 중에 계통(系統)이 본래(本來) 천인(賤人)이거나 선군(船軍), 진군(鎭軍), 역자(驛子), 목자(牧子)등 구실(口實)이 있는 자(者)는 모두 그 구실(口實)을 면(免)하고 임의(任意)로 살아가니 도리어 징계(懲戒)의 뜻에 어긋납니다. 금후(今後)로는 공사천인(公私賤人)은 관(官)과 주인(主人)의 청(請)을 들어 주어 공(貢)을 거두고, 외방주군(外方州郡)의 노비(奴婢)와 선군(船軍), 진군(鎭軍), 수성군(守城軍), 목자(牧子), 진척(津尺), 염간(鹽干), 봉화간(烽火干), 역자(驛子)등 여러 잡색인(雜色人)은 각각(各各)그 역사(役事)에 차정(差定)하고 향리(鄉吏)는 역리(驛吏)로 정(定)하며, 시위패(侍衛牌)는 선군(船軍)으로 하고, 보충군(補充軍)은 목자(牧子)로 하되 그 나머지 잡색군(雜色軍)과 역사(役事)가 없는 사람은 알맞게 역사(役事)를 정하여 적(籍)을 만들어서 임의(任意)로 지경(地境)을 나가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記錄)은 실록(實錄)에서는 일반적(一般的)으로는 보기 드물게 칠반천역(七般賤役)들의 선용(選用)과 대우(待遇)

5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세종(世宗)30년 8월 28일, 원전(原典)제(第) 5집(集) 98면(面). 범죄(犯罪)한 공사천인(公私賤人), 외방주군(外方州郡)의 노비(奴婢), 잡색인(雜色人)들의 징계방법(懲戒方法)을 정(定)하다. 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에 관(關)하여 열거(列舉)한 내용(內容)이다.

이와 같이 봉화대(烽火臺)의 근무자(勤務者)들이 천출(賤出)로 구성(構成)됨으로 하여 책임의식(責任意識)이 별(別)로 없었고 낮은 보수(報酬)와 60세까지는 싫어도 근무지(勤務地)를 바꿀 수 없는 상황(狀況)에서 그나마도 적기(適期)에 보수(報酬)가 나오지 않는 등의 고질적(痼疾的)인 상황(狀況)이 되풀이 되곤 하였으므로 모두가 체념적(諦念的)인 행동(行動)이 표출(表出)됨으로 말미암아 세월(歲月)이나 가라 하는 식의 근무태도(勤務態度)로 인하여 때로는 적변(賊變)이 일어났는데도 허둥대다가 봉화(烽火)를 늦게 올림으로 해서 무고(無故)한 백성(百姓)들이 적(敵)에게 유린(蹂躪)당했다는 기록(記錄)이 무수(無數)히 많다. 그때마다 참형(斬刑)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므로 중앙정부(中央政府)에서도 그들의 적당(適當)한 대우(待遇)와 복지(福祉)를 주장(主張)한 기록(記錄)도 많이 발견(發見)된다. 봉화(烽火)의 중요성(重要性)에 비(比)하여 그들의 처우(處遇)는 극도(極度)로 부실(不實)하였고 근무조건(勤務條件)의 처절(淒絶)함은 말 할 수 없을 만큼 열악(劣惡)하였다.

남해(南海)나 동해(東海)바닷가에서 왜적(倭敵)이 몰려오는 것을 발견(發見)하여 재빨리 첫 봉화대(烽火臺)에서 봉화(烽火)나 봉수(烽燧)를 올리기 시작(始作)하여도 한양(漢陽)까지 오는 도중(途中)에 있는 수십여(數十餘)곳의 봉화대(烽火臺)를 경유(經遊)하자니 봉화소(烽火所)마다 신속(迅速)하게 봉화(烽火)나 봉수(烽燧)를 피워 올려도 한곳에서 10분씩만 소요(所要)된다손 치더라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곳에서 2-30분씩을 지체(遲滯)된다면 수일(數日)후에나 서울인 한양(漢陽)으로 봉송(奉送)될 수밖에 없는 막막(寞寞)한 실정(實情)이었다. 이러한 폐단(弊端)을 막기 위(爲)하여 근무조건(勤務條件)을 지엄(至嚴)하게 하고 조그마한 실수(失手)도 용납(容納)되지 않는 강력(強力)한 규율(規律)로 다스렸으나 체념(體念)속에 근무(勤務)하는 봉화대(烽火臺)근무자(勤務者)들은 피동적(被動的)인 사고(思考)와 비능률적(非能率的)인 행동(行動)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근무시간(勤務時間)이 일일(日日)2교대(二交代)이면 12시간(時間)이고 삼교대(三交代)면 8시간(時間)이었으므로 비교적(比較的)많은 시간(時間)을 근무(勤務)하여야 하였다. 그것도 열흘에서 보름간씩의 교대(交代)근무일정(勤務日程)으로 꼬박 근무(勤務)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불평(不平)과 불만(不滿)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조선중기(朝鮮中期)에 와서는 해당(該當)관리청(管理廳)감독관(監督官)들이 임의(任意)로 근무시간(勤務時間)을 조정(調定)해 주기도 하였던 기록(記錄)도 있다.

봉수(烽燧)를 올릴 때에는 여우 변(狐便)이나 늑대의 랑변(狼便)을 사용(使用)하거나 소와

말의 우마변(牛馬便)을 사용(使用)하였다지만 주(主)로 쭉(艾)을 사용(使用)한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쭉밭(艾田)에 대한 기록(記錄)이

세종(世宗)25년 4월 14일 기록(記錄)<sup>51)</sup>에 도체찰사(都體察使)인 황보인(皇甫仁)이 아뢰는 내용(內容)중에 봉화대(烽火臺)동구(洞口)의 애전(艾田)이라는 지명(地名)의 기록(記錄)이 있다. 물론 쭉밭을 가꾸는 땅도 둔전(屯田)에 소속(所屬)되어 있었다. 소관부서(所管部署)가 어느 곳이던 간에 쭉밭에서 양질(良質)의 쭉을 길러 알맞은 시기에 베어 말리면 잘 마른 쭉에서 질은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을 감안(勘案)하였던 것 같다.

천림산(天臨山)봉수(烽燧)에는 근무자(勤務者)가 몇 명 이었는지에 대(對)하여는 현종(顯宗)14년(1846)에 광주유수(廣州留守)이던 홍경모(洪敬謨)가 쓴 중정남한지(重訂南漢誌)에 『광주부(廣州府)봉수(烽燧)조(條) 천림산봉수(天臨山烽燧) 재(在) 대왕면(大旺面) 즉(卽) 고(古) 천천현야(穿川峴也) 남응(南應) 용인(龍仁) 보개산(寶蓋山)지령(之嶺) 남전봉(南傳烽) 북응(北應) 경도(京都) 목덕산(木覓山) 제이봉(第二峯) 봉군(烽軍)25인(人) 보(保)75인(人)』이라고 정리기록(整理記錄)되어있다.

또 1993년 10월 14일 한양대학교(漢陽大學校)역사학과(歷史學科)교수(教授)이완재(李完宰)박사(博士)가 쓴 『한국사(韓國史)에 비춘 성남지역(城南地域)의 역사(歷史)』 55P에 보면 천림산(天臨山)봉화대(烽火臺)에는 봉화군(烽火軍)25인(人)봉화보(烽火補)75인(人)이 근무(勤務)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 같은 기록(記錄)을 상고(詳考)하여보면 100여인(人)이 근무(勤務)한 천림산(天臨山)봉수(烽燧)는 규모(規模)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헤아리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事實)은 전기(前記)한 봉수군(烽燧軍)수(數)의 내용(內容)과는 상충(相衝)되는 곳도 있는데 언제부터 이같이 많은 수(數)의 봉수군(烽燧軍)이 근무(勤務)하게 되었는지가 기록(記錄)하지 않아서 더 이상은 알 수 없다.

부속건물(附屬建物)로는 봉화군(烽火軍)의 수효(數爻)에 걸 맞는 규모(規模)의 막사(幕舍)와 신포(信砲)용으로 사용(使用)될 화약(火藥)과 염초(焰草)와 쭉을 저장(貯藏)하여두는 창고(倉庫)가 있었을 것이고 병장기(兵仗器)를 관리(管理)하는 창고(倉庫)와 화로(火爐)불을 보관(保管)하는 곳간 등이 있어야 하였을 것이다. 또 우마(牛馬)의 마구간(馬具間)과 식사(食事)를 제공(提供)하는 숙수간(熟手間)이 있어야 하였으며 마른 장작을 쌓아두는 창고(倉庫)와 화장실(化粧室)도 있어야 하였을 것이다. 창고(倉庫)가 있었다는 증거(證據)로 숙종(肅宗)39

51)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세종(世宗)25년 4월 14일. 원전(原典)제(第)4집(集)470면(面). 평안도(平安道)지방(地方)의 도망(逃亡)간 원주민(原住民)의 대책(對策)과 농사(農事) 및 축성(築城)에 대한 도체찰사(都體察使)황보인(皇甫仁)의 건의(建議)라는 제하(題下)의 기록(記錄).

년 10월 29일 충청도(忠淸道) 해미현(海美面)봉화대(烽火臺)의 고직(庫直, 창고를 지키는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고 고사(庫舍)한 칸이 불탔다는 기록(記錄)이 있다. 이렇듯이 각종막사(各種幕舍)가 지어져 불편(不便)함이 없었을 것 같으나 봉화군(烽火軍)들의 생활여건(生活與件)은 아주 척박(瘠薄)하기 이를 데 없었다.

## 5. 결론

조선시대(朝鮮時代) 성남지역(城南地域)에서 교통(交通)이나 통신망(通信網)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낙생역(樂生驛)과 음촌참(陰村站)의 역(驛)참(站)과 판교원(板橋院)과 대야원(大也院)같은 원(院)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전시통신수단(戰時通信手段)으로는 천림산(天臨山)봉수(烽燧)가 있었다.

이와 같은 통신수단(通信手段)은 재래식(在來式)방법(方法)이긴 하지만 그 시대(時代)에는 최고(最高)의 기술적(技術的)방법(方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역(地域)의 지리적(地理的)요건(要件)등을 감안(勘案)하면 삼남(三南)에서 한양(漢陽)으로 연결(連結)되는 매우 중요(重要)한 위치(位置)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로(驛路)는 동서남북(東西南北)으로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기맥(氣脈)을 형성(形成)하였고 봉수(烽燧)는 단순히 용인(龍仁)보개산(寶蓋山)과 한양(漢陽)남산(南山)인 목멱산(木覓山)으로만 연결(連結)되는 것으로만 기록(記錄)되어 있으나 그 중요성(重要性)은 참으로 큰 것이었다. 남해안(南海岸)이나 동해안(東海岸)에 적(敵)이 나타나면 서해(西海)의 해로 봉수(海路烽燧)를 빼고는 동해(東海)중 원산(元山)이북지방(以北地方)의 육로봉수(陸路烽燧)외에는 꼭 천림산(天臨山)을 거쳐야 한양(漢陽)으로 연결(連結)되게 설계(設計)된 봉수회로(烽燧回路)이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역대(歷代)왕(王)들이 성남(城南)의 역(驛)에서 주정(晝停)하거나 원(院)이용에 대한 기록(記錄)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이 지역(地域)이 천혜(天惠)의 군사(軍事)요충지(要衝地)라는 것이다. 삼한시대(三韓時代)를 비롯하여 삼국시대(三國時代)나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그랬고 조선시대(朝鮮時代)에도 군사문화(軍事文化)의 중심지(中心地)였다는 사실(事實)을 재삼(再三)알아야 할 것이다.

태종대왕(太宗大王)이후에 쉬임없이 계속(繼續)하여 세종(世宗)과 단종(端宗), 세조(世祖), 성종(成宗)이나 연산군(燕山君)까지도 팔도(八道)의 군사(軍士)를 모아 대열(大閱)이라는 거

국적(學國的)행사를 치루면서 군(軍)의 사기(士氣)를 드높여 조선(朝鮮)정예군(精銳軍)의 기개(氣概)를 온 천하(天下)에 떨쳤던 것이 바로 송파(松坡)와 성남(城南)의 옛 예속지(隸屬地)였던 광주지역(廣州地域)이었으므로 성남지역(城南地域)은 더욱 교통통신시설(交通通信施設)이 확고(確固)한 자리매김을 하였던 것이었다.

성남(城南)지역에서 삼남(三南)과 연계(連繫)된 역로(驛路)나 봉수로(烽燧路)는 바로 국가(國家)의 안위(安危)에 커다란 비중(比重)을 차지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곳의 시설(施設)들이야말로 시대(時代)마다 각종분야(各種分野)에서 최신(最新)의 기술(技術)을 이용(利用)하여 설치(設置)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시설(施設)들이 있었으나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왜적(倭賊)이 북진(北進)의 관통로(貫通路)로 활용(活用)하였던 때와 병자호란(丙子胡亂)때에는 오랑캐가 이 지역(地域)을 점거(占據)하고 각종만행(各種蠻行)을 저지를 때, 제일(第一)먼저 통신(通信)과 교통시설(交通施設)을 파괴(破壞)하였던 것이다. 외침(外侵)에 대비(對備)하지 못하였던 조선(朝鮮)은 무인지경(無人之境)으로 달려드는 왜적(倭賊)에게 저항(抵抗)한번 제대로 못하고 국토(國土)를 내주어 팔도강산(八道江山)이 적에게 유린(蹂躪)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패퇴(敗退)에 패퇴(敗退)를 거듭하여 의주(義州)까지 눈물겨운 피난(避難)길에 올라 결국에는 명(明)나라에 원군(援軍)을 요청(要請)하여 명군(明軍)에 의(依)하여 겨우 왜적(倭敵)을 물리치는 슬픈 역사(歷史)를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병자호란(丙子胡亂)때에는 충청감사(忠淸監司) 정세규(鄭世圭)가 근왕병(勤王兵)으로 데리고 온 수천 명(數千名)의 군사(軍士)가 험천전투(險川戰鬪)에서 전멸(全滅)을 당(當)하는 수모(受侮)를 겪었던 것이다. 이토록 적난(賊難)에 부수어진 교통통신시설(交通通信施設)을 복구(復舊)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가슴 아프다. 이제 늦었더라도 옛날의 교통통신시설(交通通信施設)을 재현(再現)하여 국가(國家)의 위난(危難)에 대비(對備)하였던 국가시설(國家施設)을 후손(後孫)들에게 정확(正確)하게 알려주어서 세계(世界)속에 선진기술(先進技術)분야(分野)를 제패(制霸)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努力)하고 습득(習得)한 기술(技術)을 총력(總力)을 다하여 더욱 연마(研磨)하도록 교훈적(教訓的)인 계기(契機)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재(現在) 전국(全國)의 교통(交通)과 통신(通信)을 담당(擔當)하는 도로공사(道路公社)와 한국통신(韓國通信)이 있는 성남(城南)에서 옛 영화(榮華)와 비애(悲哀)를 다시 한번 재현(再現)하여야 할 것이다.

여 백

# 해월 최시형의 생명사상

조성문

## 목 차

1. 머리말
2. 동학의 생명사상
  - 1) 생명의 신성과 인성
  - 2) 생명의 운동성
  - 3) 생명의 동귀일체성
3. 해월 최시형의 생명사상
  - 1) 경천
  - 2) 경인
  - 3) 경물
4. 맺음말

## 1. 머리말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은 1827년 3월 21일 경주(慶州) 동촌 황오리(皇吾里)에서 태어났다. 초명은 경상(慶翔), 아버지는 최종수(崔宗秀)이고 어머니는 월성(月城) 배씨(裴氏)이다. 5세 때 어머니를, 12세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해월은 남의 집 머슴, 제지소 용인(庸人) 등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중 용담(龍潭)으로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를 찾아가 1861년 동학에 입도하였다. 동학에 입도한 해월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운의

가르침을 받으며 엄동설한에도 매일처럼 찬물로 목욕재계를 하는 고된 수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sup>1)</sup> 그러던 어느 날 해월은 반 종지의 등잔기름으로 21일 동안 밤을 밝혔으나 기름이 줄지 않고 있다가 마침 영덕 도인 이경중(李敬仲)이 기름 한 병을 가져와서 보니 그때서야 기름이 말라 있는 것을 알게 된 이적(異蹟)을 경험했다.<sup>2)</sup> 이런 해월의 수련활동을 눈여겨보던 수운은 1863년 해월에게 도통을 전수하였다. 해월이 수운에 이어 동학의 2세 교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 수운이 대구(大邱) 장대(將臺)에서 좌도난정(左道亂正)이라는 죄명으로 참형을 당하게 되면서 수운의 수제자인 해월을 잡으려는 관의 추적이 강화되었고 이를 피해 해월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갔다. 이로부터 해월은 36년간을 숨어 지내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흩어진 교도들을 모으고 교단을 정비하여 교세를 넓히는 한편 수운으로부터 받은 도(道)에 정진하여 동학의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입지를 굳혔다.

36년간 숨어서 도를 펴던 소위 은도시대(隱道時代) 초반인 1872년 이필제(李弼濟)와 더불어 경북 영해(寧海)에서 수운의 신원(伸冤)을 위한 교조신원운동(教祖伸冤運動)을 펼쳤으나 실패한 해월은 다시금 더 깊은 산속으로 피하였다. 험난한 산 속에서의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해월은 잠시도 수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동학도들에게 바른 수련을 하도록 지도를 하는 한편, 1880년에는 수운이 저술한 한문체 경전인 동경대전(東經大全)을, 1881년에는 수운의 한글가사로 된 경전인 용담유사(龍潭遺詞)를 간행하였다.

동학의 교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자 해월은 공주(公州), 삼례(參禮), 서울, 보은(報恩)등지에서 대대적으로 교조신원운동을 펼쳤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민의(民意)를 집결시킨 대규모 시위였으며 지금까지 숨어서만 지내던 동학 교단의 사회와 정부에 대한 대규모 집회이기도 했다. 더구나 이 교조신원운동은 당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외국세력에 대해 척양척왜(斥洋斥倭)라는 반외세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는 마침내 갑오동학혁명(甲午東學革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894년 11월 공주전투에서 참패한 후 이천(利川)을 거쳐 여주(驪州) 도전리(道全里; 당시 全巨論)에 몸을 숨긴 해월은 1898년 추격군을 피하던 중 원주(原州) 송골에서 체포되어 남한강을 통해 서울로 압송되었고 그해 6월 2일 교수형을 당했다. 그의 묘는 여주군 금사면(金沙面) 주록리(走鹿里)에 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해월은 지식이 많거나, 영적(靈的) 카리스마를 갖춘 사람은

1) 이현희, 경주인 해월 최시형 연구, p.3.

2) 천도교 역사, p.48.



아니었다. 다만 스승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서 묵묵히 실천하려고 애쓴 사람이다. 해월은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항상 온화하고 조용한 가운데 소박하게 삶을 영위하였다. 한울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사물을 공경하는데 충실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강하지도 않았으며 크지도 않았다. 그러나 해월은 언제나 밑바닥 민중의 편에 섰으로써 동학적 삶을 실천하였고 작은 것에서 한울의 기운을 찾으려 노력했으며 생명이 없는 곳에서 한울의 생명을 느끼려 고민했었다. 비록 시대적 상황의 긴박함이 그로 하여금 일탈을 강요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적 죽음을 불러오게도 하였으나 그가 보여준, 우주만물의 합일(合一) 안에 담겨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은 오늘의 우리에게 축복이요 희망임에 틀림이 없다.

어느날 인생의 황혼녘에 불쑥 해월이 여주에 나타났다. 잠시 머물며 아이를 낳고 ‘이천식천’을 이야기하고 손병희(孫秉熙)에게 도통을 전수했다. 해월과 여주와의 이런 인연이 자연스레 해월사상을 주목하게 하였으며 특히 수운의 시천주(侍天主)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우주만물이 바로 한울님이니 한울과 사람은 물론 자연환경까지도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아 존중해야 한다는 해월의 생명사상(生命思想)을 살피볼 기회를 갖게 하였다.

먼저 후천개벽(後天開闢)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인류의 가장 큰 숙원인 진정한 평등과 자유가 넘쳐나는, 오직 사람들만이 아닌 한울과 사람, 사람과 자연, 나아가 한울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동학 속에서 생명사상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여주인(驪州人) 최시형의 삼경(三敬)사상을 통해 지구환경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가 나갈 바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동학의 생명사상

동학의 생명사상은 모든 만물의 존재근거를 전체적으로 아울러 ‘하나의 커다란 생명’ 즉 한울생명으로 본다. 그러므로 각각의 생명과 전체 생명은 모두 한 생명으로 관계하며 상호 결합되어 생성되고 성장하며 소멸한다. 따라서 한울생명 안에서 본질과 현상은 분리할 수 없는 일체이다.

동학에서는 우주를 가리켜 ‘무궁한 이 울’이라고 표현한다. 용담유사에 나오는 말이다. 무궁해서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에는 한울의 기운인 ‘지기(至氣)’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지기는 간섭하지 않고 명(命)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한다. 우주에 수많은 만상(萬象)이 편재

되어 있어도 궁극적으로 이들 모두는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한울의 지기와 함께 서로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있고, 무궁한 우주와 함께 ‘하나의 커다란 생명’으로 되어있다는 것이 동학의 우주관이다. 따라서 이 무궁한 우주, 곧 한울의 지기에 의하여 명하여진 만유(萬有)는 같은 뿌리를 지닌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동학은 인간만이 홀로 가장 존귀하다는 인간중심의 인간존엄주의에 머물지 않고 경천(敬天)·경인(敬人)·경물(敬物)이라는 삼경사상을 중요한 근간으로 삼게 된다.<sup>3)</sup>

## 1) 생명의 인성과 신성

동학에서 생명은 신령(神靈)하다. 한울의 씨앗을 몸에 모시고 있다는 의미로 내유신령(內有神靈)<sup>4)</sup>이다. 씨앗에서 움이 터 원래의 제 모습으로 성장하듯이 씨앗에는 삼라만상의 생명 체계가 압축되어있다. 이 신비스런 조화를 담고 있는 씨앗, 즉 생명을 신령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동학에서 생명은 기화(氣化)한다. 내유신령과 일치를 이루며 불이적(不移的) 관계에 있는 것이 외유기화(外有氣化)다. 기화란 신비한 기운과의 동화(同化)로써 한울생명이 밖으로 드러난 변화과정이다. 기화는 동질적(同質的) 기화와 이질적(異質的) 기화로 구분되는데 한울이 한울 전체를 키우기 위해 서로 도와주어 기운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 동질적 기화요, 한울로써 한울을 먹음(以天食天)으로 서로 기운을 통하게 하는 것이 이질적 기화다.<sup>5)</sup>

기화의 작용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무릇 천도란 것은 형상이 없는 것 같으나 자취가 있고 지리란 것은 넓은 것 같으나 방위가 있는 것이니라.’<sup>6)</sup>는 말처럼 기화는 질서가 정연하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한울이 감응치 아니하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한울이 언제나 감응하느니라.’<sup>7)</sup>는 말에서 보듯 기화는 사람처럼 감정을 가진다. 또한 기화는 ‘원위(願爲)라는 것은 청하여 비는 뜻이요 대강(大降)이라는 것은 기화를 원하는 것이니라.’는 말이 가르치고 있듯이 인간이 청하여 빌 수 있는 신성을 지니고 있다.

한울생명의 인성(人性)과 신성(神性)에 대해 좀 더 설명하면 동학의 한울생명은 초월적이

3) 천도교, p.44.

4) 천도교경전, p.34.

5) 앞의 책, pp.365~366.

6) 앞의 책, p.23.

7) 앞의 책, p.301.

면서 동시에 내재적이고, 인격적이면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데 이는 인간을 통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우주만물의 끝없는 생성과 변화를 주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2) 생명의 운동성

동학의 생명은 변화한다. 모든 생명은 자라는 것이고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즉 무위이화(無爲而化)다. 무위이화란 한울생명의 순환법칙이다.<sup>8)</sup> 그래서 한울의 조화(造化)는 무위이화로서 어떤 다른 힘의 작위(作爲)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울의 섭리에 의하여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동학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포덕문(布德文)에서는 ‘저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사시가 성하고 쇠함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이 또한 한울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로되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무위이화로 알더니…’<sup>9)</sup> 라고 말하고 논학문(論學文)에서는 ‘우리 도는 무위이화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한울의 성품을 거느리고 한울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화해나는 것이요…’<sup>10)</sup>라고 말함으로써 조화와 무위이화가 다른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 그러나 곧 ‘조화라는 것은 무위이화요.’<sup>11)</sup>라고 단정하면서 의문의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조화는 무위이화와 다른 것이 아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뿐이다. 조화가 무위이화라는 것은 비록 한울의 조화라 하더라도 한울이 임의로 무엇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다. 지기의 운행 원리와 감응의 법칙이 있고 그 법칙 안에서 한울은 생명으로서, 영으로서, 기운으로서 우주의 운행과 만물의 화생(化生)에 참여할 뿐이다.<sup>12)</sup> 그러므로 동학의 생명은 무왕불복(無往不復)한다. ‘가고 돌아오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다.

동학의 생명은 현존성, 시간성을 갖는다. 모든 만물은 시간 저 너머로부터 와서 현재의 공간 위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시간 속으로 사라진다. 누구도 이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동학은 특히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현재, 바로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중시한다. 동학의 향이설위(向我設位)는 나를 둘러싼 시간관념 속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를 중시한 사후

8) 노영필, 동학의 생명사상 연구, pp.49~50.

9) 천도교 경전, pp.15~16.

10) 앞의 책, pp.30~31.

11) 앞의 책, pp.34~35.

12) 김용휘, 우리 학문으로서의 동학, pp.93~94.

관(死後觀)의 표현이다. 제사상의 위패를 벽에다 세워놓고 제(祭)를 지내는 방법이 기존의 향벽설위(向壁設位)이고 조상의 성령이 나에게 모셔져 있으므로 위패를 나를 향한 쪽으로 세워놓고 제를 지내는 것이 향아설위이다.

나의 부모는 첫 조상으로부터 몇 만대에 이르도록 혈기를 계승하여 나에게 이른 것이요, 또 부모의 심령은 한울로부터 몇 만대를 이어 나에게 이른 것이니 부모가 죽은 뒤에도 혈기는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이요, 심령과 정신도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제사를 받들고 위를 베푸는 것은 그 자손을 위하는 것이 본위이니, 평상시에 식사를 하듯이 위를 베푸는 뒤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삼고하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의 교훈과 남기신 사업의 뜻을 생각하면서 맹세하는 것이 옳으니라.<sup>13)</sup>

향아설위의 이치에 대한 해월의 대답이다. 향아설위의 관점에서 보면 제사상 앞에 선 나와 차려진 음식은 모두 역사적 현재를 담고 있다. 향벽설위는 ‘저 벽 쪽에, 내 시선 저쪽,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내일에, 신이 있고, 천국이 있고, 행복된 낙원이 있다는 제사구조’<sup>14)</sup>다. 이에 반하여 향아설위는 희망의 미래를 저 벽 쪽으로부터 내 쪽으로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나를 중심으로 잃어버렸던 현재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sup>15)</sup>

동학의 생명은 불이적 고유성을 지닌다. ‘불이(不移)’는 개별내용은 달라도 전체의 형식 안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옮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울생명의 고유성은 한울을 모시는데 안으로는 신령하고 밖으로는 기화함이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다. 동학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불이’는 우주의 모든 것이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이 인연 관계에 따라 서로 ‘한 기운’으로 관계한다고 보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도 모든 물질의 순환 및 생명의 사멸과 탄생은 연기(緣起)에 따른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삶과 죽음의 윤회 속에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sup>16)</sup> 동학에 의하면 우주만물은 한 생명체이어서 만물이 각기 떨어져 존재, 해도 그 근본 생명은 오직 하나일 뿐이니, 시간과 공간을 따라 각기 형태와 내용이 바뀐다 해도 한울생명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처음부터 변함이 없는(不遷不易), 옮겨감이 없는(不移), 그저 한 생명이었을 뿐이다.

13) 천도교 경전, pp.349~350.

14) 김지하, 생명, p.28.

15) 노영필, 동학의 생명사상 연구, p.56.

16) 같은 책, p.58.

### 3) 생명의 동귀일체성

동학의 생명은 기화작용을 통해 일체를 이룬다. 동귀일체(同歸一體)란 이기적인 개체만을 내세우는 각자위심(各自爲心)의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한울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아 한울과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한울님 하신말씀 너도 역시 사람이라 무엇을 알았으며  
억조창생(億兆蒼生) 많은 사람 동귀일체 하는 줄을 사십평생 알았더냐<sup>17)</sup>

그러나 한울님은 지공무사(至公無私) 하신 마음 불택선악(不擇善惡) 하시나니  
효박(滄薄)한 이 세상을 동귀일체 하단말가<sup>18)</sup>

이는 모든 인류가, 모든 만물이 하나로 돌아가는, 즉 한 생명으로 합일된다는 깨달음의 표현이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나’라는 개체를 넘어 ‘우리’라는 공동의 장으로 인식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동귀일체의 세상이요 후천개벽(後天開闢)일 것이다. 이런 관점을 확대해 우주만물이 하나임을 깨닫고 보면 사람과 자연사물은 같은 한울을 모신 존엄한 존재로 평등하다. 그러므로 ‘저 나무사이에서 울고 있는 새소리 역시 시천주(侍天主)’라는 해월의 가르침처럼 삼라만상이 한울을 모시고 있다는데 생각이 이르면 ‘한울님을 공경하듯이(敬天), 사람도 공경해야 하며(敬人), 나아가 만물도 이와 같이 공경해야 한다(敬物)’는 해월의 삼경사상(三敬思想)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sup>19)</sup>

## 3. 해월 최시형의 생명사상

해월은 동학의 도(道)를 말하면서 ‘우리의 도는 성(誠)·경(敬)·신(信) 세 글자에 있느니라’ 하였다. 스승인 수운이 정성에 능하고 공경에 능하고 믿음에 능한 큰 성인이었기에 정성이

17) 천도교 경전, p.126.

18) 같은 책, p.220.

19) 천도교, pp.25~26.

한울에 이르러 천명(天命)을 계승하였고, 공경이 하늘에 이르러 조용히 천어(天語)를 들었고, 믿음이 하늘에 이르러 묵계(默契)가 한울과 합하였기 때문이다.<sup>20)</sup> 해월은 특히 경(敬)을 강조했는데 경은 일상생활을 통하여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수도이며 수행이어서 누구보다 생활 속의 도를 구현하는데 철저했던 해월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사람마다 마음을 공경하면 기혈이 크게 화(和)하고, 사람마다 사람을 공경하면 많은 사람이 와서 모이고, 사람마다 만물을 공경하면 만상(萬象)이 거동하여 오니, 거룩하다 공경하고 공경함이어!<sup>21)</sup>

이처럼 한울을 공경함으로써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며, 사람을 공경할 줄 알아야 바르게 도를 실행하는 것이며, 마침내 사물을 공경하는데 이르러야 천지기화(天地氣化)의 덕에 합일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해월이 주장하는 생명사상의 요체(要諦)다.

## 1) 경천(敬天)

경천은 한울을 공경한다는 말이다. 한울을 공경한다함은 모든 존재가 한울로부터 나왔기에 한울에 감사드리는 일이다. 사람은 한울을 공경함으로써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는데, 이는 한울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요 본성이자 주인이지만 그 한울을 모신 자신이야말로 영원한 존재이고 생명의 원천이며 본래의 마음자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sup>22)</sup> 그러므로 해월은 ‘제사를 지낼 때에 벽을 향하여 위를 배푸는 것이 옳으나, 나를 향하여 위를 배푸는 것이 옳으나.’고 물으면서 한울과 내가 하나이며 천지만물이 나와 한 몸을 이룬 까닭에 나를 향해 위를 배푸는 향아설위가 옳다고 설법하였던 것이다.

사람은 경천함으로써 인오동포(人吾同胞) 물오동포(物吾同胞)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천지는 곧 부모요 부모는 곧 천지니라, 천지부모(天地父母)는 처음부터 사이가 없느니라.<sup>23)</sup>

---

20) 천도교 경전, p.308.

21) 앞의 책, p.305.

22) 오문환, 해월의 삼경사상 p.11.

23) 천도교 경전, p.255.

지금 세상 사람은 다만 부모의 기혈포태(氣血胞胎)의 이치만 말하고, 천지조화 기성이 부(氣成理賦)의 근본을 알지 못하며 혹은 이기포태(理氣胞胎)의 수를 말하되, 낙지이후에 천포지태(天胞地胎) 자연이기의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음을 전연 알지 못하니 가히 탄식할 일이다.<sup>24)</sup>

해월은 천지와 부모가 인간을 포태하여 젖과 오곡을 먹이는 것이야말로 천지부모일체로서 복육(覆育)하는 은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은덕을 알아야 천지부모를 공경하게 되며,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천지부모일체설(天地父母一體說)이나 천지부모포태설(天地父母胞胎說)은 인오동포 및 물오동포와 연결된다. 만물이 천지부모에게서 나온 것이니 결국 모든 사람은 나와 같은 배에서 나온 것(人吾同胞)이며, 또한 만물 역시 나와 같은 배에서 나온 것(物吾同胞)이 되는 것이다.<sup>25)</sup> 그리하여 인오(人吾)와 물오(物吾)가 동포(同胞)인 까닭에 마침내 천오(天吾)가 동포임을 알게 되고 이로써 사사천(事事天) 물물천(物物天)으로 만물이 시천주(侍天主) 아님이 없게 되는 바, 자연스레 경천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양천(養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한울을 양(養)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한울을 모실줄 아느니라. 한울이 내 마음속에 있음이 마치 종자의 생명이 종자 속에 있음과 같으니, 종자를 땅에 심어 그 생명을 기르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은 도에 의하여 한울을 양하게 되는 것이다.<sup>26)</sup>

이런 이치에 합일한 해월은 십무천(十毋天)을 통해 경천의 도리와 더 나아가 양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 십무천

1. 무기천(毋欺天) : 한울님을 속이지 마라.
2. 무만천(毋慢天) : 한울님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
3. 무상천(毋傷天) : 한울님을 상하게 하지 말라.
4. 무난천(毋亂天) : 한울님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
5. 무요천(毋夭天) : 한울님을 일찍 죽게 하지 말라.

24) 천도교 경전, p.258.

25) 허호익. 해월 최시형의 삼경론의 삼태극적 구조와 천지인 신관, pp.7~9.

26) 천도교 경전, p.367.

6. 무오천(毋汚天) : 한울님을 더럽히지 말라.
7. 무뇌천(毋餽天) : 한울님을 주리게 하지 말라.
8. 무괴천(毋壞天) : 한울님을 허물어지게 하지 말라.
9. 무염천(毋厭天) : 한울님을 싫어하게 하지 말라.
10. 무굴천(毋屈天) : 한울님을 굴하게 하지 말라.

## 2) 경인(敬人)

경인은 사람을 공경한다는 말이다. 사람은 한울을 떠날 수 없고 한울 또한 사람을 떠날 수 없다고 해월은 보았다. 사람의 한 호흡(一呼吸), 한 동정(一動靜), 한 의식(一衣食)도 한울과 서로 화(化)하는 기틀이라, 한울과 사람은 둘이 아니므로 한울을 공경하듯 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해월은 대인접물(待人接物)에서 사인여천(事人如天)하라고 경고한다.

사람이 바로 한울이니(人卽天) 사람 섬기기를 한울같이 하라(事人如天). 내 제군들을 보니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자가 많으니 한심한 일이요, 도에서 이탈되는 사람도 이래서 생기니 슬픈 일이다. 나도 또한 이런 마음이 있느니라. 이런 마음이 생기면 생길 수 있으나, 이런 마음을 감히 내지 않는 것은 한울님을 내 마음에 양(養)하지 못할까 두려워 함이로다.<sup>27)</sup>

한울을 공경함은 사람을 공경하는 행위에 의지하여 사실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월은 말한다.

한울이 사람을 떠나 따로 있지 않는지라, 사람을 버리고 한울을 공경한다는 것은 물을 버리고 해갈(解渴)을 구하는 자와 같으니라.<sup>28)</sup>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물을 마셔야만 한다. 물에 대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축적하더라도 직접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경천이 반드시 경인을 통하여 실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29)</sup> 또 해월은 ‘도인의 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27) 천도교 경전, p.278.

28) 앞의 책, p.357.



이르지 말고 한울님이 강림하셨다’ 말하고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 한울님이 싫어하고 기운이 상한다’ 고 말하였다. 이는 한울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극한 공경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누가 나에게 어른이 아니며 누가 나에게 스승이 아니리오. 나는 비록 부인과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배울만한 것은 배우고 스승으로 모실만한 것은 스승으로 모시노라.<sup>30)</sup>

이는 어느 특정한 신분의 사람만이 ‘무궁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빈부나 귀천의 구분없이, 남녀와 노소의 차별없이 누구나 무궁한 존재로서 평등하다는 만민평등주의의 발로(發露)라 할 수 있다.

### 3) 경물(敬物)

경물은 만물을 공경한다는 말이다. 해월은 ‘사람은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도덕의 극치(極致)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만물을 공경함에까지 이르러야 천지기화의 덕에 합일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해월이 말한 그대로 인오동포 물오동포이므로 한울 공경(敬天)이 사람 공경(敬人)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만물 공경(敬物)로 이어져 마침내 만물 공경이 한울 공경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다.

천지는 곧 부모요 부모는 곧 천지니 천지부모는 일체니라.<sup>31)</sup>

한울과 땅이 덮고 실었으니 덕이 아니고 무엇이며, 해와 달이 비치었으니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며, 만물이 화해 낳으니(化生) 천지 이기의 조화가 아니고 무엇인가.<sup>32)</sup>

부모의 포태가 곧 천지의 포태니, 사람이 어렸을 때에 그 어머니 젖을 빠는 것은 곧 천지의 젖이요, 자라서 오곡을 먹는 것은 또한 천지의 젖이니라. 어려서 먹는 것이 어머니의 젖이 아니고 무엇이며, 자라서 먹는 것이 천지의 곡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젖과 곡

29) 오문환, 해월의 삼경사상, pp.16~17.

30) 천도교 경전, pp.285~286.

31) 천도교 경전, p.249.

32) 같은 책, 같은 쪽.

식은 다 이것이 천지의 녹(祿)이니라.<sup>33)</sup>

이처럼 만물이 낳고 나는 것은 한울의 마음과 한울의 기운을 받은 뒤에라야 가능한 것이니 우주만물이 모두 한 기운과 한 마음으로 꿰뚫어져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천식천(以天食天)의 이치로서 ‘모든 물건이 다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 것이 아님이 없을지니, 한울 전체로 본다면 한울이 한울 전체를 키우기 위하여 같은 바탕이 된 자는 서로 도와줌으로써 서로 기운이 화합(氣化)을 이루게 하고, 다른 바탕이 된 자는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 것으로써 서로 기운이 화합을 통하게 하는 것이니…’라는 가르침의 근거다.

만물이 시천주 아님이 없으니 능히 이 이치를 알면 살생은 금치 아니해도 자연히 금해 지리라. 제비의 알을 깨치지 아니한 뒤에라야 봉황이 와서 거동하고, 초목의 싹을 꺾지 아니한 뒤에라야 산림이 무성하리라. 손수 꽃가지를 꺾으면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패물을 버리면 부자가 될 수 없느니라. 날짐승 삼천도 각각 그 종류가 있고 털벌레 삼천도 각각 그 목숨이 있으니, 만물을 공경하면 덕이 만방에 미치리라.<sup>34)</sup>

동학은 사람과 사물을 떠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인(敬人)하여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하나임을 알게 하고 경물(敬物)하여 사람과 사물이 하나라는 이치를 깨닫는데 있다. 동학의 길은 자연 생태계에 반하는 길이 아니라 생태계의 질서와 법칙을 터득하여 깨닫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동학을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유다.<sup>35)</sup> 해월의 경물사상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우주만물로 확대되어 간다. 또한 생명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에게도 거침없이 확산되어 나간다.

우주에 가득찬 것은 도서 혼원(混元)한 한 기운이니, 한 걸음이라도 감히 경솔하게 건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한가히 있을 때에 한 어린이가 나막신을 신고 빠르게 앞을 지나가니, 그 소리 땅을 울리어 놀라서 일어나 가슴을 어루만지며, 「그 어린이의 나막신 소리에 내 가슴이 아프더라」고 말했었노라. 땅을 소중히 여기기를 어머니의 살같이 하라.<sup>36)</sup>

---

33) 같은 책, pp.252~253.

34) 같은 책, pp.287~288.

35) 오문환, 해월의 삼경사상, p.18.

36) 천도교 경전, pp.305~306.

급격한 땅의 울림에 가슴이 아프고, 그 땅을 어머니의 살같이 느끼는 해월에게는 이미 땅과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요, 그런즉 자연과 내가 하나이며 생명과 무생명이 하나였다. 동학은 수심정기(守心正氣)를 통하여 잃어버린 본성(本性)을 회복하고 이 본성의 회복을 통해 우주적 섭리에 합일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이 내수도문(內修道文)의 봉행(奉行)이 그 수련방법에 하나다. 특히 해월의 경물사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내수도문의 첫째 조목과 둘째 조목이다.

육축(六畜)이라도 다 아끼며, 나무라도 생수를 꺾지 말며… 또한 침을 멀리 뱉고, 코를 멀리 풀고, 물을 멀리 뿌리면 곧 천지부모님 얼굴에 뺨는 것이니 부디 그리 아시고 조심 하옵소서.<sup>37)</sup>

해월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면 우주의 생명본체인 한울을 상하게 하는 것이므로 한울을 자연 그대로, 즉 본연의 모습으로, 제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울 자체인 우주만물을 부모와 같이 대하고 섬기라고 가르친다.

#### 4. 맺음말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비단 생태계 파괴가 주는 위협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빚어낸 약육강식, 개인우선, 물질만능 때문에 급증하는 인성의 파괴를 더 걱정스러워 하기도 한다. 모두가 인류의 위기를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미증유의 위기에서 지구를, 인간을 구원해 낼 사상적 체계로서 동학의 생명사상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앞에 현존하는 위기의 저변에는 너와 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이분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므로 나와 내 것이 더 먼저이고 소중한데, 너와 네 것은 나중이고 하찮은 것이 되고 만다. 그것은 다시 너의 ‘나’가 나의 ‘너’를 뒤로 밀어내고 무시함으로써 증오와 갈등을 확대 재생산해 왔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내유신령한 동학의 생명은 외유기화 한다. 이는 신령한 한울이 신령한 한울로 확대되는 것이다. 한울을 모신 인간이 한울을 모신 인간을 섬기는 것이다. 한울이 갖든 사물이 한울이 갖든 사물을 살리는 것이다. 동학의 생명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37) 같은 책, pp.369~370.

하나다. 한울과 내가 하나요, 나와 사물이 하나며, 사물과 한울이 하나다. 그리하여 한울과 나와 사물이 하나다. 우주만물이 하나다. 이렇듯 우주에 충만한 ‘나’이므로 그런 내가 소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나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울을 공경하고(敬天), 사람을 공경하고(敬人), 사물을 공경하는(敬物) 일은 궁극적으로 나를 공경하는(敬吾) 일이다. 모두가 ‘나’인 세상에서, 내가 나를 공경하는 세상에서 증오와 갈등은 없다.

100년 전 동학의 생명을 체득한 해월이 꿈꾸었던 세상이 있었다. 그는 빈부와 귀천, 남녀와 노소의 차별이 없는 세상, 더 나아가 생노병사(生老病死)의 고통을 넘어서는 세상을 꿈꾸었다. 각자위심(各自爲心)에서 벗어나 동귀일체(同歸一體)가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다. 평등과 자유가 넘치는, 오로지 사모할 일만 있는, 마침내 후천개벽(後天開闢)으로 열리는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다. 아직 오지 않았으나 동학의 생명으로 가능한 그런 세상을 꿈꾸었다.

그러므로 동학의 생명은 위기 속에 있는 지구를 구할 생명의 길로서, 파괴되어가는 인류문명을 치유할 생명의 도구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 안양 날피농악 小考

박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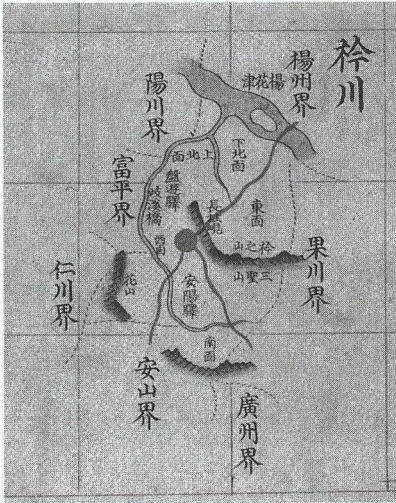
안양문화원 사무국장

## 목 차

1. 안양지역의 지리와 행정 특성
  - 1) 안양지역의 역사적인 고찰
  - 2) “안양” 명칭의 유래
2. 풍물의 기원
  - 1) 농악의 유래와 갈래
  - 2) 농악의 유형
  - 3) 악기 편성
  - 4) 치배와 복색 편성
  - 5) 안양 날피농악의 특성
  - 6) 안양 날피농악의 복원

## 1. 안양지역의 지리와 행정 특성

우리 안양은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경부선 철도가 중앙을 가로질러 지나며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에 연결된 채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인접되어 있는 등 교통의 요지로 부상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과천, 성남, 광주로 이어지며, 서쪽으로는 안산, 시흥, 인천으로 연계되고, 남쪽으로는 의왕, 수원, 북쪽으로는 광명, 서울로 이어진다. 면적은 58.52km<sup>2</sup>이며 만안구와 동안구로 나누어진다. 만안구는 14개동 동안구는 17개동, 총 31개동으로 인구는 624,349명(2006년 10월31일 기준)이다.



『金川』(1760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 1) 안양지역의 역사적인 고찰

(1) 안양은 고구려 때(475) 잉벌노현(仍伐奴縣), 신라 때(757)는 곡양현(穀壤縣), 고려 때(940)는 금주(衿州), 조선 태종 13년(1413)부터 정조 19년(1795)까지는 금천현(衿川縣)이란 명칭이었으며, 1795년부터는 시흥현(始興縣)이라 하였으며, 1895년에 이르러서 시흥군(始興郡)으로 개칭되었다. 1989년 평촌 지역 문화유적 조사 때 석기시대의 각종 유물과 청동기 시대의 지석묘가 발견되어 오래된 주거근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청동기 시대를 거쳐, 원 삼국시대 때 마한의

영토, 백제 근초고왕(346-375)때에 백제의 영토가 되었다가 고구려 장수왕(394-491)때 고구려 남쪽 영토였다.

(2)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정조대왕(1752~1800) 때 만안교가 축조되고 능행로가 만들어지면서 행정 상 발전이 있었으며, 이후 근세에 경부철도가 건설되고 산업체들이 들어서는 가운데 1960년대 이후 현대화 산업화의 물결로 급성장 하게 되었다. 지금은 특별시와 광역시 다음의 대도시로 성장한 상태이다.

## 2) “안양” 명칭의 유래

(1) 안양(安養)이란 명칭은 신라 효공왕 4년(900)에 궁예의 부장인 왕건이 금주(시흥)와 과주(과천)등의 제 지역을 징벌하기위해 삼성산을 지나는데 이때 산꼭대기에 구름이 오색빛으로 채색 된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살피게 하였는데, 구름 밑에 능정(能正)이란 노스님을 만난 인연으로 왕건의 뜻과 일치하여 지금의 만안구 석수1동 산27-28번지 일대에 안양사(安養寺)를 창건하면서 안양(安養)이란 명칭이 탄생 되었다.

(2) 안양(安養)이란 뜻은 불교에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몸을 쉬게 하는 극락정토의 세계로 모든 일이 원만구복하고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이 없는 자유롭고 아늑한 이상향의 뜻이 담겨 있다.

## 2. 풍물의 기원

농악은 우리나라 농촌의 대표적인 민속 오락으로서,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농민들이 주로 즐기는 오락이라 하여 “농악”이라고 하며 풍물, 풍장, 매구(뿡과리), 두레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농악의 유래에 대하여는 흔히 옛날의 농경 사회에서 씨앗을 뿌릴 때나 곡식을 거두어 들일 때 풍년을 빌고 풍년을 축하하는 축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농악의 초기 형태는 짐승 사냥이나 전쟁을 할 때 사기를 높이기 위해 자연적으로 생겨났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몽둥이나 환호성, 엉덩이춤과 같은 원시 형태에서 생활 도구의 진보에 따라 뿡과리, 장구, 북, 징, 소고와 같은 악기가 첨가되었고, 단조로운 가락에서 다채로운 가락으로 발전해 왔으리라는 추측이다. 예로부터 농악은 모심기나 추수 등과 같은 농사일을 할 때 뿐 만 아니라 정초, 단오, 백중, 추석 등의 명절날과 부락제와 같은 행사에 많이 공연 되었다. 풍물의 원형과 당시 사회적 역할을 고찰하는데 참고가 되는 최초의 문헌은(三國志 魏志 東夷傳)의 마한시대 편이다. 연일음주가무(連日飲酒歌舞)- 연일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 주야음주가무(晝夜飲酒歌舞)- 낮 밤으로 술 마시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 군중음주주야무휴(群衆飲酒晝夜無休)- 군중이 술마시고 놀기를 낮밤으로 쉬지 않았다. 위의 기록들로 유추해 볼 때 제천의식이란 단순한 제의식의 행사가 아닌 현대의 종합축제와 같은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삼한의 탁무(鐸舞)에서는 타악(打樂)이 수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로 볼 때 풍물의 구체적 형태를 갖추게 된 시기 및 그 내용을 규정하기에는 힘들다. 그러나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만은 틀림없다. 풍물은 흔히 대동굿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데 이 단어 속에는 큰 집합체, 공동체라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역사에서 농악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일제시대에 村山智順이라는 일본인이 쓴 부락제(部落祭)라는 책에서이다. 일제이후부터는 농악으로 그 의미가 개악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 촌로들은 농악이라고 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굿 친다. 풍장 친다, 걸궁 나간다, 매구친다. 라고 표현한다. 매구, 풍장, 두레, 걸궁, 굿 등의 여러 이름을 가진 이 민속예술은 쓰임새와 장소에 따라 앞의 이름들 중에서 임의로 차용하여 불렀다.

### 1) 농악의 유래와 갈래

## (1) 농악의 명칭

농악(農樂)이란 농기(農旗)를 앞세워 사물(四物:꽁과리, 징, 장구, 북)과 소고, 잡색 등으로 형성된 음악과 춤의 종합예술로 1930년대 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로 보이며, 1960년대를 전후하여 곳곳에서 농악경연대회가 열리면서 농악(農樂)이란 용어가 일반화 되었다.

## (2) 농악의 유래

- ① 농악의 내력에 대해서는 풍작(豐作), 안택축원설(安宅祝願說), 군악설(軍樂說), 불교 관계설(佛敎關係說), 노동설(勞動說)등이 있다.
- ② 제의농악(祭儀農樂)과 집들이 농악에서 풍농, 풍어, 안택축원적 요소가 여실이 나타난다.
- ③ 판제에서의 진(陣)풀이와 영기(令旗), 전립(戰笠), 북(鼓)의 사용 등은 군악적(軍樂的) 요소가 나타난다.
- ④ 불교 관계적 요소에는 고깔, 삼색띠, 잡색인 조리중과 새미, 무동, 나비춤 등을 들 수 있으며 농자대본기(農者大本旗)는 두레작업의 유습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이러한 제요소들은 농악이 형성되고 변천하는 과정에서 시대적 영향을 받아 융합된 것으로 20세기 중반에는 각종 농악경연대회의 열기에 따라 복색이 화려해졌고, 지역 간의 교섭과 아울러 판제농악이 발달 되었다.
- ⑥ 이러한 판제농악의 성격은 연주, 노래, 춤, 놀이, 극 등이 어우러진 오케스트라 형식의 연주 무용이라 일컬어진다.
- ⑦ 최근 농악에서 파생된 이른바 “사물놀이”가 독자적 장르를 형성하며, 상모놀이와 더불어 무대 예술로서 각광을 받기도 한다.

## 2) 농악의 유형

농악은 연회형태와 지역형태에 따라 분류한다.

### (1) 연회형태에 따른 분류

- ① 제의농악 : 부락제의 일환으로 농악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



- ② 두레농악 : 마을 농경지를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공동체의식을 말한다.
- ③ 집들이 농악 : 농기를 앞세우고 집집마다 액막이 축원 곳을 하는 농악을 말한다.
- ④ 판재농악 : 판 굿 위주의 관람용 연희농악이라 한다.
- ⑤ 사물놀이 : 기타 농악으로 분류된다.

## (2) 지역에 따른 분류

경기, 충청지역의 “웃다리 농악”, 호남서부 평야지대의 “호남 우도농악”, 호남동부 섬진강 유역의 “호남 좌도농악”, 경상도 지역의 “영남농악”, 강원도 지역의 “영동농악”으로 분류되는데 우리 경기, 충청지역의 웃다리 농악에는 5대 계열이 존재하는데 서울 “남사당 농악”, “평택농악”, “천안 흥타령 농악”, “안성 남사당 농악”, “대전 웃다리 농악”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남사당 동일 계열로서 판제가 대동소이한데, 이는 1950년대 위 각 단체의 상쇠(쟁과리)가 남사당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한때는 함께 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판제를 익혔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기억이나 기량의 차이로 인하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고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경기도, 충청도에 관해 다루기로 한다.

### ◎ 경기도, 충청도 풍물굿

흔히 웃다리 풍물 굿 이라고 하며, 분포지역은 경기, 충청, 강원도, 영서지방이다. 소고와 북구의 구별이 없고 다른 지역에 비해 북을 적게 쓰는 편이며, 느린 가락과 빠른 가락을 고르게 쓴다.

쇠가락이 분명하고 암채, 숫채 가락의 변화를 구사하는 짝새 놀이가 발달했다.

타 지역에 비해 무동놀이가 발달하였고, 판 굿 의 짜임새가 다양하여 당산벌림과 같은 “ㄷ”자 진, 사통백이, 좌우치기 등 진풀이가 다양하게 발달 하였으며, 모든 치배 들이 상모를 쓰는 것 이 특징이다.

안성에 있는 청룡사는 옛날 남사당패들의 중심지로 널리 알려져 있고, 직업성을 띤 남사당은 연희 종목으로 버나(대접 돌리기), 살판(땅제주), 어름(줄타기), 덧배기(탈춤), 덜미(꼭두각시 놀음)외에 풍물놀이 에도 뛰어난 기량을 지니고 있었다.

충청도 풍물은 판 굿 짜임이 경기도 풍물과 같으나,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전라도 풍물의 영향으로 마을 굿 을 하며 두레가 있고 편성에 있어서 잡색에 대포수, 각시, 양반 등 이 있고 어른들이 무동놀이를 한다. 경기도 풍물의 특징인 무동 타기는 별로 없고 단체 춤 인 나비춤(나부춤)이 특색이다.

경기도에는 윗다리 농악이라는 일컬어지는 풍물놀이를 비롯하여 다양한 음악이 전승되어 오는데 현재 경기도 음악중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것은 중요무형문화재 11-나호 “평택농악” 과 경기도 무형문화재 20호 “광명농악”, 21호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27-가호 “여주상여 회다지 소리”, 29-나호 “화성 상여 회다지 소리”, 27-3호 “ 양평 상여회다치소리”, 31-가호 “경기소리(휘모리잡가)”, 31-나호 “경기소리(긴잡가)”, 32호 “송서, 율창”, 33호 “파주 금사리 민요”, 35호 “포천메나리”, 38호 “풀피리”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우리 민중의 삶속에 가장 가까우며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것 이 풍물이라고 할 수 있다. 힘든 농사일을 할 때 도 두드리고 흥겹게 놀 때 도 두드리고 세시풍속을 통하여 1년 내내 마을마다 풍물패들이 논다는 것은 그만큼 풍물이 우리 생활과 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 3) 악기 편성

- (1) 팽과리 : 팽과리의 유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신라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주장과 고려 공민왕 때 “주나라”에서 만들어져 중국 명나라 때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팽과리는 쇠, 메구, 깡매기, 깡쇠, 광쇠, 팽쇠, 소금, 동고, 쟁, 따위로 불리며 팽과리를 치는 사람을 쇠치는 사람(쇠치배)이라고 부른다. 앞 치배들 가운데 맨 앞에서 쇠를 치는 사람을 상쇠라 하는데 상쇠는 풍물굿패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팽과리는 장구와 어울려 율동 악기로서 으뜸인데 옛날에는 정악, 무악, 풍물굿등으로 주로 쓰였으나 특히 풍물 굿 에서는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가락으로 사람의 느낌을 고조시키고 흥을 돋구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 (2) 징 : 놋쇠로 만드는 타악기의 하나로 본래의 소리는 “징(鉦)”이나 “징”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졌다. 옛 군악인 고취악에서 쓰는 까닭으로 “고취징”이라는 별명도 있고 글라, 금, 대금, 금정등의 이름이 있다. 쓰임새은 넓어서 군악의 행진곡을 비롯한 무악과 풍물굿 등에 쓰이며, 절 에서도 쓰인다. 징은 고려 공민왕 때 중국 명나라에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고 팽과리 보다 먼저 쓰인 것으로 추측된다.  
징은 치는 횟수에 비해 그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징이 정확한 박으로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다른 치배 장단이 어지러워지고 불안하며 장구나 쇠, 북 모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 (3) 장구 : 장구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 문종30년 (1076)에 대악관 현방을 정할

때 장구업사(장구 연주자)가 있었다고 한다. 장구가 중국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로 전해진 것에 대하여는 두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중국 한무제 때 만들어져 고려 예종왕 9년 송나라에서 새로운 악기가 들어올 때 장구 이십년이 포함된 기록이 있고 또 하나는 장구가 중국 당나라 때 부터 쓰여 고려 때 들어왔다는 견해이다. 장구는 처음에는 당악(당에서 들어온 음악), 향악(옛날부터 내려온 우리의 음악)에 쓰였으며, 지금은 정악, 산조, 잡가, 민요, 풍물 굿, 무악 등 거의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정도 이다. 두 손으로 치기 때문에 가장 다양한 소리를 내어 어깨춤이 절로 나게 만든다. 분위기를 흐드러지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될 악기이며 민요나 춤 장단을 칠 때에는 궁편을 손으로 치기도 한다. 장구를 매는 방법도 지역이나 사람마다 다르고 그 나름의 맛을 제각기 가지고 있다.

- (4) 북 : 북은 꾸밈새가 간단한 까닭으로 그 역사가 오래되고 세계 어디에서나 그 발생을 볼 수 있으며 각 민족의 특징을 지니며 발달했다. 쓰임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풍물굿의 악기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이다. 그 까닭은 청동기 시대 이전의 목축시대에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악기이기 때문이다.
- (5) 소고 : 풍물 굿에 쓰이는 작은 북을 소고라 하며 다른 이름으로는 법고, 버꾸, 매구 북이라고도 한다. 지금의 소고는 대부분 손잡이가 달려있지만 옛날에는 손잡이가 있는것이 별로 없었으며 오늘날 것 보다 훨씬 커서 소고잡이 들이 치는 소리가 다른 풍물굿 악기들에 비해 못지 않았다고 한다.
- (6) 버꾸 : 북과 소고의 중간 형태로 크기는 북과 소고의 중간이며 북통에 나무썰기 없는 북과 같다. 버꾸는 끈을 짧게 하여 손에 감거나 따로 손잡이를 만들거나 하여 손에 고정시키고 친다. 북보다 가볍기 때문에 힘차고 다양한 춤 사위를 나타낼 수 있다.
- (7) 나발 · 나발의 길이는 3척 8촌(약11cm)이고 두토박 또는 세 토박으로 구분된 늦쇠로 만든 관을 아래로 밀어 넣어 짧게 꽂아 넣을 수 있게 되어있다. 나발은 고려 공민왕 때 명나라에서 군 악기로 들어왔다. 먼저 1초를 울리면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치매꾼들에게 준비하라는 신호이고 2초를 울리면 모두모여 떠날 채비를 하라는 것이며 3초를 울리면 떠남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서 1초, 2초, 3초라 함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는것을 뜻하는 것이며 부는 방식은 모두같다.
- (8) 태평소 : 날날이, 새납, 호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태평소는 조선 태조 때 명나라에서 들어온 것으로 당나라의 “사성”이 만든 것이라고 전한다. 전체 길이는 약 30cm이며 관

은 피리와는 달리 원 기둥이 아니고 원뿔꼴이다. 날날이는 본래 대취타(군악 행진곡)에 쓰였고 종묘제례악에도 쓰였는데 걸립 형태 때 들어와 풍물 굿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으리라 본다. 혀를 쫓는 상단에도 구리로 만든 구멍이 따로 있고 이 구멍 끝에는 작은 “서”를 쫓는다. 옛날에는 “서”를 갈대로 이용하였으나 요즘에는 음료수 빨대를 알맞은 크기로 자르고 다듬어서 쓰기도 한다. 지공(구멍)은 모두 8개이며 그 가운데 첫 번째 구멍은 뒷면에 있다.

#### 4) 지배와 복색 편성

현재 분류되어 있는 모든 지역의 풍물시초는 모두 마을굿이었으므로 풍물 복색은 지역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평상복 차림, 즉 흔히 우리가 민복이라고 부르는 광복이나 무명의 저고리 바지차림, 그리고 지역에 따라 행전과 띠를 두루거나 없거나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던 것이 마을굿과 전문적인 걸립패굿으로 갈라져 변천되어 가는 과정속에 달라진것이 아닐까 한다.

두레굿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복색은 비교적 소박하고, 직업적인 걸립패들의 차림은 한결 다양하고 화려한 양상을 보이거나 갈수록 전반적으로 화려해지고 엇비슷한 경향이 있다.

#### 5) 안양 날뽕농악의 특성

안양에서의 옷다리 날뽕농악을 알기 위해서는 옷다리 가락을 알아야 하고 옷다리 가락을 알기 위해서는 경기남부 및 충청도 일원의 풍물을 알아야 한다.

안성은 조선시대 유랑예인 집단인 남사당의 본거지이다. 일제시대 초기 민속학의 선구자인 송석하 선생이나 이능화 선생의 논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사당 또는 여사당이라고 불리우는 사당패들은 안성 청룡사를 기반으로 하여 발전하여 나갔다. 남사당 패란 1900년대 초 이전에 서민층에서 활동한 놀이집단으로 일반적인 춤과 노래 그리고 각종 기예를 팔며 이 마을 저 마을을 유랑하던 무리들을 일컫는다. 사당패는 여자들로 구성된 여사당과 남자들이 구성된 남사당이 있는데 처음에는 사당이라 하면 주로 여사당을 지칭하다가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남자들의 남사당으로 바뀌었다. 현재 재현되고 있는 남사당 놀이는 풍물, 버나(대접) 돌리기 살판(땅재주), 어름(줄타기), 덧배기(탈노름), 덜미(꼭두각시 놀음) 등 여섯가

지이다. 이 여섯 가지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여섯가지만 했다는 말이 아니라 현재 재현할 수 있는것이 이것 뿐이라는 것이다. 옛날에는 “얼른”이라고 하는 요술과 죽방울 치기 라고 하는 지금의 저글링과 같은 기예도 있었지만 그 기예가 완전히 단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남사당 여섯마당 이라고도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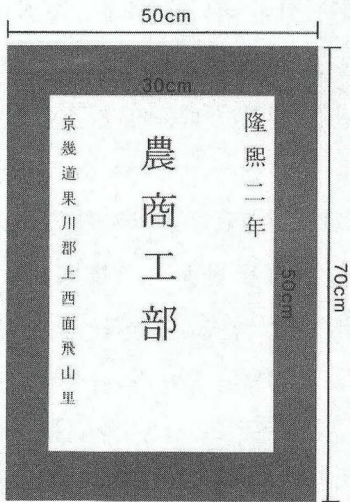
안양 날피 농악은 경기 충청지역의 웃다리 농악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농악은 판제농악으로 발달해 왔으며, 판제 농악의 성격은 연주, 노래, 춤, 놀이, 극등이 융합된 오케스트라 형식의 연주 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웃다리 농악은 칠채 가락과 당산벌림, 무동타기, 짹짹이, 풍년굿 등이 있으며 순수한 근로 악으로서 가락의 종류는 많지 않으나 변주가 다양하고 빠르며 힘차고 역동적이며 끊고 맺음이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흥겹고 감동적이라는 찬사를 받는 농악이다.

### ◎ 안양 날피농악의 배경

날피는 지금의 안양시 비산동을 지칭하며 지형적으로는 명산인 관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마을 앞은 넓은 농경지가 펼쳐진 안양을 대표하는 곡창 지대로서 천혜의 삶의 터전이었다. 안양 날피농악은 이러한 광활한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던 농부들로 구성되어 농악대가 발달한 것으로 보이나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조선후기 고종 2년(1865) 경복궁 중건 때 부역 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덜어주고자 전국 각 처에서 모인 농악대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하여 장원 농악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였으며 특히 을회2년(1908) 순종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농기를 큰 자랑으로 여겼다 한다. 이 농기는 신임이 높은 마을 인사가 소중히 간직했다가 마을의 행사 때 “농번기 농악놀이” 등에 농기를 앞세웠으며 주민들은 농기 앞을 함부로 왕래하지 않았다 한다. 이렇듯 명성이 높았던 안양 날피농악이 사라진 이유로는 일제 감정기인 1920년대 들어 식민 착취가 시작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인심도 각박해져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풍습이 점차 시들어 가면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주민간의 화합을 꾀한다는 이유로 농기가 회수되고 농악대를 강제해산 시킴으로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 6) 안양 날피농악의 복원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안양 날피농악의 판제나 가락이 정확히 계승되지는 못하였으나 1988년 안양2동 문화원 앞에서 올림픽 성화봉송 맞이 농악 놀이를 하였고 안양 수리 탈춤패



순종황제로부터 하사받은 농기(복원)

순종 황제로부터 하사받았던 농기(왼쪽 사진 참조)를 복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안양문화원은 복원된 안양 날피 농악의 진법과 판제를 안양문화원 산하단체인 안양 농악단으로 하여금 2007년 9월 2일 제16회 경기도 민속 예술제에 참가하게 하여 시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안양 날피 농악의 복원은 대전 웃다리 농악 송덕수씨, 안양문화원 박준호씨, 안양농악단 박헌식씨를 비롯하여 날피농악 복원 농악팀(웃다리농악전수자, 전수장학생 및 일반연수생들)을 20여명으로 구성하여 진법 및 판제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재현하는 작업을 함으로 해서 복원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수집, 보완하여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 안양 날피농악의 판제와 순서

도열- 입장과 인사굿-내돌림 벽구(명석말이)-당산벌림1-당산벌림2-칠채 오방진 감기와 풀기-피조리 놀이(허공치기)-절굿대 놀이(외절구, 양절구)-가새치기-사통백이-원좌우치기-네줄좌우치기-찍찍이-풍년굿-고사리격기-도둑잡이 굿1-도둑잡이 굿2-따벽구놀이-개인놀이-외돌림 벽구(명석말이)-인사굿-퇴장

이상 기술한 바와같이 안양 날피농악은 웃다리 농악의 판제와 유사하다. 이것은 남사당패와 그 후예들이 일부 안양에서 잠시나마 거주하면서 파급시켰을 것이라는 전언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안양 날피 농악을 계승 보전하기 위하여 안양문화원에서는 산하단체인 주부민속단으로 하여금 2004년부터 시연하며 보존 하였으나 2007년도에 진법과 판제를 복원한 후 판제에 의한 시연 가능성에 어려움이 있어 안양 날피농악 복원에 적극 참여한 남녀 혼성 단체

가 문예회관 건립 공연을 하였으며 귀인동에 거주하던 김원제씨나 (장석봉씨로 알려져있는) 장석동씨, 산본에 거주하는 문몽호씨 등은 팽과리, 장구, 호적 등을 연주하며 군포, 김포, 강화, 안산, 화성 등 지역을 돌며 활동 하였으나 김원제씨나 장석동씨는 이미 고인이 되었고 문몽호씨만 생존하여 그 증언이 미미할 뿐이다. 이러한 날피농악의 흔적을 구전으로나마 재조명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여 웃다리 농악 보유자들로 하여금 연구 검토케 하여 경기 충청 농악의 웃다리 농악의 근본에 접목시켜 진법과 판제를 재구성함으로써 숨어있던 우리 고장의 옛 농악놀이 문화를 복원함은 명실공히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 안양농악단으로 하여금 안양 날피농악을 전승케 하였음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안양 날피농악에 관해 소개하였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안양날피농악에 관한  
고증 등이 부족하지만, 복원된 안양날피농악의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1. 2005년 안양 민속지(경기도 박물관)
2. 1991년 한밭 전통의 맥(2) 대전 옷다리 농악(대전 광역시)
3. 2001년 안양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적(안양시. 안양 문화원)
4. 안양의 문화재(안양시)
5. 2006년 문화유적 분포지도(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안양시)



# 浦口에서 港口로의 變化過程 考察

— 蔚珍郡 竹邊灣의 文化變容 事例를 中心으로 —

이태호

이천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 목 차

1. 서론
2. ‘죽변만(竹邊灣)’의 공간변화
  - 1) 개항 이전의 죽변곶(串)
  - 2) 개항후 일본인의 이주, 그리고 등대와 축항
  - 3) 죽변항의 근대적 시설물들
3. 죽변포구에서 죽변항으로

## 1. 서론

한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길은 연구시각과 방법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사람들이 살아 온 시간의 흐름속에서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터하고 있는 공간의 영역에서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축을 상징하여 사람들의 생활상과 문화를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죽변(竹邊)’이라고 하는 지역공간이 역사적 흐름속에서 어떻게 浦口에서 港口로 변화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여기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죽변(竹邊)’은 작은 포구(浦口·津)에서 항구(港口)로의 공간적인 확장과 사회경제적인 기능적 확대가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근 어촌과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죽변’이 오늘날과 같이 동해 연안에서 거점항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자연적 현상이라기보다 사회구조적 변동과 궤를 같이 하면서 제 요소들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사회문화적 현상이라 할 것이다.

죽변의 공간적 변화는 곳(串, 岬)과 만(灣)이 어우러진 자연·지리적 여건, 인구의 유입, 새로운 조직의 형성, 새로운 시설물들의 신축, 외부사회와의 연계 등 다양한 국면들을 고려하여 살핌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공간변화의 과정에 대한 고찰은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문화 일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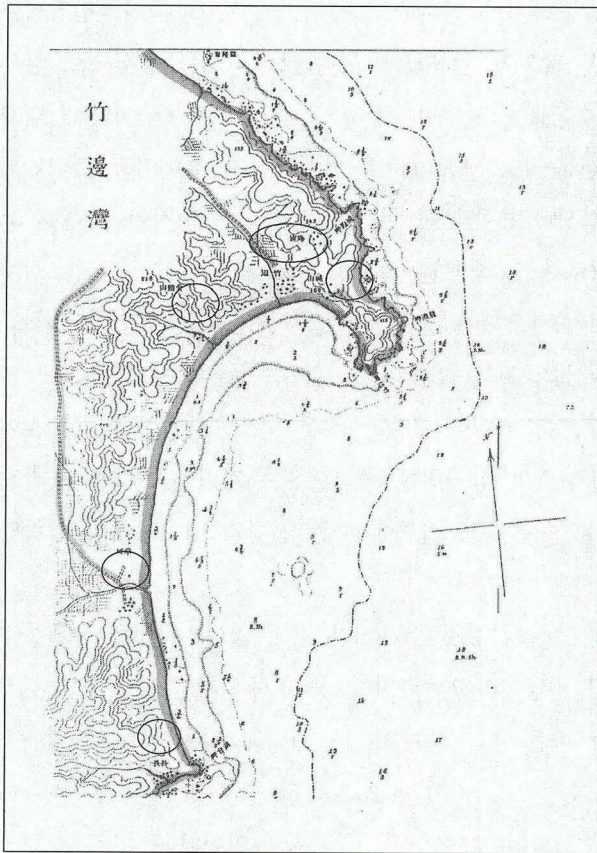
그렇다면, '죽변의 공간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필자는 그 변화의 동인으로 조선조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제도적 변화가 지역의 공간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들을 풀어나가는 구체적 자료로써 기왕의 각종 지리지와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19세기말 개항 전 조선조 사회에서의 죽변과 개항 후 일본인들이 조선반도에 진출하면서 새로이 편성되는 죽변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초점을 맞춘다.

## 2. '죽변만(竹邊灣)'의 공간변화

죽변(竹邊)<sup>1)</sup>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소재지로서 1·2·3·4·5리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마을 중 1·2·3리가 일제강점기까지 주민들이 주로 살았던 공간이면서 면사무소·파출소·우체국 등의 행정기관이 밀집된 곳이다. 죽변 4·5리는 죽변항 축항이후 및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함경도 월남민('아바이')과 제주 이주 잠녀들이 거주하면서 모듬살이가 이루어진 곳이다. 한편, 죽변 3리 봉수동(烽燧洞, 봉개)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죽변리에 편재되어 있지만 별도의 종교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조선조까지만 하더라도 용추곶(龍湫串)을 등지고 봉수대가 있었던 마을이다. 한편, 현재 죽변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찾는 죽변 성황당은 죽변3리를 제외한 죽변 1·2·4·5리 주민들과 후정3리 주민들이 함께 모시고 있다. 죽변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蔚珍邑內에서 북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는데, 울진읍과 함께 울진 북부지역 생활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7번국도와 920번 지방도가 만나는 교통의 결절지이기로서 지역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sup>2)</sup>

1) 이 글에서 다루는 죽변(竹邊)의 지리적 공간은 죽변만(竹邊灣)을 연해 있는 지역으로써, 행정구역상 죽변리 뿐 아니라 후정3리를 아우르면서 때로는 '봉평'과 '골장'을 포함한다.

2)蔚珍郡, 『蔚珍郡誌』上,蔚珍郡誌編纂委員會, 2001. 96쪽.



<그림1 1908년의 죽변만>

○ 표시한 곳은 주거지, 푸른색은 해안선, 붉은색은 도로

하고 있다. 죽변만은 남쪽은 골장동(谷長洞)의 동태곶(洞台岬)에서 시작하여 북쪽의 봉수동(烽隧, 烽岫) 마을의 성황당이 있는 곳에는 성황곶(城隍岬)이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바닷가 쪽으로 보면 해안선을 따라 근접한 곳에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으며, 당시만 하더라도 솔치봉 아래에만 가옥들이 배치되어 있을 뿐 오늘날 볼 수 있는 해안가 쪽은 매립이 되지 않아 가옥이나 건물들이 들어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해로 나갈수록 수심에 따른 구역을 표시 해 두었다. 지도의 가장 바깥쪽 바다를 경계로 소형 기선들이 조업할 수 있는 가능지역을 표시했음을 볼 수 있다.

마을의 집과 집들을 연결시켜주고 외부사회와 연결시켜주는 도로는 7번국도<sup>3)</sup>변에서 갈라

3) 1913년 1월 21일자 朝鮮總督府官報에는 江原道の 3等道路를 다음과 같이 定하였다. 蔚珍-竹邊間, 江陵-見召津間, 襄陽-麟蹄間(藥水里 五色嶺 魚頭里 經由), 窓岩店-五里津間(間嶺 經由), 杆城-巨津間,

죽변만의 공간구성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죽변만을 중심으로 한 지형을 개략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의 지형도에 표기된 내용 즉, 육지와 바다, 등고선, 산, 주거, 도로, 방파제 등의 공간지표들이 동시에 입지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변화의 과정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먼저 죽변만은 <그림1>의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으면서 서북쪽으로는 높이가 218미터로 나지막한 공두산(公頭山) 솔치봉이 위치해 있으며 마을북쪽으로는 100미터의 성산(城山)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다. 이 공두산 솔치봉 자락에는 죽변만을 휘감아 돌면서 남쪽으로는 봉평까지 산맥이 뻗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죽변만은 산을 등지고 동해 바다를 바라보는 반월형의 모양새를

져 나온 920번 지방도가 죽변 시내를 관통하여 죽변파출소 삼거리에서 좌회하여 후정리를 지나 북면 덕천리로 연결되면서 다시 7번 국도와 합류하게 된다. 큰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 가로변에는 주택을 비롯하여 각종 상가와 편의시설들이 위치하고 있고, 서북쪽에는 언덕을 배경으로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까지 들어서고 있다. 한편 큰 길을 중심으로 남동쪽은 주로 어업생산과 관련된 공간과 상점들이 줄지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활어를 위관하는 공관장, 수협사무소, 중매인사무실, 하역노조사무실, 수산물 직매장, 조선소, 철공소, 횃집, 그물을 보망(補網)하고 관리하는 곳, 냉동공장, 수산공장, 유류취급소 등이 위치해 있다. 아울러 해군 214부대기지<sup>4)</sup>가 있으며 5곳의 점집들이 중간 중간에 영업을 하고 있다. 해안가 쪽의 공간은 대부분이 매립한 곳에 새로운 구조물들이 들어 선 것이다. 한편 죽변의 구 시가지는 현재 죽변파출소앞 삼거리를 중심으로 주거지와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었다. 이러한 공간적 배치구조를 보면 풍수적 입지에 따른 전형적 배산임수의 취락입지라기 보다 도로를 중심으로 짜여있음을 볼 수 있다.

바닷가 마을들은 내륙처럼 일정한 산에 조상의 묘소를 쓰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음택풍수적으로 적당한 곳이 흔치 않을 뿐 아니라 명당이라고 할 만한 곳은 배후지인 농촌과 농경지를 가로질러 수 킬로미터 정도 가야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지리적 입지의 문제 외에도 어민들의 믿음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관자 한 장 밑이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거친 바다에서의 생활이란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조건아래 조난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고로 시신을 제대로 수습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하여 바닷가의 묘소들은 대체로 바다를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그것도 바닷가 근처의 낮은 구릉에 위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매장관습에는 살아생전 바다를 터전으로 생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죽어 저 세상에서도 바다를 바라보고, 때로는 돌아오지 못한 주검이 다시 돌아와 안치되기를 바라는 믿음에서도 그렇다고 한다.

죽변만의 지형 중 산을 제외하고는 경작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여느 연안 어촌과는 달리 거의 모든 주민들이 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있거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생계

---

通川-庫底里間, 淮陽-土城間, 安峽-金化間(鐵原邑 經由), 金城-平康間, 金城-華川間(山陽里 經由), 淮陽-內坪里間(華川 末輝里 文登 楊口邑 經由), 華川-麟蹄間(楊口邑 經由), 麟蹄-砥平間(陰陽里 城山里 法川邑 楊德院 經由), 橫城-安興間, 寧越-旌善間(平安 經由), 旌善-大和間, 旌善-平昌間(平安 經由), 漣川-土城里間(大光里 龍潭 鐵原邑 月井里 平康邑 經由), 平昌-酒泉間.

4) 죽변만에 해군기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 입지적 조건으로 인해 이미 신라때부터 조선조까지 그리고 일제강점기 러일전쟁 등의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왜구와 적을 방어하기 적합한 곳으로 이해되기 때문일 것이다.

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죽변만 주변에 농경지가 조성될 입지가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죽변의 어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작지는 후당리를 건너 솔치봉 너머의 화성과 북면 덕천마을 쪽으로 내륙에 위치하고 있다.

## 1) 개항 이전의 죽변곶(串)

이 절에서는 1889년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이 체결되면서 개항하기 이전 죽변의 역사적 흐름과 주요 지리·생태적 입지를 바탕으로 죽변이 어떻게 자리매김해 왔는지를 살펴 보겠다.

현재의 죽변은 경상북도에 소속되어 있지만, 1963년 경상북도로 편입되기 전까지는 강원도 관할이었다. 특히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江原道 蔚珍縣 近南面 또는 近北面에 속해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에는 울진군 삼화면(三和面)에 속하였고, 1953년 2월 울진군 울진면 죽변출장소 설치 및 1986년 4월에 죽변면<sup>5)</sup>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죽변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 사정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서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들 수 있는데, 이 지리지의 편찬된 것이 1530년이니 죽변엔 이미 16세기경부터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조선 영조 연간에 간행된 『輿地圖書』에 기록된 18세기 중반의 죽변지역의 인구수와 호수를 보여 주고 있다. 당시 강원도 울진현 근북면 관할이었던 죽변지역은 다른 지역은 里名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죽변은 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 호수가 105호, 인구는 591명에 남 295명, 여 296명으로 남녀 거의 1:1의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당시의 죽변진은 죽변만을 연하고 있는 오늘날의 죽변과 봉수, 후정마을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근북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마을일 뿐 아니라 호당 인구가 5.62명으로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

---

5) 죽변면은 죽변(竹邊), 후정(後亭), 화성(花城), 봉평(鳳坪)의 4개 법정리와 15개의 행정통(리)에 21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統計數值 里 名	戶 數	人口(名)			비 고 (官衙와의 거리)
		計	男	女	
竹邊津	105	591	295	296	北 20里
花芳里	50	195	95	100	北 17里
龍場里	110	490	240	250	北 20里
草平里	65	311	151	160	北 17里
北塘里	51	294	123	171	北 24里
梅亭里	22	82	35	47	北 25里

<江原道 蔚珍縣 近北面 方里, 자료출처: 『輿地圖書』(1757~1765年)>

한편, 조선조 죽변에 대한 기록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죽변곶(竹邊串)·용추곶(龍湫串)·성황곶(城隍串)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죽변곶 봉수마을 일대에는 대나무(小竹)가 자생하고 있어 화살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호하였고 군용으로 공조창에 진상되었다.<sup>6)</sup> 오늘날에도 죽변 4리 뒷 구릉의 등대 주변과 ‘봉수동’으로 연결되는 길가에 해장죽이 자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죽변은 해안 일대가 대나무숲으로 싸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죽변의 대나무와 관련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이외에도 『輿地圖書』<sup>7)</sup>에는 죽변곶의 화살재료가 대나무와 함께 곶아래 용소(龍淵)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용소는 죽변곶과 ‘용의 꼬리’ 또는 ‘용테미’라고 불리는 용추곶(龍湫串) 중간의 해안가 암초에 있었던 것인데, 용이 하늘로 승천하였던 곳이라 한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수일 내로 비가 내린다고 한 종교적 장소였으나 축항 공사로 암석이 파괴되어 경관이 훼손되어 있다.

죽변은 마을의 서북쪽으로 낮은 구릉이 둘러 싸여 있어 북서풍과 東南의 파도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선을 정박하기에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이미 신라 진흥왕 때부터 왜적을 막기 위해 죽변성(城)을 축조하고 수군을 주둔시킨 바 있으며, 조선조에는 동해안을 따라 연결되는 봉수대(烽燧臺)의 주요 거점이었다.<sup>8)</sup> 근대에 들어서도 그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해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에 의해 망루(望樓)와 등대(燈臺)가 설치되었다. 1908년 農

6) 민족문화추진회 편, 『新增東國輿地勝覽』V, 1978. 585~587쪽.

7) 竹邊串在縣北二十里插入海口其上箭竹生焉下有火龍淵.

8) 죽변곶 봉수를 중심으로 南北의 봉수(烽燧)를 보면, 삼척부 가곡산(可谷山)→항출도산(恒出道山)→죽변곶 봉수→죽진산 봉수→전우인산 봉수(全友仁山烽燧)→평해군(平海郡) 사동산(沙銅山) 봉수로 연결된다. 민족문화추진회 편, 『신증동국여지승람』V, 1978. 585~587쪽.

商工部水産局에서 간행한 『韓國水産誌』에서는 죽변의 입지적 조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죽변의 용추갑(龍湫岬)은 높은 언덕을 정점으로 해서 북서쪽보다 남동쪽으로 뻗어 있고, 그 남단은 점점 남쪽으로 향해서 그 남서쪽에 반월형상을 한 만(灣)을 형성하고 있다. 서쪽 및 북쪽 풍랑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풍을 헤쳐 나가기에 충분하다.

연안 해안에서 汽船이 죽변만(灣)에는 정기적으로 기항할 뿐만 아니라 부산과 원산 사이의 항로 중 유명한 간소(艱所, 간신히 피하여 정박하는 곳)에 속하는 곳으로서 북행하는 선박이 이곳에서 바람을 기다려서 항해하는 배가 적지 않다. 울릉도에 가기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항해하기가 편리하다.<sup>9)</sup>

위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죽변은 반월모양을 한 灣을 형성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안정된 곳이며 죽변이 해로(海路)상 중요한 중간 정착지이며 항로라는 점인데, 이러한 기록은 숙종 28년(1689) 『朝鮮王朝實錄』<sup>10)</sup>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울진 죽변진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로 갔다’는 기사가 그것이다. 17세기 후반에 이미 죽변은 울릉도로 가는 항로로 이용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죽변항은 울릉도와 128km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일자형으로 완만하게 보이는 동해연안에서 울릉도와 직선거리상 가장 가까운 곳이다. 지금이야 포항에서 울릉도를 직항하는 사정이 되었지만, 이 해로가 개척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륙에서 울릉도를 가자면 반드시 죽변항을 경유해야 했다.<sup>11)</sup>

죽변항은 포항-죽변-울릉을 잇는 연락선의 경유지였는데, 이것은 일제시대부터 1950년대까지 계속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운항이 중단되었고, 그 후 후포-울릉으로 항로가 변경되었다. 포항에서 울릉도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해로를 따라 죽변항과 강원도 임원항을 목표로 일단 북상하여 죽변항의 연안에서 다시 우회하여 동쪽 울릉도로 운항하는 것은 조류에 따른 천혜의 해로라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죽변항은 동해안 중심어장으로 동으로 울릉도가 128킬로미터, 남으로 포항이 124킬로미터, 북쪽으로 강릉까지 115킬로미터로 각각 그 거리가 비슷한 중간지점이다. 죽변 읍내에는 고색창연한 성황당이 있고, 울릉도에서

9) 農商工部水産局 編纂, 『韓國水産誌』第2輯, 1908년. 389~391쪽.

10) 『朝鮮王朝實錄』肅宗28年 5月 己酉.

11) 『新增東國輿地勝覽』蔚珍縣 山川條의 기록에 따르면, ‘바람과 날씨가 청명하면 봉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으며 순풍이면 이틀에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을 정도로 가깝고도 중요한 요지이다.

흘러와 죽변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수령 500년 이상의 장대한 향나무가 있다. 죽변지역과 울릉도의 자연적, 지리적 친연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sup>12)</sup>

한편, 맑은 날에 죽변에서 동해바다를 향해 바라보면 울릉도의 삼봉이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현대 마을사람들은 울릉도가 보이면 날씨가 안 좋다는 속신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죽변항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물과 경관 중에서 죽변 성황당을 빼 놓을 수 없다. 죽변 성황당은 7번 국도에서 죽변 시내로 들어서는 길목인 후정3리에 위치하고 있다.<sup>13)</sup> 하나의 당집에 ‘골매기할배’와 ‘골매기할매’를 함께 모시면서 옆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울릉도산 향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죽변3리의 봉수동은 개별적으로 上堂(할배당)과 下堂(할매당)에서 매년 두 차례씩 고사를 지내는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이곳 죽변 성황당은 죽변3리를 제외한 다른 마을과 후정3리에서 공동으로 위하는 당이다. 정면 3칸에 측면 1칸의 맞배지붕에 골기와를 올려 두었으며, 측면에는 어민들이 헌신(獻神)한 어물과 금줄이 걸려 있다. 이 당은 죽변항의 축항과정에서 1935년경 옛 고성(古城) 아래 죽변4리 ‘후리개’에 있던 할머니서낭이 이 당에 합쳐지면서 부부당이 되었다.

어쨌든 죽변항의 공간적 확장 및 축항공사로 인해 해신당적 성격을 지닌 ‘할매당’이 ‘할배당’으로 흡수되어 같이 모시면서 제의적 성격은 많이 약화되었으나, 죽변 성황당을 중심으로 이곳 어민들의 종교적 공동체는 죽변 1·2·4·5리와 후정3리라는 마을단위를 넘어서는 종교적 영역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죽변은 그 위치·형상 등의 지리·생태적 환경의 적합성을 기반으로 동해안에서 군사적 목적에서 뿐 아니라 수로(水路)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담당해 왔다. 당시의 어로활동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세세한 자료가 부족함에도, 여타 인근 동해안 포구가 가졌던 조건보다는 좋은 조건을 갖추었으므로 죽변 포구(津)에서 죽변항(港)으로 변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보여 진다.

12) 주장현, 『등대, 제국의 불빛에서 근대의 풍경으로』, 생각의 나무, 2007. 407~419쪽.

13) 죽변 성황당 당사(堂舍) 정면에는 ‘성황사(城隍祠)’라는 현판이 있는데 이는 1981년에 쓴 것이다. 조선조 울진의 고을 제의를 거행했던 ‘성황사(城隍祠)는 울진성 안 북쪽에 있다’고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590쪽. 이 성황사와 울진의 성황사는 명칭은 같다고 하더라도 제의의 규모와 주체, 의미 등은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 2) 개항후 일본인의 이주, 그리고 燈臺와 築港

죽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리·생태적 환경을 바탕으로 포구로써의 입지가 갖추어짐으로 해서 동해안 일대에서 중요한 공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생업과 군사적 목적을 위한 포구의 기능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조선후기 개항의 물결과 함께 일제강점기로 들어서면서 죽변만은 어항(漁港)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는다.

먼저, 죽변만이 어항으로 변화하는 과정에는 지리·생태적 조건 및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일본인의 이주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죽변은 바람과 파도를 피해 漁船이 정박하기에 적당한 곳이었다. 죽변만은 수심이 만내(灣內)가 약 1,500m 내지 1,800m 정도 되는 항만이다.<sup>14)</sup> 수심이 매우 깊어서 소형 기선은 정박하는데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인근에 30여개의 津과 浦가 있어 더욱 유리하다. 서쪽 내륙에 이르는 맞은편의 모서리 부근은 수심이 5~6발에 이르러서 얕은 모래사장이 되고, 이곳이 기선의 정박지가 되는 것이다. 죽변은 1910년에 편찬된 『朝鮮産業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일본이 중요어업근거지로 삼고 있는 강원도 죽변은 좋은 항구로 부를 만하다. 강원도에 있는 굴지의 중요 港으로 100톤 내외의 작은 기선(小汽船)을 정박하기에 충분하다. 종래 일본 잠수기선(潛水器船)의 중요 출가(出稼) 근거지이다.<sup>15)</sup>

이 자료를 보면 강원도에서 중요한 항구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면서, 공간의 중요성뿐 아니라 잠수기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이주어촌의 형성에 관한 대목도 죽변의 공간확장에 눈길을 끈다. 大葉久吉의 앞의 책에는 일본 시마네현에서 이주한 어민들에 관한 대목이 있는데, 明治42年(1909) 12월7일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죽변에는 1907年 6월에 시마네현(島根縣)에서 운영하는 보조이주어촌이 건설되었다고 한다. 당시 5가구, 10명이 죽변으로 왔는데 그들의 직업은 ‘漁業水産製造兼雜業’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公設機關으로 憲兵分遣所와 朝鮮海水産組合出張所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6)</sup>

1883년 제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이 체결되면서 일본인의

14) 권삼문, 「蔚珍의 古文書」, 『향토문화』 11·12 합본호, 향토문화연구회, 1997. 224쪽.

15) 大葉久吉, 『朝鮮産業誌』中, 日韓印刷株式會社. 1910年(明治43). 134쪽.

16) 大葉久吉, 『朝鮮産業誌』中, 日韓印刷株式會社. 明治43年(1910). 159쪽.

출어가 합법화되었고<sup>17)</sup>, 이어서 1889년 조선일본양국통어장정(朝鮮日本兩國通漁章程)의 체결은 일본인의 자유로운 통어가 권장되면서 본격화의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일본인은 조선에 통어하면서 일본국에서 조성한 이주어촌에 거주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일본인의 이주어촌은 보조이주어촌과 자유이주어촌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보조이주어촌은 이주자가 日本府縣 수산조합으로부터 이주 장려금을 받아 이주한 형태인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죽변에 정착한 일본인 어부들의 경우가 시마네현 수산조합으로부터 장려금을 받은 보조이주어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반면 자유이주어촌은 어민이 자유롭게 이주지역을 선택해 어민 자신이 어업자금을 투자한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초기의 보조이주어촌은 점차 자유이주어촌의 형태로 변모하게 된다.<sup>18)</sup>

1908년부터 1910년사이 죽변이주어촌의 보조현황을 다음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년 도	出漁團體	團體員	團體基金	補助金	事務所經費
1908년	隱岐水産組合出漁團	76	-	876	5,100
	八東郡外海水産組合出漁團	45	-	562	7,400
1909년	八東郡外海水産組合出漁團	76	-	-	-
	彌摩郡外海水産組合出漁團	45	-	-	-
1910년	八東郡外海水産組合出漁團	-	-	-	-
	彌摩郡外海水産組合出漁團	-	-	-	-

<시마네현의 죽변이주어촌 보조현황(1908~1910년) 자료: 조선총독부관보. 단위 인/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6년 생긴 이후 죽변의 이주어촌은 1908년도까지만 海都府縣補助金과 事務所經費를 얼마간 지원받고 있었으나 1909년부터는 지원금이 없는 상태다. 한편 『朝鮮産業誌』에 의하면, 1909년 이전에 시마네현이 죽변지역에 지출한 경비가 약 1,000~3,925엔 정도이며, 1910년에는 5,200엔에 달한다. 이 경비는 ‘통어장려(通漁獎勵) 및 이주어촌경영(移住漁村經營)을 위한 수산조합비보조(水産組合費補助)’라는 명목으로 기술되

17)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1883년 7월25일 맺은 ‘재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으로 일본 어선들이 서해안 연안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어선들은 의정서 체결한지 5년 뒤인 1888년쯤에 인천연안에서 조업했다. 일본인들은 도미 등 온난성 어류에 입맛이 길들어져 인천연안 등에서 나오는 민어, 준치, 조기, 명태 등 한류성 어종에 별 관심이 없었던 연유였다.

18) 김수희, 「일제하 일본인 이주어촌의 존재형태」, 『水産業史研究』2輯, 수산업사연구소, 1995. 160~164쪽.

어 있다.<sup>19)</sup> 이와 같이 일본내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통어를 장려한 것은 자국내의 소비를 충당하면서 한편으로는 일제의 한반도 해역 점령이라는 제국주의적 침탈의 속내가 동시에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일본인 이주어촌의 형성과 함께 근대적 어업장비가 도입되면서 죽변항은 때마침 회유하는 정어리와 고등어의 어획에 힘입어 성장일로에 있었다.<sup>20)</sup> 당연히 인구수가 증가되면서 공간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21)</sup>

개항이후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죽변항의 변화는 근대적 시설물들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 두드러진 것이 등대와 항만시설이다. 먼저 죽변등대의 사정을 보면, 죽변등대는 부산에서 시작되어 함경북도 온성군 유덕면에 이르는 7번 국도변 동해안에 위치한 대표적인 등대이다. 죽변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봉수(烽燧)가 있었던 곳으로 죽변등대 남북으로 후포등대와 주문진, 속초 등대로 연결된다.

죽변등대는 1910년 11월 20일에 죽변등대가 점등되어<sup>22)</sup> 현재는 경북 지방기념물 제154호 지정되어 있으며 2007년도 하반기에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계획중이라 한다. 죽변등대가 불을 밝히기 시작한 후 직원들은 체신부 소속의 일본인들이었다. 간수 1명과 보조원 1명이 근무를 하였다.

職員 年度	航路標識看守名	보조원명	비고
1910년	德永篤 (월16)	岡田福三郎 補員 (월14)	
1911년	德永篤 (월16) 辻五八 (월10) 훈8		
1912년	德永篤 11 松枝與八 (월10)		

<죽변등대 직원, 자료출처: 朝鮮總督府職員錄>

19) 大葉久吉, 앞의 책, 163쪽.

20) 1923년 10월 31일 동아일보에는 다음의 기사가 있다. “요사이 성진부근의 바다에는 난데없는 고기떼가 밀려와서 손으로라도 건질만한 형편이므로 성진시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해안에 나가 그것을 주어 들이는 형편이다.”

21) 당시에 사용했던 어망과 그 숫자를 보면, 骨長浦가 大揮羅網 1기, 小揮羅網 1기, 草坪浦 小揮羅網 1기, 竹邊浦는 大揮羅網 3기, 小揮羅網 1기로 되어 있음. 『한국수산지』, 부록 24쪽.

22) 江原道竹邊灣北角龍湫岬에 竹邊灣燈臺를 건설하고 11월 20일 이후 매일 밤 點火하다. 朝鮮總督府官報 1910.11.24

한편, 초기 죽변등대의 직원 중에는 일본인들이 간수와 보조원으로 일을 했지만, 1935년 1월1일에 간행된 『삼천리』 제7권 제1호의 내용중에는 조선인 燈臺守가 1명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23)</sup>

등탑의 높이는 16미터로 백색의 팔각형 콘크리트 구조물이며, 20초에 한 번씩 섬광이 37킬로미터까지 전달된다. 프랑스인이 설계했다고 전해지는데 실제로 양풍 건축이다. 출입문은 그리스 신전의 박공양식과 열주로 되어 있으며, 문을 열면 우아한 층계가 정면에 펼쳐진다. 시간의 무게는 등명기에도 그대로 묻어 있다. 창건 당시부터 사용하던 프랑스제 렌즈는 한국 전쟁 때 폭격으로 파손되었으며, 현재는 일제 렌즈를 쓰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공식기록에는, 등탑 내부 천정에 원래 대한제국 황실의 상징인 자두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였다. 등대 바로 옆에는 높이 30센티미터를 넘지 않는 자그마한 직사각형의 대리석이 세워져 있다. 1911년 일본국수로부에서 설치한 수로측량원표이다. 등대 점등 일년 뒤에 수로부에서 동해를 측정하고 원표를 세운 것이다.<sup>24)</sup>

한편, 죽변등대가 설치된 이후 죽변은 거점항구로서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이후에 진행되는 죽변항의 개축은 또 다른 변화의 계기가 된다. 1932년 11월 23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 죽변항의 개축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울진은 강원도의 동남부에 한 벽촌이다. 그 뿐 아니라 풍파를 피할만한 정도의 진임을 고래로 一寒村이다.

그러나 洋洋한 일본해를 건너야 일본과의 경제적 결성을 힘쓰고 한편 경북 울릉도와의 해로가 뚫은 물론이요 부산과의 거래관계는 날로 밀접하여 가는데 따라 근래에는 대구방면의 거래도 종종 포항이란 관문을 들어오게 되었다.

내년 봄부터는 경북 준양으로 이등도로공사착수는 이미 확정되었다. 그뿐이라 인근 삼척에는 해군의 무연탄광이 있어 평양탄보다도 더욱 우량하다고 하니 반드시 不遠한 날에 그 발굴을 볼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요. 또 수산광산은 발굴에 착수하였다.

그뿐 아니라 동해선북부선대철도는 북으로 이미 통천에 이르렀고 남부선은 울산까지 개통을 보게 되었다. 그림으로 죽변의 축항문제는 울진의 사활문제다. 그런데 죽변의 인사를 보면 이 대세를 이해치 못하고 對岸火視하고 잇스니 억하심정과 군민의 분기를 促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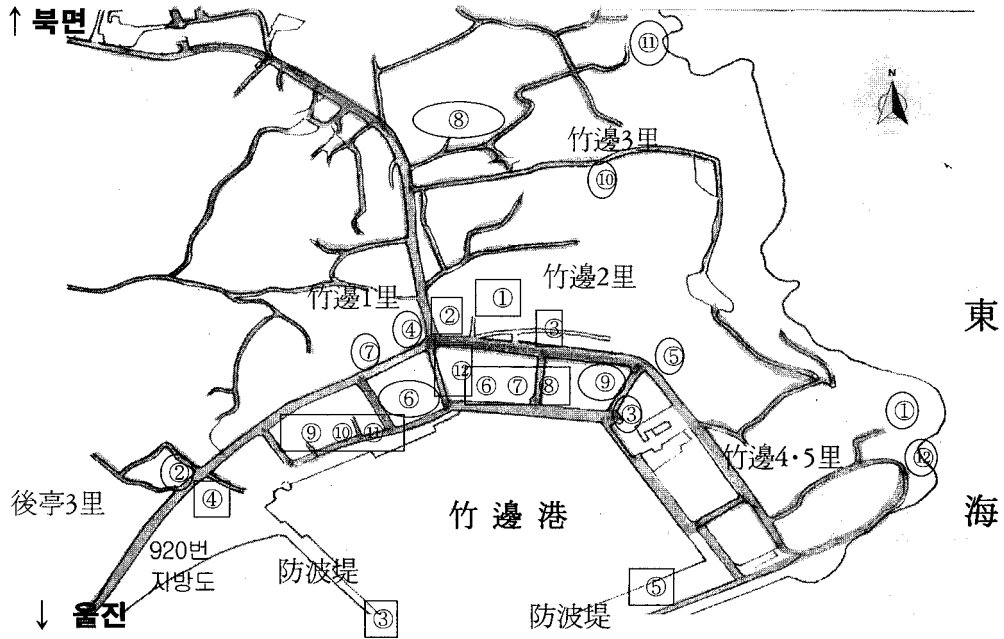
23) 燈臺守의 朝鮮青年 燈臺직히라 하면 픽으나 로-맨틱하게 들려 젊은 多情多恨한 청년 남녀의 공상의 날개가 날드는 직업이거니와 최근의 조사에 의하건대 이 燈臺직히에 朝鮮사람 한 분이 있다. 즉 竹邊港 燈臺에 韓承喆이란 분이라고. 『삼천리』 제7권 제1호. 1935년 01월 01일.

24) 주강현, 『등대, 제국의 불빛에서 근대의 풍경으로』, 생각의 나무, 2007. 407~419쪽.

이런 기사 뿐 아니라 1937년 5월 「매일신보」기사에는 ‘죽변항 수축 실현’이라는 기사를 볼 수 있으며, 울진 유지 4명이 정부에 호소하는 신문기사들이 눈에 띄는 것을 보면 당시 죽변항이 가지고 있는 항구로서의 좋은 입지를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1968년 울진군청에서는 죽변항 근대화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당항은 동해안 유일의 생산항구로서 성어기에는 500여척의 어선이 집산하며, 동해안 해안교통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어선의 출입이 많으며 본군 부근에는 광물, 임산물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이는 오직 본항을 국내외로 수송되고 있는 등 본항의 중요성에 비추어 조속한 시일내에 항만공사를 완성하여야 함을 사료한다.

1995년 12월 29일 죽변항은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되었다. 1938년말 축항을 시작하여 방파제 667m, 축항 308m, 물량장 805m, 무인등대 2개소가 설치되었다. 이런 어항은 어선의 정박, 어획물의 처리, 출어준비 등 어업의 근거지가 되며 인구의 유입을 불러일으키는 삶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하여, 1938년부터 지속된 죽변항의 개축문제는 그 이전에 이미 시마네현의 일본인들이 通漁하면서 보조이주어촌을 형성하는 것과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범례					
	연번	시설물명칭		연번	시설물명칭
1930년대말 시설물 (○)표시	①	죽변등대	1940년대이후 시설물 (□)표시	①	죽변면사무소
	②	죽변성황당		②	죽변파출소
	③	울진수산		③	죽변우체국
	④	울진주조		④	죽변소방서
	⑤	울진운송		⑤	제빙공장
	⑥	죽변어업조합		⑥	죽변수협
	⑦	죽변금융조합		⑦	죽변위판장
	⑧	죽변공립심상소학교		⑧	수산물직거래장
	⑨	울진산업		⑨	철공소
	⑩	봉수동 할매당		⑩	조선소
	⑪	봉수동 할매당		⑪	소매어물가게
	⑫	용소(龍沼)		⑫	죽변시장

<그림2 1930년대 이후의 죽변항 축척 25,000분의1>

### 3) 죽변항의 근대적 시설물들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동해 연안에 회유하는 어족자원으로 어업활동은 성황을 이루게 되고 아울러 어족자원을 가공하거나 처리하는 시설물들이 들어서게 된다.

먼저, 수산물 판매를 위한 공판장이 생기게 되고 함께 수산물 가공공장과 제빙공장이 영업을 시작한다. 일제강점기에 출판된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sup>25)</sup>에 기록된 자본금 1만원 이상의 죽변의 대표적 회사를 보면, (주)울진수산(蔚珍水産) 본점, 울진주조 죽변지점, (주)울진운송 본점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울진수산은 현재의 (주)태훈산업 냉동사업부로 변모하였으며 당시 일본인 사장 黒田甚十郎이 1935년 10월 20일, 죽변리 354번지에 설립한 수산 회사이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35,000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어업 및 수산물 가공 제조 매매 영업, 여기에 필요한 물자의 판매와 그것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죽변항에서 규모가 큰 회사 중의 하나로 주변의 웬만한 수산관련 일들을 도맡아서 했을 것이다. 당시 이사로는 森覺定, 堀田仁平, 李光燐, 張鳳均, 小林泰治, 李戊順, 金柄仁, 朴鍾崇, 朴東教 등이고, 감사에는 永谷心次郎, 安承烈, 林相鳳 등 세 명이 기록되어 있다.<sup>26)</sup>

한편 (주)울진운송(蔚珍運輸)은 1935년 6월 30일, 죽변리 8번지에 일본인 사장인 森覺定이 자본금 100,000원을 가지고 해륙운수사업 염류, 연료(유류를 포함), 재목류, 곡물류, 시멘트류의 구입판매, 전 각항에 관련한 일체의 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당시 이사로는 堀田仁平, 黒田甚十郎, 李仲擘, 小林泰治, 張亨斗, 洪淳龍, 末田代吉, 朱鎮喆 등이며, 감사의 소임에는 永谷表次郎, 張成鶴, 林時麟 등이 맡았다. 본점을 죽변에 두고 울진읍내 연지리 188번지에 지점을 둘 정도였다. 이후 1942년경에 이 회사는 ‘(주)죽변협동운송’으로 회사명과 대표자를 바꾸고 사업의 영역도 회조점(回漕店) 사업, 어구·선구·주류 판매업, 해륙물산 위탁판매 사업, 전항에 관련하는 일체의 사업으로 바뀐다.

죽변에 있었던 또 다른 회사는 (주)울진주조(蔚珍酒造)로 1929년 8월 28일, 울진면 읍내리 83-2번지에 자본금 50,000원을 가지고 설립하고 죽변과 인근의 북면 부구리에 지점을 열었

25)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昭和10年(1935)

26) 차후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제보작성을 통한 자료를 수집해야 유지(有志)집단과의 관계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회사에 설립자 및 이사, 감사의 소임을 맡은 인물들을 보면 여러 회사에 걸쳐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양상은 유지집단의 사회적 성격을 밝히는 자료가 될 것이다.(대표적인 인물이 일본인 森覺定이다)

다. 대표자는 한국인 劉文鍾이 맡고 이사의 소임에는 朴雲京, 張龍錫, 李明淑, 張孟鶴, 森覺定, 林源植, 감사의 소임에는 林時麟, 松村嘉造, 林敬弼 등이 맡았다. 이 주조공장의 설립목적은 조선주류 및 누룩의 제조판매와 부대사업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죽변에 오래 살았던 주민들은 앞의 세 회사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울진 수산은 경영이 여의치 않아 소유주가 바뀌면서 사업이 축소되어 태훈산업으로 바뀌었고, 울진운송은 다른 화물회사로 바뀌었으며, 주조공장은 10여년전 문을 닫고 소유주는 부산으로 이사갔다고 한다.

일제시대 이후 동해안 어항의 활기와 함께 위판장을 비롯한 목선제작 조선소, 그리고 발동기와 그 외 부품을 공급하고 수리하는 성진공업사와 형제공업사와 같은 철공소, 어망공장 등이 줄줄이 들어서면서 죽변을 어업의 전진기지로 성장케 했을 뿐 아니라 수산물 유통시장의 중심역할을 담당케 했다고 보여 진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회사로는 (주)울진산업(蔚珍産業)이 죽변리 14번지에 1937년 2월 문을 연다. 당시 자본금 75,000원으로 어업 및 해륙물산의 가공 제조 판매, 곡물의 판매, 철공업, 전기 각 항의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사장에는 일본인 安達永昌이 맡고, 이사로는 金岡奎祿, 大川當員, 大山盛義, 岩本相億, 감사에는 金光聖壽, 竹橋光邦, 大原光燐이 맡았다.

한편 1931년 2월에 비로소 죽변어업조합(竹邊漁業組合)이 설립되어 영업을 시작하고, 1938년 3월에는 죽변금융조합(竹邊金融組合)이 개업하였다. 그 외에도 1957년경 오용석(吳龍碩)씨가 기선상인 어망제조를 위해 동등수산회사(東登水産會社)를 설립하고, 그 즈음 형제철공소가 김재룡(金在龍)씨에 의해 문을 연다. 마찬가지로 금속기계공업에 속하는 죽변철공소를 이원섭씨가 개업하였다. 당시 조선소로는 1959년 3월 남학술(南學述)가 문을 연 (주)대진조선(大進造船)을 창업했으며, 동해조선철공소가 3월에 목조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안학윤(安鶴允)씨에 의해 문을 열게 된다.

죽변의 수산물시장외에 3·8일로 개시되는 정기시장은 현재의 파출소 삼거리에서 공판장쪽으로 연결되어 성시를 이루다가 최근 10여년 사이 그 규모와 역할이 축소되면서 상설시장화된 현대화된 청과물시장만이 개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sup>27)</sup>, 오늘날과 같이 성능 좋은 저장시설인 냉장·냉동고가 일반 가정에 널리 사용되면서 정기시장에서의 물품구매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는 현상과 함께 죽변시장은 폐시(閉市)를 연상케 할 정도로 변화를 보여 주고

27) 『한국수산지』에는 울진군 近北面 骨長浦, 草坪浦, 竹邊浦에서는 기어, 대구어, 잡어 등을 사계절로 잡으며, 판매지는 2·7일에 개시되는 읍내장시(울진읍)에 내다 팔았다고 적혀있다. 『한국수산지』, 부록 89쪽.



있다. 한편, 바닷가 어항의 성격상 각종 어업관련 시설물들 특히 수산물 직판장 및 활어회센터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가 빚어내는 시대적 변화상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한다.

죽변항의 도시적 공간구성에서 눈여겨 볼 것은 생활주거의 공간과 생업의 공간뿐 아니라 근대적 국민국가 체제 아래 이루어진 사회문화시설물들이다. 죽변항에는 2007년 현재 일제강점기 때 들어선 면사무소, 학교, 우체국<sup>28)</sup>, 은행, 파출소, 소방서, 조합, 교회, 의료기관 등을 접할 수 있다. 죽변관내 공공교육시설로서 초등학교는 죽변초등학교를 비롯한 2개교, 중·고등학교 각각 1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죽변초등학교는 죽변리 30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37년 9월 25일 죽변공립보통학교로 설립인가가 나고 이듬해 3월 죽변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하였으며 1950년에 죽변국민학교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1996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함에 따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63년 7월에는 죽변면 화성리 369번지에 죽변초등학교 화성분교가 설립인가가 나 이듬해 3월에 개교하였다. 중등교육기관인 죽변중학교는 죽변리 21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4년 4월 기성회를 조직하여 이듬해인 55년에 개교하여 죽변중학교 부구분교를 함께 관할 하다가 69년에 부구중학교가 승격 분리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죽변고등학교는 죽변리 21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9년 3월에 개교하였다.<sup>29)</sup>

죽변에 들어선 금융기관으로 수협중앙회 죽변지점,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융 등이 있으며, 근대적 종교시설물로 천주교 죽변교회 1개소, 개신교 교회가 침례교회, 장로교회 등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울진경찰서 죽변파출소가 시내 한 복판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것과 연해서 죽변면사무소가 자리 잡고 있다. 죽변시내 성황당과 마주보는 길 건너편에 울진소방서 죽변지구대가 있다. 그 뒤쪽 바닷가로 해군214기지가 군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3. 죽변포구에서 죽변항으로

앞에서 조선조 말엽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동해안의 중요 항구도시로 성장한 죽변항의 공간적 변화를 단편적인 자료들을 통해 포구에서 어항으로 확장되는 과정속에서 재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죽변의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죽변은 군사적 목적에서 의미가 있는

28) 竹邊郵便所를 設置하다. 朝鮮總督府官報 1912.3.15

29) 울진군, 『울진군지』 중, 울진군지편찬위원회, 2001. 324~341쪽.

포구에서, 수로의 중간 기착지 역할 및 울릉도로 진출하는 출발지,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는 어업의 기지로 성장하면서 동해안 일대의 중요 항구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보여진다.

죽변항은 이미 지리·생태적인 입지를 바탕으로 군사적 방어의 목적을 위해 古城이 축조되었던 곳이면서 주변에서 자라는 해장죽은 군용 화살의 재료로 진상될 만큼 주목을 받아왔던 곳이다. 이곳에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당시에 군역을 맡은 군사들이 주둔했을 가능성이 커며, 이들의 삶은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고 바다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가까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했을 것이다.

조선조 후기를 지나면서 죽변은 또 다시 주변의 작은 포구에 정박하는 소형 어선들이 좋지 않은 바다환경에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했으며, 나아가 주변의 포구와 동해안 남북의 어업 활동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였다. 한편, 조선반도에서 울릉도로 진출하는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19세기말 일본에 의한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이 체결되면서부터 죽변은 일본인의 이주어촌이 건설되는 등의 변화과정을 겪는다. 일본 본토의 여러 수산조합에서 지원을 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조선반도로 일본인들이 이주하는 것이 합법화되었으며, 일본의 제도적 후원에 힘입어 죽변에도 일본 시마네현에서 5가구나 이주하여 생활하게 된다. 물론 이들의 직업이 어업 노동에 종사했고, 이들의 행동에서 일본의 어업기술과 정보가 변용되었을 구체적인 자료는 찾기 어려우나 대대로 조선인만이 거주하고 생활하던 공간에 일본인이라는 외지인이 들어오면서 죽변의 공간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또한, 러일전쟁 이후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죽변에는 망루와 등대가 설치되는 또 다른 군사적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아울러 진행되는 동해안의 축항공사와 함께 죽변만의 입지적 조건을 고려한 대규모 축항공사가 1938년에 시행되면서 죽변은 항구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이러한 항구로의 변화과정에는 면사무소와 학교와 같은 근대적 시설물들이 들어서게 되고, 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산회사와 제빙공장, 조선소, 철공소 등의 시설물들이 함께 자리 잡게 되는 것은 죽변항의 어업활동이 성장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1930년대를 즈음하여 동해안의 정어리떼와 고등어떼의 회유로 인한 어업의 활성화와 어획물을 처리하는 공장설립은 산업적으로 케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1789년까지만 하더라도 100여호에 인구 400명 남짓하던 죽변포구가 200여년이 지난 오늘날 2,000호 정도의 호수와 10,000명에 달하는 인구수라는 가히 엄청난 도시적 확

장을 겪은 울진군 죽변항의 사례를 통하여 어촌사회의 공간적 변화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 사례와 자료를 바탕으로 차후에는 각종 회사의 증역을 맡았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은 죽변과 울진지역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는지를 연계하여 고찰함으로써 마을사회의 영역에 대한 공간연구가 지역사회와 상호 관련성을 맺는 연결고리들을 규명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戶口總數』서울대학교출판부, 1971.

『輿地圖書』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 공간 문화』, 서울대출판부, 2005.

권삼문, 「蔚珍의 古文書」, 『향토문화』 11·12합본호, 향토문화연구회, 1997.

권삼문, 『동해안 어촌의 민속학적 이해』, 민속원, 2001.

김수희, 「일제하 일본인 이주어촌의 존재형태」, 『水産業史研究』2輯, 수산업사연구소, 1995

孫禎睦, 『日帝強占期 都市化過程研究』, 一志社, 1996.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편, 『울진 사람들의 삶과 문화』, 민속원, 1998.

울진군·안동대학교민속학연구소, 『蔚珍의 文化財』, 1992.

울진군지편찬위원회, 『蔚珍郡誌』, 2001.

주강현, 『등대, 제국의 불빛에서 근대의 풍경으로』, 생각의 나무, 2007.

農商工部水産局 編纂, 『韓國水産誌』第2輯, 1908.

大葉久吉, 『朝鮮産業誌』中, 日韓印刷株式會社, 1910.

朝鮮總督府, 『朝鮮の聚落』, 1933(昭和8年)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35.

益田庄三 編著, 『日韓漁村の比較研究』, 行路社, 1991.

<부록. 죽변항 연표>

時期	內 容	備考(出處)
신라 진흥왕	竹邊古城 築城 水軍 주둔	
16세기	竹邊申 화살용 대나무 進上, 龍沼, 竹邊烽燧臺	新增東國輿地勝覽
17세기	울진 죽변진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로 갔다	숙종28년(1689)
18세기	105호, 591명(남296명, 여295명)	輿地圖書
1883년	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 체결	
1889년	朝鮮·日本兩國通漁章程 체결	
1904년	望樓와 燈臺 설치	러일전쟁
1907년6월	시마네현(島根縣) 운영 보조이주어촌(5가구, 10명)	朝鮮產業誌
1908년	汽船 寄港, 부산-원산간 정기항로 운행	韓國水産誌
1910년	일본 潛水器船 출가 근거지	朝鮮產業誌
1910년11년20일	죽변등대 점등	
1911년	日本國水路部에서 水路測量元標 설치	
1912년3월15일	죽변우편소 설치	
1929년8월28일	(株)蔚珍酒造 설립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1년2월	竹邊漁業組合 설립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2년11월23일	죽변항의 개축문제를 다룸	동아일보
1935년6월30일	(株)蔚珍運送 설립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5년10월20일	(株)竹變水産 설립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5년	죽변 성황당 이전	
1937년2월	(株)蔚珍産業 설립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7년5월	죽변항 수축 실현	매일신보
1937년9월25일	죽변공립보통학교 설립인가	
1938년	죽변항 증축 시행	
1938년3월	竹邊金融組合 설립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8년3월	죽변공립심상소학교 개교	
1953년2월13일	울진면 죽변출장소 설치	
1954년4월	죽변중학교 기성회 조직	
1955년3월	죽변중학교 개교	
1957년	東登水産會社, 형제철공소, 죽변철공소 설립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59년3월	(株)大進造船 설립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69년3월	죽변고등학교 개교	

<竹邊港 年表>

# 京畿郷土史學

---

발행인 : 남 선 우

편집인 : 이 준 영·신 미 영

발행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경기문화재단 6층)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

인쇄 : 2007년 12월 24일

발행 : 2007년 12월 31일

인쇄처 : 국학자료원 (02)442-4623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7-11 현영빌딩 2층

편집위원 : 신 일 균·한 동 역

---

이 책자는 경기도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음 <비매품>

- |                                    |     |
|------------------------------------|-----|
| 1. 顯節祠와 三學士                        | 박광운 |
| 2. 연구지리지에 나타난 양주 건치 연혁 고찰          | 홍정덕 |
| 3. 서삼릉                             |     |
| - 능역의 능묘와 태실 등에 대한 고찰 -            | 김득환 |
| 4. 경기지역 민요가창자 연구                   |     |
| - 경기 남부지역 이희완과 경기 북부지역 황상복을 중심으로 - | 최자운 |
| 5. 성남지역 교통과 통신연구                   | 한동역 |
| 6. 해월 최시형의 생명사상                    | 조성문 |
| 7. 안양 날피농악 小考                      | 박준호 |
| 8. 浦口에서 巷口로의 變化過程 考察               |     |
| - 蔚珍郡 竹邊灣의 文化變容 事例를 中心으로 -         | 이태호 |